

空軍

1982

AIR FORCE



그동안 펼쳐진 역사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자기의 사상·이념·체도를 앞세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통일만을 고집하는 한 통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은 장구한 세월을 걸쳐 한 핏줄, 한 역사, 같은 문화와 같은 전통을 이어온 하나의 민족이라는 입장에 서서 이를 해결하려 할 때라야 비로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은 어느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의하여 독집적·배타적으로 주도되어서도 안 되고 무력 또는 폭력의 방법으로 추구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통일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거래 전체의 자유의사가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 金斗煥 대통령 말씀 중에서 —



民族和合 民主統一 방안 천명

— 全斗煥 대통령, 새해 국정연설에서 —

全斗煥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새해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 전체의 통일의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킬 것을 북한 당국에 제시했다.



— 〈空軍 第178·179合併号〉 —

卷頭言

政訓監 姜容求 (2)

새 太平洋時代に 생각한다 尹宗鉉 (4)

「올림픽 국민」으로서의 바람직한 精神姿勢 池龍雨 (9)

특집 I / 세계 속의 한국

民主政治와 民主生活 朴錫均 (15)

韓國經濟 再跳躍의 戰略 李滿基 (22)

創造的 民族主義 張正孝 (37)

正義社會 具現을 위한 國民的 倫理 金雨植 (49)

특집 II / 새시대 민족의 좌표

新冷戰時代를 맞은 韓國의 安保 文道彬 (55)

에너지戰爭과 海外資源開發 朴熙天 (61)

民主市民과 意識革命 류근일 (66)

「韓國美術 5千年展」이 거둔 成果 吳光洙 (72)

現代國防體制와 美國의 當面課題 李善浩 (89)

韓半島와 國際情勢 變遷過程 白奉鍾 (99)



論 文

韓國의 安保環境 徐 鎮 泰 (77)

金日成 主体思想의 形成背景과 그 實態 洪 鍾 道 (172)

人民民主主義 革命論 批判 編 輯 室 (180)

航 空 · 軍 事 · 科 学

SU-24 戰爆機 李 建 淳 (106)

蘇聯戰術防空의 發達과 運用實態 崔 良 洙 (117)

TORNADO F-2 機 朴 鍾 彦 (129)

單 · 複座戰闘機의 比較 양 광 석 (145)

A / FAC 一般論 권 재 상 (152)

優秀戰闘操縱士의 條件 朴 范 鎮 (158)

— 國 難 克 服 의 열 —

民風振作과 金宗直의 孝觀 (186)

金欽春將軍 三代와 花郎精神 (190)

空 軍 漫 像 鄭 雲 燮 (105)

단 편

파란빛 파리떼 俞 金 浩 (194)



◇ 「탱크킬러」 A-10機 전개 환영식 거행 <3, 3> ◇



워싱턴에서 출발한 A-10기를 맞이했다.
 유엔한국재건위원회(UNCKRC)에 바쳐진 A-10기 1000호는 영미군
 이 기립스에 周永福(주영부) 장군이 워싱턴에서 영미군에 바친다.



◇ 全軍指揮官會議 開催 (81. 12. 22) ◇

82年度 역점사업 및 당면과제를 중점 논의

◇ 준장 이 재규 외 12명으로부터 장군 진급
신고를 받고 있는 李喜根 참모총장 (1. 1) ◇





◇ 한 걸음을 다진다 (1.7) ◇
 어제와 오늘의 보라매가 무궁한 날들과 영원

周永權 국방부장관 (前 공군참모총장) 과 함께 악수를 나누는 李喜模 참모총장





◇空軍 第 9 期 R. O. T. C 교육수료 및 입관식 거행 (航空大學 대강당 2, 24)◇

이날 영예의 국방부장관상은 우 광호 소위가, 참모총장상은 조 진규 소위가, 교육사령관상은 한 광호 소위가 각각 차지했다.



◇ 空軍精神戦力指導委員会 개최 (제 1회의실, 2. 5) ◇



◇ 82년도 제 1차 정훈참모회의 개최 (2. 12) ◇

이날 「정훈장교의 道」 5개항을 제정, 정훈장교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 특별강연회 개최 (2. 20) ◇

3대 부장심리 추방과 새시대 인간상을 강조하는 차 完一教授



空 軍

제 178 · 179 합병호
— 1982년 제 1 호 —

參謀總長 統率方針

完璧한 領空防衛態勢 確立

恒 · 時 戰 場

精 兵 強 軍

節 用 增 強

空 軍 本 部

새 해 의 새 決 意

政 訓 監 大 領 姜 容 求

봄의 새 氣運이 大地에 밀려온다. 深山幽谷의 殘雪마저 녹아 연못을 채우고 있다. 「春水滿四澤」이라 읊었던 도연명의 착상 그대로이다.

분홍기운이 스쳐간다. 아직도 완전한 봄은 아니건만 추위를 이겨낸 敏感한 季節感覺 때문일까? 迎春의 禮삼아 「大吉」의 春帖子를 太門에 붙였던 祖上들의 지혜를 닮아서일까? 아니면 酷寒을 이겨낸 대견함에 스스로 맛보는 喜悅 때문일까?

그것보다는 自然의 攝理 속에 봄이 지닌 사랑과 平和, 自由와 正義 그리고 어머니 마음같은 寬容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通禁」, 「校服」같은 묶임을 풀게 한 成熟한 溫氣, 그리고 白衣民族의 所望인 祖國統一을 이룩하자는 平和의 熱氣는 結氷의 北韓땅을 녹여야 할텐데……. 自然의 順理와도 같은 民族의 所望을 拒否하는 金日成의 검은 속셈은 무엇인지, 恨스럽기 그지 없다.

지난 1월 22일 全斗煥 大統領 閣下께서는 國政演說을 통해 民族統一에의 새 里程碑를 제시하셨다. 즉 남과 북의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民族統一協議會를 구성하고, 이 협의회에서 統一憲法을 共同起草하여 國民投票로 憲法을 確定시킨 후에 이 憲法을 토대로 總選舉를 실시하여 統一民主共和國를 完成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기본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본조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暫定協定」을 체결코자 7개항의 원칙이 구체적이고도 조직적이면서도 실현가능성 있게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는 허구에 찬 「高麗聯邦制」만을 거듭 주장하면서 거부하고 말았으니…….

三千里 錦繡江山을 하나로 이어 빛나는 統一祖國을 새롭게 키워 나가려는 간절한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들의 음흉한 속셈이 끝나는 날은 과연 언제일까를 생각할 때, 中國의 詩聖 杜甫의 詩句가 떠오른다.

「江碧鳥噏白 山青花欲燃
今春看又過 何日是歸年」

(강은 푸르니 새 더욱 희고
산이 푸르니 꽃은 붉게 타터는데
금년 봄도 또 지나가는 걸 보니
어느 날이 돌아갈 해이뇨)

간절한 심경 그대로이다. 6천만 겨레의 간절한 소망, 통일의 그 날이 언제나 올 것인가?

아무리 추웠던 겨울도 새 봄이 오면 따사로움이 들고, 구슬픈 이별도 만남의 날이 있건만, 한 덩어리 한 켓줄 조국 대한의 통일은 왜 그렇게 힘든가?

이제 우리나라엔 自律化의 意志가 널리 퍼지고, 개방에의 문이 활짝 열리었다. 繁榮을 向한 跳躍의 발판도 닦아 놓았다.

대통령 각하의 統一意志는 바로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부여된 使命完遂에 總力邁進해야 할 것이며, 北傀가 赤化野欲을 버리고 大和合의 場으로 나오기를 끈기있게 기다리며 즐기치게 노력해야 하겠다.

自由大韓에 봄이 온다. 統一의 大道가 밝혀졌다.

새 太平洋時代에 생각한다

— 그開幕과 우리의 役割 —

世界속의 韓國、그리고 信賴받는 韓國으로서의 發展을
위해 우리 自身の 努力과 進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尹 宗 鉉

<韓國日報·論說主幹>

< I >

제5공화국의 발전과 더불어 韓國은 분명히 太平洋時代의 넓은 門을 열며 깊숙이 진입해 가고 있다. 「푸르른 太平洋시대·偉대한 太平洋시대」라는 표현은 우리들의 피부감과 의식 속에 평범할 정도로 젖어든 80년대의 유행어가 되었다.

그것은 이제 西歐보다 아시아·太平洋지역이 더 중요한 國際舞臺가 된 것을 뜻한다. 政治, 經濟, 文化的으로 그런 변화의 方向이 내다보이며 특히 平和安定과 開發繁榮의 진척을 이곳 舞臺에서 기대하려는 나라마다의 志向이 뚜렷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韓國은 東아시아·太平洋지역의 한 나라이다. 그러므로 이 지역 모든 나라들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으로선 유일한 分斷國家이다. 어려운 與件과 環境을 극복하면서 남들이 늘라는 國家발전을 이룩하고 나라의 平和的 統一을 추구하는 域內 고범국가에 속한다.

특히 10·26사태 후의 일시적인 내부혼란과 北으로부터의 위협을 슬기롭게 수습하면서 民主福祉國家건설의 깃발을 나무끼며 진진하는 새 共和國의 映像은 세계 많은 나라들의 깊은 關心과 敬意를 사게 되었다.

美國을 비롯한 友邦들은 물론 非敵性共產國들 역시 마찬가지다. 北韓共產집단 또한 적지 않은 두려움과 조바심으로 우리의 現實을 평가치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데 따르는 남들의 競爭對象의식이 상대적으로 부푸는 사실 또한 외면할 수는 없다.

그에 보태 韓半島를 둘러싼 주변강국간의 力學관계 변화는 크게 일렁이고 있다. 對蘇전

제를 목표로 70년대 후반부터 점차 친해지던 美·日·中共관계는 요즘 協力체제, 連繫체제를 계속 무르익혀가는 참이다. 環太平洋시대의 도래도 밝게 드러져가고 있다.

域内の 平和발전과 共同번영을 위해 긍정적인 현상임에 틀림없다. 또 이는 분명히 對南暴力赤화를 노리는 北韓집단에 重大한 打撃을 가하는 반면 우리가 추구하는 繁榮발전과 平和的인 祖國統一노력을 고무 격려하는 상황전개이다.

이제 앞으로 나라의 危局을 물리치며 새로운 前進태세를 정비하고 밖으로 北韓집단보다 유리한 國際的 氣運을 포착하면서 원대한 太平洋時代의 開幕에 도전, 그 한 主體로서 洋洋한 域内に 무지개를 퍼보려는 韓國의 意志는 확실히 世紀的·歷史的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II >

그 구체적인 展開는 우선 연초에 있었던 全斗煥대통령의 訪美外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었다. 10월 11일간의 여정으로 1월 28일 출발했던 全대통령의 訪美성과는 韓·美同伴의 새地平을 열과 동시에 두 나라를 軸으로 하는 太平洋時代의 푸른 水平을 전개케 하는 것이었다.

그 美國방문과 레이건大統領과의 韓·美頂上會談의 개척은 우선 레이건 美대통령이 취임후 첫 손님으로 맞이한 友邦國 元首로서 양국이 가장 가깝고 중요한 盟邦임을 세계 앞에 과시한 셈이었다.

그것은 기존 紐帶의 단순한 再確認정도에 그치지 않은 前向的이고 지속적인 意義를 내다

보게 한 성사였다. 平和와 安定의 유지 발전을 위해 앞으로 상호 信賴의 바탕에서 최신을 다하는데 대한 「保障과 寄與」의 새 局面開拓을 自信갖고 대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80년대 초반에 서울이 「새時代」건설을 다짐하고 워싱턴이 「中共時代」개막을 선언하는 時點에서 두 나라 새 指導者간에 座標認識과 相互信賴에 걸쳐 意氣投合이 이루어졌음을 관측케 하였다.

그로써 지난 70년대의 「불편했던 관계」는 양국의 政府관계 뿐만 아니라 두 국민의 心情에 걸쳐 말끔히 해소되고 새로운 내일에 관하여 더 많이 말하고 또한 힘을 모을 수 있는 轉機가 도래했던 것이다.

韓·美 頂上會談의 共同聲明은 무엇보다도 韓半島의 戰略的 重要性, 그리고 東北亞에서의 平和와 安定유지의 緊요성에 관한 共同認識의 바탕위에 相互防衛條約의 확고한 준수를 다짐하였다. 구체적으로 종전에 云謂되던 駐韓 美 地上軍 철수계획은 白紙化되었고 韓國軍의 戰力증강을 위한 進一步한 지원이 약속된 것이다.

나아가서 韓國의 平和統一外交政策과 南北對話 再開노력에 대한 美國측의 積極적 지지가 천명되었으며 특히 韓國의 그 대화재개노력 및 全대통령의 1·12對北提議에 대한 美國의 支持를 뚜렷이 하였다.

그뿐 아니라 北傀측이 노리던 對美直接協商 제의를 거부하고 韓半島를 에워싼 對中·蘇관계에서도 韓國의 주장에 따른 相互主義原則을 견지할 것이 확실히 천명되었다.

이는 韓國의 安保 뿐만 아니라 東北亞의 平和를 확보하는데 있어 크게 이바지할 合意의 성립을 뜻한다. 北傀의 오관을 막고 또 그 背景國들의 對韓政策에 관한 合理的 調整을 긴

眼目에서 촉구하려는 포석이다. 韓國의 國內 정치안정과 國際地位향상을 위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측정케 할 수 있는 요목이라 하였다.

이러한 合意는 또한 世界戰略의 要衝에서 韓國이 믿음직한 軍事, 政治, 外交의 力量으로 健在하며 北傀의 南侵企圖를 제어하고 蘇聯의 팽창주의를 견제함으로써 太平洋國家인 美國에 지극히 귀중한 寄與가 될 것이다. 美國은 또 韓國防衛에 관한 不退轉의 公約준수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이 地域을 起點으로 하여 全地球의으로 同盟國다운 信賴感을 확산시킬 수 있다.

흔히 새 韓·美관계를 가리켜 「성숙한 同伴者」로 지칭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相互依存性과 韓國의 自主의 기여도가 점차 確연해지는데서다. 그러나 GNP의 6%를 國防費로 투입하고 본시 부존자원이 적은 여건하에서 工業立國을 추진해야 할 우리의 처지인만큼 經濟의 對外依存度는 확실히 높다.

全·레이건頂上會談에서는 이런 문제상황을 또한 直視하면서 양국간의 交易 확대와 韓國商品規制완화, 米穀 및 에너지수요에 대한 호응·지원을 美측은 보장하였다. 나아가서 두 首腦는 環太平洋地域의 더욱 폭넓은 國際協力の 進進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하기도 한 것이었다.

< III >

太平洋시대는 韓·美頂上間의 이런 合意로서 鼓動을 높게 울리기 시작하였다. 그 開幕을 바라보면서 두 나라 사이의 安保, 經協관계는 連帶性을 더욱 確고히 해 갔다. 한때의 어색했던 모든 사연을 정리하여 보다 새로운

내일의 同盟을 내다보게 한 것이다.

그에 따라 작년엔 열리지 못했던 年例安保會議이 일찌감치 올 4월에 열리고 年例政策협의회, 經濟협의회가 뒤따르는가 하면 文化協力위원회도 발족하였다. 아시아·太平洋 지역의 平和와 安保上 차지하는 韓國의 위치를 감안하면서 국제사회에서 安保와 經協의 不可分性을 강조하는 레이건行政府의 성향은 그 對 共강경정책과 더불어 매우 진해지고 있다.

이런 韓·美관계의 進展을 배경으로 새 太平洋時代를 맞는 두 번째의 點火는 全대통령의 아시아 5개국 巡訪에서 당겨졌다. 6월 25일부터 14박 15일간의 긴 일정으로 東南亞國家聯合(아세안) 5개국 즉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泰國, 필리핀을 각각 방문한 그 頂上外交는 세계 속의 韓國像과 아시아의 새 協力紐帶를 다지려는 우리 外交里程의 한 雄飛였다.

2월 美國방문에 이어 太平洋시대 頂上外交의 다음 대상지를 아세안諸國으로 선택한 것은 우선 아세안地域이 地理的으로 가까우면서도 5개 복수국가로 구성되었고 韓國에 대한, 특히 우리 經濟발전, 國家개발에 대한 그들의 認識이 깊어 국제외교의 한 鬚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였을 것이다.

보태서 그 모든 나라들이 中立을 표방하면서도 親美, 親西方的인데다 自由民主체제를 갖추고 있음은 물론 지난날 남의 압제를 받은 經歷이나 오늘의 經濟개발을 위한 指向性이 우리와 흡사하여 開發協力추진에 公同된 人연을 또한 찾을 법 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成果는 과연 빛나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韓國으로 하여금 앞으로 도래할 「새 太平洋時代」에 찬연히 빛날 「東方의 별」이 되게 하는 前向的 可能性을 아로세기게 한 점을 먼저 특

기할 수 있겠다.

일련의 頂上會談과 記者會見 그리고 觀察여행과 각종 환영행사 참석을 통해 全대통령은 그의 솔직하고 소탈한 인품과 大度로 하여 5개국 지도자 및 2억 6천만 현지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야흐르 韓國과 아세안 5개국간에는 상호 補完的 協力을 다지는 新時代 진입의 整地作業이 이룩된 셈이다. 나라에 따라 특색있는 協力내용—예컨대 인도네시아와의 原油공동개발합의, 말레이시아와의 漁業合作진출, 싱가포르와의 海運분야협력확대, 泰國경제개발에의 참여, 필리핀의 製鐵공업개발지원같은 부분이 없지는 않았으나 보다 더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순방 성과의 대목을 이렇게 간추릴 수 있게 하였다.

첫째, 政治·外交·安保면에서 基調로 된 것은 韓國과 아세안 諸國간의 다자적인 共感帶형성이며, 또 공통적 座標인식의 확립이다. 한결같이 平和와 安定 속에 開發 및 번영을 추구한다는 目的의식이 일치한 것은 가장 소중한 協力증진의 바탕으로 되어 있다.

또 같은 開發途上國인 生방들은 開放的 自由市場經濟를 유지하며, 非同盟外交를 추진하면서도 현실적 安保위협의 來源이 어디인가를 명백히 관측하는 공통적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 全대통령과 訪問國頂上 및 首腦人士 사이의 共同聲明은 韓半島를 주축으로 한 東北亞의 安定과 平和가 東南亞의 그것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으로 韓國의 平和統一-外交政策과 南北韓 유엔同時加入案 그리고 1·12 및 6·5 對北提議에 대한 아세안 諸國의 지지가 淸명되었다.

다른 한편 韓國은 아세안 友邦들의 對印支半島政策을 포함한 對外政策과 安保的 紐帶感에

대한 지지를 다짐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非同盟外交의 多邊的 積極化를 내다보게 하는 동시에 國際政治무대에서의 상호 協力증진을 확신 갖고 展開케 하는 좋은 계기의 마련이었다.

둘째, 巡訪外交의 두드러진 성과 중에는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과 개척여지를 바라보게 하는 經濟協力の 증진이 유난하게 부각되어 있다. 잘 알려진 것 처럼 아세안 諸國은 세계 屈指의 부존資源과 풍부한 人的資源 그리고 폭넓은 市場性을 지니고 있다.

그런가 하면 韓國은 같은 開途國이면서도 그동안의 工業化경험과 技術人力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 合作投資의 局面개척, 새마을운동의 경험 및 기술이양을 다질 수 있는 입장이다.

셋째, 그밖에 또 韓國과 아세안 友邦國들이 일부 先進國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새 國際經濟秩序를 위한 지향에 있어 인식일치를 보였다는 사실을 치들게 한다. 아세안 諸國의 經濟開發에 대한 참여와 協力の 자세에 있어 일부 先進國의 형태에 드러난 거래상의 高姿勢라든지 技術이양의 인색성 등 편향은 韓國의 同伴者的 協力자세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 IV >

보태 뒤야 할 수확은 그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國際的 지위가 결코 부각되고 폐쇄사회인 北韓과 南韓의 自由開放사회와의 차이는 누가 봐도 확연하게 되었다. 美國방문이나 아세안 巡訪 때마다 현지 僑胞들의 공지와 감명은 끊이올랐으며, 내외 모든 國民들의 애국심·사명감은 훨씬 고조되는 것이었다.

訪美前까지만 해도 좀冷하던 日本의 스즈끼(鈴木)政權이 韓·日頂上회담을 호소하게 되고 머지 않아 「프뢰도」 캐나다 首相의 來韓이 예정되 있기도 하다. 역시 새 太平洋시대와 호흡을 같이하는 接近들이라 할 수 있으며 日本政府의 자세전환과 더불어 韓·日관계는 벌써 外相會談, 閣僚회의, 議員聯盟회의 등을 거치면서 頂上會談을 위한 整地작업을 진행시키는 중이다.

물론 그렇다고 80년대 韓·日관계의 再定立을 바라는 우리 측의 목표가 그리 쉽게 타결될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韓·美 關係에 이끌리며 安保 및 經濟면에서 對韓協力을 하지 않을 수 없는 日本의 처지이고 보면 「공짜安保」의 利己를 벗고 亞·太地域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그의 時代的 책무는 어떤 형태로든 더 부과돼 갈 것이 틀림없다 하겠다.

이처럼 우리 韓國과 美國을 軸으로 하며 양국이 主導하는 새 太平洋時代는 날로 活力과 활기를 더해가고 있다. 蘇聯을 비롯한 共產勢力의 침투를 막고 自由民主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를 전진시키면서 域內의 공동번영을 期하려는 理想과 設計 및 進行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 한 嚮導役을 감당하고 있는 韓國, 韓國國民의 역할과 책무는 확실히 세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第5共和國의 새時代를 開花시키는 使命의 열쇠와 지름길 또한 바로 그 完遂에서 찾아져야 함이 분명하다.

그 앞에 우리는 첫째로 새 太平洋시대의 主役으로서 자체의 내부 安定基調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모처럼 부른 해외동포사회의 새 기운까지 습치면서 온갖 부문에 걸친 밝은 建設과 團結, 공헌으로 同參의 날개를

펼쳐나가야 한다.

둘째, 이미 확보한 성과를 놓칠없이 다지고 확대시키며 活着시킬 일 또한 있어 안 되겠다. 이 경우 모든 상대방과 우호, 친선을 앞세우고 同伴者的 상호보완 및 실적을 추구해야 하며 어떤 優越感이나 일방적인 利害타산에 집착하는 자태는 삼가해야 한다. 지난날 植民시대를 경험한 東南亞시대 여러 나라에선 이 點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셋째, 밖으로 美國과의 紐帶關係를 보다 돈독히 함은 물론, 안으로 開發과 近代化의 본보기로서 우리 자신의 自體確認을 실질화하는 가일층의 분발이 촉구된다. 특히 科學技術의 향상과 자본축적에 관한 획기적인 개선을 기해야 할 것이다.

네째, 우리와 아세안 友邦들의 實質協力증진에 대하여 北傀 등 일부 바깥세력이 질시와 방해공작에 충동을 느끼게 될 가능성에 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방면적인 對應자세정비에 빈틈이 없어야 하는 한편 다른 進出競爭國들에 대한 경계 또한 소홀히 말 일이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강조될 것은 「세계 속의 韓國, 그리고 信賴받는 韓國」으로서의 發展을 위한 우리 자신의 노력과 진진이다. 그리고 友邦國들과의 「協力の 확대」에 즈음한 우리의 자세는 「어디까지나 正直해야 하고 相互信賴를 基調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當爲性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新生, 開途國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活力과 가능성을 지닌 동시에 民族的 自矜心에 관하여 매우 민감한 것이 사실이다. 영예로운 希望과 期待에 실례하면서도 長期의이고 벽찬 役割과 課題가 우리들 어깨에 걸려 있음을 다가선 太平洋 새時代는 가리켜 주고 있다.

바덴바덴의 壓勝이 뜻하 는 것

韓國이 세계 16번째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두번째로 올림픽 개최국이 되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말이 쉽지 올림픽이라면 汎世界 최고 최대의 스포츠 祭典으로서 그 방대한 예산과 경비 때문에 웬만한 선진국들조차 선뜻 유치할 엄두를 못내는 거창한 행사인 것이다. 하물며 韓國과 같은 開發途上國이 그런 世紀的 壯치를 베풀 개최권을 획득했다는 것은 분명 하나의 驚異임에 틀림없다.

근대 올림픽 史上 개발도상국으로서 올림픽 대회를 개최한 나라는 멕시코(68년) 밖에 없었다. 멕시코가 先例를 남기기는 했지만 개발도상국가이자 동시에 分斷國으로 올림픽을 치른 나라는 아직 없었다. 분단국으로는 西獨이 72년 윈헨올림픽을 치른 바 있으나 西獨은 선진국이므로 사정이 다르다. 그러니까 開途國이자 分斷國이란 2중 硬터캡을 안고 올림픽을 주최하는 나라는 韓國이 처음인 셈이다.

지난 9월 30일 바덴바덴총회에서 한국의 서울이 日本의 나고야를 압도적 표차로 물리치고 88년 夏季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되었을 때 세계가 놀랐던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우기 北韓의 끈질긴 방해와 일본의 오랜 유치운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壓勝한 것은 한 마디로는 설명될 수 없는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순수 스포츠 理念的으로는 국가와 人種과 종교와 정치를 초월하는 올림픽정신의 승리라고 우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외교적으로는 大韓民國의 국

올림픽이란 智·德·體의 三位一體가 총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는 바, 國民 모두의 단합된 힘과 獻智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바람직한 精神姿勢

「올림픽 國民」으로서의



池 龍 雨

<京郷新聞·論說委員>

제적 지위가 그만큼 신장됐음을 뜻한다. 국제적 지위의 신장은 튼튼한 國力의 뒷받침이 없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신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한국의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사실을 反證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票의 분포를 보아 中·南美勢力을 비롯한 제3世界 邦의 상당수와 일부 共產黨까지도 「서울참성」에 가담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한국의 눈부신 國力성장과 韓半島에 있어서의 정치적 正統性, 靑도에 오른 서울市の 올림픽 준비작업, 올림픽의 先進國 獨占경향에 대한 제3세계 회원국들의 반발 등 複合的인 요인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어느 의미에선 바덴바덴의 승리는 올림픽 유치성공이라는 단순한 의의를 넘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한국의 영향력 증대를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름다운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앞으로 7년. 7년 뒤면 젊은 좋은 우리는 올림픽의 「호스트(주인)國」이 될 수 밖에 없다. 7년이래야 긴듯 하면서도 짧은 기간이다. 이제부터는 올림픽 유치의 감격과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한 기분으로 돌아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들이 서울을 선택한 것은 한국의 국력과 대회개최 능력을 신임한 때문이며, 신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계에 대해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大韓民國이 선진국도, 경제대국도 아니라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이 이제 한창 뻗어나는 개발도상국의 하나라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국의 수도 서울을 택한 것은 결코 화려하고 웅장한 올림픽 시설을 기대하기 때문

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地球의 輿地에 있는 珍奇한 나라에 대한 호기심의 발로 같은 것은 더더구나 아닐 것이다.

다만 極東의 이 작은 문단국이 그 만만치 않은 국력이나 국민의 意慾을 보아 올림픽도 능히 치러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주어보자는 생각이 以心傳心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여겨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7년간 대회준비를 하는데 필요 이상의 재정적 壓迫이나 強迫觀念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선블리 선진대국을 흉내내다 참가국들로부터 冷笑를 사느니 보다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韓國的인 맛과 個性을 살려 지구가족의 마음 속에 강렬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文化의 올림픽」에서도 金 메달을

良識있는 지성인들의 여론은 「88 서울올림픽」을 스포츠 만이 아니라 「文化의 올림픽」으로도 昇華시켜 보자고 호소한 바 있다. 올림픽을 주최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文化민족의 自尊과 긍지를 지켜 「문화의 올림픽」에서도 금메달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開國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를 올림픽이야 말로 우리 韓民族이 당당한 文化민족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두 번 다시 없는 좋은 기회이다. 사실 우리의 이웃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세계인들에게 비친 한국은 아직도 中國이나 日本文化圈에 종속돼 있는 弱小國의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울올림픽은

우리가 독자적인 역사와 유구한 전통을 가진 문화민족임을 세계인에게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올림픽이 스포츠外的으로도 얼마나 큰 比重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는 歷代대회를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되었다.

68년에 開途國으로서의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을 주최한 멕시코가 금메달을 몇 개를 땀는지는 기억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세계인들은 올림픽기간에 목격한 찬연한 마야 文明의 매혹만은 좀처럼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없을 것이다.

멕시코는 올림픽을 활용한 傳統文化紹介에 크게 성공, 묻혀있던 마야문명에 대한 새로운 세계적 각광을 받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부수적으로 멕시코觀光붐을 일으킨 바 있다. 日本도 역시 도오쿄올림픽 기간 중 전통예술인 「노오」(能)와 「가부끼」를 비롯해 女性服裝 2천년展, 찻잔전시회, 꽃꽂이전시회, 심지어 日本刀전시회에 이르기까지 순전히 「日本の인 것」을 외국인들에게 심어주는 데 주력했다.

올림픽 발상지인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이기 이전에 춤과 노래와 技藝가 있는 문화의 饗宴이었다. 그러므로 「문화」가 배제된 올림픽이란 삭막하고 냉랭한 메달경쟁일 따름이다. 역대 올림픽이 그러했듯이 전통적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들은 경기 프로그램 못지않게 예술전시와 民俗행사들 중요시하는게 관례처럼 되어 왔다. IOC 헌장에도 높은 수준의 예술전시(건축, 음악, 회화, 조각, 사진, 교향악단 등)를 반드시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림픽대회는 세계의 젊은이들이 체육의 기량을 겨루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행사도 피크를 이루는 종합예술행사

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사 대회운영과 조직력이 다소 미숙하다 하더라도 대신 문화, 예술부문서 참가 작곡 선수와 임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을 수만 있다면 그러한 미숙은 능히 커버되며 「성공적」이란 평가도 받을 수 있다.

어떤 것이 「韓國的」인 올림픽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論者에 따라서 견해가 구구할 것이므로 앞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연구해 볼 문제라고 본다. 다만 이 千載一遇의 기회를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전세계에서 몰려 올 선수 및 임원과 관광객들에게 「한국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가장 韓國的인 문화유산과 風物들」을 유감없이 보여주도록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짜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앉아서 한국의 모든 것을 세계인들에게 깊이 浮刻시켜 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써가면서 「韓國美術 5천년展」의 美國순회를 비롯해 민속예술공연단, 國樂연주단 등의 해외파견을 추진해 왔다. 그 경비의 10분의 1만 들여도 서울 올림픽기간 중엔 그 몇 10배 아니 몇백배의 홍보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당장 생각해 낼 수 있는 것만 추려보아도 순수 「韓國的인 것」은 너무도 많다. 「韓國미술 5천년展」만 해도 훨씬 큰 규모의 國寶級 문화재 보물 등이 총망라된 전시장을 서울과 慶州에 나누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民俗競演대회도 각도의 無形문화재와 土俗문화를 망라해 외국인들의 눈에 흥미진진하게 보이도록 엮을 수 있고 그밖에 國樂연주공연, 한국 工藝展, 전통오페라에 해당하는 唱과 굿, 탈춤, 農樂 등 얼마든지 있다.

바람직한 文化國民의 姿勢

이 모든 物理的 조건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品位있는 文化國民, 文化市民의 精神자세를 갖추는 일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신자세는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와 전통 속에 은연 중에 형성되어 온 內的 自覺이며 自尊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올림픽을 주최하는 국민으로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7년 안에 얼마든지 改善할 수도 있는 意識의 世界라고 본다.

우리가 아무리 올림픽을 시설과 조직, 운영 면에서 완벽하게 치른다고 해도 만일 無秩序, 不道德한 시민像이 異邦人들의 눈에 비친다면 코리아의 이미지는 두고 두고 나쁜 것으로 투영될 것이므로 결국 서울올림픽은 실패작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로 品位있고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한 文化國民의 기품을 보여 줄 수만 있다면 실혹 진행과정에 실수가 있다 해도 韓國國民의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부각될 것이다.

陳腐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東方禮儀之國으로 알려져 왔다. 長幼有序, 男女有別, 謙讓之德 관념 등이 유독 까다로왔던 것도 우리 나라에만 있던 독특한 질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儒敎의인 영향탓인지는 몰라도 지난날에는 오히려 너무도 지나칠 정도로 禮儀凡節이 까다로왔던게 우리 민족이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變質되기 시작 어느덧 부도덕하고 불염치한 群像들이 많아지

게 된 것이다. 출서기 보다 새치기를 要領의 본분으로 착각하고, 거리에 침을 마구 뱉고 휴지, 콩조 등을 함부로 버리며,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을 능사로 삼는 商道義不在 등이 활개치는한 文化國民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우리 韓民族의 본바탕에는 없던 이런 惡習과 弊風들은 분명히 日帝 36년 통치기간에 생성된 민족성의 屈折현상이며, 해방 36년간 퇴폐적 西歐문화의 무비판, 무차별 수용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밴 제2의 天性인 것이다.

이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역사의 受難期와 과도기에 생성된 이같은 악습과 폐풍을 말끔히 몰아내고 우리 민족 본래의 美風과 良俗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반드시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이같은 버릇은 국가발전, 민족번영의 장애물이 된다는 점에서도 하루 속히 추방되어야 할 정신公害인 것이다.

「나」 아닌 「우리」의 意識의 重要性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正直, 질서, 創造의 기치아래 사회淨化운동을 거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의로운 민주福祉사회」를 구현하자면 먼저 그 整地작업으로서의 사회淨化부터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역사의 변혁기에 정부 주도로 단행된 사회정화운동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1년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끼어있던 묵은

때와 不條理를 씻어낸 것이 사실이다. 사회정화운동으로 해서 이제는 어디를 가도 공공연한 賂物행위나 反秩序사범은 보기 어렵게 되었다.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민원부조리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이 국민의 「意識改革」으로까지 연결되려면 아직도 요원한 상태다.

국민 개개인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우리」보다 「나」와 「내가족」이란 利己가 훨씬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 그것이 「先公後私」의 大我관념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받는 문화국민이 될 것이다.

두 서너사람만 모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차례로 줄을 설 줄 아는 질서의식이 아쉽다. 교통순경이 없는 곳에서도 스스로 엄격히 교통신호와 표지판대로 움직여주는 운전자들의 自律性이 아쉽다. 우리는 日本人들을 「섬나라根性」이니 「경제동물」이니 혹평하면서도 그 몸에 밴 親切性을 본받는 데는 인색하다. 그네들의 친절을 감흥도 없는 「기계적인 친절」이라고만 비꼬울 줄 알았지 그 기계적인 친절이나 마 답아보려는 노력은 추호도 하지않고 있다.

올림픽은 冒頭에서도 강조했듯이 단순한 체육祭典만은 아니다. 이를테면 智·德·體의 三位一體가 종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림픽은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몇몇 사람의 머리와 手腕만 가지고는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 온 국민이 호흡을 같이하는 단합된 힘과 叡智가 절대 필요한 것이다. 우선 한꺼번에 지구상의 온갖 種族을 손님으로 맞게 되는 우리 국민에게 있어 무엇보다도 긴요한 것은 친절하고도 성실한 접대정신이라 하겠다. 물론 그것이 「비굴한 친절」이나 분수에 넘치는 「과잉 서어비스」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마

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친절과 분수내에서의 봉사가 요청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깨끗한 생활환경을 지금부터 가꾸어 異邦人들에게 淨潔한 코리아의 인상을 심어주는 일이다. 그러자면 공중도덕을 철저히 지킬 줄 아는 문화시민의 자세와 증거가 필요하다. 거리에 침을 뱉는 일, 휴지나 담배꽂이를 뒤는대로 팽개치는 행위, 차도를 無斷횡단하는 일, 경기장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빈병 마위를 집어던지는 행위 등은 절대금물이다. 경기장에서선 선수만이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를 지켜보는 스탠드의 觀衆도 장내 규칙과 질서를 잘 지켜 1등국민의 면모를 과시해야 하는 것이다.

「他律」아닌 「自律」秩序의 요청

한 나라, 한 국민의 문화수준은 질서의식의 높낮음에 따라 판가를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질서란 시민들의 自律的 理性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原初的 도덕규범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질서가 붕괴된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혼란과 혼돈과 불안, 不便, 不和만이 사회를 어지럽힐 따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값비싼 代價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인류공동의 善인 질서만은 기어이 이 땅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當爲를 안게 된다.

질서의 근본개념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이다. 一見 「질서」처럼 보인다고 모두가 질서는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질서란 他律이 介入되지 않은 자율질서를 가리킨다. 자율에 맡기면 지켜지지 않고 타율과 강제의 物理的 힘이 가해져야 비로소 유지되는 질서야말로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似而非 질서인 것이다. 교통질서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해방후 36년동안, 해마다 年中행사처럼 「강조기간」이다, 「특별단속기간」이다, 설정해 놓고 그 勵行을 강조해 왔지만 아직도 제대로 한 번도 지켜진 일이 없다. 효과는 그때 뿐, 그 기간이 지나기가 무섭게 다시 무질서로 돌아가곤 했다. 그리하여 「단속과 違反」의 끝없는 악순환 속에서 未完의 숙제인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주국민으로서 中進圈도 서서히 벗어나 先進圈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로서 여지껏 사회기강의 초보라 할 거리질서 하나 바로잡히지 않고 있대서야 어더 문화민족임을 자처할 수 있단 말인가. 하잘 것 없는 미물에 불과한 벌과 개미그리고 하늘을 즐지어 날으는 기러기의 세계에도 엄격한 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향차 萬物의 靈長임을 자처하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질서의식이 희박하다면 그야말로 語不成說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할 점은 시간관념이 정확한 국민이 되자는 것이다. 우리는 바야흐로 國際化시대와 개방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는 앞으로 비단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뿐 아니라 크고 작

은 각종 국제대회가 잇달아 열릴 것이다. 경기장 내의 시설들이 아무리 超 現代적이고 電算化되어 있다 해도 정작 경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시간관념이 희박하다면 非文化人이란 평가결하를 면할 수가 없다.

우리에겐 한때 「코리안 타임」의 불명예스러운 대명사가 불어다녔음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이 시간을 잘 안 지키는데 짜증이 난 어느 외국인의 입을 통해 유행하기 시작했다면 그 이상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한국인들의 시간관념도 많이 개선되어 「코리안타임」이란 한때의 유행어도 사라져 버린 감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모임에 가보면 正時보다 보통 5~6분 늦어지는 일이 흔하다. 延·發着이 잦은 KAL노선을 가리켜 어느 미국인이 「코리안 에어라인 올웨이즈 레이트」(Korean air line always late)의 略字라고 꼬집은 해학도 예사로 웃어넘길 일은 아닌 성 싶다.

아 물론 지금 우리는 88년 서울올림픽 및 86년 아시안 게임이란 2대 國際 스포츠 잔치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 두 국제행사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과 깨끗한 시민의식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文化市民의 높은 질서의식과 민주시민像을 보여 주도록 국민 각자가 배진의 노력과 自覺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을 다시금 강조해 둔다.

×

×

×

民主政治와 民主生活

民主的 價値觀이 國民 個個人에게 內面化되고 그것이 다시 生活로 表現됨으로써 政治的 民主主義는 이루어진다.

朴 錫 均

<KBS 研究委員>

1. 民主主義

2次大戰 이후 민주주의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신성 불가침의 시대 조류가 되고 있다.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던 파시스트가 패망하자 민중에 대한 민주주의의 호소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이어서 심지어 공산주의자들도 민주주의의 탈을 쓰지 않고는 배겨나지 못하도록 했다.

민주주의가 이처럼 普遍的으로 쓰이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빛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민주주의의 정의가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로 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정의는 링컨의 유명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과 「국민의」 정치란 히틀러나 스탈린까지도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非민주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한 기준은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정치냐 아니냐에 있다. 그러나 그 국민의 의한 정치라는 것도 그것이 정치의 社會化過程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로서의 권력구조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다. 제도로서의 권력구조가 서구 議會민주주의의 그것을 본따다든가 보통, 비밀, 평등 선거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곧 국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戰後 신생 독립국가들이 거의 예외없이 서구의 의회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정치實相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협잡, 매수, 협박, 탄압 등 허다한 不正선거가 판을 쳐, 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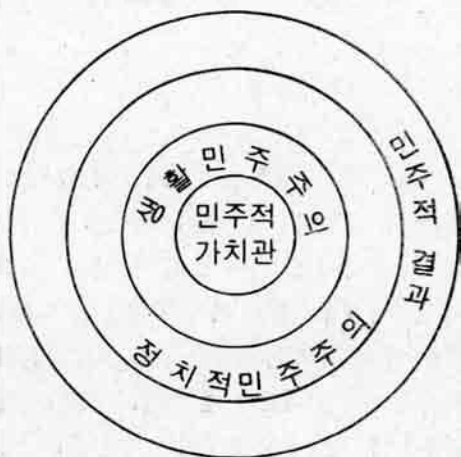
당만이 유리한 고지를 독점하고 있는 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이해함에 있어서 어느 한 면만으로 보아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서구의 현대 민주주의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멀리는 그리스시대의 도시국가(Polis)의 參政權시대를 거쳐 封建時代의 王과 領主間의 契約精神을 이어 받고 기독교의 萬民平等思想을 수용하면서 이것들이 現代의 으로 제해석되는 과정을 거친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역사, 철학, 문화, 정치 제도 등 다각도로 조감했을 때 비로소 그 實體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적 가치관이 국민 개개인에게 의심할 바 없는 가치관으로 內面化되고 그것이 생활로 나타나 일상화해야만 비로소 정치적 민주주의는 이루어지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만 민주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림>



이것을 다시 요약한다면 민주주의는 ① 이념과 가치관 ② 정치체제 ③ 생활민주주의의 3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정치체제란 사실상 민주적 이념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 민주주의의 외적 표면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전후의 신생 독립국들이 이같은 민주주의 본질은 외면한 채 오히려 외적 표현인 정치체제만을 중시해 온 경향이 있다. 후진국 민주주의가 실패한 원인도 따지고 보면 바로 이점에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민주주의적 가치관

그렇다면 민주주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 그 자체가 목적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手段으로 이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이 「인간」의 범주에서 평민이 제외된 적도 있고 노예가 제외된 적도 있다. 혹은 재산의 정도에 따라 또는 교육의 수준에 따라 「인간」은 신발된 사람만에 국한하는 수가 많았다. 오늘처럼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天賦不可浪의 權利를 가졌다고 認定되기는 근세에 와서나 이루어졌다.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인간을 믿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본시부터 善한 것이고 現代의이고 양심적이며 정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사회를 개인의 집합체로 보는 개인주의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결국 양심적이고 선

한 그리고 정의의 개개인이 모인 것이 사회이고 사회의 「一般意志」는 이 개개 인간들의 의사를 산술적으로 집합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개개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동양에서도 民心은 天心이라고 하는 人生존중의 사상이 일찍부터 발달해 왔으나 그것이 서양처럼 의회민주주의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동양의 인간이 가족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집단 속의 일원으로 간주된 것에 반해 서양의 인간은 독립된 개개인이 전제되고 그러한 개인의 집합체로서 사회를 파악하고 있는 개인주의 철학과 집단(가족)주의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양 문화의 에퍼크(Epoch)를 보면 동양은 대가족제도로 될 수 밖에 없었고, 서양은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 밖에 없었다. 서양의 원시사회는 유목사회였다. 유목사회는 혼자서 羊떼를 몰고 천하를 유랑하는 것이다. 독립된 개인으로 돌아 다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철학은 개인주의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양은 원시사회부터가 定着農耕社會였다. 정착농경사회는 천하를 유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뿌리를 박고 代代로 사는 것이다. 토지의 扶養능력은 유목농지보다는 농경농지가 훨씬 좁다. 따라서 자연히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많은 인간을 부양할 수 있는 농경사회의 특징이며, 여기서는 개인주의보다 대가족제도가 발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개인주의와 대가족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개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행동은 자유이다. 그러나 그 자유로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이 철저하게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자유이다. 이를테면 양떼를 몰고 다니

가 풀이 떨어져, 산을 넘으면 풀밭이 있을 줄 알고 양떼를 몰고 산 넘어에 갔더니, 그곳엔 풀은 한 포기도 없고 돌자갈 밖에 없었다고 하자. 그러면 양떼는 굶어 죽게 마련이다. 양떼가 굶어 죽으면 사람도 굶어 죽는다. 그러나 이 때에 굶어 죽는 책임은 양떼를 그리로 몰고 간 자기 자신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이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서양의 자유는 「자유」의 결과에 대해 자기 스스로 100%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자유인 것이다. 라스키 교수가 자유는 책임이다(Liberty means personal responsibility)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도 옳미해 불만하다. 이 밖에 자유에 대한 개념으로써 『자유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 때의 양심이란 「放從(License)이 아닌 책임질 수 있는 사고와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자유란 『나의 자유는 너의 자유의 조건이며, 너의 자유는 나의 자유의 조건』이라고 설명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나의 자유가 너의 자유를 해치지 않을 책임과 너의 자유가 나의 자유를 해치지 않을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스키의 말대로 한 마디로 『자유는 責任』인 것이다.

이에 반해 동양의 대가족제도에서는 개인의 행위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문벌, 가문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개인은 집단 속에서 자기의 책임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다. 어느 집안의 한 사람의 잘못은 그 개인의 잘못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 어른의 막내」라든가 「동생」의 잘못으로 치부되고 그 집안 전체의 잘못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한 집안에 탕아가 있고 생산능력이 없

는 불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문제 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문 안에서 부양되고 교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행위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역사상 한 번도 개인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다. 이것은 한국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시작하여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몬순지대(Monsoon)에 공통되는 현상이다. 때문에 이들 지역의 민족들이 말로는 민주주의를 부르짖지만 민주주의가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생활 민주주의의 실현없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달성하려고 한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동양문화를 흔히 臣民文化, 權威主義的文化, 儒敎文化 혹은 農耕文化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大家族制度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3. 민주시민 상

민주주의는 앞에서 누누히 얘기한 바와 같이 개인주의 철학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개인주의의 내용은 말할 것도 없이 자유와 평등의 이념으로 구성돼 있다.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다. 다만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개인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줄 모른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국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자유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주는 권리만을 달라는 것이다.

요즘 우리 나라에서도 核家族化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젊은 女性들이 결혼할 때는 친

가에서 되도록 많은 持參金品을 가져가려 한다. 이것은 분명히 대가족제도의 유물이다. 대가족제도 하에서 딸이 결혼한다는 것은 한 개인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家門에서 자기집 家人을 다른 가문으로 出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딸의 출가를 통해 자기집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持參金品은 많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現代여성도 대가족제도의 유물인 결혼 지참금품을 되도록 많이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核家族를 주장하며 시부모의 부양과 같은 대가족제도의 의무와 책임을 거부한다. 결혼은 대가족제도의 풍속대로 하되 살기는 核家族制下에서 살겠다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을 골라 선택하겠다는 利己主義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밀고 자유를 부여한 것이 동양에서는 에고이즘으로 변한 것이다. 이것은 문화적 역사적 전통이 다른 동양사회에 서양의 개인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접목한 결과라고 할 수 밖에는 없다.

평등의 이념도 동양사회에서는 다분히 왜곡되고 있다. 원래 평등은 「萬人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회의 평등이며 조건의 평등이지 사회적 지위나 富의 평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은 기회의 평등으로 이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는 나와 남이 同質 同量의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래서 남이 나보다 부자가 된다는 것도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남이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평등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리하여 남이 부자가 되고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 생겨나는 질투심과 시기심을

합리화 해주는 구실을 평등이 하고 있다.

이처럼 자유의 이념은 「이기주의」로 화하고 평등의 이념은 「질투심」으로 변신된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것이 될까? 그러나 실제로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일본에서 인도에 이르는 지역에서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것이 되고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여 그것을 土着化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평등에 따르는 分數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생활이란 바로 이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나 스스로 올바르게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자아의 발견과 계발

민주주의가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自我의 發見」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전통적 신분사회로부터의 자아의 발견, 神으로부터의 人生의 해방, 자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작성 등은 모두 자아를 발견하는 일이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 인간의 평가는 그가 소속한 집단이나 신분에 의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평가되게 되는 것이다. 한 인간의 노력과 능력 이외의 어떤 조건도 개인을 속박하지 않는다는 사회가 바로 「自覺된 自我」로 형성된 사회면 민주사회인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오랜 동안 대가족제도 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한 인간을 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평가하기보다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의 성격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짙다. 그리하여 어느 大學을

나왔느냐? 어느 지역출신이나?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느냐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보다는 더 중히 여겨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門閥, 地緣, 學閥, 血緣 등에 의해 개인이 평가되고 있다.

아무리 민주주의 이론을 입으로 훌륭하게 말하는 지식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의 생활이 門閥, 地緣, 學閥 등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면 결코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육성됐다고도 할 수 없다.

우리의 과제는 대가족제도가 지니고 있는 장점인 인정, 情宜, 상부상조, 웃사람에 대한 존경(굴종이 아님), 공동체 의식을 살리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그를 계발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와 철학의 변용의 문제로서 필자도 명백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도전의 상대인 것이다.

여기서 덧붙여야 할 것은 자아의 발견이라는 주제는 階級意識과는 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階級主義(例컨대 共產主義)는 人生을 독립된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階級이라는 집단에 소속된 分子로 밖에 보지 않는다. 때문에 몇몇 분자가 집단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여 全體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자아, 즉 개인은 집단 속에 매몰되고 만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오늘날 공산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의 人權이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집단주의 소산이라고 할 밖에 없다.

민주시민의 바람직한 상으로서 「자아의 작성」 다음으로 강조돼야 할 것은 사회적 지성을 계발함으로써 자아를 끊임없이 계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과 지성은 다르다. 지식

이란 어떤 대상을 연구하거나 배워서 또는 실천을 통해서 얻은 명확한 인식 또는 이해를 말하는 것이고, 지성은 지각(知覺)된 것을 정리, 통일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인식을 형성하는 정신적인 작용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성이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를 발전시키고 번영케 하는 새로운 인식을 형성한다는 것이 된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는 대체로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혁명주의요, 또 다른 하나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발해 나아가자는 점진주의이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혁명이 인류에게 평화, 번영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 준 예는 없다. 오히려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천천히 옮겨가는 점진주의가 민주주의로 꽃피었고 복지국가의 실현도 가능케 했다. 요컨대 혁명이란 反社會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反사회적 지성인 것이다. 우리가 혁명의 열정에 들끓고 있는 허다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혼란과 혼미를 볼 뿐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反사회적 지성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북한 공산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 특히 이 사회적 지성의 개발은 매우 주요한 것이라고 해야 하겠다.

사회적 지성으로서 또 하나 강조해야 할 것은 타인과의 협력이라는 태도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결코 독립해서 또는 고립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 우리들이 먹고 입고 사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사회적 산물이다. 생산의 가장 원시적 단계라고 하는 농업생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쌀 한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부의 정성어린 땀방울은 말 할 것도 없고 비료 공장, 농기구 공장, 수송과정과 판매과정 등 허다한 사회적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사회적 협력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階級主義者들은 階級과 계급간의 투쟁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의 협력기능을 마비시키고 인간과 인간과의 증오,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유가 자유이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는 너의 자유의 조건이어야 하고 너의 자유는 나의 자유의 조건』이어야 한다. 인간이 서로 투쟁만을 한다면 너의 자유는 나의 부자유의 원인이며 나의 자유는 너를 속박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피비린내 나는 弱肉強食의 폭력사회가 되고 마는 것이다.

사회적 지성으로서 마지막으로 지적하여야 할 것은 偏見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몽테스키오는 『국민이여 편견에서 해방되라! 특히 자기 자신에 관한 편견에서 해방되라!』고 강조하였지만 편견은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이것을 사회적 지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多數의 橫暴」도 「少數의 비굴이나 反抗」도 모두 편견인 것이다. 多數는 소수의 의견을 수용하고 소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 때 비로소 사회적 지성은 개발되고 사회 그 자체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5. 우리의 과제

민주사회의 특징을 열거한다면 ① 사람의 능력을 믿는 사회, ②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 ③ 자율적 활동이 존중되는 사회, ④ 지성 우위의 사회 ⑤ 多元사회 ⑥ 공개사회 ⑦ 진

보적 사회 ⑧ 타협과 협동의 사회 ⑨ 다수와 소수가 다 함께 존중되는 사회 ⑩ 공공의 복지를 위하는 사회 ⑪ 과학적 실험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가 존중되는 사회 ⑫ 법치사회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을 보더라도 좋지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사회현상이란 좋다고만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그러한 사회를 창출할 수 있는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양식을 가졌을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한 가치관, 행동양식, 사고방식을 민주적 자질이라고 해도 좋다. 이러한 민주적 자질을 심리적 특성으로 구체화하여 분류하여 주요한 것을 예시한다면 ① 독립성과 주체성 ② 자율성 ③ 타인에 대한 존경심 ④ 異見의 존중 ⑤ 타협심 ⑥ 협동심 ⑦ 신뢰성 ⑧ 개방성 ⑨ 도덕성 ⑩ 질서의 존중 ⑪ 실험적 태도 ⑫ 창의성 ⑬ 집단에 대한 신념 ⑭ 적극적인 사회참여 태도 ⑮ 사회적 책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이 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말하면 국민 각자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느냐고 했을 때 선듯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너무 실망할 것은 없다.

민주주의란 원래 현실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래 완성적인 이념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는 기성품이나 완성품이 아니라 단지 민주화의 정도를 나타내 줄 뿐인 개념인 것이다. 우리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여러 나라들에 있어서도 非민주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미완성품으로서의 서구 민주주의도 수 세기에 걸쳐 진

진과 후퇴를 거듭한 끝에 이룩된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할 때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순조롭게 진전해오지 못했다고 하여 실망하기에는 그 역사가 너무 짧은 것이다.

오히려 일본 식민지하에 수탈 당하고 해방과 더불어 분단의 비극 속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동·서 냉전의 결과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겪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가 이렇게 빨리 민주주의의 신봉자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놀라운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한 때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선량들이 일본식민지하에서 생겨났던 수탈을 위한 관료의 권위주의에 사로잡히는 현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그러한 이미지로부터 해방돼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또 한 때 정치를 말로는 국민을 위한 봉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立身揚名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일이 있다. 오늘도 이런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을는지 몰라도 정상배만은 정치무대에서 퇴장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국민적 의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에는 희망이 있다. 민주주의가 정치와 가장 많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의 태도가 우리 나라 민주주의 장래를 크게 좌우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국민의 태도도 또한 결정적 요인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정치지도자를 향해 부르짖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국민이 자기 양심을 향해 민주주의를 부르짖어야 할 때가 됐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을 민주적 자질을 갖춘 것으로 한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韓國經濟 再跳躍의 戰略

成長과 分配, 成長과 安定,
安定과 保障 등은 어느 것을
追求하면 어느 것을 양보해야
만 하는 二律背反的인 관계에
있는데…….

李 滿 基

<漢陽大 經營大學院長>

1. 經濟發展의 새 目標

지금까지 개발 초기에는 고도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제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의 기본 목표는 시대에 따라 그 중점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쉬우나 원칙적으로 國富의 증대와 균등한 분배와 경제의 안정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개발도상국은 경제의 개발계획, 즉 성장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既開發國인 선진국은 경제의 안정과 분배를 위한 조정정책을 위주로 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초기단계에는 경제성장, 곧 國富의 증대가 「아담·스미스」의 말대로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물질적 기반과 국가사회의 공동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財源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다.

우리도 70년대까지 가난을 벗고 잘 살기 위하여 10%의 높은 성장목표를 세우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어왔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하였거니와 최근에는 그러한 成長의 결과가 소수의 대기업가와 그들을 지원한 지배층에게만 돌아가고 근로자의 생계는 점점 어려워지므로 성장이 무슨 필요가 있는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하나는 貧富의 격차, 즉 分配의 문제이며 또 하나는 서민생활의 어려움, 즉 安定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에게 제기되는 分配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같이 잘 살자는 것, 즉 分配의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누구나 똑같이 평등한 생활

을 해야 한다면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創意와 努力으로 돈을 번 사람과 게으르고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평등해야 한다면 누구도 잘 살려고 노력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어야 한다. 創意力이 있고 노력만 하면 다같이 경제발전에 참여하고 그 결과 잘 살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노력을 안 해도 돈과 요령만 있으면 잘 살고 성실하게 노력해도 그 댓가를 얻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것은 없어져야 한다. 부조를 제거하여 정의로운 社會를 만들자는 것이 그 뜻일 것이다.

더우기 개발초기에는 중요한 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먼저 발전하게 하는 불균형 성장을 취하였다. 이것은 유명한 후진국 경제의 이론의 하나인 「허쉬만」의 不均衡 成長論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할 일은 많은데 적은 돈과 적은 힘으로 동시에 다 성장시킬 수 없으며 중요한 산업을 먼저 발전시키면 다른 산업은 이에 뒤따라 발전하게 되어 결국은 모든 산업이 발전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비료공장을 지어서 비료를 값싸고 풍부하게 생산 공급하면 농업생산에 도움이 되어 농업부문도 발전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不均衡成長方式을 택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먼저 성장한 기업이 뒤에 다른 산업들이 발전하도록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산업의 생산을 독점하고 다른 企業이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로막았던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단일 肥料공장을 지었더라도(이 부문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몇몇 企業이 肥料생산을 독점하여 싼값으로 공급하지 않았다면 농업부문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우기 독점해서 번 돈으로 농업부문까지 손을 대서 다른 사람이 농업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빼앗았다면 그것은 機會의 균등을 저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실에 있어 정책지원을 받고 성장한 대기업은 여러 관련업종의 중소기업들이 뒤따라 발전하도록 길을 터주지 않고 그러한 부문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이미 있었던 중소기업까지 흡수 합병하여 제벌군을 형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발전하도록 민간주도의 경제운영을 할 것이며 정부는 독점기업의 횡포를 막고 경제를 안정시키도록 간접적인 조정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物價가 오르면 일반 국민의 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모든 경제의 흐름을 비뚤어지게 하여 기회의 균등을 해치게 하므로 物價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物價가 오를 때에는 모든 것이 똑같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 비싸게 사는 사람에게 손해가 되고 비싸게 판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경제활동의 댓가를 불공평하게 배분시킨다. 또한 석유파동 후에는 원가로부터 모든 값을 추켜올리므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이 다같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그 어려움을 고르게 분담하게 되지 않을 때에는 역시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근로자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도 물가가 많이 오른데 비해 봉급이 적게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創意와 努力에 의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 공정하게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이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不意의 재난과 불행을 방지하고 人

間다운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복지사회의 궁극목표라고 보아야 한다.

2. 經濟政策의 課題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과거에는 成長만을 추구했으나 앞으로는 成長, 分配, 安定, 保障 등의 여러 가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成長과 分配, 成長과 安定, 安定과 保障 등은 어느것을 추구하면 어느것을 양보해야 한다. 예를 들면 均等한 분배를 목표로 財産소득에 과세를 중하게 하면 저축을 적게 하여 成長을 적게 해야 하며 반대로 財産소득에 세금을 적게 하면 분배가 불공평해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후자의 입장이었으나 앞으로는 점차 財産所得에도 重課하는 입장으로 바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成長과 안정 등 다른 목표 상호간에도 생긴다. 서로 충돌되는 목표를 조화있게 조정하지 못할 경우 두 마리의 새를 쫓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며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時間的 選擇과 어떤 산업,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空間的 選擇을 적절히 하면서 전체적인 産業發展과 國民의 富를 증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과거 19세기에 産業革命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같이 서로 다른 政策目標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예를 들면 歷史學派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政治的 또는 윤리적인 입장에서 생각한 결과, 社會改良政策을 제시하였다.

「슈몰러」는 「經濟的不正을 배제하여 分配의 正義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中流 또는 下層階級的의 道義的, 物質的 向上을 보증할 수 있는 社會立法」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우리의 입장과 상당히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이와같은 社會倫理的인 주장에 대해 지극히 形式的이고 主觀的인 가치판단이라고 비판을 했고 이들을 講壇社會主義者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특히 「막스·베버」는 主觀的으로 무엇이 옳다든가 무엇이 그릇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個人的이거나 어떤 계층이나 黨派의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와같이 옳다든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倫理的 價値判斷을 내리지 말자는 것이다. 예컨대 정책적으로 서로 충돌되는 목표에 대해 무엇이 不正이고 무엇이 正義라고 할 수 있을까. 예컨대 成長은 不正하고 分配는 正義로운 목표인가 라는 뜻이다.

개개의 經濟行爲에 대한 不正은 法이 따질 수 있다. 그러나 經濟政策의 目標가 무엇이 不正이고 무엇이 正義로운가를 객관적으로 말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論議는 많은 억지 또는 假說 등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는데 여기서 모두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결국 여러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입장에서 주장할 때에는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다. 더우기 현재에는 「成長과 安定」 등의 두 개의 목표중 어느것이 더욱 중요한가를 따지기 이전에 安定 그 자체도 어떤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즉 인플레이션과 不況이 겹쳐있기 때문에 物價를 안정시키려고 긴축을 할 것인가, 不況을 벗어나려고 긴축을 풀 것인가를 판단하기 어렵다.

지난 79년에 우리는 덮어놓고 긴축만을 계속해 보았다. 당시의 경제팀은 해방후 고질화된 인플레이션을 뿌리 뽑겠다는 비장한 결심으로 긴축을 계속했다. 그러나 原價가 오르는데 긴축을 해와야 物價上昇을 억제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 경제를 깊은 不況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지금의 경제팀은 경제이론에 밝은 분들로 현실의 분석도 정확해서 매우 적절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그들 역시 「物價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景氣浮揚策을 쓴다」는 어정정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에서 누구도 인플레이션과 不況을 속시원하게 퇴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850년에 철학자 「칼라일」이 경제학자 「리카도」와 「멜더스」를 가리켜 「우울한 學問(Dismal Science)에 종사하는 존경하는 교수님」이라고 풍자했었는데 60년대까지 화려했던 經濟學은 70년대부터 우울한 경제학으로 변한 것 같다.

60년대에 「한센」은 「흔들이 의자는 없어졌다」고 큰소리쳤고 「새뮤얼슨」은 경제학이 「社會科學의 女王」이라고 말했는데 없어졌던 「흔들이 의자」(經濟不安을 뜻함)가 되살아 났고 이제는 이를 제거할 방법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마치 癌을 퇴치하려고 연구하는 의학자처럼 경제학자는 새로운 질병인 스태그플레이션과 어려운 씨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開發初期에도 저수지가 없어서 物價가 오르고 勞動力은 남아 失業者가 많아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이미 경험한 셈과 같다고 생각된다. 다만 당시 저수지의 과제는 資本財인데 이는 資本制生産國과의 경제협력(借款)

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나 이번엔 문제되는 資源은 그러한 해결방법도 없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石油波動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새로운 질병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된다. 政策當局은 의사가 없는 질병과 싸우면서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며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입장에 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經濟政策은 어느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이며 科學的으로 그때 그때의 환경에 따라 궁극에 있어 國富를 증진시키고 福祉社會를 구현하는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韓國經濟의 座標

韓半島는 美國의 한 州와 비슷한 작은 면적이면서 東北 「아시아」의 가장 요충지에 있으나 현재 南·北韓이 양단된채 서로 東西양진영의 최전방에 위치하여 서로 왕래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어렵고 불리한 지역에 놓여 있다. 韓國은 자유진영에서 가장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 어느 나라 사람이든 특별히 韓國을 방문할 목적이 없으면 오다가다 들릴 수 있는 편리한 위치에 있지 않다.

우리의 이웃에 있는 日本은 太平洋의 요새에 있고 이따금 蘇聯의 자극을 받기는 하나 직접적인 共產國과의 대결의 위험도 적으면서도 우리보다 자유진영과의 왕래에 있어 좋은 위치에 있다. 더우기 日本은 共產國과도 일찍부터 교역을 했고 앞으로 큰 제한이 없이 모든 접촉이 가능하다.

臺灣도 中共을 의식해야 할 입장이나 世界貿易에 있어서의 지리적 위치는 우리보다 좋으며

또한 「싱가포르」는 「아시아」와 「유럽」의 교차로에 위치하여 貿易에 있어 매우 유리하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貿易에 있어서의 지리적 위치가 우리 나라 처럼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도 드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앞에서 말한대로 資源이 부족하고 국내 시장이 좁아 貿易을 많이 해야 할 입장에 있다.

우리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을 시작한지 20년이 못된다. 英國은 1750년대부터 2백년 이상, 다른 「유럽」과 美國은 1850년대부터 1백년 이상, 日本은 1900년대부터 60년 이상 경제개발을 해왔다. 물론 2차의 世界大戰으로 그동안 파괴와 정체가 있기는 했으나 이를 빼더라도 모두가 50년, 1백년 이상의 경제개발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들 중 2차대전후의 新生國들은 개발의 역사가 비슷하기는 하나 어쨌든 우리는 과거 先進國들이 오랫동안 걸쳐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경제사회의 변천을 짧은 기간에 경험해야 했고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의 복잡한 요구와 함께 어떠한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를 결른다는 것조차 간단하고 쉽지는 않다.

그동안 우리는 經濟開發을 통해 經濟發展에 필요한 저수지를 만들어 왔으나 최근 石油波動으로 저수지의 확대가 더 어렵게 되었음은 앞에서도 설명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진 여건에서도 더 열심히 저수지를 개발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갖고 있는 土地와 資源, 資本, 勞動力을 최선을 다해 이용하고 부족한 것은 外國에서 사오며 또한 技術을 개발하여 많은 生産物을 생산하여 外國에도 輸出하고 국내 시장에도 공급하여 國民生活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와같은 일을 위하여는 우리의 형편에 맞는 장래성 있는 産業을 선택하여 개발해야 하

는데 이를 위하여는 먼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土地와 資源이 매우 적다. 北韓을 제외하고 우리가 갖는 國土面積은 9백84만8천 ha로 미국 9억3천6백31만2천 ha의 95분의 1, 日本 3천7백23만1천 ha의 4분의 1, 「필리핀」 3천만 ha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1人當 土地는 26.2a로서 미국 425.4a의 16:2분의 1, 日本 32.1a의 1.2분의 1, 「필리핀」 62.9a의 2.4분의 1이다.

國土가 이처럼 좁을 뿐 아니라 山岳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농경지, 공장부지, 주택지, 도로 등의 可用土地는 전체 국토의 32.4%에 불과하다. 더우기 重化學工業의 重要원료인 石油는 한 방울도 나지 않고 鐵鐵石은 經濟的 可採量이 1억2천만톤으로 포항제철에서 5년 동안 쓰면 다 없어질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67.6%가 山岳이면서 林產資源도 없어 매년 原木을 外國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다.

이상과 같이 土地와 自然資源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天賦의 여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머지 발전 要素를 資本과 技術 그리고 勞動力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며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세계에는 「쿠웨이트」와 같이 石油만 수출해서 1인당 1만4천8백90달러(1978)로 세계제일의 高所得國도 있지만 한편 「스위스」와 같이 기름도 없고 농경지도 없는 山岳地帶에서 부존자원은 없지만 1인당 소득이 1만2천달러로 미국에 못지않는 높은 所得을 올리고 있는 나라도 있다.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나 동남 「아시아」에는 1인당소득이 아직도 2백달러가 안 되는 絶對貧國이 있는 반면 자원이 부족한 日本 및 「유럽」 각국은 1인당 所得이 3천달러 내외의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自然資源이 부족하지만 「유럽」이나 日本과 같이 資本과 技術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떤 産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야 외국과의 경쟁에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資源과 경제규모가 작으면서도 잘 살고 있는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등의 「유럽」의 經濟小國이 어떤 産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야 외국과의 경쟁에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資源과 경제규모가 작으면서도 잘 살고 있는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등의 「유럽」의 經濟小國이 어떤 産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가를 보면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우리도 經濟小國이므로 이들의 發展 모습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4. 重化學工業의 跳躍

第2의 跳躍은 중화학공업이 주도하는 도약을 의미한다. 과거 경공업을 중심으로 제1의 跳躍에는 비교적 쉽게 성공했었으나 중화학공업은 개발이 힘들고, 石油과등으로 여건도 나빠서 몇년간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중화학을 잘 개발하여 다시 도약을 해야 함은 앞에서도 그 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발전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해외시장에서 외국과 경쟁하여 이겨야만 가능하다. 국내시장이 작기 때문에 웬만한 産業은 수출을 하지 않고 발전할 수 없고 더우기 대규모의 중화학공업은 수출없이 출발조차 어렵다. 수출경쟁은 매우 치열해서 마치 전쟁과 같다. 전쟁에 이기려면 먼저 作戰計劃을 잘

세우고 거기에 맞게 훈련을 잘해서 우수한 戰力을 갖추어야 한다.

작전계획은 외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産業을 선택하는 것이다. 세계역사를 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英國보다 한발 앞서 신세계를 개척했으나 얼마 못가서 英國에게 패권을 빼앗기고 만다. 그것은 수출산업이 없어 수출경쟁에 져기 때문이다. 英國은 양을 쳐서 羊毛을 만들고, 印度에서 원면을 들여와 방직기계를 발명해서 직물을 대량생산하여 수출하였으나 他國이 이를 따라 올 수 없었던 것이다.

지금도 어느나라이든 국제수준에 이르는 生産力을 갖는 産業이 있어야 輸出이 가능하며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生産力을 그와같이 높일 수 있는 산업분야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산업도 있다. 더구나 重化學工業은 輕工業에 비교가 안될만큼 業種도 많고 부종도 많아 그 범위가 실로 광범위한 것이다. 우리가 처음 여기에 손대려할 때에 이 광범위하고 낮은 분야를 덮어놓고 대들지 말고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현재와 앞으로 이 분야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을 골라야 했다. 그것은 우리가 生産潛在力이 있는 업종이라야 한다.

資源, 資本, 勞動 및 技術의 네가지 생산요소 중에서 어느 요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投入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므로 資源集約的 産業을 개발하여 경쟁에 이길 수 없다. 또한 현재까지는 노동이 풍부했으나 장래에는 점차 勞動도 귀해질 것이므로 勞動集約的 産業은 지금까지는 경쟁력이 컸으나 점차 약해질 것이다. 현실에 있어 72~76년까지 勞動力人口 증가율은 4.38이었으나 77~78년에는 3.3%로 줄었고 앞으로 20여

년 뒤에는 현재의 總人口 증가율 1.6%와 비슷해질 것이다.

한편 總投資率은 26.9%에서 29.8%로 높아졌다. 이는 점차 勞動集約산업으로부터 資本이 더 드는 분야를 택하였음을 나타낸다.

또한 근로집약 산업의 경쟁상대국은 노동이 풍부한 開發途上國이므로 앞으로 後發工業國이 뒤를 이어 경쟁상대국으로 등장하면 우리는 경쟁이 힘들게 된다. 그렇다고 노동집약 산업을 당장 버려야 할 것은 아니나 장래에까지 미련을 가질 것은 못된다.

한편 우리는 최근 投資率이 늘어 자본집약도가 높아지고 있음은 資本集約産業을 개발한 까닭인데 이를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자본이 차츰 늘기는 하겠으나 資本이 많이 드는 산업을 1위의 수출국 그룹에 들게 하기는 아직도 요원하다. 이 분야는 美國, 日本, 西獨 등의 資本이 많은 經濟大國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79년 우리의 貯蓄總額은 1백 72억달러로 美國의 3천 8백 72억달러의 23분의 1, 日本의 3천 3백억달러의 19분의 1에 불과하다.

1人當 GNP는 91년에 가도 75년 가격으로 3천 8백 93달러로서 美國이나 日本의 79년 현재의 수준에 못미치며 그때에 설사 저축률이 40%(지금까지 세계 제1의 日本보다 높다)가 된다 해도 1人當 저축은 1천 5백 57달러도 79년 현재의 미국의 1천 7백 59달러나 日本의 2천 8백 49달러에 못미친다. 그러므로 資本集約産業을 개발하여 이들과 경쟁하기에는 요원하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업종에 따라 이 분야도 경쟁력을 키르면서 분수에 맞게 개발할 필요는 있다. 앞으로 우리는 기술정보산업에 가장 力點을 두어야 한다.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의 經濟小國들이 이 분야를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다. 機械, 電子, 일부의 石油

化學 등은 노동, 자본, 자원의 原價構成化보다 기술개발비가 높고 迂廻生産의 정도가 가깝기 때문에 附加價值 생산성이 높아서 개발할 가치가 크다.

迂廻生産이란 말은 생산의 단계가 여러 단계임을 가리킨다. 기계나 전자제품은 많은 부품을 만들어 조립하며 부품을 만들기 위해 中間材料를 만든다. 그리하여 원료에서 제품에 이르기까지 原料→素材→部品→組立→完製品의 다섯단계가 있어 원료를 집어넣어서 당장 완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소비재나 자본집약적 산업보다 迂廻度가 매우 높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다만 얼마씩 附加價值를 높이므로 전체의 附加價值가 높다. 이러한 제품값은 국제적으로도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軍用機, 精密機械, 精密電子機械 등은 油價上昇보다 더 빠르게 그 값이 오르고 있다.

자원이 없는 「스위스」, 「스웨덴」 등의 經濟小國이 잘 사는 것은 이러한 산업을 주력업종으로 갖고 있는 까닭이다. 물론 이 분야도 앞선 선진국을 따라가기는 어려우나 수 많은 전문부품업종 중에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상당히 찾을 수 있으며 우리는 우수한 잠재인력이 있으므로 피나는 노력만 하면 단시일에 수출국 그룹에 끼일 수 있을 것 같다.

5. 技術 및 人力開發

작전계획을 세웠으면 戰力을 갖추어야 한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기술개발과 자본형성일 것이다.

기술집약산업이 經濟小國의 전략산업으로 적합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밀착은 人的資源이므로 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술 및

인력개발이 중요하다.

77년에 韓國을 방문했던 「스웨덴」의 「허먼·허드베리히」씨는 韓國의 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① 교육열이 높고 ② 관리능력이 있으며 ③ 생산기술을 빨리 배우고 ④ 근면하여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한다고 했다.

이러한 견해에 꼭 외국인의 말을 인용할까닭은 없으나 自國人은 주관적일 수 있고 특히 「스웨덴」은 經濟小國이어서 그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참고될 것 같다.

우리는 인구가 많지 않다. 국토에 대한 인구 밀도는 세계 3위이어서 항상 人口가 많은 것처럼 생각되나 3천8백만 인구는 美國의 2억, 日本의 1억2천만명보다 적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는 量보다 質이 중요하다. 인구가 적으면 國內시장 규모가 작고 생산에 있어서도 美國의 GM이나 포드자동차회사와 같이 40만의 노동력을 거느릴 수 없다.

적은 인구를 갖는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知的수준과 솜씨 및 숙련을 필요로 하는 기술 정보집약산업이 유리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교육열이 높고 손재주가 좋아서 이 분야의 개발의 가능성, 또는 잠재력이 있다. 우리는 동원 중에도 학교 교육을 중단치 않고 오히려 이때부터 教育機關이 더 늘어났으며 손재주가 있어 靑少年들이 국제기능올림픽에서 3년간 연속 패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기술개발은 빈약하다. 기술개발은 3가지 요소가 있는데 피라미트와 같은 삼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장 밑바닥의 底邊에는 일반 교육투자가 차지하고, 중간에는 산업분야별 연구개발이, 상층에는 각 기업의 연구개발이 각각 차지한다.

우리 국민은 교육열이 높고 가계비에서 교육비의 支出은 엄청나게 크나 아직도 教育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적다. GNP에 대한 교육투자의 비율이 79년 현재 2.6%로 經濟小國인 「네덜란드」의 7.9%(73년), 「덴마크」의 7.1%(74년), 「노르웨이」의 7%(74년)보다 현저하게 적고 經濟大國인 美國의 6.6%(74년), 日本의 4.3%(74년) 보다는 적다. 더우기 우리는 56년에는 4.7%이던 것이 61년에는 4.4%, 79년에는 2.6%로 경제가 성장될수록 상대적으로 教育投資가 적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經濟가 커지기 위해 생산투자는 많이 했으나 장래를 위한 교육투자를 등한히 하였던 것이다.

産業別로는 예컨대 기계공업분야는 기계공업기술, 석유화학분야는 석유화학기술, 전자분야는 전자기술 등이 필요하며 이는 각 분야별 研究機關과 연구투자지원이 담당한다. 우리 나라의 연구개발비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년에 0.81%로서 美國의 2.16%(77년), 日本의 1.55%(76년)에 비하여 대단히 낮은 비율이다. 기업의 각각 총매상액에 대한 연구비 지출은 78년 현재 제조업의 경우 0.7%로서 美國의 3.1%(75년), 西獨의 3.3%(75년), 日本의 1.6%(76년)에 비하여 역시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 나라는 미산 돈으로 외국의 기술을 사오면서 스스로 연구하는 데에 투자를 적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돈이 없다는 점도 들 수 있으나 우리 나라 사람의 기술보다 외국인의 기술이 좋다는 先入觀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암암리에 외국의 것이 좋다는 사대주의적 생각을 한다. 학자도 외국의 학위가 있어야 하고 기술도 외국인이 좋고 부품도 외국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외국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국내의 것도 존중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技術人力을 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 잠재력을 다른 곳으로 전향시킨다. 분명히 외국유학생을 보면 물리학, 화학, 의학, 수학 등의 자연과학에서 우수한 재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政治와 法學, 경영학 등에 더 높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다.

기업이나 사회에서 생산직보다 사무직, 기술인력보다 관리인력이 우대받고 존중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직업관과도 관련이 있다.

이조후기 實學者인 「朴齊家」씨는 「北學儀」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의 四民思想을 개탄한 일이 있다. 土農工商의 차별을 두는 四民思想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독일사람들은 직업관이 뚜렷하며 전문가와 기술자를 가장 우대한다.

독일어의 직업이란 단어 베루프(Beruf)는 ① 부르심을 받는 것 ② 天職 ③ 전문가 ④ 직업이란 뜻으로 본래 부르다는 뜻인 루펜(Rufen)이란 말에서 유래되었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독일어로 성서 번역할 때 처음 직업이라는 단어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들은 근대화에서 철저한 職業觀이 확립되어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우리도 모든 職業에 대해 철저한 사명감을 갖고 귀천을 가리지 않고 특히 技術 및 전문직을 존중하여 人材를 널리 길러야 할 것이다.

6. 民間主導와 企業의 責任

우리 나라 기업은 정부의 성장정책에 따라 財政, 金融 그밖에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급격히 성장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결정에

있어 그 사업의 채산성과 그 기업의 전문적인 능력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오직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東奔西走하였다. 이러한 政府主導의 경제성장이 개발초기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전차 경제규모가 커지고 또한 복잡하고 어려운 重化學工業을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다. 특히 정책지원을 받는 부문은 지나친 과잉투자를 하고 다른 부문은 과소투자하였기 때문에 전체의 관련산업이 형편에 맞게 잘 발전될 수 없었다. 예를들면 機械工業이 중요하다고 정책당국이 판단하면 너 나 할 것 없이 많은 기업이 이에 참가해서 너무 많은 投資를 하였으나 기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산업에는 적게 투자했기 때문에 機械의 판매가 잘 안 되며 또한 部品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하지 않아서 部品조달이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중화학공업은 대부분 그 앞에는 그 製品을 사용하는 產業이 있고 그 뒤에는 部品을 생산하는 產業이 있어 앞과 뒤에 서로 관련된 산업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관련 產業 부문이 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고 어느 한 부문에만 집중투자하면 산업간의 관련성이 斷絶되어 모든 산업의 발전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판단해서 여러 관련산업을 분담해서 투자하도록 민간주도형 경제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앞으로 經營姿勢를 새롭게 확립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짐해야 하겠다.

기업은 生産活動을 담당하여 좋은 財貨와 서비스를 값싸고 풍부하게 생산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赤字를 내지 말고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여 성장하면서 雇傭을 증대시키고 貨金과 配當을 주어 所得을 分配하는 등의 여러 가지

經濟的機能을 담당한다. 즉 企業은 生産, 雇傭, 分配, 對外貿易 등의 경제적 기능을 담당하고 成長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종전에는 값싸게 생산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득을 고르게 분배하기 보다 오직 성장만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먼저 성장한 기업이 산업을 독점하여 장차 건전한 專門企業이 따라올 수 있는 기회를 막았다. 한 기업이 국내시장을 77년에 36.4%나 독점하였고, 두 개의 기업이 51.6%, 세계 기업은 86.1%나 독점하였기 때문에 여러 중소기업체는 나머지 13.9%를 차지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대기업은 다른 중소기업의 설 땅을 빼앗아 자신만 비대해지기 위해 과도한 부채와 부실한 경영을 해왔다. 이들은 政策支援만 받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전문분야를 개척하지 않고 소유주가 직접 경영에 나서 전문경영인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부는 特定企業에 대한 직접지원을 하지 않고 모든 기업이 自己責任 아래 전문분야의 사업을 개척하도록 하기 위해 80년대에는 民間主導의 경제운영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모든 기업은 전문사업을 서로 분담하여 개척하고 지식과 情報를 통한 합리적인 경영으로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이겨나가야 한다. 生産을 專門化하고 品質 좋은 生産物을 값싸게 만들어야 海外市場에 많이 팔수 있고 국내物價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한 자신이 없는 사업은 손대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모든 분야를 이와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유리한 分野를 분담하여 전문화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原價를 절감해야 石油波動후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대외경쟁에 이길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종업원과 원만한 勞使關係를 유지하고 적절한 分配와 雇傭증진에 힘써야 한다. 종업원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生産性도 높아지며 모든 社會問題도 생기지 않는다. 최근 成長無用論까지 대두된 것은 기업이 성장하여도 일반 종업원의 생활은 향상되지 않은 데서 생긴 것이다.

이밖에 기업은 생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식품위생을 유지하며, 공해를 방지하고 환경보존에 힘쓰는 등 모든 부작용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 그동안 우리는 기업의 社會的責任을 강조해 왔는데 이는 실사 노력을 많이 했고 운도 좋아서 기업이 커졌다고 해도 노동자와 가계 등 전체의 경제주체 및 사회발전에 보조를 맞추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가리킨다. 국민생활과 사회의 모든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기업만이 독주하려고 할 때 많은 문제가 생긴다. 기업은 다른 經濟主體와 유기적인 동반자가 되고 사회발전과 文化創造에 기여해야 한다.

7. 中小企業의 育成

그동안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으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당면과제가 많다.

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을 개발하면서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하였으나 수 많은 전문분야에 걸친 중소기업의 關聯部品산업을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80년대에 들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重化學은 關聯산업이 수없이 많으며 이 모든 분야가 반드시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산업개발의 전략을 설명할 때 우리는 이 중에서 技術情報집약적인 업종이 적합함을 지적하였다.

이 분야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적합한 업종도 많은 것이다.

지난번 宇宙왕복여행에 성공한 콜롬비아 宇宙船을 비롯하여 宇宙船의 부품은 1백만개가 넘는다.

이 많은 部品은 여러 기업들이 분담하여 생산한 것이다. 한 개의 로케트는 각각 세계의 회사가 분담했고 수 많은 電子部品은 7백개 이상의 크고 작은 회사들이 생산했다. 美國의 저력은 이러한 광범위한 部品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공장들이 있다는데 있다.

자본설비를 많이 투자해야 하는 大企業은 설비투자에 비해 가득울이 적는데 중소기업의 專門部品生産은 가득울이 높은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개척해야 할 高級技術集約産業은 반드시 큰 규모라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大企業만 성장시켜서 국제경쟁에 이길 수는 없다. 우리는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등의 經濟小國들과 같이 量보다는 質을 택하는 中小專門企業들을 육성하여 이들이 국제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많은 中小企業들이 각각 ① 그에 적합한 산업분야(技術集約的 專門部品)를 선택해서 ② 노동과 자본에 고도의 기술과 정보(또는 知識)를 결합하여 ③ 기업규모는 작더라도 다른 企業에서 만들기 힘든 독특하고 품질이 좋은 製品을 생산하는 한편 ④ 규모가 작은 만큼 경영에 있어 기동성을 살려 효율적인 경영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경제정세가 불투명한 때에는 경직적인 대규모기업보다 기동성있는 中小企業이 오히려 적응력이 높은 것이다.

앞으로 국내외의 商品需要가 점점 고급화되고 다양화되므로 大量生産보다 소량의 商品質生産이 요구되고, 중화학공업에 있어서도 資源과 資本이 많이 드는 산업보다 技術과 熟練도와 높은 加工도가 요구되는 專門製品과 部品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의 상당부분은 중소기업이 맡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中小企業은 강력한 적응력과 왕성한 活力으로 불투명한 세계경제의 변화에 기동성 있게 적응함으로써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세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석유파동후 자원을 절약하기 위하여 큰 것보다 작은 것이 더 실용적이기 때문에 「작은 것의 世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日本大使館에서 빌어다본 文化映畫에서 日本사람들은 옛날부터 작은 것의 세계를 즐겨온 까닭에 오늘날 세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들의 집안 뜰안에 山과 바위의 축소판을 실현시켰고 방안에는 盆裁나 꽃꽂이로 작은 자연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작고 섬세한 부채살과 京都지방의 직물들을 개발했던 그 솜씨로 작고 정밀한 전자제품을 만들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것이다.

우리는 企業을 확대하려했지 專門化시키려 하지 않았고 수 많은 작은 企業은 存立하지 못하고 큰 企業에 흡수 합병되었다. 그러나 日本은 大企業과 중소기업이 계열화되어 서로 손잡고 발전해간다.

日本은 76년에 전기기업의 60.7%가 도급관계를 맺고 있었음에 비하여 우리는 78년 현재 18.2%만이 도급관계를 맺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해야 할 일도 대기업이 직접 맡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기구가 있기는 하나

정부의 시책도 역시 大企業 중심의 成長政策을 추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79년 현재 중소기업은 전체조업 生産額의 32%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과거에 비해 점점 그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73년에 비해 79년에 제조업 전체의 생산량은 3.24배가 되었으나 중소기업의 생산량은 2.54배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적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개발을 계기로 정책 지원이 大企業에 집중되었고 貿易의 창구도 재벌들의 綜合貿易商社가 도맡아 중소기업은 직접 外國人과 접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의 소비구조가 고도화되고 상품이 다양화되어 個性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專門生産業體가 없고, 또한 점점 需要者와 접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수출 경쟁에 뒤지는 것이다. 대기업만 창구를 가질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무역의 창구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밀하고 높은 가공도가 요구되며 다품종의 부품이나 제품을 만들려면 새로운 기능과 정보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는 소수의 대기업이 독점하는 것보다 다수의 중소 전문기업이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美國의 우주선이 그러했듯이 그보다는 비교가 안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금속, 기계공업 등의 분야는 수 많은 부품을 제작하는 중소전문기업의 광대한 底邊이 있어야만 한다. 이제는 몇 개의 대기업만 국제수준에 이르는 것뿐 아니라 그에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다같이 국제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성장 발전되어야 한다.

8. 勞使關係의 再定立

사람은 누구나 한 개의 입과 두 개의 손을 갖고 태어났다. 입은 먹기 위한 것이며 손은 일하기 위한 것이라면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뜻에서 입은 하나인데 손은 둘이라면 잘못일까.

과거에는 먹기 위해 일을 했고 勞動을 하나의 商品처럼 취급했다. 경제학자들은 임금은 限界非効用과 같아야 한다는 말을 했는데 한계비효용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 苦痛이란 뜻이다. 말하자면 임금은 고통의 댓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일하는 것은 고통이란 뜻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세계의 碩學 「토인비」는 삶의 목적을 ① 사랑을 하는 것 ② 공부하고 일하는 것 ③ 창조하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일이 삶의 목적이요 보람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사실 할일이 없으면 삶의 보람이 없을 것 같다. 勞動은 신성한 것이다. 勞動은 먹기 위한 것 또는 한낱 商品이 아니라 人間의 人格의 표현인 것이다. 노동은 價値의 창조를 통한 自我의 實現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個個人의 才能과 素質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신성한 노동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이 노동자의 人格을 무시하고 商品처럼 취급하며 勞動者도 人格의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이다.

生産工場에서 일하는 女職工들의 노동이 단순한 商品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들의 勞動이 수출과 經濟成長의 큰 밑천이 되어

은 것이 아닌가.

우리 나라와 같이 自然資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창조적인 능력의 발휘(노동)만이 경제발전과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기초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역사적으로 볼 때 봉건사회에서는 勞動者는 地主의 지배를 받고 産業資本主義에서는 기업주에게 고용된 존재이며 共產社會에서는 中央當局의 명령에 지배받아야 하나 福祉資本主義사회가 실현되면 노동은 고도의 기술과 정보가 결합되어 모든 生産과정은 지배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노동이 먹기 위해서도 아니며 명령과 지배에 의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능력과 인격을 발휘하여 價値를 창조하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勞動이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人格의 自己表現이라는 단계에 도달하면서 먹는 것은 저절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生存을 위한 수단은 누가 마련해야 하는가. 그것은 福祉社會에 있어서의 公同의 의무인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生存을 할 수 있는 天賦의 權利가 보장되고 人間社會의 生産적인 활동에 다같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生存을 위한 수단을 社會가 보장하는 福祉社會에 이르지 못한 현단계에서는 勞動者는 生存을 위하여 企業主에게 고용되어 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勞動者에게는 그들이 단결하여 賃金과 그 밖의 노동조건들을 기업에게 요구할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다.

이에따라 勞動組合을 만들고 企業에게 노동자의 일치된 의견을 표시하며 모든 勞使問題를 團體交渉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된 것이다.

그러나 勞動組合은 企業에 대항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을, 나아가서는 생산성을 높여 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기업은 노동자의 적이 아니라 그들이 일하는 보금자리인 것이며, 企業이 발전되어야 勞動者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代의 勞動組合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生産조건의 개선과 교육과 훈련을 통한 조합원의 資質향상 등에 있어 기업측과 공동보조를 맞춰야 할 분야도 많은 것이다.

「스웨덴」에 있어서는 勞動組合이 작업장의 내부 조건까지 결정하고, 西獨에서는 경영에도 참가하여 勞使가 중요한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있다. 중국에 있어 기업주와 노동자는 적이 아니라 동반자(파트너)인 것이다.

더우기 지금처럼 세계 각국의 經濟事情이 어려운 때일수록 노사가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앞서서도言及하였듯이 石油과동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른 나라들보다 物價를 安定시키고 雇傭을 감소시키지 않고 있는 西獨과 日本은 노사관계가 同伴者, 또는 가족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노동조합운동의 초기에 美國에서는 높은 賃金を 요구한 결과 고용감소를 초래한 경우도 있다. 반세기전 광산노조의 지도자이었던 「루이스」(J. Lewis)는 광산을 떠나는 광부를 돌볼 필요가 없다고 하여 雇傭減少를 불문하고 높은 賃金を 요구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그러나 임금을 올리기 위해 동료들의 일터를 잃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후 자동차 노조의 대표인 「루더」(W. Reuther)는 賃金과 고용을 다같이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해야 했다. 이와같이 高賃金과 雇傭을 다같이 요구할 경우 현재

와 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약하게 되면 결국 그 주름살은 企業主나 勞動者가 다같이 받아야 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西獨과 日本에서 보여주는 同半者관계나 家族관계와 같은 勞使關係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福祉社會에 있어서의 勞動에 대한 價値觀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9. 金融의 自律化

4월 27일 정부는 한일은행을 民營化한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는 상업은행도 民營化되었으나 貿易協會가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여 사실상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번 한일은행 민영화가 사실상 민영화의 첫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상업은행도 무력협회의 주식을 팔아서 완전히 민영화시킨다고 했다.

市中銀行의 민영화가 금융자유화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정부소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유화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金融의 자유화는 은행의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없어져야 함을 뜻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의 가격기능인 이자율이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모든 자금의 동원과 배분이 효율적으로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기업의 負債가 너무 많아서 이자율을 올리면 母利子負擔이 너무 커지는 반면 자금동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자율화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80년 1월 이자율을 크게 늘렸으나 기업의 금융부담이 59.6%나 늘어 불황을 더 깊게 하고 저축은 자금수요를

감당할만큼 늘지 못했다. 이는 기업의 부채가 너무 많고 저축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筆者는 이자율만 높이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겠으나 이자율이 물가보다는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는 지난 62~64년과 74년이후 이자율이 물가보다 싸서 金融貯蓄을 저해하고 자금수요는 과다하게 많아 通貨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 物價는 더 오르게 되는 악순환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자율이 物價보다 높아서 正의 실질이자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자율이 적어도 물가보다는 비싸야 가능한 저축이 늘고 부동산 投機나 私金融이 적어질 것이다.

金融市場은 되도록 많은 자금을 동원하여 필요한 産業資金을 적절하게 대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언제나 금융기관의 자금이 부족하여 「銀行의 문턱이 높다」고 말해왔다. 60년대부터 銀行과 非銀行金融機關이 많이 설립되었으나 이들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 들지 못하여 많은 자금을 동원하지 못하고 산업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것이다.

72년 8·3조치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私債를 동결했으나 그 기간이 지난후 다시 私金融이 비대해졌고 많은 主婦들은 계를 하고 있다.

때때로 거액의 私債가 부도되고 계가 깨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처럼 위협한 계나 私金融이 왜 많은가? 그것은 금융기관이 저축자에게는 물가보다 싼 파실 밖에 안주고, 음자 받는 사람 또는 기업에게는 문턱이 높아서 國民經濟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까닭이라고 본다.

금융기관이 되도록 많은 자금을 동원하려면
 ① 物價보다는 적지않은 적절한 果實을 주고
 ② 자금의 보관과 관리에 있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며 ③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 각양각색의 다양한 금융仲介를 해야 하는 것이다.

요구불예금은 일상생활에 쓰는 자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맡겨놓고 쓰는 것이며 貯蓄性預金은 필요하면 찾아 쓸 수도 있고 약속기간까지 맡겨두면 물가보다는 높은 이자를 주며 기간이 될 때까지 찾아 쓸 수 없는 債券은 더 높은 과실을 주고 때로는 元本이 감소될 위험이 있는 주식은 기업의 형편에 따라 더 높은 과실을 주는 등 다양한 금융저축의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果實은 적어도 안전하고 편리하며 어떤 것은 오래 기다리라는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높은 과실을 얻는 등 저축자가 형편과 마음내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의 저축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銀行預金을 맡기고 찾는데 불편하고 物價보다 利子가 싸며 債券이나 信託도 이와大同小異하고 주식은 너무 불안하여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우리 나라의 실정이다. 특히 生命保險은 의무원의 집요한 강요로 계약했다가 중도에 해약하면 元金도 되찾지

못해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자와 배당 등이 형편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되고, 조건에 따라 다양하며 生命保險의 모집방법과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金融, 保險, 證券이 국민생활에 친근하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金融市場이 동원한 자금의 운영이 다양해져야 가능하므로 資金需要者의 信用과 사업전망에 따라 다양하고 신축성 있게 자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은행은 거의 획일적으로 低利의 政策金融과 경직적인 일반금융을 제공하고 채권이나 보험도 이와 대등소이하게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金融仲介가 다양해질 수 없다. 외국에서는 은행이 신용을 조사해서 信用이 적으면 높은 利子를 받으며 때로는 델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이자로 융자하며 또는 信用이 낮으면 높은 果實을 주는 채권을 발행한다.

우리 나라 金融市場은 이러한 多樣性이 없고 획일적이기 때문에 국민생활에 깊이 파고 들지 못하며 그 때문에 私金融의 이용이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재 金融機關이 운영하는 것과 私金融의 중간쯤되는 금융조건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더 많은 금융중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金融의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創造的 民族主義

創造的 民族主義는 新時代
新歷史의 門을 열면서 民族意
志를 具現하기 爲해 追求하는
하나의 理想이요 目標이다.

張 正 孝

I. 創造的 民族主義의 必 要性

인간에게는 자신이 처한 逆境이나 失敗의 原因을 외부에서 찾으려하며, 外的인 환경 속에서 역경이나 실패의 代置物을 찾으려는 보편적인 性向이 있다. 그러나 항상 인간외부의 환경은 中立的이고 非道德的이었다. 그래서 外的인 환경은 人間의 意圖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때마다 인간은 여러 대상—形而上學的의든 形而下學的의든—을 비난하기도 하고, 자신이 처한 외적 環境 속에서 유리한 무엇을 찾기 위해 神秘的인 존재에 의지하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종교적 차원에서 呪術的 次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人間의 心性은 보다 강한 충격을 받기 전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나 早晚間 인간은 실패나 역경의 보다 심오한 원인이 내적인 세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끼고 사신을 자신의 내부에 돌리게 된다.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는 시신의 변화는 次元 높은 발전이며 飛躍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간은 中立的이고 非倫理的인 외부환경을 이용하는 主體的 個人의 내부에서 진정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이때 인간은 外적인 環境에서 찾은 문제점이 내적인 面에서 찾은 문제점에 비해 얼마나 卑小한 欸디디기였는가를 발견하고는 세삼 놀라게 된다.

民族을 단위로 하나의 生存圈 위에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인간의 社會性을 나타내는 보편적인 세계질서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개인의 成長과 民族의 成長은 相互置換 가능한

等式이 성립된다. 지금까지 우리의 현실을論함에 있어서 개인이 민족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는가? 問題는 認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生活化에 있다.

한 人間이 存在한다는 것은 生物學的인 意味에서 모든 신체적 기능이 作用한다는 것이 상의 의미를 지닌다. 인간이 사회적동물이라는 말자체가 사회 속에서 生存한다는 단순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속에 존재하는 집단과 어떤 형태의 사회적 유대를 통하여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중에서도 民族과의 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特別한 關係이다. 집단으로서의 民族이 갖는 번영과 생존 그 자체는 개인을 통해 개인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實存的 自我는 生物學的 存在價値를 포함하여 개인을 민족의 존재와 연결시킬 때 발견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人間の 社會성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脫獄하여 도피하라는 주위의 권고를 물리치고 아테네인으로 아테네 국법을 준수하기 위해 毒藥을 마셨다. 그런 의미에서 소크라테스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아테네의 개인이었다. 또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진정한 實存的 自我를 잃지 않으려는데 있었다. 소크라테스가 수천년동안 인간의 기억 속에 자리잡고 세계인으로 존재한 것은 그가 진정한 아테네의 개인이었다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 할 수 있다.

전통의 단절은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임이 분명하다. 이런 전통의 단절 속에서 우리는 韓民族의 개인이 되기 이전에 풀밭듯한 세계 조류에 편승한 허깨비 세계인으로 자처해 왔음은 자타가 시인해야 할 사항

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한반도에서 民族의 歷史와 함께 생존한 개인은 生을 영위한다는 단순한 존재 이상의 의미와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유구한 역사의 일순간, 인간으로서 우리는 역사적 주체로서의 우리를 잃고, 민족의 주체로서의 우리를 잃고,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를 잃은 진정한 우리를 상실한 인간이 아니었는가?

니체체의 말처럼 우리는 민족으로서의 우리 스스로를 상실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로 전진함에 있어 우리의 내부에서 찾아야 할 문제는 韓國版 인간의 자기상실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자기를 상실한 상태에서 민족 속의 개인, 영광된 미래의 조국을 구성하는 개별적 주체로서 개인이라는 상태로의 轉換을 의미한다. 이 과정이 가능하다면 개인은 민족적 입장에서 민족의지로 무장된 개인으로의 환원이 가능하다.

두번째의 문제는 이런, 개인적 의지의 종합과 그에 따른 방향제시라는 것이다. 이는 散漫한 개인적 의지를 종합하여 민족의 역량을 창조적인 방향으로 매진케 할 수 있는 민족의지의 尖銳化와 민족의지를 민족의 번영과 복지 실현이라는 목표달성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념 및 방향,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의 제시이다.

이런 과업은 이념적으로는 民族主義論에 해당하며, 이를 추진하는 主體勢力을 기준으로 민족엘리트론에 해당하며, 절차적인 문제는 항상 변하는 역사적 상황에 맞는 정책문제에 해당된다.

개인적 민족의지의 종합에 의한 民族力量의 참여화라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민족구성원 개 개인이 생물학적인 존재 외에 한 민족의 일원

으로서 갖는 특유의 존재가치 즉 포괄적 의미에서 실존적 자아의 확립이후에 그 해결이 가능하며 민족 엘리트 그 자체도 하나의 개별적 존재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모든 문제는 인간회복이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엘리트는 엘리트의 입장에서, 평범한 개인은 개인적 입장에서 그가 서 있는 현실에 근원적 기초를 두고 민족의 주체적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확립시키는 진정한 실존적 자아를 되찾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대 인간의 찬란한 문명창조는 지구의 나이에 비해 극히 짧은 역사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은 역사시대를 통해 물질계와 부단히 투쟁하였고, 인간고유의 창조적 자세를 잃지 않고 인간집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생활을 통해 절진적으로 물질세계를 정복해 왔으며, 인간의 문명창조와 발전은 물질세계에 대한 인간의 승리를 증명하는 것이다.

인간이 역사시대 전기간을 통해 이룩해 놓은 업적은 인간이 그 주체적 입장을 상실하여 방황하는 사이에 거꾸로 인간을 지배하고 종속시켜 놓고 있다.

인간은 끝없는 소외의식을 느끼고 이런상태에서 인간의 생존가치는 형이하학적 차원에 머물게 된다. 그 결과 인간은 그가 생활해온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간에게 민족으로서의 實存的 自我의 確立은 무의미하며, 民族意志의 生活的 具現은 너무나 거리가 먼 옛 이야기일 것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사회성을 인정한다면, 인간이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고 어떤 형태이든 타인과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살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集團生活은 사실상 문명을 창조하는 주요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유대관계가 정상적일 때 인간

은 여기서 삶의 의욕과 인간의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의지에 찬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유대관계가 결렬되었거나 비정상적일 때, 또는 개인이 관계를 맺는 집단에 대하여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가치를 부여치 못할 때, 개인은 불안하며 이런 불안은 개인에게 소외감과 허탈감을 준다. 그가 속한 집단을 통하여 자신의 어떤 가치를 인정할 수 없게 되므로, 그는 창조적 의지와 의욕을 박탈당하고 그는 소외의식의 도피처로 물질에 대한 노예의 길을 택하는 자기상실의 길을 걷게 된다.

크로체의 주장처럼 과거는 죽어버린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로 존재하여 현실을 끝없이 규제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영역과 사고방향은 그가 처해왔던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다. 개인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현재화된 과거가 底邊에 깔려 인간의 사고와 行爲類型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헤겔의 역사적 작용성이란 것도 과거의 역사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낸다. 즉 과거의 역사는 그 진행과 더불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형성에 지속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통의 사회 속에서 역사를 갖고 살아온 개인들에게는 어떤 특유의 공통적인 성장이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상실이란, 첫째, 고립된 구체적 개인과 사회적 諸集團을 포괄하는 민족과의 관계에서 민족에 대한 개인의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가치판단 체계와 태도란 측면에서 究明되어야 하고, 둘째, 이는 개인이 사회에서 받고 있는 현실적 영향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역사적 진행과정에서 역사적 작용성에 의해 받게 되는 지속적 영향의 누적된 결과가 표면화된 형태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새 시대, 새 역사의 章을 열기 위한 창조적 민족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II. 民族主體勢力的 登場

중국대륙에 중심을 둔 정치·문화적 單一勢力圈下에서 다양한 정치·문화적 세력의 영향하에 한반도가 노출되기 시작한 조선 중기이후 한반도의 主體勢力 내지 지배계층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교유의 가치관을 상실하고, 가치관의 통일을 기하지 못한 채 自體分裂되어 그들은 민족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創造性을 상실하였다.

조선 중기이후 조선사회는 外的으로 서양문화와 접촉하기 시작하였고, 內的으로는 조선사회의 기반이었던 班常制度라는 신분제도가 서서히 붕괴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조선말기에 이르러 서양세력의 급속한 진출은 조선사회의 彈力性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조선의 지배층은 변화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은 자신은 물론 사회의 전반적 諸制度를 개혁하여 그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거나, 새롭게 변화된 사회의 힘을 대변하고 이를 중합하여 민족의 動的인 진진을 가능케 할 새로운 民族主體勢力에게 그들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이러한 창조성마저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편협하고 이기적인 政權維持를 위한 탐욕 뿐이었기에, 外勢와 野合하기를 서슴치 않았고, 나아가서 외세와 더불어 민족주체세력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서슴치 않았다. 그렇지 않은 部類는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여 북고주의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새역사의 변화에 무관심하였다.

東學革命은 새로운 변화에 동적인 적응력을 상실한 조선의 지배층에 항거한 민족주체세력이 일으킨 민족주의적 혁명이었다. 만일 동학혁명이 성공했다면 조선사회에서 구지배층에 대신하여 민족주체세력이 등장하였으리라 추측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韓國民族主義의 受難과 歪曲은 동학혁명의 실패에서부터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지도자의 창조성 상실과 사회의 탄력성 상실로 인한 조선사회의 무기력에 대항하고 민족의 주체성을 주장한 동학혁명이 실패함으로써 시작된 이런 비극은 구지배세력을 대신할 새로운 민족주체세력의 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主體勢力이 외세에 의해 挫折된 상태에서 우리 한민족이 甘受해야했던 36년간의 일제의 식민통치는 일제와 타협한 보수세력과 일제식 민당구과의 제후를 통해 민족주체세력을 탄압함으로써 주체세력은 말살 또는 추방되고 그렇지 않으면 민족주체세력이 해외로 도피하지 않으면 안 될만큼 잔인하고 폭군적인 지배체제에 의해 유지되었다.

이런 결과 민족주체세력은 한반도 내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크게 제약되고 오히려 해외에서 적극적 활동이 가능했다. 異國에서의 활동은 고독하고 괴로운 생활이 아닐 수 없다. 이질적인 생활과 풍습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주체세력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해방 후 주체세력의 분열현상은 타율에 의해 부여된 獨立과, 타율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민족주체세력이 정치 全面에 나타나지 못하였고 戰後 냉전체제의 부속물로 한반도가 전락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8·15해방을 통해 한민족은 근대민족국가를 외적으로 형성했으나, 민족은 남북으로 分裂되었고, 남북한 공히 그 자체 내

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자주의식에 기초한 민족을 형성치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분열된 남북한은 民族主義的 입장을 벗어나 강대국 위주의 냉전구조에 적합한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이들 남북정부는 民族意志의 구현이라기 보다는 強大國意志가 外的으로 근대적 민족국가의 형태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해방 후 한민족의 지도층은 민족주체세력으로 등장될 수 없었고, 당연한 결과로 그들은 민중에 기반을 둘 수 없었다.

外勢에 의해 他律的으로 주어진 독립은 주체세력의 兩分化現象과 더불어 주체세력을 약화시켰으며, 강력한 외세의 작용은 주체세력의 全面登揚을 봉쇄하였다. 현실타협 과정에서 주체세력을 제거하고 일제에 협조했거나 동조적 보수주의자와 타협함은, 제1공화국이 민족의 의지를 대변할 수 없었던 이유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제와 야합하여 安住해온 보수세력은 제1공화국에서도 그들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었다. 무원칙과 야합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한 이들에게 정치의 참모습이란 무원칙과의 야합이며, 이런 착오는 정치의 전통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보수세력은 시대와 정권의 교체에 따라 여러 번 離合集散을 하여 왔으나, 내적인 정치기질과 형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植民地下에서의 安住를 위한 無原則의 妥協은 정권유지를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식민지하의 피지배의식은 權威에 대한 挑戰 또는 반정부 의식으로 식민지 당국에 대한 阿附倫理는 국민에 대한 권위와 지배의식으로의 奇異한 변형을 거쳐 현실을 風靡하였다. 이들에게는 민족의 궁극적 목적이나 민족국가의 발전 또는 민족생존 문제에서 어떤 同質性도 발견될 수 없었다. 어떤 문제나 갈등과 반발이 튀뜨르기에 민족주의의

내적인 기반인 원칙있는 타협은 존재치 않고 이기적 목적을 위한 야합이 뒷전에서 성행되었다. 모든 행위의 관념적 사고방식은 그 반대로 권력에 대한 조건반사적 투쟁과 연결되었는데, 이런 모든 것은 植民地 根性的 變形에 불과하다.

한 마디로 기존 보수세력은 해방 후 격동의 시대 속에서 현재까지 상존하여 민족을 지배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 民族主體勢力은 사회 제반분야에서 새로운 엘리트의 형태로 등장하여, 국가가 처한 현실을 냉철히 인식, 민족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이념에 따라 민족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민족주체세력이 사회의 전반적 개편에 착수하여 역사의 새로운 章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추세이며, 거센 물결로서 역사적 必然性이고 當爲이다.

따라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民族意志를 반영할 수 있는 民族主體勢力의 등장은 80년대에 시작되는 새시대의 요구이며, 민족의 요구이다. 그러므로 민족주체세력의 정신적 기준으로 민족의지를 대변하는 이념, 즉 민족의 윤리적 가치관이 될 수 있고, 민족의 행위기준이 될 수 있는 창조적 민족주의의 高揚은 역사 전개에 필수적 전제라 하겠다.

III. 韓國民族主義의 發展 過程

「세계사에 있어서 오로지 國家를 형성하는 民族만이 우리의 注目對象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國家는 自由, 즉 절대적 궁극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點과, 國家는 자기자신을 위하여 존립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간이 소유하는 모든 가치, 모든 정신적 현실을 인간은 오직 국가를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이해해야 한다」라고 Hegel은 말하였다. 헤겔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의 민족주의의 가장 절실한 면을 지적했다고 생각한다. 東南아시아의 작은 반도, 제한된 人的·物的資源을 갖는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양단되어 세계사의 한 단위로 역할할 수 행하기에는 객관적 조건이 너무나 불리하다. 민족의 자기 존립을 위해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민족국가의 수립은 民族最大의 課業이다.

해방 후 응결된 國際政治의 冷戰構造 속에서 한국의 民族主義는 완전히 南과 北으로 分裂되었다. 한반도에 統一된 民族國家 수립을 위해 우리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 전개되는 치열한 民族主義 正統性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南韓의 民族主義와 北韓의 民族主義간의 주도권 경쟁이 妥結될 때 통일된 민족주의의 現實的 具現이 가능하며 한반도에 대한 外勢間的 경쟁이라는 他律에 대하여 한반도의 自體力量인 自律이 상호 異質的인 外勢에 창조적으로 應戰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 作用하는 外세를 中和시켜 自律을 極大化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민족주의의 自己展開는 자기분열적인 내적 모순과 한반도 주위의 국제정세라는 두 개의 변수에 의해 제한되며 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민족주의의 전개과정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기로 한다.

1. 한국 민족주의의 발생

한민족은 단일민족이라고 칭하며,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일종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과연 한민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3국이 정립되어 있던 시기에 살던 당시의 인간들에게 민족이라는 공통체의식이 존재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민족주의를 近代의 개념으로 파악하지 않고 단일민족에 의한 통일국가의 성립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民族개념은 통일신라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단순한 혈연적 일체감, 언어 및 지역적 공동체의식은 이때부터 싹터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태여 단일민족으로서의 根源을 찾는다면 우리는 신라의 3국통일과 그 후 한반도에서 唐나라의 세력을 축출한 676년 안동도호부 폐지를 전후하여 소위 「民族의 原形」이 잡혀졌다고 볼 수 있다. 민족의식의 성장은 민족으로서의 자각 내지는 自己意識문제이다. 원래 민족주의적 견지에서 「우리 의식」은 보편주의를 탈피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같은 「우리 의식」「자기 의식」같은 민족의식적 동일체 의식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실험과가 대두됨으로써 발전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도 대략 18세기 후반인 영·정조에서부터 시작하여 순조에 이르는 시기이다. 특히 홍대용·정약용과 같은 인물에 이르면 華夷觀念을 탈피, 전근대적인 양반, 常人的 신분제도를 타파하려는 경지까지 이르게 된다.

즉 실험과 학자들 중에는 우리의 言語, 歷史, 地理, 教育 등과 같은 우리 문화에 力點을 두어 지식체계를 확립하려고 애쓴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慕華思想과 현실적인 계급구조 등을 타파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민족문화고양과 민족의식 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적용할 만한 사회적 위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의 知識으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그들의 사상은 분명히 신각자로서 그들의 범위 내에서 끝나버린 관계로 민족의식이나 현실적인 민족주의적 운동으로 연결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의 업적은 분명히 중화사상으로부터 탈피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여기서 근대적 의미의 민족형성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최초 서양세력과 이를 대면하는 일본의 독점지배에 대한 산발적인 저항의식에서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들의 저항운동은 체계적이지 않고 또한 통합되지 않은 제 3·1운동 때까지 계속된다. 또한 초기에는 민족주의 운동에 복고적인 성향, 즉 절근대적 민족주의의 未統合性과 前近代性은 3·1운동을 계기로 하나의 民族主義로 통합되고, 절근대적 성격을 탈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3·1운동은 그때까지 계속된 多様な 민족주의 운동을 하나로 통합하고 주로 지도계층 중심으로 진행된 민족주의 운동이 全民衆을 기반으로 그 저변이 확대되었고, 민족주의는 民主主義를 政體로 하는 통일된 민족국가 실현을 이상으로 하게 되었다. 한편 3·1운동에서 해방 때까지 한국 민족주의에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가미됨으로써 자기분열의 씨앗을 배태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2. 제1단계(∼3·1 독립운동)

한국 민족주의는 19세기 중엽부터 신각하게 나타난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간섭에 대응하는 사상 내지 운동으로서 대두되기 시작하였

다. 이 시기는 전통적 질서라고 볼 수 있는 華夷의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가치관에 큰 변동이 일어났다. 이런 변동은 서양 근대문명의 충격으로 발생되었고, 전통적 질서의 붕괴는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현실적으로 위협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현실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정세 면에서 이 시기는 한반도에 대한 외세의 영향력이 多元化되고, 결국은 일본의 독점지배체제가 확립되는 시기였다. 한반도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권에 속해 있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반예속적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주권을 상실한 종속적 위치는 분명히 아니었다.

이런 관계는 조선말에 들어와 서양문명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양세력이 밀려오면서 깨어지기 시작했다. 청일전쟁, 노일전쟁은 본질적으로 해양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해양세력과 대륙에서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대륙세력과의 충돌이었다. 일본은 미·영을 비롯한 해양세력에게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목적이 제한적임을 명시하였고, 이런 일본의 태도는 러시아의 남진정책을 저지하려는 미·영의 전략과 일치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획득하였다. 이렇게 됨으로써 한반도는 유사 이래 최초로 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민족주의적 견지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선 대외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열강간의 경쟁적 관계가 종식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기득권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內的으로 경쟁적 관계의 外勢에 창조적으로 대응하고 외세를 역이용하여 이를 中和시킴으로써 민족의 자기 전개에 필요한 계기를 상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국제상황의 부정적 전개이며, 이로 인해 한국의 민족주의는 기형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영향권 내에서 일본의 독점지배로 정착되는 일련의 과정은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의세의 등학혁명, 경향자지의 의병활동, 그리고 3·1운동 등으로 대변되는 민족주의 세력들과의 투쟁과정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조선사회의 지배층은 민족주의적 견지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민족주의적 견지에서 단결되어 있지도 않았고 정권 획득과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親日, 親清, 親露로 四分五裂되어 의세의존적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이들은 민족주의적 운동에 대한 탄압을 서슴치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조선사회의 지배층은 民族의 魂을 이끌어갈 創造力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 지배층의 創造性喪失과는 반대로 일부에서 서양문명에 대항하여 민족의 자기 위치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전개된 것도 사실이었다.

西洋文明의 우월성은 본질적으로 近代化에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서양문명에 대응하는 한국의 민족주의는 초기부터 近代化라는 문제와 직결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이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性格이 달라진다. 그 태도를 大別하면 첫째, 西歐文明을 收容함으로써 民族의 새로운 活力素를 획득하려는 개화자강 방향에서의 民族主義運動, 둘째, 外勢를 排斥함으로써 民族의 殘存을 확보하려는 배타적인 운동으로 斥邪衛正 방향의 民族主義運動, 셋째, 의세의 배척과 민족의 고유한 內的要素를 개혁하여 민족의 새로운 진로를 찾으려는 민족주의 운동(동학운동)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趙芝薰교수는 그의 「한국민족 운

동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국의 민족운동은 정반대되는 의식의 바탕에서 시작되었다. 그 하나는 近代化運動, 즉 선진문명을 받아들여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開花思想이요, 다른 하나는 保守勤王運動으로서 신홍자본주의의 침략에서 조국을 방위하려는 忠義思想이 그것이다. 前者는 甲申政變, 甲午更張으로 나타났고, 後者는 乙未, 丙午, 丁未의 의병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양자의 중간에 三政怪擾와 東學亂이 위치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동학란에 집약된 민중봉기는 봉건적 특권계급에 대한 반항인 점에서 개화사상에 통하면서도 외국세력의 침투에 대해서는 보수사상에 뿌리박고 있다는 말이다. 한국적 역사는 이 세 가지 노선에 모두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또 그것들은 어느것이냐 제 나름대로의 역사적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조선말 민족주의 운동은 조선말의 한국사를 인식하는 방향에 따라 基盤을 달리 한다. 그러나 그 당시 역사의 단계에서 外的으로는 서구문명의 급속한 영향력 증대와 內적으로는 봉건질서의 해체라는 급박한 현실에 처해 있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한국의 민족주의가 그 추진력을 저항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민족내부의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民族主義는 저항의 대상이 사라질 경우 內的矛盾이 해결되지 않는한 자기본연적 요소를 갖게 되며, 결국은 민족주의의 自己展開가 제한적임은 확실하다. 조선말 민족주의 운동은 이를 주도한 세력의 역사인식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지만 역사적 실천입구는 동일하였다. 즉 서구화에 기반을 둔 갑신

정면의 개혁입구는 동학운동으로 전달되었고 동학운동이 수행하려는 二重任務는 그것이 실패하자 동학운동의 개혁적인 면은 감외경장이라는 근대적 형식으로, 그리고 동학운동과 척사위정의 배타적, 저항적인 면은 의병활동을 통해 3·1운동으로 계승된다.

3. 제2단계(3·1 독립운동 ~8·15 해방)

3·1운동은 전민족이 계급과 지역 그리고 신앙, 성별을 초월하여 하나로 뭉친 민족의식을 행동으로 과시하였고, 그로부터 민족의 동질성을 고양하였으며, 민중을 기반으로 일어난 民族主義運動이었다. 또한 3·1운동을 통하여 다양한 계보의 민족운동이 하나로 합류되었고, 따라서 3·1운동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온 민족주의 운동을 하나로 합류시키고, 앞으로 전개될 민족주의 운동의 방향을 결정짓는 하나의 지수지였다. 이런 면에서 3·1운동은 민족주의사에서 일대 전환점이었다.

—국제적 연관성—

3·1운동의 영향은 대외적으로 전파되었다. 즉 그해 5월 중국의 5·4운동이 3·1운동의 영향을 직접 받았고, 그해 4월 인도에서 일어난 샨타그라하운동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3·1운동은 아시아 민족주의 운동에 영향을 준 획기적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처럼 3·1운동은 對外的으로 민족의 자기완결을 주장하면서 독립의식을 民族自決主義라는 세계사적 의식과 연결시켰고 종래 진군대지 성격이 두드러졌던 민족주의 운동에서 탈피함으로써 民族의 역사성을 세계사

에 연결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세계사적 정신은 기미독립선언 뿐만 아니라 間島住民들의 시위운동(1920. 3. 26.)과 더불어 발표된 珥春 독립운동집회선언서에 잘 나타나 있다.

—對內的 意味—

대내적으로 보아도 3·1운동이 갖는 民族主義的 意義는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을만큼 큰 것이었다. 즉 3·1운동은 대외적으로 民族으로서의 自己展開를 주장하면서, 對內的으로는 양반층, 지식층을 배경으로 전개되어온 민족주의적 개혁운동을 농촌으로 파급시킴으로써 민족주의 운동은 민중의 생활 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민족의식은 지역, 종교, 성별, 계층을 포괄하는 하나의 공동체의식으로서 전민족이 통합된 유대의식으로 부각되었고 그런 의식은 3·1운동을 통해 행동으로 구현될 수 있었다. 그것은 민족이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하고 이질적 요소를 조율한 「우리 의식」을 제1차적으로 완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민족주의는 명실공히 민족을 구성하는 전민중을 기반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이러한 민족의 일본에 대한 一致된 단결은 모든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들면 物産獎勵運動같은 것도 정치적 자유를 넘어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모든 소비자층이 일치단결하여 전개됐다는 면에서 「우리 의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현존하는 모든 사회계층이 총망라됨으로써 민족 내부에서 脫封建·前近代性的 內在問題는 여전히 미해결상태로 남게 된다.

하여간 한국의 민족주의는 그것의 구체적 구현형태로 민주주의적 정체를 그 이상으로

하여 출발했으며, 한국 민족주의에 民主主義的 전통이 깊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 민족주의의 성장은 경제면에서도 뚜렷하다. 총래의 정치적 독립은 경제적 독립과 연결될 때 민족주권의 확립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즉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였다 해도, 민족의 경제적 자립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정치적 자유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의 인식은 하나의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독립은 경제적 독립을 전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민족주의는 새로운 목표로 경제적 번영에 대두되었다. 이리하여 경제적 민족주의가 한국 민족주의의 일면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민족주의 운동이 활기를 띠게 된 것은 3·1운동을 계기로 民族의 底力을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일본의 무단정치를 文化交隣政策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은 완화되었고, 3·1운동을 추진했던 민족주의 운동의 열정이 추진제가 됐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본다면 이는 민족운동의 무대가 만주가 되었다는 것인데, 만주일대는 일본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행사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3·1운동을 계기로 전민중을 기반으로 민족주의운동은 長足の 발전을 이룩하였다. 분산되고 비체계적인 면은 통합되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제의 팽창정책이 노골화되자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도 강화되었고, 일제가 민족주의 운동의 溫床地라고 볼 수 있는 만주일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자 민족주의운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내의 민족주의 운동은 전반적으로 크게 약화되어 민중의 광범한 참여를 획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하운동으로 잠입한 소수 그룹

에 의해 민족주의 운동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政治的 民族主義運動은 非政治的 民族主義運動을 표방하여 간접적으로 민족의식을 일깨우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운동의 대표적인 例가 「朝鮮」·「東亞」등 민간신문의 발간, 1928년에서 1934년까지 계속된 기독교계몽의 농촌계몽운동, 조선어학회운동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국의 민족주의가 저항적, 식민지적 민족주의를 自體脫皮할 수 있을만큼 성장된 것은 아니었고, 일제 36년이 갖는 민족사적 견지에서 부정적 효과는 民族主義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포괄되거나 상쇄될 수는 없었다.

否定的 效果란, 첫째, 우월한 사회조직의 침투는 조선이 가졌던 열등한 조직을 일방적으로 해체시켜 사회전반의 약점을 무자비하게 노출시켰다. 이것은 조직적 식민통치기간을 거쳐 민족에게 토착문화 가치에 대한 자기부정적 卑下風潮를 야기시켜 열등의식이 민중에게 만연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일제식민통치의 꺾박에 쫓겨 유사이래 최대의 민족이동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相異한 문화진통에 자기 적응이 강요되었으며 특히 러시아혁명후 극동에 전파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치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민족주의에 자기분열적인 새로운 이질적 요소가 주입되어 체내의 압조적처럼 그 독소를 온몸에 풍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4. 제3단계(해방 후 남북대화)

이 시기는 한국 민족주의에게는 외롭고 우울하며 괴로운 暗照期였다. 일제로부터의 독립에서 한반도 민족주의는 식민지 민족주의를

탈피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外勢에 의한 他律的 획득이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특히 주권회복은 자체역량에 의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외세(비·소)에 대항하여 한반도의 민족주의가 성장하기에는 그 힘이 너무 미약했다.

민족주의는 민족국가를 형성 내지 발전시키려는 지속적 집단운동의 형태로 전개되므로, 민족주의는 민족의 표상으로 민족국가의 구현을 위해 일제 36년간 일본이라는 적대세력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민족주의였고, 그 이상으로 하나의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모스크바 삼상회담의 결과 수치스런 남북양단의 형태로 부여받은 독립은 분명히 한국의 민족주의가 추구한 그런 理想은 아니었다.

우리는 지금 격동의 世紀에 살고 있다. 오늘이 것은 내일이 되면 이미 다른 것이 된다. 우리의 민족주의도 변하고 있으며, 또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선말에 싹트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모진 바람 속에서 성장해온 한민족의 민족주의는 自己挫折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민족사의 저변을 꿰뚫는 일관된 사상임에는 틀림없다. 한반도가 갖고 있는 人的, 物的, 資源上 富國強兵의 한계는 명확하다. 이는 남북한 대립으로 인한 민족주의의 분열을 통해 더욱 제한받고 있다. 세계무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民族統一을 달성함으로써 한반도의 잠재역량을 침체화시키는 것 뿐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리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비극적인 한민족의 현실은 지정학적 위치도, 외세의 영향도, 우리의 숙명 때문도 아니다. 근본원인은 바로 民族內部에 있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남한 자체 내의 사회적 불균

형과 남북간의 대립이라는 內的葛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차원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우리는 내적인 도전을 打破함으로써 가능하며, 그렇게 됨으로써 남북한의 민족주의를 초월하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민족주의로 자기전개가 가능하다.

새로운 차원의 민족주의란 저항적, 배타적 전통에서 성장한 비뚤어진 민족주의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며, 남북한 민족주의 중 어느 쪽이 한반도 민족주의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느냐 하는 기준은 식민지 민족주의의 전통탈피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식민지 민족주의 전통이란,

첫째, 한국민족주의는 外勢에 대한 저항적, 배타적 동기에서 發生하여 외세에 대한 저항적, 배타적 성격으로 일관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둘째, 한국민족주의는 사회 전반적인 주체적 자각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외세의 충격에 의해 발생되었다.

셋째, 한국민족주의의 저항적 전통은 그 반대 의미인 외세의존적 전통과 일맥상통한다.

넷째, 한국민족주의는 민족을 구성하는 개인적 기반 위에서 전개되지 못했다. 즉 전국민 개개인이 민족주의 운동의 주체적 개체로서 전국민적 차원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한국민족주의는 남북한의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 단일민족주의의 전통을 살려야 한다. 민족통일이야말로 한국 민족주의의 단일민족주의적 전통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 우리는 제한된 자원이거나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착실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민족의 주체역량을 증대시키는 賢明性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Ⅳ. 창조적 민족주의

우리는 일제 35년간 우리 민족의 무의식 속에 잠재하게 된 민족의 장래에 대한 비관적 견해를 말끔히 씻어버려야 한다. 이러한 고정 관념을 타파하는 것은 창조적 민족주의의 주요한 내용이다.

창조적 민족주의는 세시대, 새역사의 문을 열면서 민족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추구하는 하나의 이상이요 목표이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서구 민족주의가 내외적으로 공히 성숙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인 역사적인 민족의 주체적 잠재역량을 추적해야만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한반도의 특수환경과 시대적 조건에 적합한 현실적 적용방안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 목적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해방 후 우리가 범한 실수는 우리의 현실과 역사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이며 완벽한 그 무엇—현재 서구제국에서 통용되는 制度—을 성급히 실현하려는데 있었다.

민족의 장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주려면 민족성 내지 民族優越性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민족우월론을 내세우는 기준은 다양한데, 크게 나누면 文化創造能力과 他民族에 대한 政治的支配로 생각할 수 있다. 고대 유태인이나 그리스인, 서양인들의 원주민에 대한 우월의식 등이 그것이다. 이는 자기중심주의적 착각에 기인하는 면이 있으니, 중국인 일본인의 우월의식이 그것이다.

그런데 민족이 歷史過程의 어떤 시점에서

어떤 民族보다 열등한 문화를 소유했다는 사실이 장래에도 그 민족의 열등성을 표시할 수는 없다. 과거 한국의 문화는 독창적이었는데 死藏되고 있었음이 최근에 다른 나라에 의해서도 밝혀지고 있는 바와같이 적어도 한민족은 우리에게 우월성을 강조하는 민족보다 열등한 민족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시련의 歷史였다. 선조들의 獨創의 文化는 계속된 시련에 대한 창조적 응전의 결과였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역사가 榮光스러운 것이냐 굴욕적인 것이냐 하는 것은 決定된 것이 아니고 選擇해야 할 문제라는 점이다. 즉 민족의 장래는 우리가 선택하는데 따라 決定되는 것이다. 우리가 試鍊에 대하여 창조적 응전을 할 경우 영광된 내일을 기약받게 된다.

民族이란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民族이란 개인보다 월등히 높은 高次元의 存在이므로, 개인의 희생이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민족에 대한 개인의 맹목적 충성을 전제로 하고 논리를 전개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민족과 개인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요 雙務的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러나 民族이란 神話的 存在도 아니고 개인과 관계없이 개인 위에 군림하는 有機體도 아니다. 민족은 개인의 집합체일 뿐이다. 民族에 대한 충성은 自意的인 것이어야 한다. 어떤 민족의 진정한 힘은 역사적 사실의 客觀的 提示를 통한 개인의 自意的인 힘의 총화가 민족의 잠재역량으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민족을 위한 개인의 무조건 희생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다. 개인을 떠나서 민족이란 존재할 수 없다. 민족의 중요성은 개인의 중요성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正義社會 具現을 위한 國民的 倫理

極端的 個人主義나 利己主義, 無事安逸主義, 타협을 모르는 맹목적 黑白論理 등은 排擊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가난을宿命처럼 여겨왔고, 주위환경의 변화에 順應하면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다가 1960年代부터 시작된 근대화 과정에서, 모두가 잘 살아보겠다는 강한 의욕으로 땀흘려 일했고 차츰 발전되어가는 현실에 점차 「우리도 하던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난 20년간 놀라운 經濟成長을 이룩하여 物質的인 면에서의 絶對的 貧困을 덜고 일어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의 한 국을 심으면서, 물질적 풍요를 향해 계속 전진할 기틀을 다졌지만 정신개혁 면에서 솔한 문제점을 지닌 것을 看過할 수 없다. 우리가 바라는 正義롭고 밝은 社會를 이루어, 서로 믿고 안락하게 잘 살아가려면, 물질적인 면에서의 지속적 성장은 勿論, 정신적인 면에서도 成熟을 期해나가야만 調和된 發展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正義로운 社會란」 과연 어떤 社會인가?

그것은 한 마디로 法과 常識이 通用되고 正當한 努力에 正當한 代價가 지불되는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定義는 一見 모순되는 것 같다. 法과 常識은 通用되고, 正當한 努力에 正當한 代價가 주어진다는 것은 지극히 當然한 事理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不正이 正義처럼 둔갑하고, 不當한 努力으로 더 많은 所得을 거두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여기서 국민 누구나가 평등한 입장에서 誠實한 사람이 우대받고 남을 惡用하여 不當한 所得을 취

金 雨 植

<淸州大 講師>

하는 사람이 징벌받는 사회를憧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 나라는 과거의 모든 부정, 부패, 사회적 폐습을 말끔히 씻고 신뢰와 조화 속에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社會를 만들고자 국민전체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국민전체의 意識構造改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論語의 顏淵篇에 보면 信義를 강조한 부분이 있다. 즉 子貢이 孔子에게 政治의 要諦를 물었을 때 孔子는 經濟(백성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 軍備(무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 信義(백성이 治者를 믿는 것)를 들었고, 그 중에서 가장 要諦가 되는 것은 信義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正義社會具現의 核心은 국민의 식구조 개혁과 信義를 回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극단적 개인주의나 利己主義, 무사안일주의, 타협을 모르는 맹목적 黑白論理 등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II. 本 論

우리의 近代化 過程은 우선 經濟發展에 置重했었고, 그 속에서 슬한 폐단도 싹트던 것이다.

먼저 그와같은 폐단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根本原因을 알아봄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기로 한다.

1. 청탁풍조의 實像

폐단의 종류만 들어보아도 매우 많은 바, 권력형 부정부패, 富의 偏在, 道義의 타락, 黃金萬能主義 등이 그것이다. 그 속에서 正直, 誠實, 勤勉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오히려 「못

난 사람」대우를 받는 風潮가 조장되어 왔다. 특히 모든 부조리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청탁풍조가 비일비재했다. 우리가 잘 아는 「급행료」만 보아도 그렇다. 財力이 있는 사람은 배사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불만이 싹트고 不信感이 고조되어간 것이다. 청탁은 情實關係를 따라 확대되기도 했으나, 「한 사람이 잘되면 그 사돈의 팔촌까지 덕을 본다」는 옛말이 이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는 공을 私에 앞세우기 힘들고, 국민계층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분파주의를 고조시켰다.

특정 가문이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하여 人事請託, 事業請託, 利權請託 및 기밀누설 등, 법규정을 위반하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타인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례가 많았다.

하나의 청탁은 또다른 청탁의 根源이 된다. 소위 「請託의 그레샷 法則」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정상적인 방법은 뒤로 밀리고 不當한 방법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경향이 높아진 것이다.

현재 우리는 권력형 부조리에 세기를 박았고, 지금도 깨끗한 정부 및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리하여 對政府 不信感을 어느정도 해결해가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국민전체의 의식구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한 마디로 청탁을 하지 않는 자세가 意識化되고 生活化되어야 할 것이다.

2. 청탁풍조의 근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청탁행위가 발생하게

되는가?

크게 두 가지 흐름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우리의 사회적 인습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전통적인 사회인습 중에서 부탁에 대하여 拒絶하기 힘든 면이 있다. 만약에 어떤 면에서든지 관련있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했을 경우, 그것이 비록 부당하거나 違法인 경우일지라도, 철면피로 물리거나 물리정한 사람으로 낙인 아닌烙印이 찍히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원인은 보다 根本的인 문제로 資源의 稀少性을 들 수 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경쟁이 생기고, 경쟁에서는 정당한 경쟁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부당한 방법을 생각해 내는 것이다. 그래서 청탁을 하게 되고, 반대로 청탁을 한 사람이 다른 문제로 청탁을 받았을 경우, 그 청탁을 물리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청탁이 청탁을 낳게 되는 것이다.

3. 請託風潮의 根絶方案

이상의 갖가지 형태의 不除理를 없애기 위한 方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는 청탁풍조를 퇴치할 수 있는 方法論을 들어보기로 한다.

크게 나눈다면 制度的인 면에서의 方案과 意識構造面에서의 方案으로 된다.

前者에서 法治主義의 確立·能力社會·官僚組織의 合理的運用·國民의 基本欲求充足 및 均等化·社會的制裁의 強化 등이 있고, 後者에는 公益을 優先으로 여기며 청탁을 하지 않는 국민적 가치관의 정립이 있다.

가. 制度的 側面

먼저 法治主義의 確立이다. 法治主義란 歐美에서 말하는 法律에 依한 支配, 또는 法の

支配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法律이란 具體的인 實定法(헌법, 형법, 민법, 상법...등)을 말하며 法이란 추상적인 法原理(관습법, 조배...등)를 말한다. 이와같은 법이나 法律에 의하여 支配되는 社會가 法治主義社會이다. 法은 엄연히 存在해도 법이 없는 것처럼 非適正節次에 의하여 해결되는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 法治行政이 아닌 恣意行政의 폐습을 없애므로써 法이 정해놓은 경로를 따라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고 안 될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으면 청탁이나 이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질 것이다. 法治行政이 이루어지고 適正節次가 제대로 운용되면 行政에 대한 信賴度는 높아지고, 行政의 法的安定性이나 豫測可能性이 確保된다.

이런 견지에서 청탁 안하기 운동은 바로 法治主義를 사회 속에 확립시키려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法治主義의 확립은 청탁배격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法治主義가 확립되려면 현행의 모든 法律·制度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法 앞에 平等」이란 말은 人間의 基本權利를 말하므로, 不平等이 制度化되는 모순된 法律이 생겨나거나 存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떤 政治勢力이나 일부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일이 없도록 法の 운용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能力있는 사람이 認定받는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토마스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 Security(의식주를 포함한 개념); Response(모든 종류의 사랑을 포함한 개념); Recognition(특히 남으로부터의 인정을 말하며, 명예심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New Knowledge and Experience(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에 배

한 욕구)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인정(認定)에 대한 욕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중요시 되는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려면 情實·壓力·財力이 아닌 공개경쟁이 제도화 되어야 하며, 각종 人事問題가 合理的으로 운용되며, 誠實한 者만이 공직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우리의 관료조직이 우선 合理的으로 일을 처리해나가야 한다. 모든 업무가 適法節次에 따라 順理的으로 진행된다면, 청탁의 必要性이 없어질 것이다.

또한 국민의 正當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며, 그것이 均等하게 충족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토마스의 Security에 해당하는 것인데, 가장 저차원의 욕구인 반면, 가장 필수적인 요청이므로, 크게는 국가, 작게는 일정한 조직에서 개개 구성원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균등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社會的 制裁가 강화되어야 한다. 公職이나 기타 어떠한 조직체에서든지 信賞必罰의 原則이 엄수될 때, 각종 무질서와 혼란은 줄어들 것이며, 국민기강이 수립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이를 타개하여 正常으로 復歸시키는 사회적 제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의식구조면

이상의 制度的인 해결책이 아무리 完備한다고 하더라도, 制度를 運用하는 사람의 思考方式이 합리적이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모든 것은 無用之物로 化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 精神改革運動이 必要하며, 1970年代의 새마을 정신에 이어 社會淨化運動에서의 正直·秩序

· 創造의 精神이 그 어느 때보다 強力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國民精神教育體制가 確立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정신이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普遍化, 內面化되어야만 건실한 사회분위기가 이룩되고, 건전한 精神風土가 이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部類에서만 의식개혁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보고 전체가 改造되었다고 할 수 없음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더구나 나쁜 것은 좋은 것을 쉽게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 確固한 價値觀이 定立되어야 한다. 적어도 目標과 手段을 混同하여 급기야는 兩者가 顛倒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즉, 目標의 達成도 중요하지만, 이를 爲한 수단, 방법, 절차, 과정 등이 더욱 重要視되어야 한다.

또한 物質的 성취에 앞서 精神的 成熟을 갈구해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많은 일을 한 경우에는 그 보람을 잘 모를 것이며,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간할 기준이 막연하다. 質的인 면에서도 분명한 정신기초가 없을 때는 수준이 떨어지기 쉽고, 새로운 창조란 거의 不可能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건전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할 때만이 國家的 目標과 手段에 대한 國民的 合意가 형성될 수 있고, 총화단결을 통한 民族 繁榮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公益을 먼저 내세울 줄 아는 社會가 되어야 한다. 국민 누구나가 滅私奉公 또는 廢私立公의 정신을 생활화해나갈 때 진정한 民主市民社會가 형성될 수 있다. 擔當者도 아닌 사람을—특히 高位層을—찾아다니며 壓力이나 金力으로 해결하려는 思考方式, 地緣, 血緣關係를 이용하여 國家利益을 쪼먹는 행위, 少數人에게 特惠를 부여하는 權力濫用, 자기

의 권한을 넘는 越權行爲 등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根本的이고 直接的인 해결책은 역시 請託을 하지 않는 것이다. 法規에 위배된 청탁, 행정적으로 不當한 결과를 가져오는 壓力行爲, 公職者의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청탁 등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이를 拒絕하는 경우에도 이를 不平하거나 不滿을 품는 사례가 없게 하고 오히려 본받을 수 있는 풍토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물론 청탁이 正當한 경우도 있다. 例컨대 有權者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國會議員에게 호소한 경우에는, 이를 도와주는 것이 국민을 爲한 當然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에 대한 청원제도도 있는 것이 아닐까?

지금 社會에서는 청탁 안하고 안받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우리가 뽑은 의원 우리가 보호하자」는 구호가 외쳐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청탁을 하지 않겠다는 決意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다.

Ⅲ. 結 論

밝고 깨끗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時代的 進運에 우리 모두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인 바, 이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릇 사람의 마음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하얀마음, 다른 하나는 검은 마음이다. 하얀마음과 빛의 길은 이른 바 良心의 命命이요, 倫理的인 原則의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은 언뜻 보기에 매우 좁아보인다. 또한 매우 不便한 길이다. 반면 검은 마음과 어둠의 길은 誘惑의 길이요 幻覺劑와 같은 中毒의 길이다. 그러면서도 그 길은 매우 便利하고 넓어 보인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가? 직장에서의 유혹, 가정에서의 유혹, 同僚社會나 일반 사회생활과정에서의 유혹, 대중 매스컴에 의한 유혹 등 술탄 유혹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유혹과 압력과 심리적 集中豪雨의 急流 속에서 한 개인은 無力해지고, 그 重壓을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될 때, 그는 마침내 便利하고 넓어보이는 門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며, 그 길로 들어갈 궁리를 하며, 그 길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적당한 「理論」을 고안해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깨끗한 마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원래 勇氣란 옳지 못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能力이기 때문이다. 그 용기에 대한 結果는 간혹 손해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나, 길게 볼 때는 세상이 반드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익과 명예를 안겨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맑게 하려는 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元亨利貞(乾의 四德을 말한다. 元은 만물의 처음을 뜻하며, 봄에 해당되고 仁을 의미한다. 亨은 만물의 長을 의미하고 여름에 해당되며, 禮를 상징한다. 利는 만물의 이룸 즉 遂를 의미하며 가을에 해당되고 義를 나타낸다. 貞은 만물의 완성 즉 成을 의미하고, 겨울에 해당하며, 智를 뜻한다.)의 좋은 수확을 거두리라는 確信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公職者의 立場에서는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서, 어느 特定人을 爲해서가 아니라 국민전체를 위해 처리한다는 公益優先의 봉사정신에 투철해야 한다. 특정인이 아닌 국민전체를 기준으로 소신껏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할 때 청탁을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며,

청탁하려는 기회도 없어질 것이다.

社會指導層의 경우라면, 法規定이나 原則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이루어질 수 없거나 自己能力으로 이루지 못할 일들을 他人의 힘을 빌어 달성해 보려는 나쁜 惰性을 없애야 한다. 그렇다고 이것이 一朝一夕에 이루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이므로, 의식구조개혁과 부단한 제도개선, 부조리를 근절시키고야 말겠다는 政府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對民窓口를 擔當하는 公職者의 입장에서는 法과 秩序를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사실을 명심하여 公職者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즉 최일선 공직자로서의 責任意識과 自負心을 가지고 청탁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청탁행위의 결과가 善良한 국민의 權益侵害나 法的, 社會的 질서 또는 國家利益에 얼마만큼 해를 끼치는 것인가를 먼저 인식

하고, 이른바 背景없고 돈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軍人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청탁풍조를 배격하는 국가전반적인 움직임에 솔선적인 자세로 적극 협력해야 참은 물론 굳은 국민교육의 도장이라는 점을 생각하여 다른 어떠한 조직체에서 보다는 깨끗한 분위기를 이룩해야 하며, 엄정한 紀綱을 確立해 나가야 한다. 이 길은 바로 軍의 信賴感을 높이고, 국민들의 安定感形成에 크게 이바지하는 길이며, 第2의 跳躍을 통한 세계 속의 韓國을 심는때 礎石이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민 누구나가各自的 해야 할 바와 해서는 안 될 바를 명확히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合理的으로 행동하게 되면, 저절로 制度改善도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청탁에 의한 不條理 현상은 사라져 갈 것이다.

<名將 名言>

◎ 部隊는 지휘관의 性格의 연장이며 부대원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指揮官은 항상 사무실을 떠나서 부대원의 작업장이나 훈련장에 나아가서 그들과 討論하고 접촉하여 그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영향을 미쳐야 한다.

— 클라크 —

新冷戰時代를 맞이 韓國의 安保

文 道 彬

<서울新聞·論說委員>

韓·美安保유대가 강화되었다 하나美
國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돕는 입장이며,
國家安保의 진정한 主體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다.

1. 冷戰의 復活과 局地紛爭의 激化

80년대 國際情勢의 추이는 한 마디로 말해 견잡을 수 없는 混亂과 危機의 연속에 빠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지난 70년대말부터 美·蘇간의 德탕트(긴장완화)는 크게 꺾여가고 있었으며, 그 渦中에서 強大國간의 對決과 그리고 이에 자극받은 地域紛爭은 점차 격화될 것이라는 不安한 展望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國際動向이다.

먼저 強大國간의 對決樣相을 본다면, 70년대 國際政治의 긴장완화구조를 유도함에 있어서 主導的 역할을 수행했던 美·蘇관계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확실히 50년대의 冷戰을 거의 그대로 再演하고 있는 情勢이다. 그 주요 責任이 蘇聯의 軍事的 膨脹主義에 있음은 再論의 여지조차 없다.

추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70년대 후반에 北「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하여 「페르시아」灣의 이른바 「戰略的 초승달지대」에 침투한 뒤 西南亞와 東南亞에까지 계속 진출한 蘇聯은 최근에 이르러선 美國이 확고한 制海權을 장악해 온 太平洋에까지 힘을 投射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지난 79년말의 「아프기니스탄」에 대한 武力侵攻과 衛星國化는 弱小國 또는 中小國에 대한 強大國 支配의 냉엄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蘇聯의 이같은 군사적 팽창주의에 대한 美國의 對應 역시 만만치 않다. 「로널드·레이건」 美國대통령은 81년 1월 그의 就任辭에서 힘의 優位를 통한 世界 平和라는 美國 外交政策의 근간을 천명한데 이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도 『蘇聯은 世界 制霸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德탕트는 蘇聯의 야욕달성을

위한 一方通路였을 뿐』이라고 신랄히 비난하고 그러한 蘇聯의 야욕을 분석하는 것을 美國 행정부 外交政策의 最優先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함으로써 美國지도자로서는 50년대 이래 가장 強硬한 對蘇攻勢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한 蘇聯의 태도 또한 『美國의 軍事優位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西方의 주요 言論이 80년대 國際政治의 특징을 「冷戰의 復活」 또는 「新冷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美·蘇의 새로운 대결양상과 그로 인한 國際緊張의 銳角化추세를 지칭하는 것이라 하겠다.

美·蘇관계가 이렇듯 「新冷戰化」하면서 強大國간의 戰爭의 위험성이 漸高하고 있는 것도 否認하기 어렵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의 「폴란드」事態이다. 美國은 蘇聯에 전달한 外交文書を 통해 「폴란드」에 대한 蘇聯의 어떠한 軍事介入도 許容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 왔다. 따라서 蘇聯이 「폴란드」에서의 自由化운동을 軍事力으로 진압하고자 할 경우 세계는 거의 확실히 大戰의 一步 直前に 돌입할 것이다.

國際緊張은 비단 強大國간의 관계에 있어서만 高潮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강대국간의 긴장은 강대국의 利害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地域紛爭에 즉각적으로 投影되어, 中小國들 간의 葛藤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좋은 예가 「인도차이나」이다. 이 지역에 있어서의 中·蘇대결은 親蘇의 共產「베트남」과 親中共의 「캄보디아」사이에 대규모 武力衝突을 낳게 했으며, 이것이 80년초에는 中共과 「베트남」간의 무력충돌로까지 발전함으로써 東南亞의 安定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다.

또 최근의 「이란」·「이라크」간의 전쟁과 南

阿共和國·共產「앙골라」간의 전쟁 역시 地域國家간의 분쟁에 強大國의 利害가 얽혀 長期消耗戰化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이러한 狀況의 전개는 그것들이 「彼岸의 불」이 아님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韓半島의 現狀打破를 출몰 추구해 오고 있는 北傀는 國際潮流의 亂氣流를 武力南侵의 好機到來로 誤判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우리의 엄중한 警戒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昨今の 國際情勢인 것이다.

2. 蘇聯의 팽창주의와 韓半島

앞에서도 지적했듯 蘇聯은 지난 70년대에 데탕트구조를 一方的으로 이용하여 전 세계에 걸쳐 그들의 軍事力을 급격히 증강시켜 왔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아프가니스탄」에 據點을 확보한 것을 비롯 東「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太平洋연안지역에서 그들의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확장함으로써 美·蘇 양대세력의 對決揚인 韓半島와 印支半島 그리고 日本 및 中共 등 美國의 우방들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蘇聯은 2차대전 직후 그들이 強占한 日本北方 4개 도서에 현재 약 1만명의 兵力을 주둔시켜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세계 最精銳탱크 파괴용 전신으로 알려진 M-24 공격용 헬리콥터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또 최근 수년동안 極東지상군을 현저히 증강, 소위 極東統合사령부라는 것을 새로 설치하고 그들 군사력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51개 師團 46만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裝備와 火力도 대폭적으로 증강, 종전에 배치됐던 MiG-21機를 모두 MiG-23 최선

에 戰爆機로 대체하는 한편 SS-20 多彈頭이동 미사일 1개 砲隊와 적어도 10臺의 對艦미사일을 장비한 핵파이어 爆擊機, 그리고 「키예프」級 航母를 日本北海島 바로 건너편의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의 軍事基地로 이동 배치하는 등 可恐할 공격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蘇聯의 이같은 급격한 種東군사력 증강목적은 ① 日本과 領有權분쟁을 벌이고 있는 北方 4개 도서에 대한 군사적 強占상태를 더욱 강화하고, ② 앞으로 豫見되는 美·日·中共의 3角 軍事同盟에 힘으로 대항하며, ③ 「하와이」와 「알래스카」사이를 연결하는 美軍事력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위협을 가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우리의 비상한 關心을 끄는 것은 蘇聯과 北傀간의 최근 두드러져가고 있는 密着氣味라 아니할 수 없다. 蘇聯과 中共 사이에 끼어 있는 北傀는 이들 두 나라에 軍事基地를 제공하지 않겠다던 과거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78년 이래 北韓의 羅津港을 蘇聯의 西船 및 油槽船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블라디보스토크」항이 일어 선박출입이 불가능할 경우 羅津港을 통해 石油과 기타 物資를 鐵道편으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수송할 수 있도록 蘇聯에 開放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두 갈래의 消息通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하나는 최근 北傀를 방문한 바 있는 在美한국인 학자 李應植교수의 日本 마이니찌(毎日)신문과의 인터뷰에서의 지적이며, 다른 하나는 「모스크바」放送의 최근 보도가 그것이다.

李교수는 北傀가 蘇聯과의 共同開發로 확장한 咸北의 羅津港을 蘇聯에 10년기한으로 長

期租借해주고 있으며, 蘇聯인의 北傀방문도 많은 등 쌍방간에 긴밀한 經濟協力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內外通信이 지난 11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모스크바」방송은 蘇聯의 많은 선박들이 北韓의 羅津港에 빈번히 출입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특히 이들 선박 가운데는 蘇聯「遠東海運사업소」소속이 가장 많으며 이 배들의 수송화물은 대부분 北傀支援 用물자들이라고 밝혔다. 바 이는 李교수의 앞의 지적과 거의 일치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하겠다.

蘇聯이 羅津港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太平洋함대 母港인 北쪽의 「블라디보스토크」 및 「페트로파블로스크」항과 南쪽 「베트남」의 「캄란」灣을 연결할 수 있다는데 큰 意義를 갖는다. 소련은 美國이 과거에 시설해 놓은 「캄란」만의 港口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이곳을 基地로 하여 東쪽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南支那海 및 極東海域과 西쪽으로는 「페르시아」灣·印度洋에 이르는 政治的·經濟的으로 중요한 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그들의 오랜 宿願인 不凍港을 얻게 된 셈이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情況은 北傀가 對中共 偏向에서 점차 輻도를 수정해 蘇聯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은 北傀의 親蘇的 움직임이 일시적인 것이며 그것이 곧 反中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北傀가 만일 反中共노선을 걷는다면 그에 따른 많은 代價를 지불해야 할 것이며, 특히 中共과의 原油도입을 비롯한 經濟協力관계, 中共勢에 편승한 非同盟外交와 對西方접근 및 軍事支援 등이 北傀로서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北方 3角관계의 氣流로 보아 蘇聯의 팽창주의와 北傀의 冒險주의가 서로의 利益을 위해 野合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蘇聯과의 膠着성도 여하에 따라 反中共으로 돌아설 가능성 또한 전혀 배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北傀가 본격적으로 反中共 親蘇화한다면 韓半島의 緊張은 한층 高潮될 것이 틀림없으며, 美國防당국은 이 점을 우려, 蘇聯의 팽창주의와 北傀 모험노선의 膠着가능성을 최근 기회있을 때 마다 누누이 警告해 오고 있는 것이다.

3. 美國의 對蘇·對北傀 軍事態勢

「힘의 회복」, 「위대한 美國의 復活」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출범한 美國의 「레이건」행정부 는 현재 평화시에는 일찌기 볼 수 없었던 대대적인 軍備증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美國防省의 「防衛지침 83~87」에 따르면 「레이건」행정부는 앞으로 5년간 모두 1조 5천억달러의 어마어마한 國防費를 투입해 軍事力을 대폭 증강할 계획인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이미 「레이건」행정부는 81~82會計年度 國防豫算을 「카터」행정부 때보다 3백26억달러나 증액시켰다. 이 증액분이 쓰일 내용을 보면, 1척의 니미즈級 航母를 포함한 1백44척의 각종 艦艇 건조에 37억달러, 戰略核武器生産에 31억달러, 아직 機種결정은 안 되었지만 長距離 戰略爆撃機 개발에 24억달러, 迅速配置軍(RDF)설치에 25억달러, 2대의 早期警報機(AWACS), 60대의 對戰車근접지원기인 A-10機 그리고 F-15, F-16, F-18 등 각종 戰鬪機와 3백60대의 M-1 탱크 등 생산에 총 1백57억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5년간 1조 5천억달러의 國防豫算은 2차대전 후 최대규모의 것이며 越南戰에 쓰인 戰費의

총액을 훨씬 上廻한다. 이 엄청난 규모의 국방예산은 새삼 말할 것도 없이 軍事力面에서 對蘇優位를 전제로한 美國의 世界戰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0년대에 美國이 越南戰의 늪에 빠져 國力을 소모할 때 蘇聯은 軍事力을 착실히 증강해 70년대 중반부터는 戰略核무기, 空軍力, 심지어 海軍力에서조차 美國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60년대까지 美國은 절대 優位의 核전력을 바탕으로 2·5戰爭概念을 수립해 왔다. 이 전쟁개념은 「유럽」에서 蘇聯, 「아시아」에서 中共과의 전쟁을 각각 하나씩, 나머지 第3世界地域에서의 전쟁을 0.5로 하여 동시에 대처한다는 것이었는데 69년 이후 中·蘇분쟁이 격화되고 美·中共間의 國交가 이루어짐에 따라 1·5전쟁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蘇聯의 팽창전략이 대당트를 틈타 세계 곳곳에서 頭角을 나타내고 79년말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西方측의 생명선인 中東이 위협을 받게되자 이같은 美國의 世界戰略은 無力하게 되어 버렸다. 이에 따라 「레이건」행정부는 對蘇근사력의 優位회복을 절대 支持하는 國民輿論에 바탕해서 전쟁개념을 全面的으로 다시 수정하는 동시에 前記한 바와 같은 야심적인 軍事力증강계획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레이건」美행정부는 北傀의 南侵위협에 共同으로 대처하기 위한 韓·美安保協力에 있어서도 세 里程碑를 설정했다. 그것은 지난 4월말 美國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제13차 韓·美年例安保協議會議의 合意事項을 담은 共同聲明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성명은 두 나라의 「전통적인 友好·同盟·協力관계」를 선언한 지난 2월의 韓·美頂上 회담 기본정신을 재확인함과 함께 美國의 확

고한 對韓防衛公約과 駐韓美地上軍 철수계획의 撤回, 韓國軍 전력증강계획 및 防衛産業의 지원강화, 韓·美연합방위능력의 提高등에 관해 소상히 언급하고 있다.

우선 이 성명에서 『韓國의 安全保障이 東北「아시아」의 平和와 安定의 主軸이며, 美國의 安全保障에 必須的』이라고 강조된 것은 美國의 前進防禦전략개념에서 볼 때 韓半島가 東北亞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동시에 그 전략적 價値判斷에 있어서는 北傀의 위협뿐만 아니라 蘇聯의 軍事팽창주의까지 망라한다는 「레이건」행정부의 「連繫戰略」개념을 명백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다음 韓國의 自主國防力 강화문제와 관련하여 北傀의 계속적인 군사력 증강이 韓國의 安全保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양측의 意見이 완전히 일치된 것도 이 회의의 주목할만한 成果였다. 지난 71년의 「닉슨」행정부에 의한 駐韓美第7師團의 철수조치, 77년 「카터」행정부에 의한 殘餘 駐韓美地上軍의 단계적 철수결정 등은 모두 美國의 北傀군사력 過小평가에서 비롯된 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過誤가 是認되어 撤軍계획이 철회되고, 그동안의 韓·美 군사협력 不振이 北傀로 하여금 韓國보다 각종 裝備面에서 2배 내지 4배의 優勢를 허용케된 사실에도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다.

이에 따른 일련의 緊急對策이 다음과 같이 강구되었다. F-16 전투기 36대를 비롯한 스텔저 對空防禦용 미사일, M-551 輕戰車, M-88 救難戰車 등의 對韓販賣승인과 호크 對空미사일 등 駐韓美軍의 신에 장비 일부를 韓國軍에 이양키로한 합의가 그것이다.

한편 駐韓美軍의 戰力도 전저히 강화될 것이 이 회의를 통해 확인되었다. A-10 근접전

투지원기, F-16 전투기, E-3A 早期警報機 등을 韓國에 연내로 배치하고, 駐韓美2師團의 裝備를 전면적으로 現代化하며, 韓·美聯合司의 지휘체적 補強, 韓·美間 조기경보 情報交換 체제의 강화 등에 관해 합의가 이뤄진것은 韓·美연합방위능력의 획기적인 提高를 또한 期待케 하는 것이다.

4. 同伴安保의 前提는 自主國防

蘇聯의 팽창주의에 대응하는 次元에서의 美國의 對韓防衛意志는 美軍部の 一線책임자들에게 의해서도 자주 천명되고 있다. 「류·엘런」美空軍참모총장은 지난 3月 日本「도오코(東京)」의 신기자클럽에서 행한 한 演說에서 蘇聯군사력의 무모한 팽창이 東「아시아」와 太平洋 지역의 安保均衡을 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과 함께 특히 北傀의 군사력증강이 「不吉한 威脅」이라고 지적하면서 美國은 연간 對美무역량이 西「유럽」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는 東「아시아」와 太平洋지역에 대한 公約이행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태평양지구 총사령관 「로버트·롱」提轄은 지난 11월 18개국 군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마닐라」에서의 한 軍事세미나에서 『오늘날 戰略폭격기, 미사일, 大陸間탄도 미사일적재 潛水艦 등으로 형성된 美國의 核雨傘은 核전쟁을 억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世界군사력 경쟁에서 蘇聯의 세력증대를 沮止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美國은 「아시아」·太平洋지역에 대한 蘇聯의 꾸준한 팽창주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 이 지역 주둔 美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韓國에 새로이 최신형 F-16 전투기와 A-10 근접공중지원기를 배치한 것이 바로 그러한 노

력의 일환이라고 밝힌바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새삼 깨달아야 할 것은 美國의 對韓防衛公約이 앞으로는 과거의 一方支援과 달리 同伴安保의 성격을 띠고 이행될 것이며, 그 同伴安保는 우리의 튼튼한 自主國防力을 기능발휘의 大前提로 하고 있는 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조斗煥대통령이 지난 2월 訪美귀국인사에서 韓·美安保유대가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美國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돕는 입장이며, 國家安保의 진정한 主體는 바로 우리들』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점에 대한 지적이라 하겠다. 또 기실「레이건」美國대통령도 지난 1월 그의 就任辭에서 『美國은 友邦들의 協調度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支援을 하겠다』고 밝힌바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性格의 韓·美 同伴安保개념에 비추어 장차 예견되는 北傀의 다음과 같은 두가지 형태의 軍事冒險가능성에 예의 對備해

나가야 한다. 하나는 소위 僞裝革命전쟁의 도발가능성이다. 즉 武裝間諜 등의 大量南派로 우리의 內部情勢를 폭력혁명에 유리한 상황으로 유도, 美國의 介入명분을 배제한 非正規戰을 벌이겠다는 企圖이다. 또 하나는 소위 「3日戰」등 短期速決戰전략에 따른 先制기습공격이다. 즉 제한된 特定지역을 불의에 기습공격하여 美國이 參戰하기 이전에 占領지역이 확보되면 곧 바로 蘇聯 등 배후세력을 내세워 국제적 協商으로 이를 既定사실화한다는 기도이다.

우리의 自主國防概念은 이같은 모든 事態에 대비 『외부지원 없이 北傀가 單獨南侵을 해올 경우 우리도 友邦의 지원없이 단독으로 이를 격퇴할 수 있는 國防力을 갖추자』는 것이다. 따라서 새 冷戰시대의 우리 安保는 우리의 自主國防태세가 확고할 때 비로소 온전히 유지되나갈 수 있다는 事理를 우리는 재삼 銘心해야 하겠다.

<名言 名句>

◎ 어찌하여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

— 예 수 —

에너지戰爭과 海外資源 開發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經濟成長을 지속해왔고 따라서 經濟規模도 커졌다. 수출에 의한 開發戰略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資源의 海外依存度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1. 머리말

무릇 經濟란 選擇의 連續이며, 보다 合理的 選擇을 追求해가는 過程이라 할 수 있다. 원래 經濟란 資源의 稀少性에서 出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經濟가 閉鎖經濟일 때는 自給自足으로 充分했지만, 생활양식이 複雜해지고 점차 開放經濟로 변하면서 各國間 相互依存의 必要性이 매우 커졌다.

특히 資源面에서는 石油가 武器化되면서 資源民族主義가 대두되어, 우리와 같이 資源貧國의 입장에서는 經濟運用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지난 73년과 79년의 1,2次 石油波動과 지난 해의 社會的 不安 등으로 우리나라는 類例없는 경제적 陣痛을 겪었다. 문제는 資源貧國인 우리나라로서 단 하루도 石油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단 한방울의 기름도 나고있지 않다는데에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經濟成長을 지속해 왔고, 따라서 經濟規模도 커졌다. 수출에 의한 開發戰略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資源의 海外依存度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몇년 전부터 資源確保策의 일환인 海外資源開發에 對한 認識이 높아지고 있으나, 最近 資源確保對策에 對한 討議內容들을 살펴보면, 開發輸入으로 모든 資源問題들이 해결될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資源의 安定的인 確保策으로는 開發輸入 이외에도 備蓄制度, 長期輸入契約, 國內資源開發, 資源節約, 現 先物市場의 活用, 輸入線 多邊化 등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海外資源開發輸入도 綜合資源確保策의 일환으로 討議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

朴 熙 天

<國際經濟研究院 首席研究員>

단된다.

現在 우리나라의 經濟實情이나 外換事情 및 技術水準을 감안한다면, 短期的인 資源確保策으로는 長期輸入契約, 現 先物市場의 活用과 輸入線多邊化가 시급하며 中·長期的인 資源確保策으로는 備蓄制度, 資源節約技術開發과 開發輸入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便宜上 요즈음 主要論議의 대상이 되고 있는 海外資源開發輸入의 現況과 問題點을 살펴보기로 한다.

2. 海外資源開發輸入의 意義

일반적으로 개발 수입은 投資買鐵과 融資買鐵으로 크게 分類된다. 投資側은 投資買鐵의 경우 資本直接參與로 經營權을 갖게 되며, 融資買鐵의 경우 融資의 代價로 生産量의 一部를 長期 安定的으로 供給의 保障을 받는다.

近來에 와서는 長期供給契約에 의한 單純輸入의 경우에는 資源生産者가 消費者로부터 資源開發을 위한 先拂을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融資買鐵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資源開發의 경우 開發에 必要한 直接 投資外에도 間接적으로 鐵道, 道路, 港灣 등 間接施設에도 投資되어야 하기 때문에 莫大한 資本이 必要하며, 資源開發에 消要되는 期間이 적어도 5~10年으로 資本懷任期間이 길며, 資本危險負擔이 크다.

그러나, 資源의 安定的인 確保없이 는 經濟發展을 이룩할 수 없으며, 그동안 擴大된 우리의 經濟規模나 鐵鋼을 비롯한 重化學工業育成에 따른 相當量의 資源을 單純輸入에만 依存할 수 없음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80年代

에 莫大한 資本投資와 危險負擔을 감수하며 海外資源開發을 擴大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輸入依存度가 높은 나라에서는 輸入面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供給이 없이는 輸出을 통한 經濟發展의 推進에 險路가 발생하기 때문에 開發輸入은 그 重要性이 더해진다고 생각된다.

3. 海外資源開發의 推進現況과 問題點

개발수입의 認識이 變潮된 이래 政府는 78年 12月 5日 海外資源開發促進法을 制定하였고, 79年 5月과 7月에는 海外資源開發促進法 施行令 및 施行規則을 制定 發表하였다.

이에 따라 海外資源開發基金이 設置되었으며, 開發輸入資源의 優先購買勸裝 및 備蓄販賣融資와 債務保證制度가 실시되었다. 財閥企業들도 81年初 資源供給先確保를 爲한 資源開發輸入關聯機構를 新設 또는 擴充하였다.

따라서 우리 企業들은 現在 호주·미국·필리핀·인도네시아에서 石炭을, 태국에서 주석과 아연을, 파라과이·가봉·수단에서 우라늄을, 필리핀에서 銅鐵을 開發하고 있다. 近來에 와서 이렇듯 활발한 海外資源開發推進은 앞으로의 資源確保에 밝은 展望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海外資源開發投資는 우리의 經濟規模나 國際水準에 비하면 아직까지 初步段階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事實이다.

<表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海外鐵產資源投資는 許可基準으로 全體 投資의 23%인 5,700만달러에 불과하며 實際投資는 전체의 4%인 550만달러에 그쳐 單一 프로젝트 1件의

財源에 불과한 實情이다.

海外投資現況

<表 1> (單位: 천달러, 81년 6월 현재)

		許 可	投 資
鑛	業	57,020	5,491
林	業	41,078	19,184
水	産 業	9,691	9,091
製	造 業	40,892	22,933
建	設 業	30,692	21,534
運	輸 業	2,444	2,180
貿	易 業	31,906	26,444
不	動 産	17,442	10,086
其	他	18,377	17,867
		249,542	134,810

資料: 財務部 財政金融統計(1981년 7월)

우리와 같이 賦存資源이 貧弱한 日本의 경우 GNP 規模面에서 우리의 20배 정도이지만, 80년 3월 현재 許可基準으로 鑛業部門海外投資는 全體의 20%에 달하는 65億600萬달러로 우리의 114배를 웃도는 水準을 보이고 있다. 日本의 海外資源開發이 우리보다 적어도 15年 앞섰다고 하지만, 許可基準으로 1978년의 3억 3,800만달러와 1979년의 8억5,700만달러의 日本 鑛業部門投資를 比較하면, 우리의 海外投資는 너무 초라한 實情이다 (日本 週刊 東洋經濟의 「海外進出企業總覽」 參照).

우리나라에서는 海外資源探查 및 開發支援을 爲한 資源開發基金으로 1980년에 20억원 (약 300만 달러)과 1981년에 40억원이 확보되었다. 이와같은 資金規模는 1개 鑛産開發費에도 미치지 못하며, 1980년 英國 Rio Tinto-Zinc 鑛産會社의 探查開發費 1억4,300만달러나, 美國 AMAX 鑛産會社의 1억1,800만달러와 比較하여 보면 資源開發을 爲한 基金確保는 매우 乏乏한 實情에 처해있다. 資源開發基金

이 외에도 輸出入銀行의 海外投資金融이 300억원 정도가 確保되었다고 하나, 確保額의 相當部門은 漁業·林業·海運業 등에 투자될 전망이다.

動資部가 발표한 鑛産物輸出入現況에 따르면, 鑛産物需要가 매년 急增하여 1980년 鑛産物輸入實績은 1979년에 비해 30.4%가 늘어난 9억2,100만달러로 有煙炭·鐵鑛石·銅鑛石輸入이 全體 鑛産物 輸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80년도 鑛産物 輸出은 1억 2,000만달러로 輸入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鑛産物 輸入의 相當量이 日本을 통한 間接輸入方式이며, 開發投資에 의한 輸入比重은 극히 미흡하다.

UN의 1980년 國際貿易統計에 따르면 1979년도 우리나라의 非鐵金屬, 非金屬 및 鐵鑛石 輸入은 全體 商品輸入의 5.4%로 日本의 10.1%에 비하면 絶반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日本과 같은 資源多消費型 産業構造를 止揚하여야 하겠지만, 현재 추진되는 經濟政策에 비추어 볼 때 80년대의 鑛産資源 輸入比重은 日本과 같은 水準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은 銅·아연·鉛·우라늄·망강·石炭·石油 天然가스의 海外開發에 集中的으로 投資하고 있으며, 1974년과 1978년을 比較하여 보면, 原油(9.5%에서 9.8%)를 제외하고는 投融資買鑛輸入比重이 銅鑛의 경우 45%에서 37.8%로, 鉛鑛의 경우 11.7%에서 5.3%로, 亞鉛鑛의 경우 12.2%에서 7.3%로, 알루미늄(보오크사이트)의 경우 6.9%에서 3.9%로 떨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日本의 投融資買鑛의 輸入比重減少要因으로는 日本 鑛物資源需要의 急增과 資

源生産國에서 附加價値를 높이기 爲한 手段으로의 地金輸出擴大를 들 수 있다. 日本의 投融資買鐵의 輸入比重이 언급된 鑛物中 銅鑛을 제외하고는 작은 理由는 日本이 海外直接投資보다는 아직도 長期契約으로 海外資源을 確保하고 있기 때문이다. 現在 日本은 需要의 100%까지 開發輸入과 長期契約輸入으로 資源을 確保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와 같이 海外資源에 對한 輸入依存도가 높은 西獨은 資源需要의 30~50%를 長期的인 方法으로 確保하고 있다. 제1차 및 제2차 世界大戰의 敗北로 海外投資를 전부 상실한 西獨은 그동안 해외투자를 꺼려왔으나, 1차 石油波動이래 海外資源開發의 必要性을 깊이 認識하여 근래에 와서는 開發投資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形편이다.

독일부흥기금(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은 1961년부터 1978년까지 獨逸會社들에 7억2,400만달러를 融資해 주어 同期間中 28억달러의 海外鑛山投資를 유도하였으며, 1977년 消費基準으로 매년 鐵鑛石消費量의 27.6%, 니켈消費量의 43.7%, 銅鑛石消費量의 9.1%, 亞鉛消費量의 4%, 보오크사이트 消費量의 24.7%와 鉛鑛石消費量의 1%를 長期輸入確保方式으로 資源確保效果를 얻고 있다.

또한 獨逸探查補助金으로 1억3,100만달러의 海外探查活動을 支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獨逸은 1979년 價格으로 108억5,700만달러 상당의 鑛物을 長期供給保障 받게 되었다.

이와같이 1:83이라는 探查費用對 確保된 鑛產物量 比重은 國際적으로 높은 水準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世界的으로 鑛山開發投資는 극히 부진한 상태에 처해있다. 世界銀行은 80년대 鑛物資源의 供給과 需要의 均衡을 위한 鑛山投資

를 연간 100억내지 120억달러로 推定하고 있으며, 獨逸技術發展研究所(ITE)는 알루미늄·鉛·亞鉛·銅·니켈과 朱錫部門에서 必要한 鑛山投資만도 1975년도 價格으로 연간 80억달러로 集計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IBRD) 발표에 의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投資되는 비용은 연간 26억내지 34억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와같은 鑛山投資의 低調는 그동안 原油價格의 引上과 物價上昇으로 인한 鑛山投資費用의 急上昇과 國際景氣沈滯에 따른 鑛物資源價格 下落 및 危險負擔이 높은 鑛山投資에 必要한 막대한 資金不足에서 그 要因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Cash-flow가 든든한 世界 굴지의 正유회사들도 鑛山開發에 直接 參與하는 것보다 既存 鑛山會社들의 引受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狀況이 지속될 경우 80년대 후반기에 가서는 鐵鑛石이나 銅鑛石 같은 主要 鑛物資源의 供給難 현상이 초래될 우려가 예상되며, 우리나라도 이에 對備하여 問題가 되는 主要 鑛物資源의 海外資源開發投資를 서둘러야 하겠다.

4. 맺음 말

우리나라 企業들은 海外鑛山開發에 있어서 新參者(Late Comer)로서 英·美 鑛山會社들과 같이 資本이 充分치 않으며 아직 石炭과 鐵鑛石을 제외하고는 獨逸이나 日本과 같이 막대한 需要를 바탕으로 하는 Bargaining Power도 약한 실정이다. 또한 프랑스·독일·일본과 같이 政府로부터의 金融支援도 부족하며, 海外開發을 擔當하는 日本綜合會社들과 같이 그

물내의 銀行制度를 活用함으로써 海外資源開發에 필요한 막대한 財源을 충당할 수 있는 形편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미국의 AMAX 鐵山會社는 지난 10年間 주로 물리브덴 探鑛利益으로 50억달러 規模의 開發投資를 하였다.)

이러한 狀況의 克服策으로 政府, 綜合商社와 實需要者들의 協議下에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綜合資源確保對策이 수립되어야 하며, 綜合對策에 따른 長期海外資源開發計劃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政府의 金融支援, 開發·探查支援 및 稅制上的 支援아래 日本의 경우와 같이 實需要者는 아니지만, 機能面에서 伸縮性이고 情報가 빠른 綜合商社를 중심으로 海外資源開發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의 資本이나 技術水準으로는 單獨開發投資보다는 第3國과의 合作開發投資나 融資買鑛으로 資源確保를 하며 漸進的으로 資源開發技術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綜合商社들은 開發投資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런던·뉴욕·시카고와 같은 資源市場에서 貿易活動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資源確保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長期的으로 런던 鑛物市場에 Ring Trader 자격을 가진 既存會社의 引受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資源의 長期供給確保를 위해 需要的 100%까지를 開發投資나 長期契約에 依存할 필요는 없으나, 財源이 허락하는 한 價格의 꾸준한 上昇이 예상되는 에너지 資源 즉, 原

油·天然가스·石炭·우라늄 등의 確保量은 많을수록 좋다고 思慮된다.

價格變動이 심한 非鐵金屬의 경우 需要的 30~40% 이상을 長期確保한다면 價格危險負擔이 지나치게 크며, 비철금속자원은 에너지 資源과 달라 探鑛한 상태 그대로는 消費되지 않기 때문에 原鑛石부터 地金까지의 각 製鍊過程別로 安定的 確保가 必要하다.

마지막으로 80년대의 安定的 經濟成長에 필요한 海外資源開發活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既存 輸出入銀行의 海外開發投資金融의 擴大 및 海外資源開發銀行의 設立과 海外開發基金의 擴大를 위하여 輸出入時 일정범위의 關稅를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야겠다.

또한 海外開發投資를 促進하기 위하여 海外開發活動費의 一部나 全額을 國內 企業活動에서 控除할 수 있는 海外投資損失準備金制度도 導入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바라는 第2의 經濟跳躍을 이룩하려면, 이제 좀더 巨視的 眼目에서 世界經濟를 관찰하면서, 특히 우리 經濟에 큰 影響力을 미치는 主要 經濟地域(美國, 日本, 中東, ASEAN지역...등)을 우리 經濟政策立案時 考慮하면서 國內條件 活用に 最大의 努力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88년의 서울 올림픽은 어떤 意味에서는 經濟跳躍의 발판이 될 것이므로 政府를 비롯한 企業人은 勿論 온 國民들이 合心努力하여 다시는 이 땅에 絶對的 貧困이 存在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民主市民과 意識革命

政治·經濟·社會 등 모든 분야에서 先
 進化를 갈망하고 있는 오늘의 時代的 指向
 을 상기할 때 우리 社會의 民主市民 社會
 的 意識의 定立은 너무나 시급한 과제
 가 아닐 수 없다.

민주사회란 인간의 합리성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사회이다. 이점에서 민주사회는 노예적 굴종 위에 군림하는 고대국가와도 다르고, 현대의 공산독재나 근세 초기의 絶對君主制와도 구별된다. 중세기의 神政的 통치이론 또는 20세기 中華를 풍미했던 나치스 국가 역시 민주사회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그런 사회나 국가는 인간 또는 臣民의 自律能力을 불신하거나 否定하기 때문에 被治者의 同意에 바탕한 민주정치 또는 민주사회란 생각할 여지조차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 제도는 시민 하나 하나가 다 자기자신을 합리적으로 運身할 줄 아는 自律能力을 갖추었다고 전제하고서 이른바 被治者의 同意에 입각한 사회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제도가 있기 전에 민주시민이 있어야 하는 셈이고, 민주시민이 있으려면 먼저 민주시민적인 德目과 資質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西유럽의 민주제도 발전과정에서 볼 때, 시민사회를 탄생시킨 시민정신의 기초는 합리주의와 淸教徒의 윤리의식 그리고 營利추구의 이 3者を 하나로 결합시킨 이른바 근대정신이였다.

합리주의는 말하자면 理性的의 법칙대로 사고하고 행동할 줄 아는 능력이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간단한 이치에서부터 갈등의 해소는 폭력에 의하는 것보다는 對話를 통한 調整에 의탁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이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事理에 맞게 처리하는 行動律이 다름아닌 합리주의이다. 쉬

류 근 일

<朝鮮日報·論說委員>

은 예를 들자면 프로 테슬링 같은 反則의 계
입은 합리주의가 아니요, 아마추어 테니스 경
기 같은 것이 바로 합리주의다.

정교도의 윤리의식이란 절대자의 善한 뜻을
신앙하면서 묵묵히 地上에서의 자신의 天職에
성실 근면하게 정진하는 자세이다. 이 天職에
의 경건한 召命意識이야 말로 시민사회의 근
간을 이루는 專門職의 발생과 안정을 보장해
준다.

근대정신의 또 하나의 支柱인 營利추구란
흔히 자본주의 精神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것
은 돈을 벌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다 해도 괜찮
하다는 뜻이 아니다.

참다운 의미의 자본주의 精神이란 원래 淸教
徒의 윤리의식에 바탕한 지극히 진실한 개념
이며, 이것이야 말로 오늘의 서구 産業文明을
발단시킨 모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참다운 자본주의 精神은 그 以前에 있었던
重商主義 경계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약탈적
致富哲學 또는 狎富哲學하고는 근본적으로 구
별된다. 막스 베버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前者를 천민 자본주의라고 불렀다.

이상의 3가지 주춧돌을 바탕으로 해서 근세
서구의 시민세력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민
주시민사회를 이룩했는데, 이 사회는 그 발전
과정에서 그밖의 다른 많은 德目과 行動律을
쌓아올렸다.

우선 주목할 만한 것은 공정한 계약觀念이
다. 중세교대사회나 東洋사회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 개인과 공공집단의 관계를 혼
히 人情과 義理의 관계 또는 情實관계로 맺어
놓는 경향이 매우 짙었다.

이것은 물론 그 나름대로 훌륭한 도덕적 가
치를 가지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한
편 그러한 관계는 잘못하다가는 옳바른 事理

보다는 억지와 무리와 부패 그리고 불공정한
관계를 호도하는데 악용될 우려를 단순히 안
고 있다. 가령 아랫 사람의 정당한 요구를 義
理의 이름으로 묵살한다든가, 또는 사사롭게
친한 다른 사람의 부정부패에 할 수 없이 동
조해주어야 하는 곤란한 상태를 겪는 것 등이
바로 그런 예이다. 그래서 흔히 이런 풍토에
서는 公과 私의 구별이 없어지고, 公人의 公
人意識이 흐려져서 公權의 私物化가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공정한 계약
관계에서 설정되면 각자는 그 공정한 약속에
만 철저히하면 될 뿐이지, 인격적인 예속관계나
치사스러운 情實관계에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게 된다. 모두가 피차 명예롭고 정당한 계
약 당사자로서 땀땀이 일하고 땀땀이 협력하
면 되는 것이다.

계약사상의 한 당연한 파생물로서 나오게
되는 公·私의 구별이야 말로 민주시민사회의
또 하나의 德目이다.

王朝社會나 家産制 國家에 있어서는 公權이
란 바로 私權으로 통하는 것이었고, 公人의
職權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하는 특권으로
통했다. 그리고 被治者의 입장에서는 자기 家
族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公人으
로의 의무 같은 것은 얼마든지 저버려도 그만
이란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봉건적 道德觀은 東·西를 막론하고
수 많은 烈女와 孝子, 忠臣을 만들어냈지만 그
烈女, 孝子, 忠臣들이 반드시 민주시민사회의
건실한 市民이 되는 것이냐 하는데 대해선 일
말의 회의가 없을 수 없다. 왜냐 하면 孝子와
烈女, 忠臣이 발휘하는 私的인 道德과 市民으
로서의 公的인 倫理와는 간혹 상충하는 경
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사회에서

는 私黨이나 朋黨 또는 地緣, 血緣에 얽힌 전근대적 私人意識이란 때때로 심각한 사회적 逆機能을 발휘하는 요소이다.

시민사회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또 한 가지 德目은 이른바 페어 플레이 精神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의견의 대립이나 利害의 대립을 해소하는 과정을 공정한 규칙에 따라 전개하는 紳士道의 모랄이라 할 수 있다.

우격다짐이나 억지 또는 反則에 의거하는 「진흙탕 속에서 난두(泥田鬪狗)」가 아니라 공정한 규칙에 따라 신사적으로 경쟁하다가 審判의 判定이 나면 그에 허심탄회하게 승복하고서 피차 악수를 나누며 헤어지는 것— 이것이 다름아닌 페어 플레이 정신이다. 정치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모두 이런 식으로만 전개한다면 인간사회에는 정글 속과 같은 弱肉強食이나 無法天地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理想에 가장 접근한 行動律이 바로 페어 플레이 정신에 입각한 시민사회적 모랄이다.

페어 플레이가 가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對話의 技法이다. 對話와 對話의 藝術이야 말로 민주시민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運用方式이다. 민주시민사회란 다른 무엇보다도 利害의 對立을 싸움에 의해 「해결」하려하는 대신 대화에 의해 「調整」하려는 사회이다. 이것은 따라서 一方의 他方에 대한 1백%의 全勝이나, 一方에 의한 他方の 1백%의 完敗를 지향하는 思考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對話에 의한 調整은 항상 妥協을 지향하며, 너와 내가 함께 사는 共存의 원칙을 준수한다. 각자가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그에 관해 피차 신사적인 토론을 전개하여, 양측이 다함께 승복할 수 있는 적정한 중간선에서 타협점을 모색한 다음, 일단 그것에 합의하면 깨끗이 토론을 마치고 족배를 드는

과정이 곧 對話의 길이다. 이것이 이를테면 同意에 의한 決定이란 것이다. 어떤 결론이든 이렇게 나와야만 모두가 그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정당성이 확보돼 있어야만 社會內的 平和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민주시민사회에 요구되는 市民倫理는 그런 것들에 그치지 않는다. 納稅者로서 또는 消費者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투철한 主人意識이라든가, 公共社會의 구성원으로서의 왕성한 참여의식, 그리고 公共질서를 준수하려는 자발적인 준법정신 같은 것이 다시 시민정신의 핵심을 이루는 요건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德目들은 시민사회의 公同한 整合性을 보장하는 진지한 連帶意識이 없으면 하나의 모래알처럼 흩어지기가 쉽다. 민주시민사회란 물론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에 기초한 사회이지만, 그 개인주의를 만약 잘못 해석할 경우엔 사회의 公同성 자체를 위태롭게 만든다.

진정한 의미의 시민적 개인주의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다른 것이다. 참다운 의미의 개인주의는 어디까지나 강한 책임의식과 連帶정신에 뿌리 박은 것이어야 한다. 민주시민사회 역시 각자가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 무책임하고 自律能力이 없는 衆愚들만 있을 때에는 민주시민사회는 존립할 수 없다. 모두가 동물적인 충동에만 이끌려서, 질서도 없고 책임감도 없이, 자기의 천박한 이기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난투극을 벌이는 상태라면 그런 상황에선 민주시민사회란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다.

成熟한 韓國人像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西歐에 있어서의 민

주 시민사회의 정신적 기초가 무엇이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시민정신은 오늘날에 왜 비단 西洋의 유산임을 초월해서 인류공동의 재산으로 보편화 되었다.

그렇다면 이 보편적 가치가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른바 近代意識이라 부를만한 思考의 싹은 實學思想으로부터 비롯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인 듯 하다. 이 實學派의 대두를 계기로, 전통적인 朱子學의 空理空論성과 非 厚生性이 비판되고, 實用과 福利 그리고 民本을 중시하는 實事求是의 기풍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싹은 꽃을 피우기도 이전에 韓末의 전반적인 붕괴와 더불어 幕을 내렸고, 그로부터 韓國人들은 정상적인 정신적 발전의 계도를 달릴 수가 없게 되었다.

日帝의 침략과 식민통치, 8·15후의 혼란과 6·25動亂이란 기나긴 歷史의 풍파를 겪어오면서, 韓國人의 의식은 여러가지 삶의 고통으로 인해 멍이 들었다고 할 수 있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韓國人들의 심층의식 속에는 어딘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식의 각박한 생존철학이 짙게 침윤돼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韓國人의 정상적인 近代意識의 성장을 적잖이 방해한 것이 사실이다.

일제 식민통치에 시달리고, 공산당의 南侵 때문에 난리를 치려야 하다가 보니, 나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넘치고 체면이고 가리지 않고 이것 저것 다해야 한다는 철학이 뇌리에 콕 박히게 된 셈이다.

이러한 생존철학은 자연히 규칙을 무시하고

남을 깔아봉개서라도 내가 올라서야 한다는 식의 反則의 계임을 남기가 쉽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德目이 아마도 公共질서의 관념일 듯 싶다. 시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德目이 바로 公共질서 觀念인데, 우리는 아직도 출서기 習性 하나 완전하게 익히지 못하지 않았나 싶다. 자기 집단이나 안방은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잘 꾸며 놓으면서도 公중변소나 公공시설에서는 마치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좋다는 듯이 무질서하고 불결하기까지 하다.

자기 가정에서는 그렇게 겸손하고 공손하다가도 일단 길거리에만 나왔다 하면 그야말로 피차 「용맹스럽게」대하는 불친결과 무례함도 우리의 결점중의 하나이다. 길거리나 버스타지하철 안에서 양보의 美德이나, 먼저 앉으시지요 하는 풍경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서로 먼저 타려고 밀치고 떠미는 습성은 아마 대학을 나온 인텔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듯 하다.

討論과 싸움의 차이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부족한 德目중의 하나다. 무슨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이것을 정당한 토론의 과정을 밟아 조용히 조정하는 습성보다는 이내 큰 소리가 나오고 사대질이 일어나는 것이 아마도 우리들의 큰 수치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일이다.

무서운 嚴父가 있거나, 家父長的 權威가 있을 때는 규칙을 할 수 없이 지키다가도, 그런 두려운 존재가 없다 싶으면 별안간 방종해지는 습성도 우리에게서는 분명히 있었다. 公과 私에 대한 분간이 희미하고, 매사를 주먹구구로 적당히 넘겨버린다거나, 公공사회의 모탈보다는 血緣과 地緣에 얽힌 私的인 규범에 더 연연해하는 관념도 잔존하고 있다. 직장이나

소속집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규칙대로 무엇을 처리하기보다는 규칙 「밖」에서의 「수근거림」이나 情實관계에 따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풍습도 많이 생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전근대적인 의식의 잔재를 헤아리자면 아마 이 정도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부족한 점을 언제까지건 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나마 본격적인 민주시민사회의 德目を 착실히 쌓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더군다나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先進化를 갈망하고 있는 오늘의 시대적 指向을 상기할 때, 우리사회의 민주시민사회적인 意識의 定立은 너무나 시급한 과제이다.

합리성과 公共倫理의식 그리고 사회정의를 핵심으로하는 민주시민 의식은 家庭과 職場과 中間團體와 公職者사회 그리고 모든 사회分野에서 진지하게 실천되어야 한다.

이것은 물론 하루 아침에 될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오래 끌 수만도 없는 일이다.

우선 바람직한 것은 全社會的인 教育場化이다. 마침 平生教育이다, 社會教育이다 하는 개념도 헌법상으로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민이나 主婦, 老人, 직장인들에 대해 民主市民으로서의 德目を 주지시키고 훈련시키는 교육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솔직히 말해 우리사회에는 여러가지 다른 교육기회는 적잖이 마련되어 있다. 곳곳이 교육이나, 자동차 운전, 종교 교육, 어학 교육, 기능교육 등 수 없이 많은 교육기회가 있지만 민주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신사교육」의 기회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교육은 물론 「돈」이 생기는 교육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구히 意識의 後進性을 면치 못할 것이며, 意識이 뒤쳐져있으면 物量이 아무리 先進化 되어도 그것을 잘 運用하기가 어렵다.

쉬운 例로 몇 해전에 있었던 裡里폭발사건을 들수있다. 그 어마 어마한 다이나마이트를 싣고 가는 화물열차 안에서, 운반 책임자라는 사람이 촛불을 켜놓고 소주를 마시다가 졸았으니, 이것은 도대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단순한 失手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상존하는 큰 갭(Gap)을 상징적으로 말해 준 사건이었다. 그 갭이란, 바로 物量的인 成長과 意識上的 未熟性 사이의 간격이라 할까 또는 불일치를 말하는 것이다. 物量的으로는 자꾸만 어른이 되어가는데, 意識은 아직도 어른이 되지 않은 까닭에, 그 不一致가 그런 상상도 못할 사고를 빚어낸 셈이다. 高度산업사회에는 高度의 시민윤리와 시민적 자질이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成熟한 시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성숙한 시민이란 자기가 할 바를 스스로 알아서 처리할 줄 아는 책임감과 良識이 갖춰진 시민을 말함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는 한 마디로 成熟社會에의 指向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성숙사회는 첫째, 自律的인 컨트롤에 의해 움직여지고 유지되는 사회이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을 하고 안할 일을 안하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성숙사회는 守分의 사회이다. 守分이란 자기 분수를 지키는 양식인데, 가령 돈이나 직권을 쥐었다고 해서 별안간 큰 집을

것고 불안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이다.

세째로, 성숙사회는 균형된 사회를 말한다. 한 방면으로는 급속히 발달을 거듭하면서 다른 면에서는 여전히 뒤떨어져 있는 석의 불균형은 성숙된 풍토가 아니다.

끝으로 성숙사회란 그야말로 「얼렁뚱땅」이 통하지 않는 誠實의 자세, 근면과 노력이 통하는 公正한 사회이다. 이러한 기준이 통하지 않고서는 사회적인 신뢰의 풍토를 조성하기 어렵다.

지나간 20년간 우리 국민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덕분에 그래도 이만한 정도의 산업사

회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物量的 성장을 계속 밀고나가는 한편으로, 그에 합당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공고하게 다져나가야 하겠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말도 사실이지만, 민주시민사회에서는 아랫물도 자발적으로 맑아져야 上下가 함께 맑아질 수 있다. 이 자발성이야말로 시민정신의 출발점이다.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명확한 한계를 지키는 가운데 명예와 엄치와 공공윤리를 중시하는 참된 민주시민사회의 정신적 성숙이 완성돼야 할 時點이다.

<話題의 源泉>

◎ 공처가의 거울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처 크산치케는 악치의 대명사처럼 불려지고 있는데 소크라테스만한 철인(哲人)쯤 되면 처가 좋고 나쁘고는 문제도 되지 않는 듯하다.

처의 잔소리에 대하여 그는 「물방아 도는 소리도 귀에 익으면 듣기 싫지 않게 된다」고 말했으며 머리에 물을 뒤집어 쓰기도 「천둥이 친 다음에는 큰 비가 오는 법」이라며 상대를 혼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난폭한 말을 타는 데에 익숙해지면 다른 말을 타기는 쉽다. 내가 이 여성을 잡내할 수 있다면, 천하에 사귀기 힘들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

「韓國美術 五千年展」이 거둔 成果

우리는 훌륭한 옛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에 계승될 수 있는
 정신적 혈맥으로서 약동하지 못할 때 한
 갖 遺物에 머물고 말 것이다.

吳 光 洙

<美術評論家>

「韓國美術 5千年展」은 근래의 문화행사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傳統文化에 대한 海外紹介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해방이후 한국 문화예술의 해외소개와 진출은 꾸준히 있어온 일이다. 대체로 이들 해외소개와 진출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국의 문화예술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온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의 해외소개라든지 진출이 극히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산발적인 것이어서 일시적인 효과와 反響을 얻는데 그친 인상을 주고 있다. 말하자면 극히 순간적인 것이어서 그 여운이 길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미국에서 열린 「韓國美術 5千年展」은 건국 이래 가장 규모가 큰 것일 뿐 아니라 본격적인 기획이었다는 데서 그 反響의 여운은 더 깊고 오랜 것이 되지 않았나 본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문화예술을 올바르게 인식시킨 기회가 아니었는가 싶다.

미국내 주요 8개 도시(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클리블랜드, 보스턴, 뉴욕, 캔사스, 와싱턴)의 유명 미술관에서 2년 5개월에 걸쳐 순회 전시되었으며, 이 전시를 관람한 인원이 2백 26만 2천명이라고 하니 이 숫자는 미국인 1백명중 1명 이상이 이 전시를 관람했다는 기록이 된다. 실로 그 반응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던 筆者가 미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와싱턴 전시를 볼 수 있었다. 관람하는 미국인들이 한결같이 놀라운 표정과 감탄을 거듭하는 광경을 보고 신문지상으로만 들던 이상으로 그

반응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었다. 어떤면, 전시된 작품보다도 이들 관람객의 반응이 더욱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했다.

우리들 박물관에서 보아오던 우리의 문화유산이 異域萬里 남의 땅에 와서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남의 땅, 남의 사람들이 의외로운 표정과 감탄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찬층 우리를 흥분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박물관에서 무시히 보아버릴 수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감명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도 자기 것을 상황의 對比의인 효과 속에서 되돌아 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대미술에 종사하고 있는 필자와 그리고 동행했던 현대미술가들이 지금까지 지나쳐왔던, 우리의 과거 문화유산에 대한 무관심을 일깨워주었던 사실은 잊을 수 없다. 참으로 귀한 체험이었다. 사실 이 미국전시가 이루어지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日本에서의 「5千年展」이라고 듣고 있다. 이번 미국전시 못지않게 日本에서의 전지도 충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紙上을 통해 접한바 있다.

日本과 美國은 사정이 다르다. 日本文化가 韓半島와 얼마나 밀착된 관계 속에서 꽃이 피었는가를 日本의 역사는 歪曲해 왔으며, 애써 진실을 외면하려고 해왔다는 점에서 일본에서의 5千年展의 충격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전시가 계기가 되어 일본내의 비뚤어진 韓國文化에 대한 눈이 어느 정도 수정될 수 있었다는 것과 良識의인 일부 학자들 사이에 日本歷史를 새로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자성이 대두된 것은 놀라운 반응이 아닐 수 없다.

美國展은 이같은 日本展이 불러 일으킨 충격적 반향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듣고 있다. 日本展에 참관하였던 미국인 학자들이 일본에

서의 놀라운 성과를 기반으로 출신 미국전시를 주선하였다고 한다. 물론 미국내의 반응은 일본에서의 그것과는 질이 다르다고 보겠다. 韓國과 日本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日本展에 비해 보다 넓은 東洋과 西洋이라는 대비적인 입장이 앞서고 있으며, 東洋三國 가운데서의 독자적인 韓國美術의 위치를 점검하는데 미국전시의 의의가 있었지 않았나 본다.

東洋三國 가운데서도 中國이나 日本은 西歐에 많이 소개되고 이해도 된 반면 韓國은 지나치게 무시되어 온 사실에서 미국전의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치부해 볼 수 있다. 뉴욕 타임즈가 밝힌바 「평범한 서양의 미술애호가에게 있어서 한국미술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中國이나 日本美術은 西歐에 잘 알려져 있지만 韓國美術은 무시되었기 때문이다」란 말 속에서도 이번 미국전은 서양사람들에게 韓國美術이 갖는 독자적인 존재가치를 이해시켜준 기회였음은 다시 말한 나위도 없다.

특히 이 전시가 한국미술의 이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다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룩한 유려의 학자들 가운데서도 韓國의 歷史나 美術은 中國의 亞流나 日本의 影響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 비뚤어진 韓國歷史 내지 美術觀을 교정해 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우리의 文化의 主權을 회복시키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들건데, 이 전시를 중심으로 각종 學術심포지움이 열리어 상호토론 가운데서 歪曲된 한국의 이미지를 바로 잡을 수 있었다는 것도 기억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이 전시는 단순히 우리 것을 보여주고 이해시키는데 끝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

다. 이 전시의 더욱 높은 의도는 상호이해의 증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韓國美術 5千年展」은 우리 미술문화를 단순히 미국내에 소개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두 개의 異質한 文化의 상호이해와 접근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를 통해 두 민족간의 유대의 강화가 이 전시가 지니는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타모어선 紙에서 밝힌바 「만일 이번 전시회가 한국인들의 생각과 역사를 보다 깊이 이해케하는 교량역할을 한다면 그것으로 이미 두 개의 엄청난게 다른 두 문화를 보다 가까이 접근시킨다는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란 말도 두 나라 사이의 유대를 문화를 통해 더욱 공고히 알 수 있다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다.

문화의 교류와 상호이해가 현실적인 政治, 經濟의 교류 못지 않게 중요성을 지닌다는 것은, 문화가 곧 정신활동의 결정체로 보기 때문이며, 따라서 문화가 모든 분야의 가장 근원적인 부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文化的 차원에서의 해외와의 유대형성은 지나치게 소홀하게 다루어온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 지나치게 형식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상도 없지 않다. 이런 모든 면을 감안한다면 이번 「韓國美術 5千年展」이 거둔 成果는 아무리 평가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본다.

II.

「韓國美術 5千年展」에 출품된 문화재는 정수문화재 264건에 354점이라고 한다. 5천년전의 先史時代 빗살무늬 土器에서 현대의 東洋 畫家 靑田 李家範의 山水畫에 이르기까지 한

국미술의 역사를 한 눈으로 조망하는 내용이 었다. 물론 이 숫자는 우리의 문화유적에 비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한국문화 5천년의 발전과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계획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이며, 한국을 직접 보지 않는 외국인들이라도 이만한 엇센스면 충분히 그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기에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면 이 전시에 대한 미국인들의 구체적인 반응과 관심을 종합해보기로 하자. 현지의 신문이나 교포들을 통한 그 곳 사람들의 한국 미술에 대한 태도는, 우선 중국이나 일본과의 비교에서 한국미술의 독자성과 예술적 수준을 측정하려는 것이 아니었던가 보아진다. 한국 미술이 특히 동양 3국 가운데 독자한 영역을 유지해 왔으며 그 수준이 다른 두 나라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 보아 그런지 東洋三國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양식으로서의 佛敎的 文化財나 아카데미한 繪畫藝術 쪽 보다는 풍토적 감각과 한국인 감성에 더욱 밀착된 부류의 것이 더욱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는 점이 발견된다. 지상에서도 여러번 언급되었지만, 필자가 직접 목격한 바로도 新羅時代의 金冠이나 高麗와 朝鮮朝의 陶磁工藝 쪽에 비상한 관심들을 나타내고 있었다. 新羅金冠 앞에서 수많은 관람객들이 쯤처럼 발을 떼지 못하고 모여 있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金으로 만든 王冠이라는 옛 왕조의 권위에 대한 호기심도 있겠으나, 이 金冠을 통해 수렴되는 이 시대 한국문화의 우수성이 가장 直截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먼 과거에 이렇게 수준높은 문화가 韓半島란 지역에 꽃을 피웠다고 하는 사실

의 확인, 그래서 그것이 古代의 어느 지역 문화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찬란한 문화였다는 사실을 거듭 음미하는 일상이었다.

어느 나라의 미술이든 그것이 제나라에 있을 때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무심코 넘어가는 사례가 있지만, 다른 지역, 다른 환경 속에 옮겨 놓았을 때 한결 돋보인다는 것은 역시 다른 지역의 미술과의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라 본다. 이는 비단 미술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韓國美術이 日本이나 美國이란 다른 지역에 전시됨으로써 더욱 그 특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곳의 이질한 미술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日本전시 때, 三國時代의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이 일본의 國寶 1號인 廣隆寺목조 半跏思惟像과 너무나 유사하여 이를 비교해보는 일본인들을 경악케 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서 건너간 것이 틀림없다는 과학적 조명이 가해지게 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양식있는 일본인들이 日本文化는 한국이 그 淵源이란 사실을 자각한 것도, 한국미술 속에서 발견되는 자가지 혈통적인 요소들이 자신들의 미술과 비교해 봄으로써 너무나 자명하게 들어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의 한국미술은 이와같은 사례는 일어날 수 없지만, 東洋과 西洋이라는 커다란 두 개의 文化의 비교란 점에서 한국미술의 독자성이 한층 부각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된다.

한국의 미술은 서양의 미술이나 같은 동양권의 미술에 비해 부드럽고 겸손하고 평화로운 감성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많은 미술사학자들이 밝힌바 특성이다.

三國時代의 佛像이나 高麗, 朝鮮朝의 工藝品 또는 朝鮮朝 繪畫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요

소는 한결같이 소박하고 어질면서 구수한 맛을 지니고 있음이다. 美術史學者 高裕燮이 이미 지적한바 「구수한 큰 맛」으로서의 소박하고 건실함을 지니고 있다. 또 「무계획의 계획」으로서 항상 자연에 回歸하려는 無爲의 차원을 지니고 있다. 이런 특성은 서구의 미술에선 아무리 찾으려해도 찾을 수 없는 독자적인 것이다.

우리나라를 일찌기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말해 온 것도 미술작품 속에 연면하는 부드럽고 평화로운 특성에서 반영되고 있다. 미국인들에겐 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서의 이미지를 미술작품을 통해 다시 확인시켜준 셈이 되었다.

지난 11월 14일 서울신문 문화강좌를 통해 보고 강연이 있던 자리에서 崔浮雨 國立中央博物館長은 「한국미술처럼 부당하게 냉대를 받아온 것은 없었다. 이 전시회는 미국시민의 가슴에 조용하고 아름다운 파문을 새겼다」고 이야기 하였다. 바로 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파문이야말로 한국미술이 지니고 있는 총체적인 특성이 아닌가 나는 생각한다.

어느 지역의 미술이든, 그 지역의 환경조건과 인간의 심성의 반영이란 점에서 한국미술은 곧 한반도의 환경적 조건과 한국인의 심성의 표현임에 다름 아니다. 한국미술을 이해하는 것은 곧 한국인의 심성,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는 논리가 된다.

III.

어쨌거나 이 전시는 우리문화, 우리의 찬란한 전통을 되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었다. 미국내에 살고 있는 교포들이 이를 계기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졌다는 소식도 이 전시가 거둔 성과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지나친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점이다. 지나친 우월감은 객관성을 흐리게하고 맹목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맹목화가 심화되면 國粹主義에 빠지게 된다. 과거 우리의 美術史를 기술해준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같은 문화적 우월감 때문에 객관성을 잃고 國粹主義적인 자기도취에 빠진 사례들을 얼마든지 보아왔다. 덮어놓고 우리 것이 최고라는 식의 찬사와, 덮어놓고 우리 것이면 美辭麗句로 수식하는 感傷主義의 기술이 커다란 폐단이었음은 이제금 반성되고 있는 터이다.

또 하나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지나치게 과거를 존중하고 현재를 비하하려는 콤플렉스이다. 과거의 찬란한 문화에 비해 현대는 너무 초라하다는 강박관념이 자기비하를 초래하고 나아가 현대를 덮어놓고 부정하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다. 과거에만 메달리는 태도도,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도 다같이 지나간 처사이다. 우리의 文化政策이 지금까지 주어진 이미지가 대체로 이러한 범주에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과거의 문화가 찬란한만큼 상대적으로 오늘의 문화를 진작시켜야한다는 정책보다는 편리하게 과거 속에 안주하려는 생각이 지배적이란 점이다. 결과적으로 現代文化가 꽃피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확실히 좋은 과거의 文化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에 계승될 수 있는 정신적 혈액으로서 약동하지 못할 때 한갓 遺物에 머물고 말며, 과거의 추억 속에 칩거하는 늙은이의 물결이 되고 만다. 그것이 傳統이 脈絡 속에 희생되고 오늘의 文化속에 맥박하는 정신의 썸이 될 때 비로소 과거는 그 찬란한 의미를 오늘에 되새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韓國美術 5千年展」은 우리의 유산을 해외에 전시함으로써 찬란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유산이 현대문화를 건설하는 정신적 바탕으로서 재생되게끔 각가지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과거를 통해 현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韓國美術 5千年展」이 갖는 또 다른 의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이 글은 美 空軍大學院 戰略政策과정을 優等으로 修了함과 동시에 어번大學校 碩士과정을 우수한 成績으로 卒業하여 美國 政治學會 會員資格을 取得한 바 있는 筆者가 海外留學을 준비하는 장병들을 위해 提供한 당시 어번大學 政治學 碩士과정의 卒業論文이다.

韓國의 安保環境

— 4強을 中心으로 —

徐 鎭 泰

I. 序 論

第2次世界大戰 直後 民主主義는 非赤性新生國들의 指導原理로서 받아들여 졌다. 그러나 그 後 民主主義는 이를 採擇한 各 나라의 政治 現實과 相衝하게 되었다. 民主主義는 過去와 現在의 傳統理念과 慣習에 正面으로 衝突했다. 理念을 바탕으로 아직도 部分的으로 分斷된 世界에 있어 新生獨立國들이 民主主義로 指向하느냐 아니하느냐는 重大한 問題다.

韓國動亂 때까지 世界는 韓半島의 重要性을 차치하고 그 存在조차 거의 알지 못했다. 오늘날 韓國은 美國이 깊이 개입한 世界에서 몇 안 되는 國家中的 하나다. 美國은 9千名의 空軍外에 3만餘名의 地上軍을 韓國에 주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司令部와 韓·美聯合司令部 아래 強力한 60만 韓國軍을 作戰統制하고 있다. 1945年 以後 美國은 70억弗의 軍事援助와 60억弗의 經濟援助를 했으며 여기에는

韓國動亂에 쓴 수십억弗과 수천명의 人命은 따로 계산된다. 韓國은 美·蘇·日·中 4強이 만나는 地政學的 特色을 갖고 있다.

특히, 1979年 10月 故 朴大統領 암살 이후 사람들 사이에 韓國의 政治, 經濟, 社會의 不安에 對한 논의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韓國의 將來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나는 混同과 歪曲은 주로 이해부족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다. 놀랍게도 美國人들은 韓國에 對해 너무 아는게 적다. 그래서 韓國의 事情과 立場에 對한 솔직하고 체계있는 評價와 提示가 要求된다. 西歐수준에 맞춰 동떨어진 먼 나라를 理解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韓國의 地位에 影響을 미치는 變數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理解하는 것이 必要하다. 나는 韓國이 당면하고 있는 問題를 좀더 잘 理解할 필요가 있는 美國人들을 위하여 이러한 變數를 분명히 밝히고 이들이 韓國에 끼치는 影響力이 어떤 것인가를 提示하고자 한다.

本論文은 먼저 韓國의 地理的, 歷史的 背景을 考察하고, 이러한 背景이 不可避하게 現在의 文化的 環境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는데, 이 文化的 環境에 對하여는 第3章에서 社會, 經濟 및 政治的 發展의 觀點으로부터 考察해 보도록 하겠다. 韓國은 周邊強大國들의 對外政策上 犧牲物로서 韓國의 安保에 對하여 考察하려면 우선 第4章에서 다룰 韓半島에 얽힌 이들의 利害關係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第5章에서는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情勢와 韓國內 韓·美 兩軍의 軍事態勢에 關係된 軍事的 環境面에서 韓半島의 安保環境을 살펴 보겠다. 마지막으로 第6章에서는 韓·美 安保體制 및 經濟協力關係의 效果의 유지에 力點을 두고, 4強의 力學關係 속의 韓國의 地位를 向後 10年間 韓國의 主要課題에 集中시켜 다루겠다. 이 章에서는 또한 韓·日 經濟關係의 제정립과 이 地域安保에 對한 日本同參問題를 다루겠다.

本論文의 論旨은 美國人을 相對로 하여, 21年間 空軍에 服務하는 동안 얻은 經驗과 觀察에서 나온 엄밀한 私見이며 반드시 正式 學究의 分析에 바탕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밝혀 둔다.

II. 韓國의 地理的, 歷史的 考察

1. 地 理

韓國은 東北아시아 南쪽으로 600마일 뻗은 半島이며 日本列島와는 120마일 떨어져 있다. 東으로 東海와 西로 黃海에 接해 있고 北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이 境界를 짓고 있다. 大韓民

國 首都 서울은 東京에서 西로 700마일, 瀋陽에서 東南으로 300마일, 오키나와에서 북서로 800마일 떨어져 있다.

半島面積은 221,325km² (約 8,600평방마일)이며 美國의 테네시州와 켄터키州를 합친面積과 거의 비슷하다. 現在 이 땅은 共產北傀와 自由大韓으로 兩分되 있으며 大韓民國의 行政區域은 半島의 約 45%를 占하고 있어 대략 켄터키州와 포르투갈 領土와 같다.

中國 및 러시아의 大陸勢力과 日本에 隣接한 韓半島는 오랜동안 大陸文化를 日本으로 傳하는 陸橋역할을 했다. 半島의 位置는 隣接文化에 쉽게 接近하는 잇점과 이웃의 侵攻目標가 되는 不利點을 함께 갖고 있다.

2. 人口와 移民

1978年 南韓人口는 約 3,700萬名에 北韓人口는 1976年對比 約 1,650萬名으로 推算된다. 第2次世界大戰前 韓國人은 만주와 日本으로 移住했고 現在 日本에 約 60萬의 僑胞가 살고 있는 것으로 推定된다. 1945年 以後와 韓國動亂中(1950~1953) 많은 사람이 北에서 南으로 越南한 사실은 最近에 일어난 가장 重要한 移住事例가 되고 있다. 第2次世界大戰이 끝나고 蘇聯이 北韓을 占領한 1945年 以後 約 200萬의 同胞가 越南했다. 韓國人은 單一民族에 單一語(한글)를 使用하며 少數民族이 없다.

急速한 經濟成長과 產業化는 韓國에서 都市化를 加速시켰다. 南韓의 都市人口 增加는 農村人口의 減少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1975年 人口센서스에 따르면 48.5%) 農村에 살고 있다. 農村人口의 大部分은 農業에 從事하고 있고 그 分布는 耕作地 分布와 거의 一致하고 있다.

人口密度는 首都 서울과 港都 釜山이 特別稠密하며 서울의 人口는 지난 2~30年間 크게 增加해 1978年에 780萬에 달하고 있다.

都市景觀도 1960年代 末부터 크게 變해 1960年 以前에는 하늘을 치솟는 現代式 高層建物이 서울에 없었으나 1970年代初 30層이 넘는 數十個의 빌딩이 서울의 商街에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잇따라 거리가 확장되고 有·無料의 高速道路가 생겼다. 電車는 1969年에 撤去됐고 地下鐵이 1974年에 完成됐으며 계속해서 地下鐵이 建設中에 있다. 水道通信, 가스같은 公共施設이 擴張되고 있지만 尙需 需要가 供給을 앞지르고 있다.

3. 韓國略史

韓國은 오랜 歷史的 遺産과 民族傳統을 간직한 豊富하고 獨特한 獨自文化를 갖고 있다. 또 自然이 아름다와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불린다. 그러나 世界史의 가장 悲劇的인 國家中의 하나로, 나라가 작고 약한데다 美·蘇·日·中의 利害가 交叉되는 戰略的 位置에 있기 때문에 韓國은 거듭되는 周邊強大國의 侵略과 逆侵略의 犧牲物이 되었다(韓國人들은 歷史上 900回 以上の 外侵을 받았다.). 數世紀 동안 韓國은 中國의 文化文明을 日本에 傳해 주었다.

19世紀 마지막 4半世紀가 始作됐을 때 韓國은 1910年 日帝에 主權을 빼앗기기 前까지 이 나라를 다스리던 李朝의 統治下에 있었다. 이 때는 엄격하고 階級的인 儒敎에 바탕을 둔 오랜 李朝의 政治, 社會, 倫理制度가 崩壞되고 解體되는 過渡期였다. 專制政府에는 黨爭과 귀족들의 權力暗闘가 橫行했고 社會는 傳統에 묶여 靜的이었으며 貴族階級(양반)과 平民階

級(상인)으로 層을 이루었다. 貴族階級인 양반은 富와 權力과 特權을 누린 反面에 平民은 가난과 무지아래 억압받았다. 社會經濟構造는 農業을 基本으로 工業과 商業은 重視하지 않았다.

政治構造上 中央政府는 弱하고 國民들과 멀어져 있었다. 地方政府는 強力했고 中央政治에 對한 地方民의 行動去就을 左右했다. 中央과 地方間의 거리가 멀어 政府의 實權과 行政은 끊임없이 감투싸움만 일삼던 爲政者들에 의해 行使됐다.

王은 理論上 國家絶대君主였지만 실제 政府의 政治와 조치에 對한 統制權이 없었다. 한마디로 韓國은 中世의 다른 나라처럼 階級的 封建的 社會였으며 傳統에 얽매어 政治的, 社會的 自覺意識이 缺如된 國民을 가진 貴族政治國家였다. 韓國民들은 “近代世界의 變貌와 近代 西歐文化로 이득된 帝國主義, 軍國主義, 經濟外交主義의 세 힘을 알지 못했다. 單一王朝의 間斷없는 長期統治와 함께 單一文化, 單一語는 韓國社會를 單一化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런 것이 外部世界의 힘이 韓國의 잠자는 社會와 統治者들에 의해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릴 때 지배했던 韓國의 社會政治 事情이었다. 이러한 鎖國姿勢는 16, 17世紀에 만주, 몽고, 日本人들에 의해 거듭된 外侵의 經驗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였다. 西洋異邦文明에 對한 鎖國政治는 中國과 日本이 西洋에 의해 문을 연 후에조차 완고하게 施行됐다.

中國과 日本의 兩大 이웃에 건 韓國의 位置가 歷史에 걸쳐 많은 問題를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韓國人은 몽고族 統治의 1世紀를 除外하고는 거의 2千年間 獨立國家로서 獨自文化를 잘 維持했다. 한편 韓國은 大部分의 問題

를 스스로 처리했지만 儒教兄弟國으로 中國을 섬기도록 강요당했다. 비록 韓國은 強大한 軍事的 傳統은 갖고 있지 않지만 때때로 다른 나라의 戰爭을 위한 戰場이 되었고, 韓國人은 항상 그들이 보여온 굳센 끈기로 이런 어려움을 헤쳐 나왔다.

오랜 세월동안 韓國人들은 놀라운 藝術的, 技術的 創造性을 보였다. 韓國은 世界 最初로 金屬活字를 使用했으며 한글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文字體制中 가장 精巧하며 實用的인 글자로 看做되고 있다. 16世紀에 한 海軍提督은 日本의 侵入을 물리치려고 世界 最初로 鐵甲船인 거북선을 發明했다. 美術에 있어 韓國人들은 傳統的으로 瓷器, 그림, 木工藝, 編織, 建築에 뛰어났다. 오늘날에 가장 完熟한 솜씨의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및 歌手中 일부는 韓國出身이다.

政治에 있어 黨爭은 끊임없는 災殃이었다. 黨爭은 李朝時代 腐敗와 停滯의 主要原因이었다. 李朝의 崩壞는 1894~1895년의 中·日 戰爭의 結果 韓國에서 오랜동안 影響力을 行使해 온 中國을 대신하여 日本의 共同統治를 가져왔고 1910년에 日本에 公式的으로 合併됐다. 數年間 日本은 韓國의 모든 것을 抹殺하고 韓國人을 2級 日本人으로 만드려고 애썼다. 日本人이 利用했던 韓國人의 民族性中 하나는 勤勉이었다. 日本의 地主와 業者들은 日帝에 食糧과 原資材, 基礎産業을 提供하는데 韓國人의 勞動力을 充分히 利用했다.

1945年 日本으로부터의 解放은 얼룩진 勝利였다. 韓國은 다시 한 번 強大國인 蘇聯과 美國의 불모가 되었다. 이 任意的인 國土分斷은 巨大한 社會的, 經濟的, 政治的 問題를 超來했고, 南北間의 戰爭은 問題를 보다 複雜하게 만들었다. 不幸에 닳설지 않은 韓國人도 韓國

動亂 때보다 苦痛받은 적은 없었다. 戰後 美國의 援助가 많이 왔고 매우 有益했지만 國土의 荒廢와 政治指導者의 缺如로 戰爭의 상처를 治療하는 데는 오랜 時日이 걸렸다.

危機가 新生韓國에 덮었을 때 韓國人들은 그들이 가장 잘 아는 措處를 취했다. 그들은 大韓民國 初代 大統領이자 強力하고 明哲한 프린스턴大學 出身 政治指導者 이 승만博士에게 非常權을 주었다. 1948年 8月 15日 政府樹立後 數年間 李大統領과 立法府 사이에 끊임없는 勢力다툼이 있었다. 李博士는 4年任期の 3選을 禁止하는 憲法을 改正하여 大統領職을 延長하려고 했다. 그의 權力이 커지고 政府의 腐敗가 蔓延하자 政府에 對한 不滿이 늘었다. 1960年 3·15不正選舉는 이러한 憤怒와 挫折을 “4·19學生義舉”로 爆發시켰다. 이 革命의 結果로 새 政府가 들어섰고 憲法이 改正됐으며 大統領責任制가 內閣責任制로 바꿨다. 李政權의 沒落後 얼마동안 民主主義의 꽃이 피는 듯했으나 끝내 滿發하지는 못했다. 결국 第2共和國(1960. 4. 19~1961. 5. 16.)은 國民들의 많은 正當한 不平을 처리하는데 不適當함이 立證되었다. 이 政府의 짧은 執權期間은 腐敗, 族閥主義, 高失業과 끊임없는 데모 그리고 憲法上 保障되어야 할 人權의 無責任한 濫用 등으로 계속 點綴됐다. 學生蜂起는 事實上 大意味分 없이도 거리로 나서는 것이 行動하는 길을 國民들에게 明確히 認識시켰다. 國內政治, 經濟問題는 점차 惡化돼 가는데 政府의 여러 政黨은 서로 싸움만 계속했다.

1961年 5月 16日 軍事革命委員會가 쿠데타로 政權을 掌握하고 즉각 憲法을 停止시켰다. 民政이 回復되자 大統領責任制를 支持하는 새 헌법이 發効됐다. 비록 朴正熙將軍이 쿠데타로 權力을 잡았지만 나중에는 公明正大하게

1963년과 1967년의 大統領選舉에서 大統領으로 被選됐다. 1969년 당시 憲法으로는 朴大統領이 세 번 出馬할 수 없었다. 그러나 政府與黨은 그가 다시 出馬할 수 있도록 憲法改正案을 通過시켰다. 1971년에 그는 1975년으로 終了되는 새 任期의 大統領으로 選出됐다. 1971년 選舉당시에 大韓民國이 全적으로 西歐式民主主義를 채택하는 것이 合당한지 엄밀히 再檢討되어야 한다는 輿論이 미디어와 知識層 사이에서 論議됐다. 그들은 大韓民國이 그 傳統과 文化, 그리고 暫定的인 要求에 맞는 어떤 새 形態의 民主主義를 發展시킬 것을 主張했다. 1972년 10월에 朴大統領은 戒嚴令을 宣布하고 特別聲明을 發表하여 憲法의 一部를 停止하고, 國會를 解散하고, 政黨行爲와 集會를 禁止시켰다. 朴大統領은 이러한 모든 것이 또한 번의 憲法改正 속에서 所謂 維新改革을 斷行하고 國家를 平和적으로 再統一하는데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그 後 곧 戒嚴令下에서 國民投票가 實施되고 維新憲法이 採擇됐다. 國民投票에 이어 곧 統一主體國民會議라 불리는 選舉人團이 完全히 朴大統領에게 忠誠하는 사람들로 構成되어 그를 6年任期의 大統領으로 再選시켰다.

朴大統領 政府의 業績은 잘 알려져 있다. 비록 朴大統領이 보통 西歐民主主義에 立脚한 行政, 立法, 司法府間의 牽制와 均衡 위에 大統領制를 새 憲法에 마련하는데는 失敗했지만 韓國의 最近世史中 最初로 政治의 安定, 經濟發展, 國家安保를 保障하려는 순수한 國民努力이 기울여지게 되었다.

4. 韓半島의 分斷

第2次世界大戰中인 1943년 11월의 카이로會談에서 韓國의 將來가 聯合國側에 의해 처음

言及되었다. 美·英·中 三國은 「韓國民의 隸屬狀態를 認知하여 가까운 將來에 韓國을 自由롭게 獨立시킬 것을 結定했다」는 宣言文을 發表했다. 1945년 2月 美國의 루스벨트大統領은 蘇聯의 스탈린과 알타에서 秘密會談을 갖고 이 會談에서 루스벨트는 美·中·蘇 三國이 韓國을 信託統治할 것을 提案했다. 重要한 것은 일단 日本의 降伏이 接受되고 信託統治가 實施되면 美·蘇兩軍은 韓國에서 撤收한다는 루스벨트와 스탈린간의 協約이었다. 이 當時 北韓에 있는 日本軍의 降伏은 中國軍이 接受하고 南韓의 日本軍은 美國軍이 接受할 豫定이었다. 당시엔 美國軍이 배로 南韓에 들어오고 中國軍이 陸路로 北韓에 들어가는 것이 日本의 降伏을 接受하는 가장 效果의인 方法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1945년 8月 6日 히로시마의 原爆은 蘇聯에게 “연한 버터를 칼로 자르듯이” 만주를 빼어낼 기회를 주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꿔 놨다. 韓國에서 日本軍의 降伏을 接受하는 것이 現地로부터는 不可能했을 뿐만 아니라 제때에 美軍이 韓國에 到着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그래서 美國政府는 1945년 8月 10日 밤에 처음의 計劃을 修正할 것에 同意했다. 이 날 美國은 蘇聯軍이 이미 압록강을 넘고 있었기 때문에 蘇聯에게 38°以北 日本軍의 降伏을 接受하도록 許諾하고 美軍이 到着하는 데로 그 以南을 美國이 接受할 것을 結定했다. 不幸하게도 第2次世界大戰末 美·蘇間의 利害關係가 相衡하였고 그 結果 日本統治로부터 解放된 후에도 이미 言約받은 自主統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대신 韓半島를 永遠히 두 個의 敵對陣營으로 갈라 놓았다. 美·蘇兩國은 단순히 降伏한 日本軍을 武裝解除시키기 위한 자신들의 便宜上 韓半島를 38線으로 任意分斷시켰다.

美國의 援助와 民主主義가 南韓을 支配한 反面 蘇聯은 自國의 影響力을 極東에 擴大시키기 위하여 北韓에 共產主義理念을 注入시켰다. 그리하여 韓國은 單一民族, 單一語, 單一文化를 갖고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日本의 統治와 周邊強大國의 干섭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것발아래 참된 同質性을 찾을 만한 時間을 갖지 못하고 있다.

Ⅲ. 韓國의 文化環境

1. 經濟發展

文化環境을 알아보려면 經濟環境을 알아야 한다. 大韓民國과 같은 開發途上國의 經濟를 分析함에 있어 먼저 우리는 韓國의 놀라운 經濟發展을 알아본다. 最近의 한 世界銀行 報告書에 따르면 「重要한 天然資源의 惠澤도 없이 不愉快하게도 國際所得水準의 밑바닥에 갇혀 있던 韓國은 世界에서도 놀라운 成功事例의 하나가 된 産業成長課程에 접어들었다」고 적고 있다. 1962年 第1次經濟開發計劃에 着手한 이후 韓國經濟는 年平均 GNP成長率 10%를 持續했다. 이 빠른 成長은 自給農業으로부터 現代製造業으로 構造的으로 轉換했기 때문이다. 國內市場의 制約으로 우리는 輸出指向의 産業戰略을 採擇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것을 알았다. 韓國에 있어 外國資本은 빠른 産業化를 위한 輸入要求에 財政을 充當하고 投資로 利用할 수 있는 不充分한 國內資本을 補充하는 2重作用을 했다. 15年間의 急成長後 韓國經濟는 資本形成과 支拂均衡에 있어 自立할 程度로 상당히 好轉했다.

韓國이 現在の 國內 및 國際地位獲得과 이

것을 可能케 한 經濟奇蹟은 封建時代와 孤立時代를 벗어난지 불과 30年 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더욱 놀라운 것이다. 韓國은 産業革命을 始作해 가장 어려운 瞬間을 成功的으로 겪어냈다. 韓國은 自由世界 特히 美國의 受援國이라는 過去의 地位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韓國은 極東의 重要經濟國으로서의 地位를 獲得했다. 게다가 韓國은 國內安定, 勤勉性, 높은 生産性을 보이고 共產主義에 對抗하여 自由越南을 직접 支援함으로써 國際的인 認定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이런 偉業을 達成할 수 있었으며 韓國社會가 치룬 댓가는 무엇인가? 韓國의 奇蹟이 다른 形態의 政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는 論駁할 餘地가 없다. 그러나 다른 政府가 같은 時期에 같은 어려움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가에 대해서는 論議될 餘地가 있으며, 그것은 이미 發表된 經濟開發五箇年 各計劃의 目標을 達成한 觀點에서 볼 때가 가장 效果의일 것이다. 1960年 4月의 學生義學와 5·16軍事革命은 韓國經濟의 絶望的 狀態 때문에 일어난 큰 事件이었다. 兩大事件은 變함없는 가난과 無能한 政府에 전될 수 없게 된 國民들이 보다 잘 사는 길로 이끌 수 있는 政府를 熱望하는 가장 深遠한 國民感情의 發露였다. 當時 狀況下에서 革命指導者들은 먹는 問題가 政治에 앞서야 한다는 確固한 信念을 갖고 政權을 잡았다. 必要하다면 일부 社會問題를 犧牲하더라도 可能한 한 빨리 自立經濟를 이룩하는데 優先權이 주어졌다. 배가 불러야만 藝術을 즐길 수 있고 社會發展問題를 면히 얘기할 수도 있다고 우리는 믿었다.

가. 經濟開發計劃

1960年 輸出所得은 不過 GNP의 3.3%에 달

한 反面 消費者 消費은 GNP의 98.6%에 달했다. UN側의 10個年開發計劃 宣言에 즈음하여 韓國은 IMF와 IBRD와 같은 國際財政機構로부터 援助와 協助를 얻기 위해 綜合的인 開發計劃을 세워야 했다.

1962年 第1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이 始作됐을 때 韓國의 所要投資는 대부분 外資로 充當됐다. 外國人 投資를 促進시키기 위해 韓·日關係正常化條約이 締結된 1965년에 外資導入法이 制定됐다. 第1次五個年計劃의 目標은 1950年代 美國의 無償援助로 들어왔던 消費財의 代用品을 輸入하는 것이었다. 1962~66期間中 年平均 GNP成長率은 7.8%였다.

1967년에 始作된 第2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은 輸出指向의 成長政策에 力點을 두었다. 天然資源이 不足한 韓國으로서의 工產品輸出이 源資材輸入을 통해서만이 可能했다. 우리가 버는 것은 加工處理費이다. 따라서 韓國經濟의 輸入依存度는 第1次五個年期間中의 16.7%로부터 第2次五個年計劃期間中에는 26.3%로 늘어났다. 1次五個年期間中 年平均 輸出額이 1億 3,720萬달러에서 2次五個年期間(1967~71)에는 5배나 增加한 6億 8,950萬달러로 激增 뛰었다. 第2次五個年開發計劃期間中 年平均 GNP成長은 9.2%였다. 이 期間中에 注目할 만한 特徵은 農村近代化를 통한 農業生產性의 向上과 政府의 높은 穀物收買價政策으로 農家所得이 보다 높아진 것이었다.

政府는 外國銀行들의 韓國支店 新設을 許諾하는 한편 國內貯蓄으로 所要投資를 充當키 위해 國內金融制度를 多樣化시켜야 했다. 1966年 6월에 韓國外換銀行이 設立됐고, 1967年 7월에 住宅銀行이 新設됐으며, 1968年 12월에는 韓國信託銀行이 開場됐다. 한편 政府는 公社의 民營化를 獎勵하고 證券去來所를 通해

民間貯蓄을 늘려 나갔다.

第3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1972~76)은 經濟安定과 均衡을 이룬 가운데 成長을 造化시키고 自立經濟體制를 確立시키며 各地域間의 高른 發展을 助長하도록 計劃되었다. 3次五個年計劃은 農村經濟의 革新的인 發展과 重化學工業育成에 重點을 두었다. 3次五個年計劃期間中 經濟成長率은 平均 11.2%였고 1973년에는 16.7%로 絶頂을 이루었다.

第4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1977~81)은 1978年의 第2次石油危機와 1979年 朴大統領弒害事件으로 심각한 問題에 逢着했다. 이러한 世界的인 經濟危機와 國內事件으로 因하여 韓國經濟 成長의 패턴이 뒤바뀌게 되었다. 1980年 2/4分期 韓國의 GNP는 지난해보다 5.9% 떨어져졌으며 따라서 전체적인 GNP는 -4%의 成長率을 보이게 되었다. 1979年 後半期初부터 始作된 經濟後退는 朴大統領의 逝去로 惹起된 政治的, 社會的 不安定한 局面으로 더욱 深化되었다. 게다가 油類波動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海外要因이 國內 總生產을 더욱 壓迫한 重要原因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韓國人들은 -5% 成長率에서 經濟後退를 抑制하는데 成功한 것으로 보인다.

나. 1981年의 韓國經濟

韓國經濟는 1960年代末부터 놀라운 好況을 누린 이래 最惡의 슬럼프에 빠졌다가 年末부터 回復期에 들어섰다. 申秉鉉 副總理겸 經濟企劃院長官은 워싱턴포스트誌에서 1981년에는 5~6%의 GNP成長이 期待되며 1982년까지는 經濟奇蹟을 이룩한 1970年代의 成長推進力에 버금가는 8~9%의 成長이 期待된다고 말한 것으로 引用報道했다. 이 新聞은 나아가 韓國經濟는 輸出指向의이며 이러한 높은 成長期待

는 工業生産力과 지난 10年間 持續해 왔던 것과 같은 政治的 安定에 크게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 新聞은 「몇 가지 重要한 徵兆가 보다 有利한 方向으로 나타났다. 輸出分野에서 나타나는 가장 믿을 만한 表徵인 信用狀이 39% 增加했고 그것은 1981年 上半期가 바뀔 것을 豫告하고 있다」고 썼다. 짧은 期間동안 인플레이 比率을 단단위 숫자로 만들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1982年 인플레이 比率은 10%水準으로 抑制될 수 있을 것이다. 倉庫의 在庫品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으며 工業生産은 급속히 增加하고 있다. 船積을 위한 海外注文이 홍수처럼 닥치고 있음을 보면 이러한 豫想이 信憑性 있음을 알 수 있다. 大韓造船協會에서 蒐集한 統計에 따르면 1981年 1월에만도 4個의 造船所가 今年 船舶輸出目標(20億달러)의 13.6%인 10隻의 배에 總 2億 6,600萬달러 상당의 造船契約을 獲得했다.

다. 앞으로의 展望

韓國은 經濟難局을 克服할 수 있을 것인가? 韓國이 向後 5年, 特別 올해의 挑戰에 어떻게 對處하느냐 하는 것이 이 質問에 對한 답이 될 것이다. 그 挑戰들은 점점이 에워싼 심각한 것들이다. 1970年代에 輸出에 지나치게 重點을 두었다는 論難이 있지만 아무도 先進工業國으로 成長하는 韓國의 꿈을 實現시키는데 있어서 輸出의 必然的인 重要性을 否定하는 사람은 없다. 現在의 發展期間동안 貿易赤字 均衡을 계속해서 잘 맞추는 것이 適切하지만 이처럼 要求되는 輸入品의 大部分은 現在 輸出을 통해 일어난 돈으로 아직은 支拂되어야만 한다.

工業化가 始作됐을 때 그 生産利益은 놀라운 것이었다. 生産勞動基盤이 擴大되자 利益達成

은 보다 堅固해 졌다. 그래서 1970年代에는 製造業部門에서 年 11%, 農業部門에서 年 3%의 生産增加를 보였다. 그러나 問題는 일어나고 있었다. 重化學工業에 對한 投資가 經工業投資에서 經驗한 만큼의 成果를 얻지 못했다. 生産性이 낮아지면 單位原價가 치솟아 生産品이 國際市場에서 有利하게 팔릴 수 없다. 그래서 當時의 挑戰은 많은 經費가 든 會社들이 生存할 수 있도록 韓國의 現代式 工場들을 充分히 可動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서 擡頭되는 것이 賃金問題다. 勤勉性和 最大 勞動生産性에 있어 韓國에 匹敵할 수 있는 나라는 있다고 해도 많지 않다. 國際市場에서의 競爭力은 人件費에 左右된다. 韓國의 3大輸出産業인 織物, 衣類, 電子製品이 대만, 홍콩, 싱가포르 및 기타 빠른 開發國들의 심각한 挑戰을 받기 쉬운 것도 이 때문이다. 世界市場에는 限定된 輸出實績을 위해 競爭하는 國家들에 對한 保護策이 없어서 重要한 것이 價格과 品質問題인 것이다.

두번째 挑戰은 인플레이를 誘發하지 않는 범위에서 勞動者의 正當한 賃金과 生産性에 努力을 주지 않고서도 勞動者의 合當한 物質的 要求를 充足시키는 問題다. 세번째 挑戰은 國內市場에 큰 衝擊을 주는 어찌할 수 없는 海外變數에 있다. 世界 인플레이는 一般적으로 輸入價를 올린다. 계속해서 튼튼하고 健全한 企業이 育成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는 鎮靜되어야 한다. 特別 制限的이나 油價引上은 우리의 같이 資源이 貧弱한 國家의 貿易均衡問題를 惡化시킨다. 1980年代 最終 挑戰은 多樣한 政治問題에 놓여 있다. 國內外的으로 問題를 機會로 바꿀 수 있는 政治問題의 노련한 操縱이 必要하다.

아마 政治問題가 가장 힘든 挑戰이고 國民

團合을 요하는 經濟問題解決에도 絶大 必要하다. 더우기 現 開發期間동안은 더욱 많은 外資와 技術이 必要하며 이런 것을 위해서는 다시 여타 開發途上國과 競争해야만 한다. 投資者들은 매력적인 事業環境과 社會秩序의 安定이 기대되어야만 韓國을 계속 支援할 것이다. 이런 點에서 最近 몇 달간 일어난 일들은 希望의 面을 보여주고 있다. 最近 東亞日報은 존·A·워컴 유엔軍司令官이 美下院軍事委員會에서 韓國의 國防態勢에 관한 그의 證言 속에指摘한 바를 引用報道했는데 「韓國은 좋은 盟邦이며 美軍撤收中止와 우리의 安保公約의 再闡明은 戰爭抑制力을 強化시켰다. 韓國經濟의 活力과 戒嚴令解除, 國民投票斷行, 國內安定增大 그리고 充分한 國防協力關係를 維持하겠다는 韓國의 계속적인 確固한 決意와 같은 모든 것이 未來에 對한 밝은 조짐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新聞은 未來의 韓國經濟展望에 對한 樂觀의 豫想을 뒷받침하기 위해 美國의 한 週間誌 Business Week誌를 引用했는데 「비록 韓國이 現在 당면하고 있는 經濟의 인 어려움을 解決하는데 時間이 좀 걸리겠지만 韓國은 長期的인 면에서 아시아의 小日本이 되는데 成功할 것이다」라 했다.

2. 社會開發

韓國의 社會環境을 살펴보면 韓國國民의 窮極의 目標인 民主福祉國家建設에는 時間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韓國國民들은 이러한 目標達成을 위해 最善을 다하고 있다. 이런 點에서 韓國이 1980年代에 正直한 사람이 補償받을 수 있는 民主福祉社會를 建設하기 위한 確固한 基盤을 構築하기 위해 韓國國民들이 현재까지 무엇을 했으며 어떤 計劃을 갖고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는게 바람직하다. 다루어야 할 問題가

많지만 간단히 (1) 人口抑制 (2) 雇用 (3) 住宅 (4) 保健醫療 (5) 社會保障 (6) 環境保護 및 公害防止 (7) 세마을運動과 같은 基本問題를 다루겠다.

(1) 人口抑制

1960年代 높은 人口增加率(2.7%)은 韓國經濟發展과 所得增大를 沮害하는 한 要因이었다. 家族計劃이 一連의 經濟發展計劃 속에 優先事業으로 주어지자 人口增加率이 年 1.9%로 떨어졌다. 이것이 1975년에는 1.8%, 1978년에는 1.58%로 더 떨어졌다. 1960年代 年齡別 人口構造는 年齡 依存率이 높은 피라미트形이었다. 1970年代에 平均豫想壽命이 늘기 始作해서 1975년에는 68.1歲가 됐고 1980年代初까지는 72.7歲로 늘어날 것이 豫想된다. 純粹 誕生率과 死亡率이 보다 줄고 있어 人口增加의 패턴도 점차 紡錘型으로 바뀌고 있다. 年齡依存率과 經濟依存率 모두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따라서 不可避하다.

1962년에 始作된 現家族計劃事業은 人口增加率을 1% 미만으로 維持하려는 窮極의 目標 속에 앞으로 한층 더 活潑히 實施될 것이다. 이 事業속에는 精管節制手術, 開腹手術, 子宮內器具, 콘돔 및 經口알약의 廣範圍한 使用이 包含된다.

家族計劃과 並行하여 海外人口分散이 또한 獎勵되고 있다. 移民法이 制定된 1962年以後 1978末까지 總 341,157名이 移民했다. 地域別로는 美國에 266,246名, 캐나다에 17,527名, 파라과이에 14,168名, 브라질에 10,031名, 스웨덴에 4,597名, 아르헨티나에 4,181名, 기타 地域에 24,407名이 있다. 移民을 促進하기 위하여 政府는 海外開發公社를 民營에서 國營事業으로 轉換시켰다. 濠州와 南美國家들을

重點으로 年間 總 50,000名이 海外移民을 申請할 것이 豫想된다. 同時에 將來에 移民할 人들을 위한 技術, 地理, 言語教育에 特別한 關心이 주어지고 있다.

(2) 雇 用

輸出增大, 重化學工業의 擴大, 中小企業開發의 結果로 國民經濟領域이 넓어지자 勞動力의 實質的인 部分이 農業에서 非農業部門經濟로 옮겨갔고 이러한 모든 것은 雇用構造面에도 같은 變化를 가져 왔다.

雇用者 數는 계속 늘고 있으며 政府는 새로 職業을 찾는 人들을 돕고 있는데 이 일은 주로 勞動部支廳傘下에서 맡고 있다. 1978年에 35個 勞動部傘下에서 251,731名에게 職業을 찾도록 도와 주었다. 더우기 기존 私設職業紹介所가 非營利團體로 再組織되었고 附隨的으로 기존 公共職業案内所도 숫적으로 增加했다. 總 35個의 地方失業相談所가 失業者가 많거나 失業狀態가 不安한 地域에 設立되어 各地域에서 모든 關係機關 및 私企業의 協助 속에 일하고 있다. 또한 海外人力開發公社가 설립돼 海外就業機會를 갖도록 도와줌으로써 海外就業를 積極 獎勵하려 하고 있다. 1963年에서 1978年 동안 總 324,000名이 海外就業했고 오늘날에는 약 4~5萬의 韓國人이 中東에서 일하고 있다.

(3) 住 宅

韓國에 있어 住宅問題는 全般的인 人口增加 때문 뿐만 아니라 大家族傳統에서 核家族體制로의 轉換과 急速한 經濟發展의 結果로 都市人口가 增加하기 때문에 한층 더 심해지고 있다. 1975年 統計調査에 따르면 6,754,000 家口가 4,869,000戶에 살고 있어 1,885,000戶가

不足함을 나타냈다. 1972年에 이러한 不足을 메꾸려고 政府는 10個年(1972~1981) 住宅計劃을 세우고 住宅建設促進을 위한 特別法을 制定했다.

第3次五個年計劃期間동안 總 760,500채(公共部門建立 226,800채, 民間建立 533,700채)가 建立됐는데 이것은 833,000채의 建立目標計劃의 91%에 該當하는 것이다. 1978年 한해에 總 277,000채가 建設됐는데 이것은 6,349,000 家口에 對하여 5,146,000 家口가 주택을 갖게 된 것이다. 同時에 住宅問題를 완화하도록 많은 措置가 취해졌다. 그들 가운데 重要한 것이 많은 家族이 살 수 있도록 內部構造의 표준화에 重點을 두고서 都市郊外에 宅地를 確保하는 것이다.

第4次五個年計劃이 社會開發과 福祉問題(過去の 經濟成長指向의 計劃과는 달리)에 力點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큰 住宅建設에의 投資가 豫想된다.

(4) 保健醫療

높은 水準의 健康增進은 社會開發의 目的이며 手段이다. 이 目標가 많은 醫療施設의 擴充과 全國民에 對한 醫療惠澤의 擴大, 傳染病豫防, 生活環境 및 衛生施設의 改善, 醫藥品質向上 등 여러 가지 政策을 通過 追求되고 있다.

(5) 社會保障

韓國의 社會保障은 社會保險, 大衆救濟計劃, 社會福祉計劃의 세 가지 範疇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社會保險으로는 產災保險, 醫療保險, 年金保險이 있고 年金에는 國民福祉年金, 公務員年金, 私立學校教職員年金, 軍人年金이 있다. 大衆救濟計劃에는 社會的 無能力者保

護, 一時的 災難救濟, 退役軍警救濟 等이 있다.

(6) 環境保護와 公害防止

最近의 經濟成長에 따른 産業化와 都市化가 環境에 有害한 影響을 끼치고 있다. 特히 都市, 江, 바다가 전체적으로 汚染되고 있다. 그 한 例가 서울市民이 利用하는 漢江인데 汚染은 800萬 서울市民이 버리는 汚水 때문에 惡化돼 가고 있다. 서울의 汚水問題를 解決할 한 方案이 現在 講究中에 있다.

現代化로 빛어진 또 하나의 重要한 結果가 空氣汚染이다. 統計에 따르면 全國의 石炭 및 石油 總需要量의 1/4을 消耗하는 서울에 있어 呼吸器患者가 農村사람보다 6倍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韓國政府는 새로운 行政首都의 建設과 工業施設의 分散을 通해 都市의 人口增加를 줄이는 등의 여러 가지 措置를 講究中에 있다.

環境保護는 물론 公害問題에 對處하려는 政府의 決意는 1977年 9月의 環境保護法과 海上 公害防止法의 制定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政府는 모든 問題를 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그린벨트」가 大都市周圍를 둘러싸고 있어 그 안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建築物도 許容되지 않으나 內部都市는 끊임없이 刷新되고 있다. 또한 全國을 보다 가깝게 묶기 위한 高速道路網이 계속 擴張되고 있고 政府의 막대한 資金支援下에 現代式 便宜施設이 農村社會로 들어갔으며 그밖에 關聯事業에도 大대한 支援이 주어져 政府融資에 의한 住宅建設事業이 활발히 進行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狀況에 맞도록 法과 規定이 계속해서 制定되고 再檢討되어 改定되고 있다.

環境汚染은 政府만의 問題가 아니며 또한 國家經濟成長過程의 必要惡으로 받아들여져서도 안 된다. 이 問題는 단순한 經濟成長보다 더 높은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아마 그것은 일부 經濟學者와 社會學者가 指摘한대로 生命의 本質問題를 능가하는 問題일 것이다. 公害는 韓國에만 特有한 問題는 아니다. 先進國조차 이 問題를 成功的으로 解決하지 못하고 있다.

最近 韓國은 「안서말한」 法制定으로 나타났듯이 이 問題에 진지하게 着手하기 始作했다. 韓國은 지난날 여러 가지 重大한 問題에 接近했던 것과 똑같은 정력을 갖고 언제나처럼 이 問題를 처리할 것이다. 첫째로 韓國人들은 스스로의 아름다운 環境을 너무 사랑하여 自然이 荒廢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둘째로 오늘날 韓國을 支配하는 政治哲學은 단순한 近代化나 經濟福祉問題를 超越한다. 韓國國民은 全體적으로 精神과 物質의 造化있는 滿足을 追求하고 있으며 그것은 自然과의 同化를 바라는 것이다.

(7) 새마을 運動

1970年代가 展開됐을 때 2차례의 經濟開發五個年計劃(1962~1971)의 成功的인 遂行的 結果로 韓國의 都市들은 눈부시게 發展하고 있었던 反面에 農村은 無氣力과 不活潑, 심지어 冷笑 속에 沈滯되어 있었다. 農民들은 都市民 뒤에서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런 狀態를 바로 잡는 일을 해야 했고 農民들도 깨어야 했다.

農村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向上을 위하여 「새마을 운동」이 1970년에 紹介됐다. 한글의 「새」는 새로움을 뜻하고 「마을」은 Village나 Community를 뜻한다. 또 운동은 Movement나

Campaign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새마을運動은 英語로 New Village Movement이다. 새마을運動의 基本理念은 農民들에게 勤勉, 自助, 協同의 세가지 美德을 發揮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것은 個人發展과 結付시켜 國家發展을 위하여 國民들의 自發的인 參與의식을 기르는데 바탕을 둔 民族近代化運動이다.

勤勉은 몸에 익혀야 할 첫 敎訓이었다. 새마을運動은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더 內容있는 삶을 추구하는 國民運動이다.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 이것은 韓國같이 天然資源이 매우 不足하고 과거의 어려운 國內外問題를 현재도 안고 있는 韓國國民에게는 特別 眞理이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勤勉, 儉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도 잘 사는 것은 國家發展의 阻害要素다. 勤勉精神이 밝은 未來를 保障하고 또 保障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새마을精神의 한 重要要素다. 自發的인 努力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欲求와 能力을 의미하는 創造力이 뒤따라야만 한다. 過去보다 나은 現在를 만들기 위해 새마을運動이 展開된 以後 勤勉은 必須的인 것이다. 勤勉은 虛榮과 奢侈와 浪費를 排擊하고 貯蓄하고 節約하는 精神을 길러 준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貯蓄을 원하고 힘들어 번 것을 浪費하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貯蓄은 生活를 向上시킬 뿐만 아니라 國民經濟의 活力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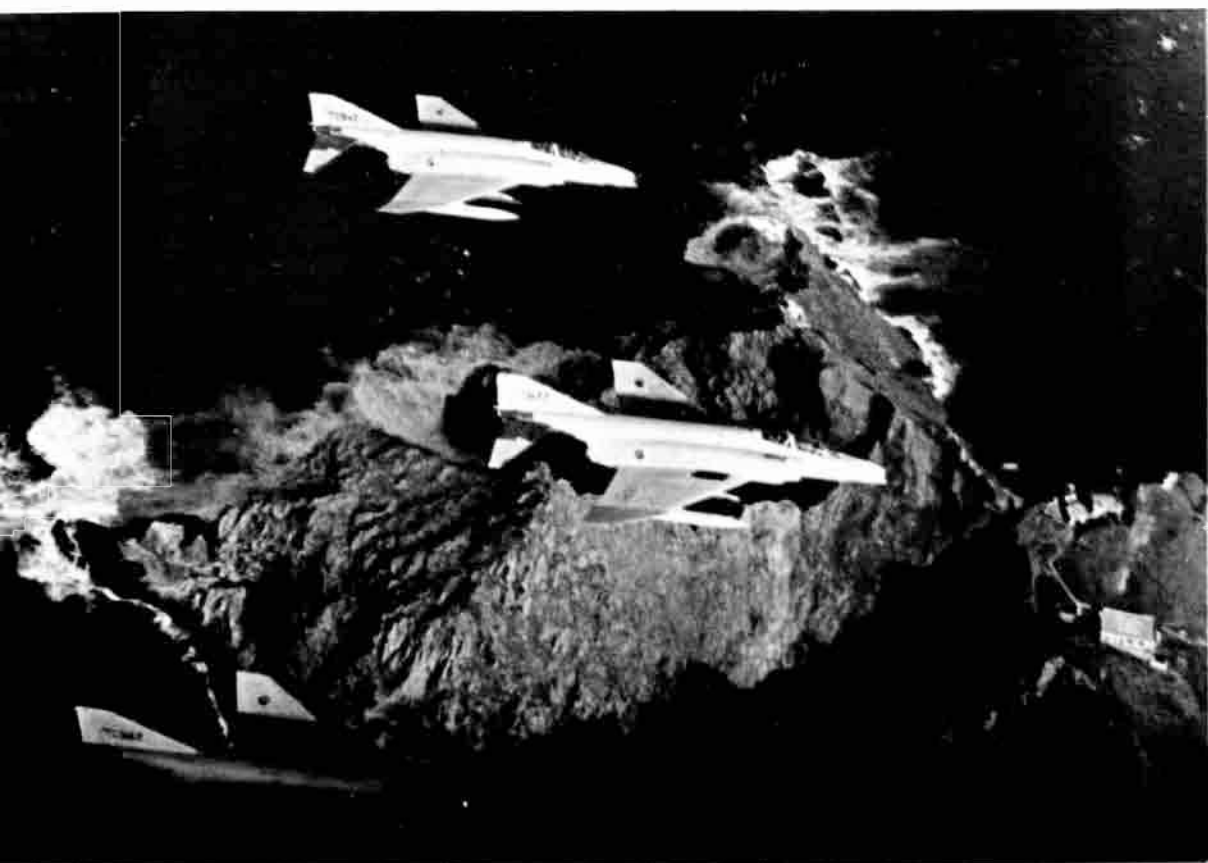
<名將名言>

◎ 部下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는 將校는 조기에 부대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 부하들은 公正하기만 하면 오히려 엄격한 將校를 더욱 존경한다.

— 크라크 —

◎ 思想으로 武裝된 兵士만큼 강한 軍人은 없다.

— 스피노자 —



하늘의 용사

〈후 령〉

보아라 찬란한 조국 하늘에
새로운 평화를 누리는 우리
드높이 폭음소리 꽃구름속에
오늘도 떠나간다 하늘 아득히
보아라 햇빛에 빛나는 날개
조국의 하늘을 지켜갈 우리
새로운 겨레의 우리는 보라매
오늘도 떠나간다 승리의 용사
창공을 차고 높이 올라라
별처럼 빛나라 하늘의 용사



이제 A-10機 전개를 계기로 한반도의 안보태세 강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東北匪 및 태평양지역 平和유지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 선더볼트 II의 '틈틈한' 모습 ◇

◇ 「탱크킬러」로 불리는 신예근접지원기 A-10

◇ 美国 본토로부터 太平洋을 건너 이곳에 도착한 한 미군조종사를 격려해주는 李喜根 참모총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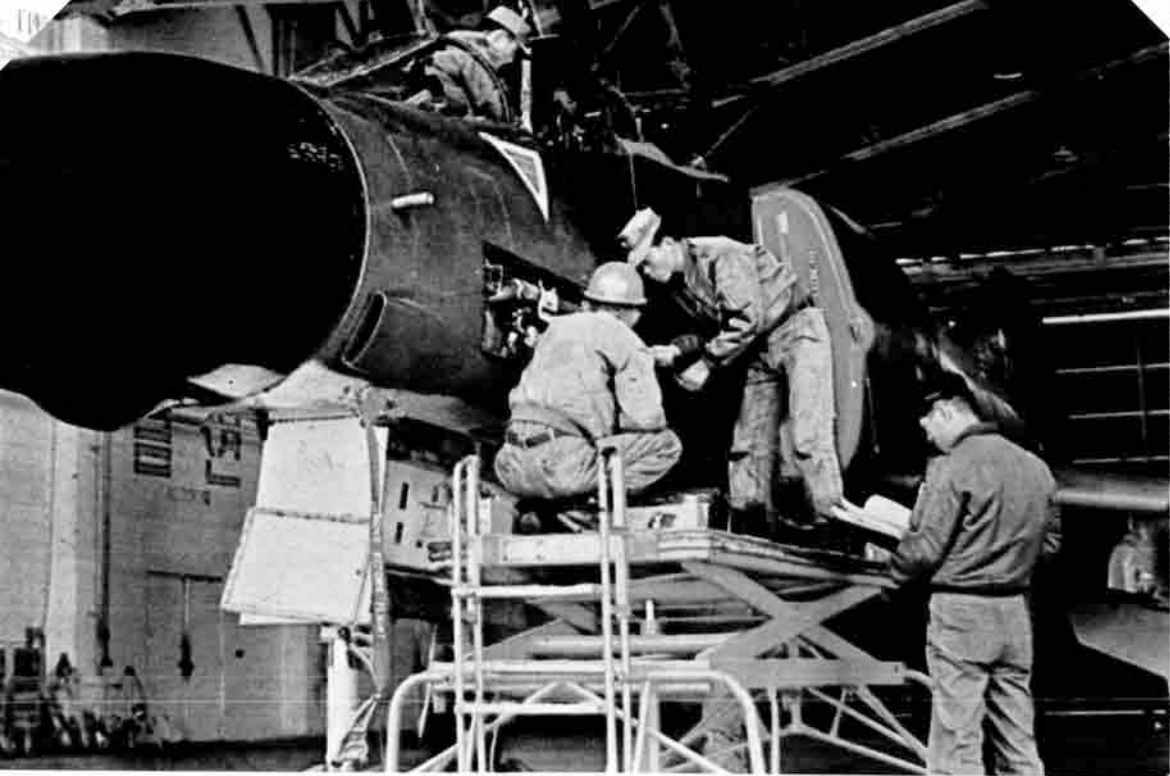


◇ 고정익의 1인승 쌍발제트機로 각종 폭탄 1만 8천 5백 파운드를 적재할 수 있고 대전차 공격용 유도탄을 갖추고 있다. ◇

◇ 브라스웰 미태평양 공군 사령관과 편대장 유진·마이 어스 대령 ◇

마이 어스 대령의 등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달아주었다"는 한·미 양국의 국기 밑에 "이 사람은 미국 조종사입니다. 이분의 안전과 건강유지에 협조하여 주십시오" 라고 수놓여 있어 많은 이의 관심을 끌었다.





◇ 오직 조국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애국의 정비에 몸과 마음을 바치고 있는 정비사들의 장한 모습 ◇

◇ 체력은 国力이요, 곧 戰鬪力이다. 각종 운동경기

서 굳은 의지가 보인다. ◇



現代國防體制와 美國의 當面課題

李 善 浩

△國防大學院 教授▽

1. 問題의 提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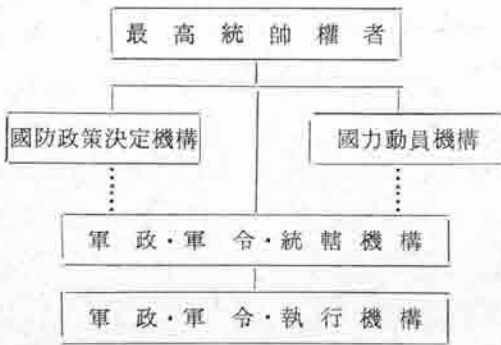
戰平時를 莫論하고 軍事力을 管理하고 運用하는 組織과 機能이 必要한데 이것이 곧 國防體制이다. 즉 國防體制는 軍事力을 造成, 維持, 運用하는 體制로서 世界各國은 그 나름대로의 國防體制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國防體制는 國家安保를 前提로 國力을 效果的으로 戰力化하기 위해 軍事力을 中心으로 他國力의 諸要素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하는데 必要한 諸般 組織과 機能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廣義의 國防이 安保이며, 狹義의 安保가 國防이라고 볼 때, 國防體制는 國家安保를 確固히 하기 위하여 軍事力을 中心으로 모든 國力을 綜合하여 總體的인 國力으로 昇華시키고 計劃의 樹立에서 執行에 이르기까지의 各級 機構로서 이루어진 綜合體系的인 組織과 이의 運用을 總稱한다 (1).

現代 國防體制는 最高統帥權者와 그의 意思決定을 補弼하는 國力動員機構 및 國防政策機構 그리고 統帥權者의 軍事大權을 統轄하는 軍政·軍令統轄機構와 이를 執行하는 軍政·軍令執行機構의 5個要素로 構成되는 抱括적이고 綜合體系的인 國防機構와 國防意思決定 및 意思疎通節次를 網羅한다.

이와 關聯하여 現代的 概念의 國家安保政策은 國家의 對外政策, 對內政策 그리고 軍事政策을 國家安保的인 次元에서 統合·調整한 것이므로, 이는 國力의 諸要素中에서 하나의 選擇된 힘을 中心으로 他要素를 이에 補完하는 것인데 反하여, 國防政策은 軍事力을 中心으로 다른 國力의 要素들로 뒷받침 받는 政策인

現代 國防體制의 構成



것이다. 따라서 國防體制는 國家安保의 一環으로서 軍事力을 建設, 維持, 運用하고, 軍事政策을 創出하고 執行하는 組織과 機能을 뜻하는 것이다.

本稿는 民主憲政體制 속에서 200餘年間 成長發展해 온 美國의 國防體制가 지니고 있는 當面課題와 그 發展趨勢를 概觀해 봄으로써 아직 發展이 日淺한 우리의 國防體制가 올바른 方向設定을 하도록 하는데 기여케 하고, 開放體制 속의 自由民主主義下에서 文民優位와 軍政, 軍令 文化原則을 堅持해 오고 있는 美國의 國防體制의 強點을 導入할 수 있는 動機賦與에 一助할 것으로 본다.

2. 美國防體制의 當面課題

가. 國家統帥體制(National Military Command System)의 運用上的 問題

(1) 戰爭指導 및 危機管理上的 當面問題

美國의 現 國家統帥構造는 1958년에 定着된 以來 根本的인 變化는 없었으나 꾸준히 補完強化되어 왔다. 이 體制는 各 軍의 利害關係

를 超越한 統合努力의 要求와 傳統的인 地上, 海上 그리고 空中戰場을 바탕으로 한 個別軍의 自治領域을 固定하려는 要求間의 折衷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

따라서 美國의 國防體制는 憲法에 依하여 賦與되어 있는 大統領의 3軍司令官으로서의 統帥權行使가 傳統的인 3軍體制下의 統合軍體制라는 國家統帥構造의 節次를 通하여 遂行되는데, 이는 國家安保會議라는 文武合一의 諮問機關을 通하여 補弼되고, 養兵(軍政)과 用兵(軍令)業務를 統轄하는 國防長官線에서 一元化되어 執行된다.

即, 養兵分野(Producer)는 內局(OSD)의 參謀機能으로 處理되어 國部直轄機關과 各軍省(Service Department)에 依해서 執行되며, 用兵分野(User)는 合參의 參謀機能으로 處理되어 統合 및 特殊軍에 依해서 執行되는 複雜한 節次를 取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國家統帥構造는 거의 4半世紀 동안 그대로 維持되어 오고 있는데, 이 體制가 現代的 國家安保에 適應할 수 있는 國防體制인지에 對하여 論難이 提起되고 있다. 오늘날의 核狀況에 對處하기 위해 美國이 갖고 있는 統帥體制는 戰略的 指揮, 統制 및 通信體制(C³ System)로서 大統領으로 하여금 어떤 狀況下에서도 融通性 있는 作戰體制를 可能케 하기 爲하여는 國家統帥機能의 生存과 主要 統合 및 特殊軍과의 不斷한 交通通信維持가 그 關鍵이 된다. 이른바 汎世界 軍事指揮, 統制 및 通信體制(WWMCCS)는 數個의 固定 및 移動指揮所와 充分한 通信手段을 갖춘 中樞的인 役割을 하는 國家統帥體制(National Military Command Center)와 「아파라차」 山脈下에 位置한 地下化된 聯邦再配置圈(Federal Relocation Arc)이라고 불리우는 國家豫備統

帥本部 (Alternative Military Command Center) 와 國家非常空中指揮本部 (National Emergency Airborne Command Post)로서 構成되며 (3), 이들 體制는 隸下의 核軍과 계속 交信하고 있는 4個의 統合 및 特殊軍 (「유럽」司令部, 大西洋司令部, 太平洋司令部 및 戰略空軍司令部)의 固定 또는 空中指揮所와도 連結되어 있다 (4).

이와 같은 統帥體制는 1958년에 定立된 以來로 꾸준히 改善 發展되어 왔다.

그동안 이 體制를 試驗하기에 適合한 核狀況下의 戰爭은 아니었지만 越南戰을 치루었으며, 1967년의 第3次 中東戰爭, 1968년의 「푸에블로」號 擄捕事件, 1973년의 第4次中東戰爭, 1974년의 「사이프러스」戰爭, 1975년의 「마야케즈」號 擄取事件, 1976년의 關丹峇 攆 擄取事件 등 許多한 危機事態를 通하여 現在의 國防體制를 試驗評價할 수 있는 機會가 있었는데, 統帥體制上의 構造的인 모순이나 問題點은 없었으나, 그 運用上에 여러 가지 複雜한 問題가 提起되었던 것이다.

이는 組織의 原則과 戰爭의 原則의 相衡, 文民統制體制下에서 野戰指揮官의 指揮權 및 統率의 範圍에서 온 갈등 등에서 빚어진 것이었다.

(2) 指揮權 統一原則의 侵害

國防體制는 最高統帥權者의 命令이 垂直·一元的으로 迅速히 統帥 및 指揮系統에 따라 下達되어야 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通信技術의 發達과 中央集權體制의 強化로 遠隔意思決定者 (a remote decision maker)가 現場指揮官 (an on-scene commander)에게 直接 依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統帥 및 指揮系統上의 中間指揮官이 傍聽者 (Monitor)가 되고 上級指

揮官과 末端指揮官이 直接 交通하는 「바이패스」現狀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71년에 國防省의 全面的 體制改編을 建議한 이른바 「부루리본」委員會의 建議를 批判한 論文에 依하면, 지나치게 複雜한 多段階의 行政節次 (Redtape)를 취하게 되어 있는 現統帥體制에 屋上屋으로 1個의 中間指揮系統인 戰略司令部 (戰術任務를 遂行하는 統合軍으로 構成)를 新設함으로써, 統帥體制와 그 階層構造가 多段階化되고 指揮의 幅이 더욱 좁아져서 軍政, 軍令任務를 混成해 버리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루리본」의 建議는 統帥權體制의 構造上 및 組織의 原則上 不合理하다고 指摘하였다 (5).

事實 現體制에 있어 戰時에 「워싱턴」의 指揮所에서 命令을 發하게 될 때 이 命令을 實際로 執行하여 統合軍의 한 機動編成部隊司令官 (Task Force Commander)에게 傳達하려면 다음과 같은 段階的 節次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첫째, 大統領이 國防長官에게 命令下達

둘째, 國防長官이 合參議長에게 命令下達

셋째, 合參議長은 特定 統合軍 또는 特殊軍司令官에게 命令下達

넷째, 特定 統合 및 特殊軍司令官은 隸下 機動編成部隊司令官에게 命令下達

따라서 危急事態時 時間과 努力節約을 爲해서 뿐만 아니라 上級指揮官이 作戰의 成敗에 執着한 나머지 原色的인 細部事項을 直接 確認하려는 意志가 強하게 作用하기 때문에 前述한 바와 같이 國家元帥도 때에 따라서는 機動編成部隊長의 直接報告를 받기 願하는 事態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事態는 中間指揮官의 創意的인 狀況處理能力과 進取的인 氣像을 沮害하고 權限과 責任의 不一致로 作

戰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치게 된다.

특히 留意해야 할 것은 만일 中間指揮官이 國防長官의 境遇라고 한다면, 이는 大統領의 統帥權 獨立이라는 方向으로 發展될 素地를 갖게 되므로 文民統制와 軍政軍令一元化란 大原則을 犯하게 된다.

(3) 文民優位體制下的 文軍葛藤

文民優位 또는 文民統制(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는 美國의 民主憲政極立 以後 내려오는 하나의 基本秩序이며 國防體制의 大原則이 되어 왔다. 이는 일찍이 「크라우제비츠」가 그의 戰爭論에서 戰爭은 다른 手段에 依한 政治의 延長이라고 한 大前提가 아직도 適用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美國은 國家安保法上에 文民優位를 制度的으로 保障하고 있기 때문에 後進國이나 一部 開途國의 軍部優位體制와는 根本的으로 性格을 달리하고 있다. 大統領, 國防長官, 國防次官, 各軍長官 그리고 國防省 및 各軍省 次官補 등 核心的인 職位는 모두 民間人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內局의 要員은 全員이 民間人인 것이다. 合參에도 法定定員인 400名의 現役將校(合同參謀)를 除外하고도 大略 同數의 民間人이 勤務하고 있다. 특히 國防長官은 現役을 滿한 후 10년이 지나야 任用이 可能케 되어 있다.

韓國戰爭當時 「유엔군」 司令官 「맥아더」將軍이 「트루만」大統領에 依해서 解任되고 최근 駐韓美軍撤收問題에 對하여 批判하였던 「싱글러브」將軍이 「카터」大統領에 依해 解任되었음은 文民優位體制下的 文軍衝突의 一面인 것이다. 統帥權者는 確立되어 있는 文民優位의 原則에 挑戰하려는 軍人의 行動을 憲政秩序의 守護와 國家에 對한 忠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裁制를 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國防省의 系線 및 參謀組織構造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葛藤은 1949년에 國家安保法이 改正됨으로써 傳統的인 大統領의 閣僚級으로서의 各軍 長官이 2段階下位인 國防次官과 次官補의 中間地位로 格下됨으로써 各軍 參謀總長의 地位도 相對的으로 各軍에서 次官補와 同格인 序列 3位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各軍本部를 各軍省으로 各軍의 第1人者를 長官으로 呼稱하고 있음은 各軍의 傳統指向의 屬性을 否定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國防長官과 各軍長官 그리고 合參議長 間의 序列意識이 이따금 問題가 될 수 있으나, 組織의 原則에서 볼 때 長官 不在時 次官이 그 職務를 代行하는 第2人者임에 틀림없으며, 合參議長은 現役中 最上位의 職級이지만 國防長官의 諮問일 뿐이며, 그 階級이 各軍參謀總長과 같은 바, 各軍次官보다 下位인 各軍參謀總長과 聯關하여 볼 때 各軍長官보다 上位職일 수는 없으나 이들 相互間에 軋轢이 發生하는 境遇가 있다. 또한 內局의 次官補級의 各軍省, 合參 그리고 統合 및 物殊軍의 指揮官 및 參謀에 對한 職權行使가 法에 依한 文民統制의 範圍를 넘어선 것으로 지나치게 敏感하게 받아들여짐으로써 相互間에 摩擦을 惹起시키게 된다.

나. 合同參謀本部의 構造的인 矛盾

現 合同參謀會議(Joint Chiefs of Staff)의 編成, 機能 및 節次上의 問題點을 알아 본다. 合同參謀本部(Office of Joint Chiefs of Staff)는 合同參謀會議, 合同參謀部(Joint Staff) 그리고 合同參謀本部 直轄機關(Joint Chiefs of Staff Agencies)으로 構成된다. 合同參謀會議의 法的인 地位와 機能은 1947年の 國家安保

法에 根據를 두고 있으며 그 後 根本的인 變化없이 存續해 오고 있다. 「아이젠하워」大統領은 1958年 統合軍의 指揮體制를 確立하는 것을 包含한 國防體制의 改編을 爲한 國家安保法 改正 提案說明에서 “個別 地上, 空中 및 海上作戰은 永遠히 살아졌다. ……美國의 國家安保要求는 舊態依然한 單一軍體制下의 戰爭概念에 依存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指摘하였던 바 (6), 이는 各軍參謀總長은 合同參謀會議의 委員으로서 其他의 모든 任務에 우선하여 合同參謀會議의 3重機能인 大統領, 國防長官 및 安保會議의 主軍事諮問役을 遂行하도록 強調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關聯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그 編成, 機能 및 節次上에 問題가 提起된다.

첫째, 合同參謀會議 委員으로서의 各軍 最先任將校인 參謀總長이 自軍長官의 軍事參謀일 뿐만 아니라 軍事에 對한 主執行官으로서 戰備態勢를 維持시키는 2重職能上(Dual-hatted)에 問題가 있다. 參謀總長은 自軍의 行政業務가 合參會議의 業務에 못지 않게 過多하여 合同參謀會議의 業務遂行을 爲해 一部 自軍有關業務(Service Related Duty)를 參謀次長에게 委任하도록 되어 있지만, 權限은 委任할 수 있으나 責任自體가 完全히 委任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2重的인 身分 때문에 계속적으로 中立的이고 一貫性 있는 合同參謀會議의 業務遂行이 어려운 것이다.

둘째, 議長은 現役軍人中 最高位職이지만 指揮權이 없으므로 合同參謀會議를 主宰하고 代表하는데 統率上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安保會議의 常設委員이 아닌 그는 軍事諮問의 資格으로 合同參謀會議를 代表하여 參席하나, 國防長官과 大統領에 對한 軍事諮問役割은 合同參謀會議의 代表資格이 아니라 合同參謀會

議의 一員이란 資格으로 接觸하게 된다.

셋째, 文民優位體制下에서 合同參謀會議는 集團意思決定이 多數決制가 아니고 全員一致制이므로 自軍의 利害關係 때문에 圓滑을 期하기가 어렵고, 保守主義的인 自軍重視思想 때문에 效果的인 合同諮問(Joint Advice)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國防長官이나 大統領이 때로는 民間人 軍事專門家의 助言을 職業軍人의 助言보다 더 關心을 기울게 되는대도 問題가 있는 것이다 (圖表 2 參照).

다. 統合 및 特殊軍의 當面課題

(1) 統合軍의 責任地域 再調整 問題

5個의 統合軍中 戰備司令部(Readiness Command) 外는 모두 特定戰區를 責任地域으로 맡고 있다. 그러나 美國은 오늘날 世界警察軍이 아닌 以上 地球全域을 總網羅한 責任地域을 擔當할 必要가 없게 됨으로써, 現在의 擔當地域은 主로 海洋과 大陸의 地理的 境界를 中心으로 分割하고 있는데, 地理的 重要性和 面積, 資源 그리고 情勢가 多樣하지만 按配와 均衡을 前提로 할 때 一部 統合軍의 作戰 責任地域의 再調整이 要求되고 있다.

① 「유럽」司令部

現在 同司令部가 맡고 있는 責任地域은 「이란」以東의 中東과 「유럽」全域인데, 「유럽」司令官이 「나토」聯合軍 「유럽」最高司令官(NATO Supreme Allied Commander)을 兼務하고 있으며, 戰時에는 「나토」의 支援司令部 機能을 遂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럽」司令部的 責任地域이 「나토」의 「유럽」擔當地域과 一致하지 않고 있는데 問題가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와 關聯하여 中東에 投入케 될 緊急配置軍이 戰備司令部 隸下에

編成되어 있으나 航空機는 空輸司令部(Military Air Lift Command) 所屬이고, 太平洋과 印度洋 上空이나 「디에고갈사」에서 事前配置部隊와 合流하여 「페르사」港으로 海上接近時는 太平洋司令部的 作戰統制를 받아야 하고, 일단 「페르사」灣을 通過하여 中東에 上陸하면 指揮權이 다시 바뀌어 「유럽」司令部的 統制를 받아야 하는 등 複雜한 指揮系統에 얽혀 있다.

② 大西洋司令部 및 太平洋司令部

大西洋司令部는 中南美의 太平洋沿岸과 「카리브」海 그리고 大西洋 全域을 맡고 있으므로 大西洋司令部的 責任海域은 南美大陸으로 말미암아 兩分되어 있고, 太平洋司令部的의 限界가 애매하다. 또한 太平洋司令部的의 責任海域은 太平洋과 印度洋으로서 全地球의 1/2를 超過하고 있는 바, 그 勢力에 비해 責任地域이 너무 廣大하다.

(2) 統合軍의 戰略作戰 任務 不均衡

① 南方司令部的 非戰術的 任務

統合軍은 行政支援部隊가 아니고 戰略, 戰術任務를 遂行하는 作戰部隊가 되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南方司令部는 「과나마」運河 統制와 教育訓練의 2가지 任務를 主로 遂行하고 있으니, 이는 戰術任務보다 行政支援任務에 더 重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行政的 性格의 任務를 遂行하기 爲해 龐大한 統合軍司令部를 設置 運用함으로써 資源의 浪費를 招來하고 있는 것이다.

② 太平洋司令部的 任務偏重

太平洋司令部는 責任地域이 他地域의 2倍 이상이 되므로 可用勢力에 비해 過重한 任務가 賦與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東北亞와 「페르사」港이란 2大 紛爭地域의 危機統制機能을 맡고 있으므로 1個地域에 事態가 發生하면 主力

을 事態地域으로 轉換해야 하는, 이른바 「스윙」戰略(Swing Strategy)을 活用케 되므로 該當地域 同盟國의 防衛公約에 信賴性을 低下시키고 있다. 또한 韓美聯合司가 創設됨으로써 太平洋司令官은 韓美聯合司의 上位 意思決定 機構인 軍事委員會의 委員으로서의 機能을 遂行해야 하는 등 그 任務가 過重하다.

3. 美國防體制의 發展趨勢

現代 軍隊의 民主化(Democratization), 民間化(Civilianization), 教化(Civilization), 그리고 世俗化(Sophistication) 趨勢와 더불어 軍事技術의 革新과 武器體系의 高度化가 가져온 戰爭空間의 廣域化와 戰爭手段의 立體化에 따라 第2次世界大戰以後 定立된 美國의 國防體制는 다음과 같은 3가지 特性을 示顯하고 있다.

가. 統合 및 集團指導體制(Corporate and Collective Leadership)

中世와 같이 將帥가 馬上에서 戰場을 指揮함으로써 勝敗를 가름하고 그가 戰爭을 直接 計劃하고 執行한 그러한 事例은 이제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은 巨大한 軍事組織과 超現代化된 武器體系를 움직이려면 1人 指導體制로서는 戰爭을 치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小數의 專門化된 參謀의 補佐가 意思決定의 合理化를 圖謀하고 專橫과 脫權을 防止하는 牽制와 均衡의 役割을 하게 된다. 國防體制의 「메카니즘」은 統帥權자가 文武合一의 意思決定 機構인 安保會議를 통하여 健全한 意思決定

을 하도록 保障하고, 이를 國防省이라는 軍政·軍令統轄機構에서 各軍과 野戰作戰部隊(統合 및 特殊軍)에 下達함으로써 集權化된 統制 속에 分權化된 執行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統合 및 集團指導體制的 順機能을 制度化하고 있는 것이다.

나. 文民優位와 軍政·軍令 一元化

軍事력이 너무 弱하면 國家를 外侵으로부터 防護할 수 없으나, 너무 强하면 國家元帥의 統制에서 벗어 남으로써 國法을 마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軍事는 政治에 服從하도록 裝置가 이루어져야 한다. 暴力手段인 軍事力은 國家의 元帥가 憲法에 따라 統帥權者로서 다스리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議會가 그 獨走를 막기 위하여 여러 가지 立法節次와 制度的 裝置로서 牽制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國防長官을 비롯한 閣僚는 統帥權者의 軍事的 行動指示 文書에 그들이 부서해야만 執行할 수 있도록 規定함으로써 暴力의 誤用이나 濫用을 防止토록 制度化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軍이 政治에 服從하고 政治權力을 統制하는 것은 民主憲政體制下的 軍에 對한 文民優位の 確立된 基本原則이다. 이를 더욱 確固히 하기 위하여 軍政·軍令一元化體制를 導入하고 있는 것이다. 統帥權者의 軍事大權은 크게 나뉘어 軍政(養兵)과 軍令(用兵) 分野인데, 이 兩大機能이 閣僚의 一員인 國防長官線에서 一元化됨으로써 統帥權의 獨立(二元化)를 防止하게 된다. 만일 統帥權이 二元化되어 軍事力을 使用하는 指示를 國家元帥와 暴力이 野合하여 國家의 憲政秩序를 마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軍政·軍令의 一元化가 必要한 것이다. 따라서 國防長官은 民間人으로서 國防體制的 計劃과 執行機構의 上下를 連

結시키는 機能을 함과 同時に 用兵과 養兵의 兩機能을 分立並存시키면서도 交 互補完시켜 이를 一元化함으로써 國家安保의 次元에서 國防體制를 總力戰體制로 確立 維持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 集權化 管理 및 統合軍體制

軍은 暴力行使를 할 수 있는 特殊武力集團이며, 將校는 暴力管理의 專門家이다. 오늘날 軍이 專門性和 單獨活用的 餘地가 擴大됨으로써 急速한 成長과 發展을 가져 오게 되었으나, 다른 한편 權威主義와 軍事 第一主義로 치달게 됨으로써 지나친 軍事力의 大型化를 가져오는 逆機能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政治權力이 軍事力을 適正規模로 維持토록 하기 위해 不斷한 努力은 國防體制的 集權化 管理로 表現되고 있는 것이다. 特히 核의 擴散과 武器體系의 精巧化로 大量殺傷武器가 世界 全域에 配置되어 있으므로 이를 效果的으로 統制하기 위해서는 中央集權의 體制가 不可避하다. 集權化統制를 뒷받칠 수 있도록 指揮, 統制, 通信 및 情報(C³I)體制가 相互交信이 可能케 連結되며, 發達된 「컴퓨터」의 機能이 또한 이 體制를 圓滑하게 疎通되도록 保障하고 있다.

다른 한편 統合軍體制는 階層構造를 높게 指揮의 幅을 넓게 만듦으로써 權限과 責任의 不均衡 및 戰力과 戰略의 不容納이란 負의 效果를 가져오는 側面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費用 對 效果面에서의 經濟性和 能率性을 追求한 나머지 多數 國家가 오늘날 이러한 集權化 體制를 志向하고 있으나, 民主性에 逆行할 수도 있다. 統合軍은 軍種別 3軍體制를 없애고 兵種別 機能軍體制로 轉換하든지, 軍種別 體制를 維持하면서 野戰部隊만 兵種別 體制로

統合하는 體制, 그리고 軍種別 體制의 階層構造를 強化하여 單一 指揮官이 軍種別 指揮官을 統轄指揮하는 體制 등 여러 가지 類型의 集權化 體制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統合軍體制는 政治權力과 軍事力의 牽制와 均衡, 戰略과 戰力의 調化, 軍配備의 分散과 分離 등 諸原則에 立脚하여 各國이 自國의 安保環境에 알맞는 體制로 變形 運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現代國防體制가 갖는 諸特性과 變化趨勢에 비추어 볼 때, 美國의 國防體制는 2世紀에 걸쳐서 發展을 거듭하여 오늘날 가장 典型的인 現代國防體制의 要件을 갖춘 組織과 機能으로 定着하였다. 美國의 國防體制의 發展을 巨視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3次에 걸친 分水嶺을 넘어서서 오늘에 이르렀다.

첫째, 國防體制의 誕生

美國은 國防體制가 없는 가운데 兩次 世界大戰을 치루고 모두 勝利로 이끌었던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核戰力이 아닌 在來式 軍事力으로 戰爭을 치루었기 때문에 可能했다.

日本에 投發된 2發의 核武器는 在來式 軍事力의 補完手段으로 使用되어 終戰을 가져온 直接的 要因은 되었으나, 核戰力으로서 造成 運用된 것은 아닌 것이다. 그 當時는 戰爭省과 海軍省이 分立한 가운데 國家安保란 次元이 아닌 自軍의 利害關係를 中心으로 戰爭을 치름으로써 많은 問題點을 惹起시켰던 것이다. 戰後 兩省統合의 氣運이 高潮되어 1947년에 國家安保法이 通過됨으로써, 國家의 對外政策, 對內政策, 그리고 軍事政策을 國家安保의 次元에서 調整 統合하기 爲한 制度의 裝置를 마련하고 國防體制의 基盤을 造成하였던 것이다.

即 國家安保會議과 中央情報部의 設置, 國防長官 任命, 國家軍事機構 設置, 그리고 空軍省의 設置가 이루어 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까지도 國防長官만 任命되었을 뿐 그 補助機關과 補佐機關을 갖춘 國防省은 創設되지 않고 있었다. 2年後인 1949년에 國家安保法이 改正됨으로써 비로소 처음으로 國防省이 創設되고 各軍省은 閣僚級 長官이 指揮하는 省에서 國防省 隸下의 省으로 格下 改編되었다. 그리하여 國防體制가 集權化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둘째, 統合軍 指揮 및 軍令 軍政一元化 體制 確立

國防體制의 初創期에는 國防體制의 諸原則이 確立되지 않아 各軍間의 不和와 對立이 계속되었는데, 特히 研究開發分野의 重複과 分散으로 軍事技術의 發展이 不振하고 對蘇競爭에 劣勢를 보여 大陸間彈道彈을 蘇聯이 먼저 發射하는 結果를 빚기도 했다. 또한 統合軍에 對한 一貫된 作戰統制體制가 確立되지 않아 各軍長官이 變則의인 指揮權을 行使하는 亂脈相을 보이기도 하였다.

○ 統合 및 特殊軍에 對한 作戰指揮系統을 大統領, 國防長官, 合參議長으로 하고 行政指揮단 各軍長官이 擔當하도록 한 體制를 確立하였다.

○ 合參議長에게 合同參謀會議에서 投票權을 行使하도록 하고, 合同參謀部 將校를 400名線으로 그 定員의 大幅 增加를 가져왔다.

○ 軍政·軍令의 一元化體制를 確立하여 用兵과 養兵分野를 並立시키되 國防長官線에서 一元化되도록 하였다.

○ 養兵分野의 하나인 研究開發과 集權化管理를 爲해 同分野의 次官補를 新設하여 各軍의 事業을 重點의으로 中央集權 統制토록 하

였다.

세째, 國防管理體系의革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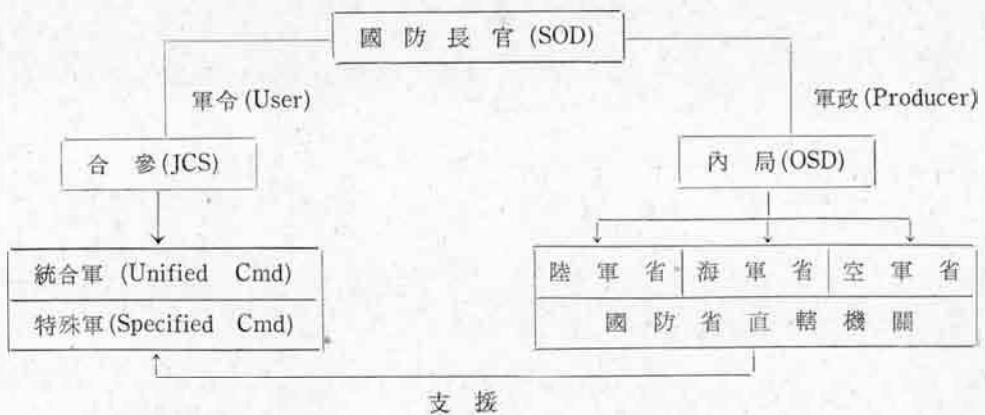
「백나나라」國防長官에 의한 國防企劃 計劃豫算制度(PPBS) 導入으로 軍別 豫算配當方式이 任務別 豫算配當方式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國防長官의 各軍에 對한 統制權이 高度로 強化되고, 特히 研究開發事業과 體系分析業務의 中央集權體制가 確立되고, 國防管理의 劃期的 改革을 通하여 價格引下와 豫算節減의 效果를 가져옴과 아울러 國防行政上의 官僚主義化와 軍產複合體라는 否定的 側面도 露出되었다.

以上과 같은 3段階의 큰 變化를 겪는 동안 美國의 國防體制는 國際環境과 國內情勢에 適應할 수 있는 組織과 機能을 갖춘 確固不動한 巨大機構로 成長 發展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美國의 現國防體制는 統帥權 關係에서는 文民

優位の 軍政·軍令 一元化體制이고, 組織構造上으로는 3軍體制下的 統合軍體制이며, 國防管理機能上으로 볼 때 參謀機能別 集權化 管理體制라고 할 수 있다.

美國의 國防體制가 變遷해온 過程을 돌이켜 보건데, 體制의 變化가 결코 短期間에 急激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政權이 交替될 때마다 提起된 挑戰과 批判 속에서도 文民優位の 軍政·軍令一元化라는 大原則은 흔들리지 않은 채 傳統的인 3軍體制를 維持하면서도 作戰部隊를 統合軍體制로 運用하는 現體制를 지켜왔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美國防體制는 挑戰을 겪으면서 民主憲政體制와 더불어 지난 200餘年 동안 꾸준히 成長하여 現代國防體制로서의 모든 要件을 다 갖춘 오늘의 體制로 定着되었다.

軍政·軍令一元化體制



<註記>

(1) 莊緯國, 國防體制論, 自由中國, 三軍大學, 1975, p.10.

(2) The National Military Command Structure, Department of Defense, 1978, p. 3.

(3) U. S. News and World Report, Sept 5, 1977.

이 空中指揮本部는 「보잉」 707을 改造한 것으로 大統領을 비롯한 15名의 戰鬥參謀와 一部補佐官이 同乘하도록 되어 있다. 再給油하면 4日間 空中滯在가 可能하며 國家統帥體제의 各構成要素 및 4個의 統合 및 特殊軍과도 「테레타이프」로 連結된다. 國家非常空中指揮本부와 國家豫備統帥本부는 合參 J-3의 戰略 및 一般作戰次長(Deputy Director of Operati-

ons, Strategic and General Operation)下에 常設機構로 編成運營되고 있어 有事時의 機能遂行에 對備하고 있다.

(4)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FY 1979, 1980, pp.132~133.

(5) George Fielding Eliot, Blue Ribbon and Red Tape,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Vol. II, National Decision Making and Defense Management, Air University, USAF, 1971, p. 32.

(6) The National Military Command Structure, Department of Defense, 1978, p. 48.

<名將名言>

㉔ 누구나 過誤를 범하지 않는 자는 없다. 問題는 이미 범한 過誤를 알아차리고 是正하느냐 못하느냐에 成敗가 달려 있다.

— 쥬 코 주 —

㉕ 고독할 때 인간은 참다운 자신을 안다.

— 톨스토이 —

韓半島와 國際情勢變遷過程

세계의 紛爭可能地域에 있어서 美國의 防衛公約의 재확인은 蘇聯의 팽창을 견제하는데 강력한 수단도 되나 地域에 따라서는 紛爭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白 奉 鍾

<政博, 空軍大學 教授>

序 論

冷戰이란 用語는 美國의 評論家 리프만(Walter Lippmann)이 1947年 최초로 사용한 "Cold War"의 번역이다. 이는 원래 第2次大戰後 共產陣營과 自由陣營간의 兩極적인 權力鬭爭을 의미하고 있으나 核心의 本質은 美·蘇의 對立이다. 그러므로 美·蘇對立의 性格과 樣相에 따라 그들의 同盟國들의 對立 樣相도 달라지며 나아가 南北韓의 對立關係도 美·蘇關係의 증속변수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冷戰은 第2次世界大戰이 結 끝나기도 전에 蘇聯이 그들의 勢力을 팽창하려고 시도하던 때부터 시작되었다. 美國은 이러한 蘇聯의 팽창세력을 牽制하기 위하여 封鎖政策과 戰略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大戰後 지금까지 美·蘇간에는 근본적으로 冷戰關係가 유지되고 있으며, 美國의 對蘇政策과 戰略에는 對蘇封鎖가 그 基調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政策과 戰略에 따라 韓國은 極東에 있어서 最前

哨의 封鎖線이 되었고 또한 이러한 狀況關係로 인하여 冷戰強度의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 1947年代 유럽에서 冷戰體制가 완전히 굳혀져 갈 때 韓半島에서는 南北韓이 分斷 固着되었고, '40年代末 冷戰이 격화되자 1950年 6月 韓半島에서는 熱戰이 勃發하였다. 그러나 '70年代 들어 東西간의 和解로 소위 「데탕트」가 시작하자 南北韓간에는 對話가 시작되었다.

'80年代에 들어와서는 그간의 蘇聯의 팽창에 대한 美國의 강력한 대응으로 인하여 다시 新冷戰時代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新冷戰은 1940~50年代의 冷戰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고는 하나 韓半島에서의 南北韓의 緊張高潮에 박차를 가한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冷戰이 격화되면 蘇聯의 極東進出의 前哨인 北韓에 대한 支援은 더욱 적극화 되고 또한 北韓은 이에 고무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70年代 中盤부터 蘇聯의 팽창이 代理戰 형식과 직접적인 개입의 성격으로 변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면 '80年代의 新冷戰時代에 있어서 韓半島의 狀況은 더욱 복잡하게 되는 것이다. 北韓은 이미 蘇聯의 代理로써 世界紛

爭地域에 부분적으로 많이 개입하여 왔으며, 蘇聯의 極東進出을 위하여 羅津港을 蘇聯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對內的으로는 美國의 對韓防衛公約에 대한 확인을 逆利用하여 戰爭危機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80年代의 新冷戰期를 맞아 韓國의 安保에 대한 위협을 再整理할 필요가 있다.

1. 韓國戰爭과 冷戰體制的 實證

1950年 6月 25日의 韓國戰爭은 自由陣營과 共產陣營간의 冷戰體制的 本質을 熱戰으로서 증명한 것이다. 즉, 이는 冷戰이 격화되면 熱戰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韓國戰爭은 비록 北韓의 單獨南侵으로 시작되었으나 戰爭의 性格은 蘇聯이 世界革命을 통해서 地球上에 單一共產國家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戰爭이 발발하자 南北韓 單獨의 戰爭이 되지 않고 곧 美國을 비롯한 自由陣營對 中共을 비롯한 共產營간의 戰爭으로 化한 것으로서도 잘 알 수 있다. 韓國戰爭은 1945~47年의 冷戰의 開始期를 지나 1948年 蘇聯의 베를린 封鎖를 極으로 1947~49年의 冷戰의 激化期를 맞이하고 드디어 熱戰화된 것이다. 그러므로 美·蘇의 冷戰은 全世界에 걸쳐서 격화되고 있었으나 이의 한도를 넘어 熱戰화된 부분이 韓國이었다. 이는 美國의 世界的인 對蘇封鎖線에서 蘇聯과의 가장 利害가 상충될 뿐만 아니라 蘇聯이 가장 팽창하기가 용이한 點이기도 하다. 따라서 韓國戰爭을 계기로 冷戰은 擴大되었다.

1950年 6月 25日 韓半島에서 熱戰이 발발할 때까지의 美國의 對韓政策과 蘇聯의 對北韓

政策은 판이하였다. 1950年 6月 韓國戰爭이 발발하기 전까지의 冷戰激化期에 있어서 美國의 對韓政策은 對유럽政策이나 또는 아시아에 있어 對日·對中共政策처럼 확고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第2次大戰前부터 美國의 極東政策은 美·日關係나 美·中關係가 중심이 되어 왔다. 美國은 항상 유럽과 아시아에 있어 勢力均衡維持로써 그들의 國家利益을 추구하였다. 第2次大戰中 美國은 日本의 中國征服을 그들의 利益에 反한다고 하였다. 終戰後 美軍이 韓半島에 上陸한 것은 美國에 대한 韓半島의 戰略的 價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蘇聯의 南進에 대한 反射作用에 의하여 倏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韓國이 美國의 安保에 직결된다는 前提下에서 이루어진 것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美國의 安保에 대한 韓半島의 重要성은 美國의 對蘇協商失敗와 中國問題가 복잡하게 전개됨에 따라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中國本土가 共產化되고 蘇聯이 노골적으로 그들의 世력을 팽창하자 美國은 韓半島의 重要성에 대하여 “우리가 韓國을 지탱할 여력이 있고 또한 지탱가능한 방법을 발견할 경우 韓國은 우리에게 戰略的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絶對적으로 重要성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美國은 不安한 韓半島에 깊이 개입됨을 반대하고 美軍을 빠른 시일 내에 철수하였던 것이다. 1949年 6月 美國은 500餘名の 軍事顧問團만 남겨놓고 駐韓美軍을 韓國으로부터 완전히 철수시켰다. 그리고 1950年 1月 12日 「애치슨」國務長官은 美國의 太平洋防衛前哨線에 日本, 오키나와 필리핀은 포함시켰으나 韓國과 臺灣을 여기서 제외시켰다. 이러

한 政策決定은 유럽지역에서 美國의 能力약화를 막기 위해 軍事的 가치보다 낮은 韓半島에서 人的, 物的 消耗을 비해야 한다는 고려에서 취해진 것이다. 「에치슨」과 동일한 견해는 당시 美極東軍司令官이었던 「 맥아더」元帥에 의해서도 1949年 3月 2日 이미 기술되었다. 그러나 1950年 6月 25日 北韓이 南侵을 하자 美國의 對韓政策은 돌변하였다. 美國은 종래 韓國의 戰略的 價値의 低評價, 駐韓美軍 撤收, 韓半島의 紛爭에 개입치 않겠다는 입장과는 정반대로 즉각 參戰하게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消極的인 對韓政策이 積極的인 政策으로 전환한 것이며 나아가 이로 인하여 美國의 極東政策과 戰略에도 확고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美國이 이렇게 政策을 突變하여 參戰하게 된 것은 韓半島의 軍事的 戰略價値가 새로이 높게 評價되어서가 아니라 韓國에서 터진 對蘇封鎖線을 막지 못하면 유럽과 日本의 安保가 위협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全韓半島가 共產化되면 日本이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不均衡은 유럽에서도 不均衡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美國이 參戰하자 戰勢는 逆轉되어 이번에는 蘇聯으로 하여금 美國과 같은 심정을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韓半島의 統一을 목전에 두자 中共軍이 介入하였다. 이러한 力學關係에 의하여 韓國戰爭은 다시 原狀에서 休戰을 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韓國戰爭은 美·蘇간에 冷戰이 激化되면 부분적으로 熱戰이 발발하고, 또한 이러한 熱戰은 美·蘇의 冷戰體制라는 바탕 위에서 해결된다는 것을 실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데탕뜨」와 北韓의 軍事力 增強

美·蘇간의 冷戰關係는 1960年代에 들면서 「平和共存」'70年代에 들어 「데탕뜨」로 표현되면서 다소 緩和되어 갔다. 이러한 기간에 있어서 표면상 冷戰體制는 和解 또는 多極化 등으로 變質되어 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기간에 蘇聯과 北韓은 내적으로 그들의 軍事力 增強에 주력하여 蘇聯은 美國과의 격차를 좁혔고, 北韓은 大韓民國을 軍事的으로 위협할 수 있게 되었다.

平和共存은 1962年 美·蘇간에 「쿠바 미사일 危機」를 계기로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平和共存은 核의 可恐할 만한 파괴력으로 인하여 蘇聯이 그들의 戰爭觀인 「戰爭不可避論」을 버리고 소위 「戰爭可避論」으로 政策을 전환하고서 美·蘇간에 現實共存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蘇聯의 政策的 슬로우건에 의하여 美國은 이를 安易하게 받아들여 現狀維持의 軍事力을 維持하였다. 이러한 美國의 軍事政策은 자연히 對韓軍政策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韓國의 軍事力은 現戰力維持에 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본래 蘇聯이 주장한 平和共存의 眞意는 美國 즉, 資本主義世界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核을 중심으로 한 全面戰爭에 의한 世界赤化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全面核戰爭의 手段은 포기하더라도 戰術核武器나 在來式 軍事力에 의한 赤化革命은 계속한다는 것이었다. 蘇聯은 平和共存 기간에 美國보다 劣勢하였던 戰略核戰力 증강에 중력을 기울임과 더불어 在來式 軍事力에도 계속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결과 對外的으로는 西方世界에

對蘇輿論을 好導하고 사실상 軍事的으로는 核에 있어서 美國과 核均衡(Nuclear Parity)를 이루었고 在來式 軍事力은 美國보다 훨씬 優勢를 확보하였다.

'70年代에 들어와서는 平和共存이 「데탕트」時代로 漸變하여 冷戰體制가 와해되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하였다. 이는 多極化體制를 바탕으로 한 平和共存의 緊張緩和期라고 할 수 있다. 多極化는 특히 中共의 대두로 인하여 中·蘇對立에서 주요한 영향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蘇聯의 「데탕트」의 주요목적은 中共을 西方陣營으로부터 격리시키고, 外部的으로 美國과 西方世界에 은화한 인상을 부각시키는 기간을 이용해서 강력한 軍事力을 이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70年代 後半부터는 美國과의 軍事的 對決에 있어서 자신을 가지게 되자 그들의 世界的 세력팽창은 표면화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70年代 後半에 있어 그들의 세력팽창은 '40年代末에서부터 '50年代初와는 달리 直接 및 代理的 形態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平和共存과 「데탕트」를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이면에서 軍事力增強과 세력팽창을 시도한 蘇聯의 「모델」은 바로 北韓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北韓은 1960年代初부터 4大 軍事路線을 그들의 優先政策으로 내걸고 軍事力 增強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軍事力 增強의 政策이 실효를 거두자 이를 바탕으로 '60年代 中盤에는 3大革命力量戰略을 내걸고 '60年後半부터 大韓民國을 武力으로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例가 1968年 1月 「푸에블로」號 拉北事件과 11月의 蔚珍·三陟 武裝共匪事件이었다. '70年代에 들어와서는 美·中共和解, 美·蘇의 「데탕트」에 편승하여 표면적으로는 南北對話에 응하면서 내면적으

로는 軍事力을 급격히 增強하였다. 뿐만 아니라 對話를 하는 동안에도 南侵땅굴을 파는 등 그들의 南韓赤化의 基本路線을 조금도 變更치 않았다. 즉, 南北對話에 응한 것은 對外的인 宣傳用으로서 對南赤化의 基盤造成을 위한 戰術에 불과한 것이었다.

또한 '70年代에 들면서 美國이 駐韓美軍의 撤收政策을 취하자 그들은 早期撤收의 분위기 조성으로 對美接近을 시도하기도 했다. 반면 韓半島에서의 이러한 분위기 조성과는 반대로 世界到處의 紛爭지역에서 蘇聯의 代理役을 맡아 왔다. 특히 北韓은 지금까지 中·蘇를 왔다 갔다 하면서 有利하게 軍事力을 增強하다가 '70年代 美·中共이 和解하자 蘇聯側에 더욱 밀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北韓은 中共과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가까웠고 軍事的으로는 蘇聯과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狀況도 1976年 毛澤東이 死亡하고 中共이 新西方的인 路線을 수용하게 되고, 특히 美國의 軍事的 技術을 導入함에 따라 더욱 蘇聯에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0年代末에 蘇聯의 軍事的 팽창과 北韓의 軍事力 增強이 同調를 이루게 됨으로써 北韓의 軍事的 威脅은 더욱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3. 新冷戰과 北韓의 威脅

'70年代 後半부터 蘇聯의 노골적인 軍事的 介入이 世界 各地域에서 표면화 되자 즉, 1975年 앙골라에 軍事支援, 1977年 이디오피아·소말리아의 紛爭介入 그리고 1979年 아프카니스탄에 直接侵入으로 美·蘇간에 다시 緊張이 고조되었다. 특히 美·蘇간의 긴장을 다시 尖銳化한 주요 事項은 極東 및 印渡洋으로의 蘇

聯海軍力 진출과 아프카니스탄의 武力侵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레이건]政府는 더 이상의 後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보다 積極的인 對蘇牽制政策을 표방하고 실제로 軍事力增強과 海外駐屯 戰力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80年代에 들면서 美·蘇간에는 새로운 冷戰時代로 다시 접어들게 되었다. 新冷戰時代에 들어와 레이건政府는 極東에 있어서의 對蘇戰略의 일환으로 韓國防衛를 다시 중시하게 되었다. 이는 韓半島에서의 戰爭抑止力을 증가하는 것이었다. 北韓과의 軍事的不均衡을 시정하기 위하여 레이건은 駐韓美地上軍 撤收政策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제 戰力을 더욱 증가시켰다. 이렇게 美國은 政策을 전환하여 韓國의 防衛公約을 재확인하였으나 全世界에 걸쳐 對蘇牽制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他地域과의 優先問題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蘇聯이 앙골라, 짐바베 등을 비롯한 아프리카地域과 니카라과아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을 포함한 中南美地域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남에멘 등이 중심이 된 中東地域에 있어서 共產政權을 수립하기 위하여 直接, 間接으로 개입하는 것 외에 美國과 직접적인 武力紛爭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곳은 페르시아灣이다. 그러므로 美國은 이러한 地域에 있어서도 防衛를 公約할 뿐만 아니라 軍事力을 증강하고 있다. 또한 世界の 어느 紛爭地域에서도 蘇聯으로부터 國家利益을 추구하기 위하여 軍事力을 투입할 수 있는 大規模의 緊急配置軍(RDF)을 維持하고 있다.

이러한 世界の 紛爭可能地域에 있어서의 美國의 防衛公約의 재확인은 蘇聯의 팽창을 牽制하는데 강력한 수단도 될 수 있으나 地域에 따라서는 紛爭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 美

國이 비록 世界の 最強軍事力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同盟防衛의 의지가 강하다고 하나 蘇聯과의 軍事的 均衡 내지 部分的 劣勢下에서 紛爭이 하나 내지 몇 個의 地域에서 동시에 발발한다면 美國은 그들의 國家利益에 입각한 優先順位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韓半島의 防衛는 美國의 對外防衛에 있어 일차나한 優先順位를 가졌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美·蘇가 韓半島에서 보다도 더 相互利益이 상충되는 페르시아灣을 비롯 他地域에서 긴장이 고조되면 北韓으로서는 오히려 이를 호기로 착각할 수가 있다. 현재 北韓은 戰爭準備를 완료하여 놓고 있어 蘇聯의 積極的인 支援如何에 따라 紛爭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비록 美國이 韓國防衛를 재확인하고 駐韓美軍을 維持하고 있고 中共과 正常的인 關係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일단 紛爭이 야기되면 狀況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첫째, 美國이 他地域의 紛爭에 介여 있을 때 北僞가 武力侵略을 할 것인지, 또는 侵略의 規模나 樣相에 따라 美國의 韓半島에 대한 公約履行 여부는 달라질 것이다. 둘째, 中共이 현재는 蘇聯과 敵對關係에 있고 반면 美國과는 協助關係에 있다고 하나 그들은 본질적으로 「마르크스·레닌」主義者이며 共產主義者이고 反資本主義者이기 때문에 일단 紛爭이 일어나기만 하면 北韓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80年代의 新冷戰時代에도 北韓의 威脅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結 論

第2次大戰後 美·蘇關係는 冷戰이라는 性格

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따라서 韓國의 安保는 이 冷戰의 變化에 同調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0年末 冷戰이 激化되어 美國이 積極적인 對蘇封鎖政策을 취했을 때 오히려 韓半島에는 熱戰이 발발하였다. 冷戰이 1960年代와 '70年代에 들어와 平和共存과 「테탕프」關係로 달마꿈하자 蘇聯의 軍事力 증강 「모델」에 따라 北傀도 軍事力 증강에 광분하였다. 따라서 韓半島에서는 표면적으로는 安定된 現狀을 유지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北傀에 의하여 不安한 現狀 즉 現狀打破가 추진되고 있었다.

'80年代에 들어와 美國이 蘇聯의 평창세력을 적극적으로 견제함에 따라 韓半島의 防衛公約이 확고해 졌다고 하나 이는 美國의 世界

的인 次元에 있어 對蘇牽制政策의 一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駐韓美軍의 軍事力이 韓國防衛에 절대적인 役割을 하고 있으나 이는 반드시 韓半島만을 위한 軍事力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는 특히 冷戰의 激化에 의한 美國의 對蘇強硬政策이 韓國의 安保에 위협을 초래하였던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할 때 더욱 그러하다 '80年代를 新冷戰期라고 한다면 冷戰이란 고유의 성격에 의하여 오히려 韓半島에서 北韓의 위협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美軍이 韓國에 주둔해 있고 그들이 防衛를 確約할 때를 기하여 보다 自主적이고 能動的인 安保態勢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名言名句>

◎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그런 자는 두루 다니며 환담하는 자로서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 슬 로 문 —

◎ 의를 보고 행치 않음은 용기가 없는 것이다.

— 공 자 —

<연재>

노라매 日記

(1) 정 운 삼



Su-24 戰 爆 機



李 建 淳 譯

Sukhoi 設計局的 代表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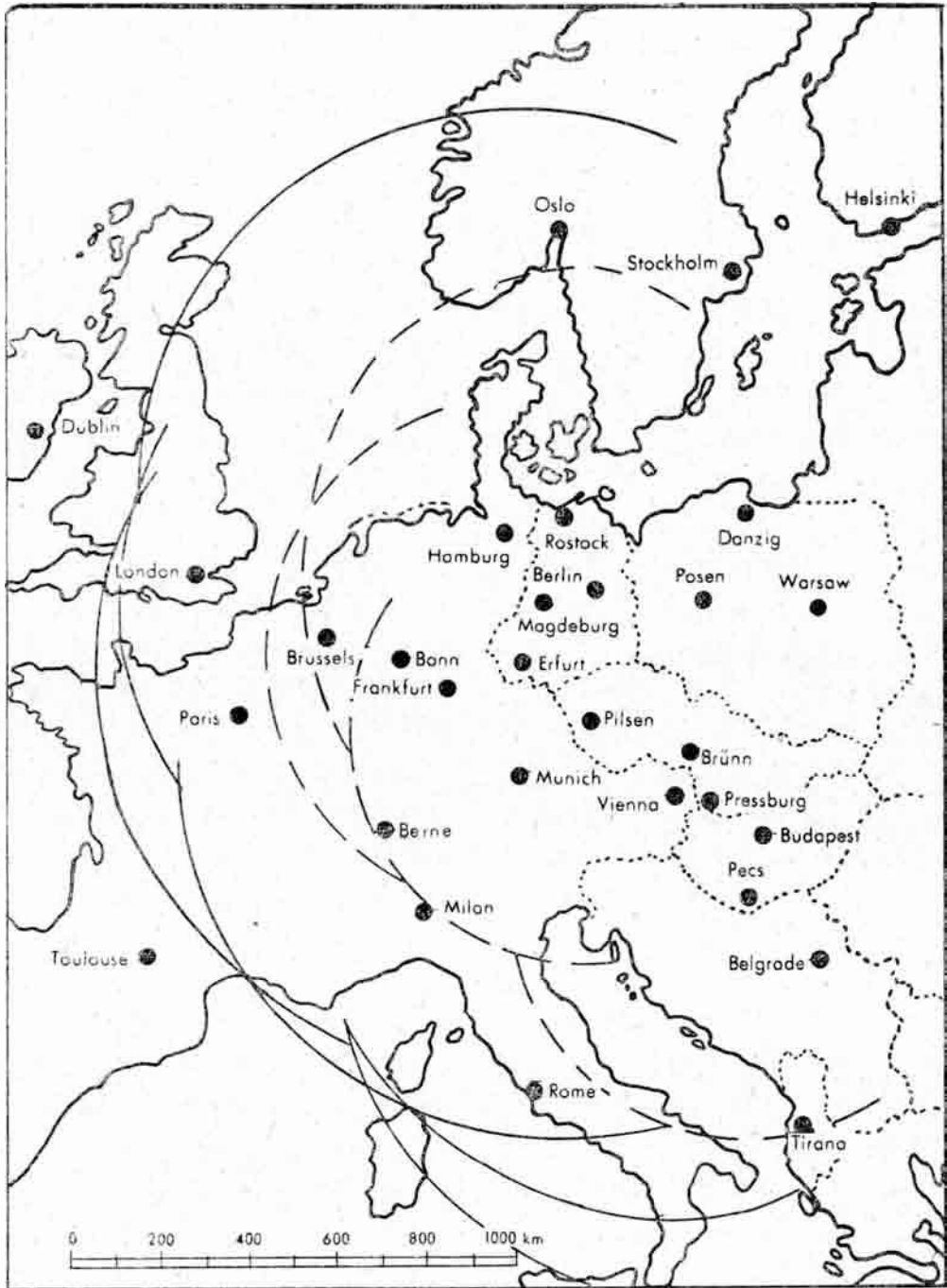
現在 소련의 保有機中 가장 致死性이 높은 무서운 戰鬪機! 지난 5年來 西方陣營 軍事專門家들이 Warsaw 條約의 軍事能力을 評價할 때에는 으레 이 “Fencer”機가 指摘 強調되어 왔다. 왜냐하면 이 戰鬪機는 소련이 保有하고 있는 戰術機中에서 가장 設計技術이 앞서 있고, 또한 NATO諸國에 關한 限 가장 威脅的 存在의 戰鬪機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元來 이 Fencer機의 設計意圖는 後方遮斷攻擊專門機로 만들어졌지만, 지난 70年代의 소련의 어떠한 第三世代 戰鬪機에서 보다는 소련前線空軍側의 要求에 따라 防禦爲主에서 攻擊爲主로 그 就役 任務가 뒤바뀐 戰鬪機이기도 하다.

이 航空機가 導入適用技術上 西方陣營 것에 비해 크게 뛰어난 點도 없고, 또한 全體 作戰配置上의 數的 勢力面等에서 그리 大端한 것은 못된다 하지만, 지난 10年 동안 소련空軍

의 最新銳機로서 再認識 내지 再評價되어 왔고, 따라서 이 Fencer機가 계속 소련前線空軍에 投入됨에 따라, 이들 空軍의 全般的 勢力強度는 더욱 커져갈 것으로 西方陣營에서는 憂慮의 빛으로 바라 보고 있다. Fencer機는 매우 훌륭한 戰鬪行動半徑과 地形追跡浸透能力, 그리고 想像키 힘들 程度의 武裝積載攻擊能力을 保有하고 있으므로 現 소련前線空軍保有 戰鬪機 序列中에서도 매우 뛰어난 戰鬪機로서 손 꼽히고 있다. 이 戰鬪機는 NATO軍의 制空 및 後方遮斷攻擊機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安全한 基地로부터 低空으로 NATO 領空을 浸透할 수 있다는 것과 짧은 滑走路나 未輔裝狀態의 基地에서도 作戰할 수 있는 것으로 適切한 武裝狀態로 LO-LO-LO 行動半徑으로 NATO 最前線 훨씬 後方까지 浸透할 수 있는 攻擊能力을 保有하고 있다는 것은 西歐 防禦上 매우 深刻한 問題點을 提起함과 同時, 이에 對한 講究策이 時急히 要求되고 있다.

數 百臺에 達하는 Fencer機가 Baltic海 및 Caspathian 山脈地域을 비롯하여 最近에는 極



<資料: IDR, 81.6. p. 718.>

東軍區 등의 소련前線空軍에 配置됨으로써, 이들 前線空軍任務支援을 爲해 長距離空軍機나 Backfire機와 같은 他 任務航空機의 支援 差出을 받을 必要없이 自體任務遂行을 할 수 있는 結果를 가져 오고 있다.

이 Fencer機는 作戰展開可能性이 매우 높은 東獨, 체코 및 헝가리 등의 作戰基地에서 最大 8ton까지의 作戰武裝으로서, LO-LO-LO Profile로서 西獨, 덴마크의 全部를 비롯하여, 불란서, 스웨덴 및 이태리의 大部分을 그의 攻撃圈內로 잡을 수 있다. 한편 標準型 1,000 kg 및 小型化 750kg 2個의 核爆彈을 積載하고 LO-LO-LO Profile로 英國, 佛蘭西 및 伊太利 등을 그의 攻撃圈內에 커버할 수 있다.

F-111機의 類似品

本 Fencer機는 美國의 General Dynamics 社 製 F-111機와 直接的으로 比較될 수 있는 航空機로서, 外見上으로 거의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크기에 있어서 約 12% 縮小된 모양을 하고 있어 "코마 F-111機"라 불리어 지고 있다. 그런데 本 Fencer機가 그의 相對機인 F-111機가 모두 長距離浸透機인 點에서는 같은 目的을 지녔다고 할 수 있으나 과연 Fencer機가 F-111機의 性能을 어느 程度 따라 잡고 있는지는 아직 明確치 않고 있다. 다만 이들 두 航空機의 主된 特徵面에서 比較하여 볼 때 Fencer機는 매우 높은 値의 翼面荷重值를 가지며, 또한 相當히 높은 推力/重量比를 適用하고 있다는 것은 이 航空機가 長距離浸透機로서 어느 程度 自體防禦能力을 保有케 하자

는데 그 設計主眼點이 있었다는 것을 明白히 알 수 있다. 이에 反해, F-111機의 경우는, 모든 設計의 焦點이 長距離攻擊 내지 強震任務專用機를 그 目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Turbofan Engine을 採用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소련의 Sukhoi 設計局이 이와 같은 소련戰鬪機 設計史上 一大革新的 製品을 出品하게 된데에는 General Dynamics社의 Fort Worth Division에 依한 開發製品에 매우 強한 影響을 받았을 것이 틀림 없다.

이 Fencer機의 革新的 開發時期가 바로 F-111機의 試驗飛行이 막 進行되고 있던 60年代 中盤에 始作되었다는 것은 위와 같은 推測을 뒷 받침하여 주기에 充分한 것이다. 이와 같은 美國의 F-111機에 相對되는 航空機를 設計擔當할 重責을 當時 소련 內에서 一人者의 位置에 서서 그 能力의 優秀性을 認定받고 있던 Sukhoi를 長으로 하여 設計팀을 構成시켜 設計開發任務를 賦與시켰다는 것을 너무나도 當然한 處事라 할 수 있다. 이 Sukhoi設計局은 第二次世界大戰 以來 소련 內에서는 처음으로 成功的인 後方遮斷 및 邀擊任務戰鬪機라 할 수 있는 Su-7(Fitter-A)機를 開發해 낸 設計局이기도 하며, 또한 可變翼 開發技術도 이미 Su-20과 Su-22(Fitter-D, -G 및 -H) 後方遮斷機 開發過程에서 充分히 具體化시킨 바 있기 때문에 이번 Fencer機 開發에 있어서는 아무런 危險負擔 없이 進行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Su-24 Fencer機라고 불리어 지는 이 새로운 戰鬪機의 開發計劃에 立脚한 試作

機製作이 지난 1969~70年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推測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60年代中에 소련戰鬪機開發에 따른概念定立段階에서부터始作하여 첫 비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平均所要期間이 4年이었다는點을 감안해 볼 때 이 Fencer機가 비록最新技術概念들이適用됨에 따라多少追加期間所要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소련의平均所要期間範圍內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航空機設計開發에 따른主된責任은同設計局의設計長인 Ye A. Ivanof가擔當했을 것으로보는데, 그는 1975年 Sukhoi가死亡하고 난 뒤이設計局의實質的인指揮管理責任行使를해오고 있는 셈이면서도對外的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셈이기도 하다.

傳統的인 소련式의設計概念에다美國式의外來設計概念을折衷調和시킴에 있어 Ivanof와 그의設計팀들은 소련陸軍航空隊側에서要求하고 있는未輔裝, 짧은滑走路에서의作戰要求條件을重히 가면서, F-111機의寸數, 設計概念 등을 빠짐없이參考해 나갔을 것이다. F-111機와外見의으로 많이 닮은點들은 다음과 같다.

◆ 可動主翼支持點이美國의 NASA式과 같이固定翼外側에設置되어 있다.

◆ 西方陣營機들이普遍的으로適用하고 있는高揚力 Slat와 Flap裝置를 쓰고 있다.

◆ 같은數值의縱橫比(Aspect ratio)

◆ 最大後退角으로後退時主翼前緣線이直線化形態로 된다.

한편 소련設計팀들이美國製 F-111機와差異나게設計하고 있는點은?

◆ 最大角後退時, 主翼後緣과 水平安定板前緣과의 사이를美國것에比하여 넓게 잡고 있다.

그理由로서는:

○ 水平安定板에充分的線型操縱感應性(Linear control response)을 갖게 하자는點과

○ 다루기에 매우 골치 아픈後流現象(Wake situation)을避해 보자는點.

◆ 또한各操舵面間의航空力學的重心位置를 서로間에 좀 더 멀리 벌어지게 함으로써縱的安定에 더 많은神經을쓰고 있다는 것을알 수 있다.

主翼可變裝置技術適用에 있어全自動可動技術이 아닌三點可變技術을適用하고 있는 것은全自動可變技術適用에 따른 매우精巧하고複雜한技術開發을避하자는데 그目的이 있었던 것으로보는데, 소련이 머지않아 이全自動可變技術이發揚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조종사와武器體系操作手가 서로 나란히 옆으로(Side-by-side) 앉는方式을 소련에서도採用하고 있는 것은,美國의 General Dynamics社가開發한 매우便利하고安樂한座席配置가航空機操作을 더욱効果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着眼하여 이技術을模倣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前方胴體의斷面積을最小限으로抑制維持시켰을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이斷面積이縱列配置座席法을採擇했을 때 보다는 훨씬 좁아졌기 때문에 Sukhoi設計팀들은自然히 이곳에複合機能型 Radar(Multi-mode radar)를設置했을 것이라 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F-111機가採擇하고 있는 것과 같은乘務員들의安全과

安樂性を 充分히 考慮한 非常脫出裝置를 소련 設計팀들이 考慮하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소련 內에서는 航空機設計哲學上 이 와같은 措置는 一種의 사치에 屬하는 것으로 철저히 排斥하고 있기 때문에 F-111機가 採用하고 있는 Side-by-Side Ejection Seats 代身에 그들의 傳統的인 Seats를 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空氣吸入口 모양에 따른 技術適用에 있어 F-111機의 경우는 主翼날개 밑 部分으로 덮는 式의 이른바 "Wing-Shrouded" 式의 空氣吸入口를 採擇하고 있지만 소련 設計팀들은 이 와같은 새로운 技術을 模倣採用하는데 따른 複雜性과 危險負擔을 줄이기 위해 그들이 이미 Su-15 Flagon機 등을 通하여 設計經驗한 바 있는, 美國의 F-4 팬텀機에서 採用하고 있는 것과 같은 "垂直楔기型" (Vertical-Wedge)을 胴體 兩側에 옆으로 달아 붙이는 形式을 取하고 있다. 이 와같은 吸入口를 適用할 경우, 吸入空氣의 壓縮現象이 自然히 吸入口 外側에서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飛行特性上 마치 高直角機動으로 들어가려는 듯한 感覺을 주면서 機首를 밑으로 숙이려는 듯한 버릇을 내는 것이 普通이다. 또한 Fencer機는 胴體內 武裝倉을 設置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이 와 같은 構造를 함으로써, 技術적으로 複雜하고 어려운 問題點 逢着을 意圖적으로 回避하자는데 있는 것 같다.

Su-24, Fencer A機의 技術的 諸元

乘 務 員

數	2名
座席	Side-by-Side

寸 數

胴體길이 (Pitot管 不包含)	20.0m
機 高	6.6m
機 幅	
70°後退時	10.0m
16° "	17.4m
翼面積	
70°/16°	49/38m ²
縱 橫 比	
70°/16°	2.04/3.06
무 게	
自 重	21,000kg
機 內 燃 料	12,000kg
最大戰鬪積載	8,000kg
最大離陸重量	41,000kg

Engine

數와 型	R29B-300 Turbojet × 2
最大靜止推力	
AB 無/有	7,850/11,000daN
比燃料消耗	
AB 無/有	25/55mg/Ns

航空電子

Radar	
地形追跡 Radar	未詳
航法—攻擊 Radar	未詳
Radar Warning	Sirena 3
IFF	SRZO-2
航法	
ADF	ARK-15
Radio Altimeter	RV-4
Radio-beacon Receiver	MRP-56P
ATC/SIF	SOD-57M
Doppler Navigation Radar Computer	NJ-50BN
ILS	SP-50
Short-range Navigation System	RSEB-4S
Long-range Navigation System	慣性式
Radio	
HF	RSB-70/RPS
VHF/UHF	R-832
Data Link	ARL-S
Intercom	SPU-10
其他	
Laser Rangefinder	未詳
HUD	未詳
Map Display	未詳
Weapon Computer	未詳
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	SAU-?

武裝

機關砲	30mm×2
外部武裝架	下部胴體×4 各主翼×2個式

特別資料

(a) 最大離陸重量時 翼面荷重值	70°/16°	1,079/837kg/m ²
推力/重量比		0.536daN/kg
(b) Clean 狀態 60% 機內燃料時 翼面荷重值(70°/16°)		742/575kg/m ²
推力/重量比		0.78daN/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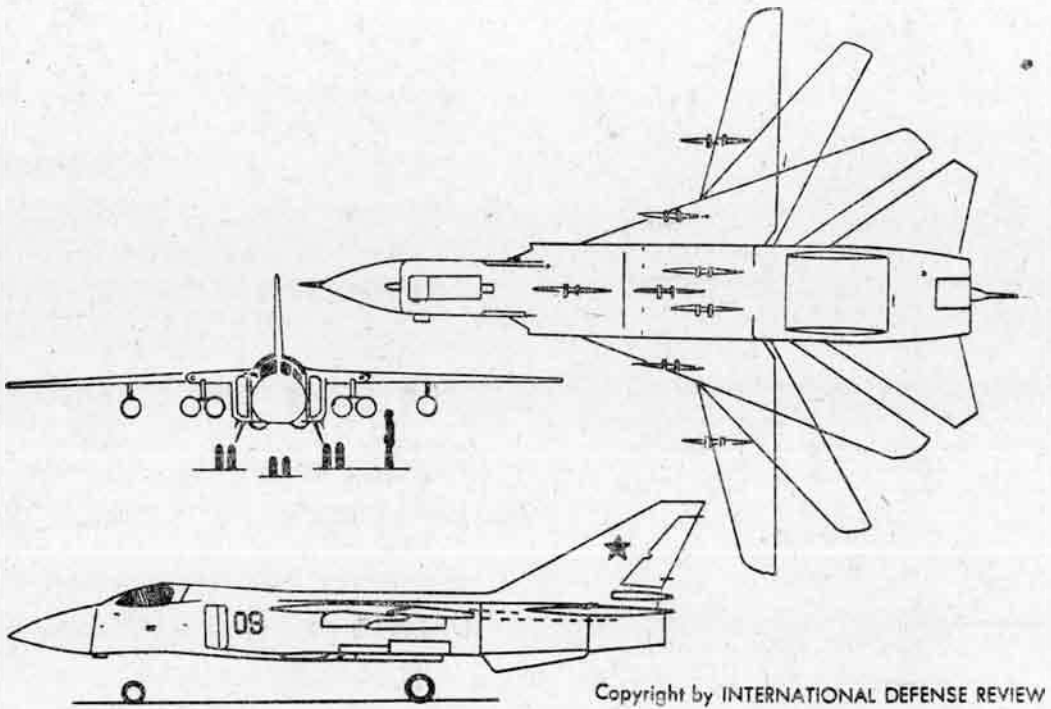
飛行性能

離陸距離 (離陸重量 41ton)	1,400m
15m 上昇所要距離 (TOW 41ton)	1,800m
着陸速度(機重 23ton)	240km/h
LO-LO-LO 行動半徑	最大 950km

戰鬥性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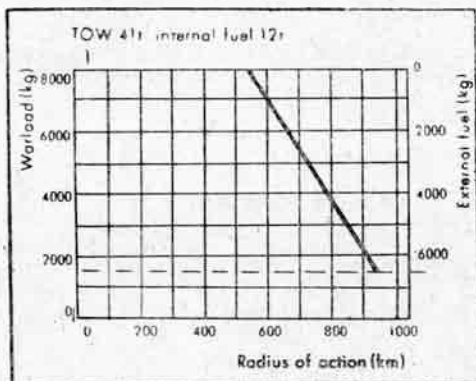
(Clean狀態 AB使用, 60% 機內燃料)	
最大速度	
Sea Level	Mach 1.2
高空	Mach 2.2
上昇限度	16,500m (54,000ft)
最大上昇率	
Sea Level	180m/s
11,000m(36,000ft)까지 上昇所要	1.8分
最大g 負荷值	5.0g
最大旋回率(Sea Level)	8°/s
最小旋回半徑(Sea Level)	850m
最大水平加速性	6.0m/s ²

<그림 1>은 Fencer機의 戰鬥武裝과 行動半徑과의 關係를 나타내는 그림으로서, 本 Fencer機가 8 ton이라는 놀라운 武裝積載狀態



Su-24, Fencer機의 三面圖

<資料: IDR 81.6. p.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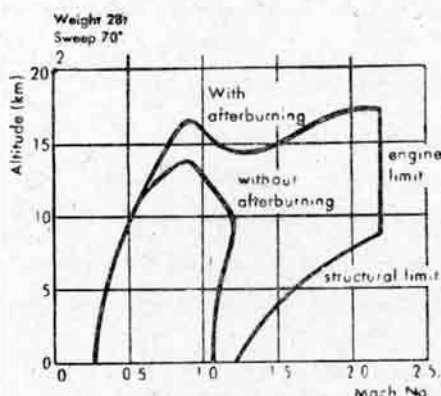
<그림 1>

<資料: IDR 81.6. p.718.>

로 大端히 먼 戰鬪行動半徑을 保有하고 있다. 여기서 積載武裝自體의 有效射距離는 包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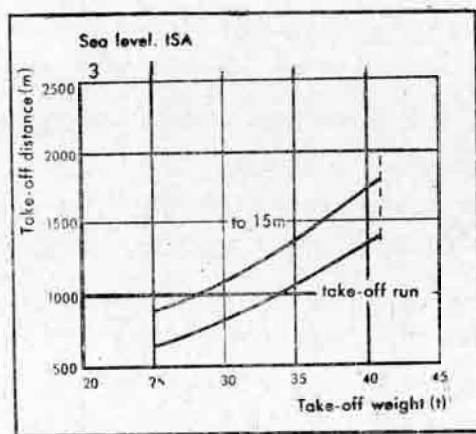
되어 있지 않다. 그림 右側의 Y軸(External Fuel)과 左側의 Warload軸의 實際值 表示는 되어 있지 않다(但, TOW는 Take-Off Weight의 略字임.....譯註).

<그림 2>는 Fencer機의 高度對 Mach Number 關係表示 그림으로서 戰鬪重量 28ton, 後退角 70°, A/B 推力 有/無 時의 飛行性能領域(Flight Envelope)를 表示하는 것이다. Sea Level에서 相當히 高速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低高性能向上에 設計力點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우 큰 角度의 後退角과 높은 翼面荷重值를 採擇하고 있는 것은 低空狀態에서 長距離浸透作戰任務 遂行을 主任務로



〈그림 2〉

하기 위해, 低空飛行狀態에서의 安全對策을 크게 考慮한 設計概念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그림 3〉은 Fencer機의 機重과 離陸 및 15m 높이까지 到達所要距離를 表示하는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Fencer機가 極端으로 높은 値의 翼面荷重値를 適用함으로써 離陸에 애먹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本機가 離陸時 補助로켓트 같은 것을 쓰고 있다는 報告를 받은 바 없지만, 實

際로 쓴다하더라도 Fencer機와 같이 設計된 航空機에서는 크게 效果를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航空機의 最大離陸重量은 41 ton에 達하고 있는 바 이때 離陸距離는 1,400m가 所要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本 航空機가 作戰可能한 作戰基地가 前方地域에 充分히 確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新型 航空 電子裝備

지난 60年代에서 70年代 初期 동안, 소련戰鬪機들이 裝備하여 온 航空電子裝備品들은 西方陣營 것에 비해 많이 뒤떨어졌던 것으로서, 그 差異는 境遇에 따라서는 10年 내지 그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西方陣營 軍事計劃官들은 Warsaw 條約軍들의 數的優勢를 西方陣營의 質的優勢로서 커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거의 確定的인 持論으로 되어 왔던 것이 事實이다. 그런데 Warsaw 條約國들의 一線就役機의 數가 거의 같은 數의水準을 繼續 維持하여 오는 것은 勿論, 그 性能面에서도 크게 向上된 最新型機로 舊型機들이 大幅 交替되고 있음으로써 지난날의 西方陣營側이 가져오던 安易한 假定들은 이제 그 現實性들을 잃어 가고 있다. 그런데 西方陣營에서는 소련側과 달리, 舊型機를 新型機로 交替함에 있어서, 新型機 購入單價의 大幅上昇으로 그 交替所要 絕對數를 채우지 못하는 어려운 實情에 놓여 있다. 最近 生産되는 소련 航空機들의 電子體系는 西方陣營 것과 거의 同等하게 出品되고 있다. 예를 들어, Su-24機의 航法 및 武裝照準體系는 美國의 F-111機 A/E型的

適用된 技術水準 것과 거의 對等한 것이고 그 生産時期도 F-111機에 비해 不過 몇 年 뒤 떨어졌을 따름이다.

Su-24機가 裝備하고 있는 Radar의 仔細한 形式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地形追跡型(Terrian-Following) Radar를 裝備하고 있는 것으로 一般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裝備性能面에서 좀더 仔細히 表現한다면, 이것은 차라리 地形回避型(Terrian-Avoiding) Radar라고 부르는 것이 妥當할 것으로 본다. 또한 本機는 레이저距離測定器(Laser Rangefinder)와 爆撃을 더욱 正確히 할 수 있는 것으로서, 武器發射用 컴퓨터와 連繫運用되는 形式未詳의 Navigation-Attack Radar도 裝備하고 있다. 또한 Fencer機는 地上에서의 補助體系의 도움없이도 獨自적으로 相當히 먼 距離를 航法飛行할 수 있는 慣性航法體系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소련의 最新機들이 相當水準의 技術革新을 이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從前까지는 地上統制의 도움을 相當히 받아왔던 것이 事實이었다. 이 慣性航法體系에 對해 좀더 附言한다면 本機는 SAU라는 形式名(但, Serial No는 未詳)으로 된 自動操縱體系를 裝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裝備는 지난 76年 베렌코中尉가 日本 北海道로 脫出飛行時 물고온 MiG-25 Foxbat機에서 처음으로 發見된 바도 있다. 이 自動操縱體系는 조종사가 必要하다면, 離陸과 着陸動作을 除外하고는, 모두 이 體系를 通하여 自動으로 操縱하게끔 되어 있는 體系이다. 한편, 短距離航法體系는 最新型地圖展示(Map Display) 能力을 갖춘 RSNB-4S型을 裝備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操縱席內 裝備는 지난번 Finland와 France를 訪問飛行한 바 있는 소련의 MiG-23G Flogger機에서 보여 준 바 있는 電子式 HUD(Head-Up-Display)가 包含되어 있다. 그런데 本 Fencer機가 裝備하고 있는 HUD는 소련이 從前까지 使用하여 오던 光學照準式(Optical Sights)이었던 것을 脫皮하여 西方陣營方式을 많이 模倣한 것으로 되어 있다.

武 裝

이 航空機의 機關砲는 胴體 속에 裝備되어 있는 關係로 이에 대한 近接寫眞確保가 어려운 實情에 있었다. 그런데 이 機關砲는 그들이 새로이 設計한 多聯身 30mm 機關砲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砲는 硬目標物에 對하여는 HE(High Explosive)彈이나, 徹甲彈을 發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두 번째의 30mm 機關砲는 單身砲일 것으로 보며, 이 砲는 Chaff彈의 發射과 같은 特殊目的의 砲일 것으로 보여진다. 彈藥積載量은 첫번째 砲가 500發, 두 번째 砲가 100發의 特殊彈을 超過치 않는 範圍內에서 運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Su-24機는 매우 多様な 目標物攻擊任務를 遂行하고 있는 航空機로서 그 積載武器種類에 있어서도 매우 多様하고 또한 複雜한 配合積載를 하고 있다. 爆彈의 경우, 500kg까지의 것을 積載하는 바 下部胴體武器架 4個所의 各 1個式, 內側固定主翼架(Inner Fixed Wing Glove Station) 한 쪽에 4個式 可動主翼 한 쪽에 2個式을 積載할 수 있다. 따라서 500kg 爆

彈일 경우 都合 16發 積載르시 最大積載量이 8ton에 이르게 되며, 核爆彈인 경우, 1,000kg 짜리를 後部中央胴體架에 1個를 積載運搬할 수 있다.

制空任務飛行時 Fencer機는 散彈撒布器(Scatter-Weapon Dispensers)를 積載할 수 있다. 또한 滑走路破壞用爆彈(Dibber Bombs)도 積載可能하다. NATO諸國이 施設하고 있는 新型航空機掩體壕를 破壞하여 그 內部的 航空機를 攻擊할 수 있는 特殊爆彈도 開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地上의 航空機나 또는 其他 特殊目的을 위한 Fuel/Air 爆發武器를 소련軍部隊들이 保有하고 있는바, Su-24機도 이 武器를 積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積載武器中에서도 가장 頂上級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500kg Laser 誘導爆彈이 될 것이다. 이 爆彈의 誘導原理은 AS-10 空對地 米사일의 誘導方式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서 越南戰 當時 美軍이 使用하였던 Pave Way 爆彈의 誘導體系를 模倣하여 開發한 것으로 보여진다.

Fencer機는 또한 多様な 空對地 米사일을 積載한다. 이들 米사일의 誘導方式 또한 多様な 것으로서 無線指令(Radio Command), 受

動레이다 호밍(Passive Radar Homing) 終末 레이저誘導(Terminal Laser Guidance) 및 電子—光學誘導(Electro-Optical Guidance: TV) 등이 그것이다. 別表에서는 이들 個個의 米사일 特性資料들을 提示해 주고 있다(그중 어떤 資料들은 推定值임).

이 Fencer機는 西方陣營의 航空機의 値와 거의 맞먹는 全備重量(Gross Weight) 對 積載重量(Payload; Fuel+Warload)比가 50%의 値를 갖고 있는 첫 번째 소련製 戰鬥機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事實들은 이 Fencer機가 積載能力의 增大를 圖謀하였다는 것은 勿論, 航空機 設計面에서도 많은 發展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實例로서, 航空電子製品面에서, Print 回路를 使用하고 있다는 것, 큰 推力/重量比의 Engine의 使用, 티타늄材料의 導入, 接合材料技術의 適用, 또한 極히 少量이긴 하지만 複合材料를 使用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Fencer機의 戰術 및 戰略的 意義

本 Fencer機의 作戰運用上의 重要性은 이미

Air-to-surface missiles for the Su-24

	AS-7	AS-9	AS-10	AS-11
Length(m).....	3.5	5~6	3.5	6
Weight(kg).....	300~400	c. 700	200~300	700
Warhead wt(kg).....	c. 100	135~200	100	200
Guidance.....	radio command	radar homing	semi-active laser	TV
Range(km).....	10	50~90	10	50

書頭에서도 強調된 바 있지만, 그의 前任機인 YAK-28 Brewer 輕擊爆機와는 이제 完全交替될 것을 目標로 推進中에 있다. (지난 7年 동안 370臺가 交替完了됨) 지금 現在 擊爆任務 60臺 偵察任務 175臺, ECM型 20臺 等の Brewer機들이 아직 現役就役中에 있다. 이들 255臺의 舊型 Brewer機들이 새로운 Fencer機들로 完全交替될 時期는 지금 Fencer機의 年間 生産率이 60臺 꼴로 잡고 있으므로 앞으로 1984年 末이나, 1985年 初가 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YAK-28機 255臺의 交替所要에 追加하여, 舊式이지만 아직 就役中에 있는 135臺의 Tu-128 Fiddler機가 Fencer機의 激爆變型機로 交替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交替될 總 臺數는 1986/87年까지 總 760臺 程度의 Fencer機가 生産될 것으로 豫想된다(推定所要資料는 "The Military Balance 80/81"에 依據함). 이와 같은 소련側의 潛在的 戰鬪機保有勢力에 對處하게 될 NATO側의 勢力으로서는 지금 英國本土에 配置되어 있는 160餘臺의 F-111E 및 F型機가 歐洲地域에 있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Tornado機 部隊들이 配置中에 있어서 이와 같은 소련側과의 不均衡狀態를 多少 덜어 줄 수 있다고는 하겠지만, Tornado機의 離陸 重量이나 積載重量上으로 볼 때 本 Su-24 Fencer機와는 相當한 差가 있는 形便이다.

Tornado(後方遮斷機型)	Su-24	
單位 : ton		
最大離陸重量	26	41
自重	10	21
最大武裝	7	8

最大速度 (Mach)

低空	1.2	1.2
高空	2.2	2.2

소련은 美國이 F-111機를 SALT 會談에서의 協商對象品目으로 包含시키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自己네 Fencer機의 性能에 對하여서는 仔細한 것을 밝히려 하지 않고 우물쭈물 일버 무리고 있다(그러한 點에서는 美國도 마찬가지이지만) 소련人들은 Tu-22M Backfire機까지도 戰略機가 아닌 戰術機 範疇에 包含시키려고 美國 사람들에게 說得工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소련은 지금 MiG-25 Foxbat機에 積載 運用하게 될 長距離型 空對地미사일의 開發試驗이 거의 完成段階에 접어 들고 있는 바, 이와 같은 SALT 會談進行에 크게 影響을 미칠 陰凶한 武器開發을 은밀히 소련側이 繼續해나가는 限, 더 以上 會談을 進行시켜 나간다면 하더라도 時間浪費만 있을 뿐 어떤 焦點을 찾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소련은 앞으로 SALT 會談席上에서 NATO側의 Pershing II와 巡航미사일 配置에 따르는 NATO軍의 核勢力 現代化에 따라 Warsaw 條約軍이 直面하게 되는 威脅增大에 對하여 論議가 集中되어 나갈 것으로 豫想되는데(勿論, 그렇다고 해서, 소련側이 成功을 거두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소련側이 그들의 準戰略武器體系들을 本 會談關心밖으로 제쳐 놓으려는 속셈일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準戰略武器體系들이 앞으로 歐洲戰域에서 매우 큰 威脅의 存在로 登場하게 될 것인 바, 여기에는 다른아닌 本 Su-24 Fencer機가 그 代表的인 存在로서 登場하게 될 것이 틀림 없다.

소련戰術防空의 發達과 運用實態

崔 良 洙 譯

현재 소련의 방공교리는 1941~1945년간에 있었던 Great Patriotic War 시대에서부터 성장하였으며, 대부분이 수정되지 않은 채로 사용되어 왔으나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어 취역하게 됨에 따라 수정되어 왔다.

소련방공군은 적 항공기를 약 7,000대 이상을 격추시켰으며, 그중 약 60%는 공중전에서 나머지는 대공화기에 의하여 격추시켰다고 소련의 공식적인 전사에 기록되어 있다.

소련방공군은 전쟁 초기에 독일공군이 소련의 병력집결소와 주요군사시설물을 강타하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없었으며 병력과 장비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최근의 소련 전술방공군 사령관인 Levchenko 장군은 전쟁 개전시에 PVO(방공군)부대의 재무장은 완벽하지 못하였고 주요 결점으로서의 소구경의 대공화기가 부족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같은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전투지역을 집중 밀집방어하는 소련의 교리가 성장하게 되었다.

특히 경보, 지휘조직 및 전투가엄호문제 등에 관해서는 전략 및 전술방공군간에는 여러 가지의 긴밀한 협조문제가 있었다. 두 부대간에 긴밀한 연락이 없는 전략 및 전술방공작전 계획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전술방공군사령관은 지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사의 문제는 연구집토가 되어야 하고 전쟁에서 배운 여러 가지의 교훈은 현대전에 이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소련의 전략 및 전술방공부대를 최근에 대신하는 부대는 PVO Strany와 PVO Sukhoputnykh Voysk-PVO SV이다. 이 기사에서는 주로 PVO SV의 발달과정을 취급하기로 한다.)

전쟁 초기에 소련의 요격기는 독일공군과 필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 지상군은 그 자체에 통합된 방공부대를 보유해야만 하고 공중지원에 의존하지 않아야만 했었음을 소련의 Planner들은 1941~45년 전쟁 중에 즉시 알게 되었다.

특히 소련의 전차들은 취약하였으며, 이 전차들은 대공포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급강하 폭격기들은 치명적으로 정확하게 소련 전차들을 공격하였다.

소련지상군이 새로운 대공무기를 보유하였

을 때에는 독일공군의 공중우세는 약화되었으며 또한 소련지상군을 엄호하기 위한 소련 전투기들의 출격횟수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소련군 사단들은 1개 경량(37mm) 또는 중(85mm) 대공포중대로 무장을 하였으며, 야전군은 1~2개 대공포대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침내 1941년과 1945년 사이에 소련의 대공무기는 80배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련 공군이 계속 공격할 수 있게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국전(1950~53)—미 공군 우세

한국방공군은 전장의 거의 모든 지역을 장악하고 제트전투기로 무장한 적군을 반격하여 야만 했었다. 또한 미국은 소련에 대하여 전례없는 위협이 되었던 원자탄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련의 Planner들은 새로운 제트전투기와 대구경 대공포를 소개하였고 초기모델의 지대공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북괴와 중공군의 대공무기 및 전술은 Great Patriotic War 당시에 소련군이 사용하였던 무기 및 전술과 흡사하였다. 주요무기는 우선 순위가 높은 지상목표물을 방어하기 위한 화력조종레이다가 있는 85mm 대공포와 야전군에 대한 저고도 공격을 반격하기 위한 12.7mm, 37mm 대공포였다.

북괴와 중공군은 공격하는 적기로부터 그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종종 소형화기를 사용하였다. 한 서방 관측자의 말에 의하면, 전

쟁이 끝날 무렵에는 많은 적의 대공방어진지들이 북괴지역에 점조직으로 산재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군의 근접지원항공기에 대하여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없었다.

북한의 압록강 근처에 있는 공산주의 진지들은 미군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강타당하여 파괴되고 그 수가 점점 줄어들었으며 남한에 있는 미 8군의 포위계획은 실패하였다.

적의 방공군 자신의 희생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미 공군은 적의 AA 및 소형화기에 544대의 항공기를 손실하였으며, 이 항공기 대수는 공대공전투에서 손실한 항공기 대수에 비하여 거의 5배에 달하는 대수이다.

그 외에도 종종 적의 저고도 방공으로 인하여 미군조종사들은 고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할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소련은 미군의 항공전술변화를 경시하지 않았다. 극부전 수행의 권위자인 F. Shesterin 대령은 적의 레이더장비의 집중적 사용은 전자전 능력을 과시하려는 미 공군과 직면하고 있는 북괴 및 중공군 방공부대의 효과를 크게 증가시켰다고 말하고 있다.

미 공군 항공기들은 19,500ft와 26,000ft 사이로 비행하고 목표물 상공에서 시간소모량을 단축하도록 강요되었다.

그 외에도 초계 항공기 대수를 감소시키고, 지원부대는 적의 대공포부대를 제압하는데 사용되어야만 하였다.

소련 고문관들의 지도를 받는 북괴군은 점

점 소극적 방공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북괴 및 중공군은 대규모적으로 위장, 은폐, 기만 및 분산전술을 이용하였다. 미군의 전투정보도 활주로상의 위장 탄흔 및 기타 많은 위장장비 즉 항공기, 옹벽, 연료저장탱크 및 대공포진지 등이 만들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와같은 많은 전술들이 후에 월남 및 중동전에서 이용되었다.

공중전(1967)—전투준비 태세를 위한 경우

1967년에는 아랍군 특히 이집트군은 다양한 방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집트는 SA-2, 18개대대(각각 6개의 발사대가 있음)와 37mm에서 100m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종 대공포를 보유하고 있었다. 비록 서류상이기기는 하지만, 이와같은 대공무기는 어떠한 잠정적인 공격기에 대해서도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다.

1967. 6. 5. 계속적인 이스라엘 공군의 공격에 의하여 이집트의 16개 비행장이 작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26개의 레이더기지가 파괴되었다.

이스라엘은 전쟁개시일에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2일째 되는 전투에서 418대의 아랍측 항공기가 파괴되었으며, 그중 393대가 지상에서 파괴되었다.

이스라엘의 이와같은 기습은 소련 및 서방측의 관측자들에게 한결같이 효과적인 저고로 방공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스라엘 항공기들은 대부분의 초파공격시에 해안으로부터

터 목표물에 접근하였다. 이스라엘 항공기들은 지중해 상공으로 이집트 영공에 진입하여 적레이더 탐색범위 아래로 이행을 하였다. 이스라엘 항공기들은 방어된 지역에 접근할 때에는 SA-2 미사일의 최소유효고도 이하로 이행을 하였다.

그 결과 이스라엘 항공기들은 하나도 지대공미사일에 손실되지 않았으며, SA-2는 발사가 느리다는 것을 최초 기습 중에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알게 되었다.

또한 항공작전도 기습의 이전과 방공요원들의 우수한 전비태세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이와같은 결점은 이스라엘의 최초 기습작전과 스에즈운하 서안에서의 계속된 작전에서도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많은 미사일들이 발사진지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거의가 다 발사되지 않았었다. 당시의 이집트 방공체제는 모든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나 전비태세수준이 기술장비에까지 미치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집트군이 전선에 버린 장비로 인하여 방공은 기동성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확실해졌다. 이집트군은 미사일, 발사대 및 화력조종장비 등을 포함하여, 그들이 쉽게 이동할 수 없었던 장비들을 파괴하지 못하였다.

월남전(1965~1973)—월맹에서의 공중전

소련의 교리에 관한 문헌은 앞으로 지대공미사일(SAM)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 SAM은 월남공중전에서

최초로 사용된 바 있었다. 이는 공중공격과 방공간의 경쟁에서 기본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한 것이었다.

소련은 SAM 운영에 관한 월맹의 연대별 3단계 방공작전을 인정하고 있다. 1965.7부터 1966년 중반까지는 SAM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적공격기의 예상비행로를 따라 매복하여 놓은 SAM 기지에서 미사일을 주로 사용하였다.

SAM 기지의 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방공작전은 2단계로 돌입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지상목표물에 대한 고정 점방공법을 사용하였다.

제 3단계는 1970년대 초에 시작되었으며, 이 때에는 SAM 부대수가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월맹은 몇 개의 중요한 목표물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요새방공법을 채택할 수 있었다. 제 2, 3단계 중에도 일부 소규모 SAM 부대들은 매복진지로부터 계속 미사일을 운용하였다. 또한 미군항공기들은 광범위하게 중첩되게 전개시킨 대공포에 직면하게 되었다. 약 5,000개의 대공포가 하노이를 포위하여 방어하였으며, 그중 절반은 레이더로 통제가 되었다.

월맹은 3종류의 무기로 최적화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MIG기, SAM 및 대공포로 작전을 협조하였다.

월맹지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대공무기가 집중되어 있었던 지역은 Red강 계곡이었다. 북·서·남·동 방향으로 Yen Bai 지역에서부터 하이퐁 및 퉁킹만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확장 밀집되어 있었으며, 북쪽에서 남쪽까지 약 130km로 추정되었다.

이와같은 방공무기들은 방공의 중추로서 하노이와의 길이 100km, 폭 65km의 인접계곡 지역에 특히 밀집되어 있었다.

SAM의 대대적인 사용은 월맹지역에서의 미군공중작전의 비용과 복잡성을 신속하게 증가시켰다. 그 예로서 미 공군은 소규모 Group에 의한 제대작전을 채택하였고, 주요목표물을 공격하는 부대의 규모를 축소시켰으며 적지상 방공을 제압하는 지원 Group의 수를 증가시켰다고 소련의 관측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는 미군의 Iron Hand 비행에 분명한 참고가 되는 것이며, 이 비행에서 F-105 조종사들은 목표물지역에서 공격비행을 개시하기 전에 공중에서 추적해오는 SA-2 기지에 도착하기 위하여 기만기로서 행동을 하였을 것이다.

그때에 F-105 조종사들은 "위탁된" SA-2부대에 Shirke 미사일이나 방사성추적미사일(ARM)을 발사하였을 것이다. 이들 ARM의 발사는 재래식 공중공격법으로 계속 되었을 것이다.

미군의 항공기들은 종종 SAM 화망지역을 우회하여 목표물 지역으로의 접근을 슬기기 위하여 저고도로 비행을 하였을 것이라고 소련은 주장하고 있다.

소련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ECM의 사용은 방공의 성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소련으로 하여금 가장 다양한 주파수와 ECCM 장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SA-2의 효과가 ECM에 의하여 계속 감소됨에 따라, 미군의 가장 높은 손실 비율은 대공포에 있었다. 월맹지역에서의 공중전을 통하

여 미 공군은 SAM에 대해서 보다 대공포에 대하여 전투기와 전투폭격기를 여러배 더 손실을 보았다. 따라서 대량으로 밀집된 대공포 교리상의 타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월남지역에서는 미 공군은 월맹지역에서와 같은 밀집된 지상기지화력에 직면하지 않았다. 월맹지역과는 달리 월남지역에서의 방공은 큰 차이가 있었다. 항시 미군과 월남군의 감시하에 있었던 Ho Chi Minh 루트를 통하여 방공무기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동성이 필요했다.

Viet Cong의 주력부대는 항시 7.62mm 기총을 사용하였으며, 월맹의 육군부대는 공중공격기를 방어하는데 경량카빈과 자동소총 외에 주로 12.7mm 기총을 사용하였다.

SA-7은 월남지역에서 전쟁방공무기로써 아주 적합하였으며 1972년에 월남지역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 열추적미사일은 SA-7은 저고도 공격기에 대하여 사용되었으며 특히 헬리콥터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미 헬리콥터 조종사들은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하여 Flare 투하방법을 곧 배웠으며, 후에 헬리콥터 엔진의 열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Heat Shield가 추가되었다.

월남지역에서의 미군의 헬리콥터에 대한 신뢰는 방공무기에 대한 소련의 요구를 바꾸게 하는데 기여했다. 미군은 월남전에서 헬리콥터의 수를 1964년 중엽의 300대에서 1967년 초에 2,400대로 80배나 크게 증가시켰다고 소련의 군사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헬리콥터로부터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상군의 절실한 필요성은 전쟁이 발전될

에 따라 고조되었으며, 소련은 구라파지역에서 바르샤바조약군의 기갑차량에 대하여 미군의 공격용 헬리콥터로부터 증가되는 위협에 직면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병기제작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집착해서 방공교리를 발전시킴에 따라,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할 시기에는 미국의 항공기와 헬리콥터가 많은 희생을 입었다.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 미국의 소모율은 일반적으로 반격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월맹지역에서 미 공군과 해병조종사들은 목표물로 항공기를 정확하게 유도하여 일발 명중의 정확도로 공격하기 위하여 정교한 장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미 공군 및 해군조종사들이 직면한 방공은 1960년대 초에 소련의 야전군이 사용하였던 방공, 즉 중고도 및 고고도 용으로 SA-2를 사용하고 저고도 및 중고도 용으로 밀집된 대량의 AA를 사용하는—과 유사하였다.

중동전(1973)—미사일비

소련이 2차기간동안(1960년대말과 1970년대 초)에 걸쳐 이집트군을 재보강함에 따라 이스라엘의 항공세력에 의한 또 다른 패배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결정되었다.

전에 없었던 많은 소련 방공고문단들이 이집트로 급파되었으며, 1970년에 이집트에 주둔하고 있었던 10,000여명으로 추산되는 많은 군사요원들은 SAM 및 AA무기의 조작수와 기술자들이었음이 분명했다.

이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1972년 8월에 이집

트를 떠났으나 소련은 이집트의 교리와 건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시리아의 방공군에 미친 소련의 영향도 또한 대단하였다.

소련 방공부대의 전술교리는 월남전과 과거 중동전에서 배운 교훈의 결과를 혼합하였다. 1973년에 사용하였던 가장 중요한 소련의 교리상 원리는 다음과 같았다.

(1) 대량밀집방어—전장을 횡단하여 배치된 많은 대공무기로 밀집 중심있게 방어

(2) 혼합배치—똑같은 중요한 목표물을 방어하기 위하여 다른 형의 미사일과 대공포로 결합된 화망(Coverage)을 구성

(3) 기동성—신속하게 이동하는 지상군부대와 똑같은 보조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 탑재 대공무기를 사용.

1967년의 참혹했던 교훈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소련은 저고도 위협에 대처하기에 아주 적합한 각종 무기인 SA-3 Goa, SA-6 Gainful, SA-7 Grail 및 ZSU-23-4를 소개하였다. 1973년에 SA-3, SA-6 및 ZSU-23-4가 최초로 전투에 사용되었다.

1973. 7. 경에는 이집트는 약 130개의 SAM 사이트(SA-2, SA-3 및 SA-6)와 8개의 다른 형의 AA Gun 및 9개대대의 최신에 Fishbed J 요격기로 구성된 통합된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련모델의 지휘 및 통제망이 이들 부대와 함께 결합되어 있었다. 시리아도 또한 막강한 방공부대를 보강하였다.

제 4차 중동전(The Yom Kippur War)

이집트의 방공은 1973. 10. 6일에 최초로 시험되었으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집트군의 스웨즈 운하 도하를 역습하였다. 또한 유사한 SAM과 AA Gun으로 무장한 시리아군은 골란 공원지역에서 동시에 기습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날의 마지막쯤에서 여러 대의 이스라엘 전투기가 SAM과 AA사격에 파괴되었으며, 기타 항공기들은 부분파손이 되어 기지로 귀환하였다(수일 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술과 ECM 장비로 인하여 손실율이 감소되었음).

스웨즈운하를 횡단하는 데 사용된 교량에 대한 반복된 이스라엘공군의 출격은 이집트군이 스웨즈운하 동안에 안전한 교두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실패하였다.

이집트군이 그들의 이익을 공고히 하도록 준비하고 있었을 때 SA-6는 운하를 횡단하여 전개되었었다. 스웨즈운하 도하작전은 방해를 받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이집트군은 그들의 방공엄호하에서 여러 개의 교량을 추가로 가설하였다.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Stand off 공대지 무기를 발사하였으나 피아간에 안전한 거리에서 발사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지상군에 대한 근접공중지원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좌절되었다. 아랍군의 대전차부대를 격퇴시키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지상군사령관들은 이스라엘공군의 근접공중지원을 기대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기동성이 우수한 ZSU-23-4와 SA-7 사격

팀은 이스라엘 항공기들이 효과적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

아랍측 방공무기의 성능은 1967년의 방공무기의 성능 보다 광범위하게 향상되었다. 이집트는 ECM과 ECCM 임무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소련의 군사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더우기 1973년에는 아랍측은 저고도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이 ECM과 지형위장진술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아랍군은 육안관측자팀에 의존하였다. 이 팀들은 예상되는 항공기 접근로에 전개되어 이스라엘 항공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SAM과 AA 부대에 경고를 하였을 것이다.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전에 볼 수 없었던 밀집방공에 직면하게 되었다. 스웨즈운하를 따라 배치된 미사일 사이트를 가리켜 말하면서 Moshe Dayan 장군은 이와같이 밀집되게 미사일을 배치하여 완전하게 보호하는 지역이 이 세상 또 어디에 있을까 의심할 정도라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방공 Planner들은 SAM에 직면한 조종사들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음을 시인하였으며 1975년 이스라엘공군의 실제 사령관이었던 Peled 소장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감명 깊게 요약하며 말하였다.

“저대공미사일은 실제적으로 하나의 기계적인 장난감이다. 이는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인다. 미사일은 비행로를 변경하면서 여러분을 추적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적으로 아주 제한된 로봇이다. 월남전과 이스라엘전에서 여러분들은 추적하는 이와같은 종류의 반종명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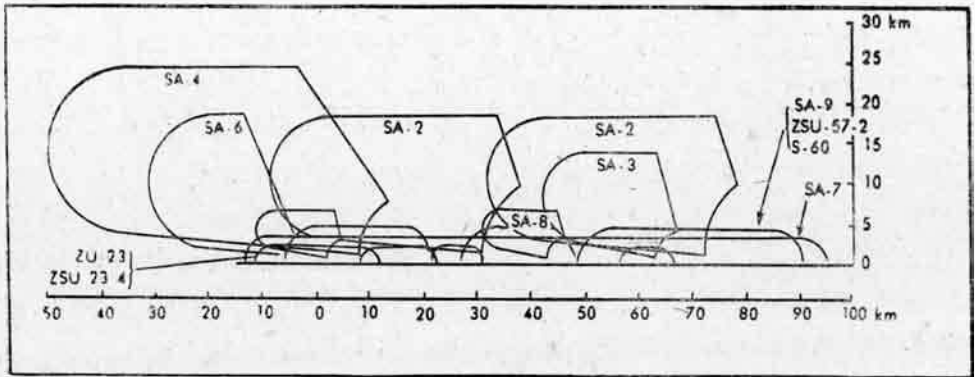
무기에 의하여 받았던 감정적 스트레스는 미사일의 능력에 의하며 입증되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 따라서 무기의 효과는 미사일의 명중(Kill)률만으로 요약할 수가 없으며 미사일의 명중률과 그의 감정적 스트레스의 효과로 요약할 수가 있다.”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걱정이 될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었다. 이스라엘공군은 100대 이상의 전투기를 손실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 SAM과 AA에 의하여 손실되었다. 이스라엘의 F-4기들은 1967년에 사용하였던 Mirage III 전투폭격기 보다 훨씬 더 큰 톱과 더 많은 정교한 전자장비를 장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전반적인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이집트의 SAM은 적 공군의 운영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적 지상군 작전전개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노년의 저서에 기록되어 있다.

소련의 지도층들은 전쟁 그 자체에서와, 이집트 및 이스라엘 장교들이 쓴 과거 전의 교리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무엇이 1973년 전쟁의 주요한 교훈이 될 수 있느냐고 Mohammad EI-Gamasy 장군은 말하였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공군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방공체제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을 때에는 이스라엘 공군은 공중우세를 성취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였다.”

일부 이스라엘 장교들은 공중작전개념에 대한 전쟁과의 밀접한 관계를 시험하였다. 공중전에 관한 여러 가지의 인정된 개념들은 다시 제평가를 받아야만 할 것이라는 점을 Chaim



<새로운 세대의 지대공미사일이 이와같은 “방공망(Air Defense Umbrella)”에 추가되어 방공망을 향상시킬 것이다. 새로운 SA-1001 현재 전개 중에 있으며, SAM(SA-11, 12 및 13)이 발전된 개발단계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

Herzog 소장은 시인하고 있다.

SAM은 “항공기를 노후하게 하지는 않으나” 경량의 기동성이 있는 미사일의 증가는 “근접 공중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개념을 면하게 할 것이다.”

전장을 고립시키는데 진념하고 공중우세를 유지하며, 전장 내에 있거나 근처에 있는 적 부대를 파괴하는 공군에 대해서는 미래에는 근접공중지원은 규정에서 예외가 된 것이다.

소련의 방공전문가들에 대해서는, 1973년의 사건(전쟁)들은 고도로 기동성이 있는 적 공군을 패배시킬 수 있는 “무기계열(Family of Weapon)의 기본개념을 보장시켰다. 1973년 이후 서방측의 방공전문가들은 미군과 NATO 군이 이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성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극토방공군은 이를 결코 경시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방공무기가 증폭된 방공망의 형태로 사용

될 때에는 다른 종류의 방공무기는 서로가 보완을 할 수 있고 재밍하기가 아주 곤란한 다양한 양상을 적기에게 제공하여 준다.

소련의 관측자들은 1973년에 있었던 “비와 같은 미사일망”을 형성한 SAM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저고도 목표물에 대처할 수 있는 대공포의 능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대공무기가 다른 방공무기와 혼합해서 사용하였을 때 얻어진 좋은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 1973년의 아랍측의 방공의 성능은 완전하지가 못하였으며, 특히 지휘 및 통제면에서 더욱 그러하였고, 일부 이스라엘 항공기들은 그들의 임무를 완수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랍군은 적 공격기에 대하여 제2차세계대전 이래 어떤 다른 방공부대보다 더 많은 손실을 주었다.

그러나 소련/바르샤바조약군의 방공부대의

앞으로의 계획된 사용은 1973년에 아랍군이 사용한 사용방법과는 다를 것이다. 제 4차 중동전쟁 중에는 아랍측은 바르샤바조약군이 구라파전쟁에서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대한 지역적인 각종 이점을 즉시 이용하였다. 그 결과로 아랍측의 방공은 항시 고정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소련 및 기타 바르샤바조약군의 방공부대는 신속한 공격을 지원하면서 구간전진을 해야만 할 것이며, 교대로 사격위치를 설치하면서 공격의 여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 전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방법은 방공요원들에게 많은 요구를 제시하며 이들은 하더라도 적의 공중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최신형 소련의 전술 SAM이라 할지라도 이동하면서도는 발사할 수 없으며, 기동성과 이들 무기들이 집중하는 집중화력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아주 신속한 기동성이 요구됨에 따라 그 결과로 SA-8 Gecko와 SA-9 Gaskin과 같은 새로운 소련의 전술 SAM이 개발되었으며 이와같은 무기들은 1973년에는 아랍군에 이용되지 않았다. 이들 무기체제들은 최소의 짧은 반응시간을 갖고 있으며 아주 짧은 정시시간 이내에 적기에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현재 취역 중에 있는 SA-11과 같은 미래전술미사일은 점진적으로 보다 우수한 기동성을 필요로 할 것이다. 레이더로 유도되는 SA-11은 저고도, 중고도 목표물을 공격하기에 아주 적합함이 분명하다.

기동성이 있는 발사차량은 3~4개의 Missile

Rail을 장착하고 있으며, SA-11은 SA-6체제와 같이 작전함이 관측되었다.

SA-11의 개발은 소련의 전술방공부대가 상당한 기동성이 있는 저고도용 전천후 체제를 배치하고, 이미 야전에 배치되어 있는 전술 SAM의 다양한 배치를 보충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기동성의 이점

소련의 전술방공무기는 기동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전투시 큰 이점을 갖는다. 소련의 교리상에는 차량종대는 NATO의 공중공격을 받기가 쉬우며, 특히 신속한 이동이 어떤 지형이나 인위적인 장애물에 의하여 방해받게 되는 Choke Point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방공부대는 차량종대에 계속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맞게 전개될 것이다. 기동성이 매우 우수한 SA-8, SA-9 및 ZSU-23-4와 같은 대공무기는 특히 이와같은 임무에 아주 적합하다.

또한 SAM 및 AA부대가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소련의 지휘관들은 방공매복부대와 이동부대를 활용할 수가 있다.

매복부대와 이동부대 전술간의 주요한 차이점은 매복부대는 근접해오는 적기를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이동부대는 대부분 적 공중공격 예상지역으로 이동하여 지원하려는 부대의 작전지역의 기지정된 각종 위치를 점령한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각종 작전위치는 기계화된 계획에 따라거나 또는 방공부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이동부대가 점령한다.

이와같은 전술방공무기의 기동성은 다른 기초적인 소련군 교리 즉, 공격 및 돌파작전, 조우전, 적 추적 및 도하 작전에도 아주 적합하다.

소련의 방공전문가들은 이와같은 각종 형태의 작전을 Cover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리를 완성해 왔다.

일부 미국의 방공 Planner들과 전문 윌서버들은 Nike Hercules, Hawk 및 Chapareal과 같은 미국의 SAM 체계들이 상대적으로 그 기동성이 낮음을 유감스런 일로 생각해왔다.

미·소의 방공체제는 완전히 다른 2개의 교리에 따라 구성되어 왔다는 점을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련군은 NATO지역으로 수백킬로 미터씩 진격해야만 하는 공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도록 무장되었다. 반면에 미군과 구라파군은 서구라파의 NATO의 전체 방공을 지원하면서 작전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소련의 SAM과 같이 유괴 또는 추적차량에 미국의 SAM 부대를 적체할 결실한 요구가 필요치 않다.

전술방공의 전투작전

소련의 모든 전술방공무기 중에서 SA-7 사격팀이 FABLA 선에서 가장 가까이에 전개될 것이다. SA-7은 중대급에서 발견되며, 항상 Section 단위로 전개되고 중대장의 통제를 받는다.

전투지역의 도중에 있는 다른 SA-7팀은 보병부대가 하차할 때까지 BMP 기갑전투차량에

나 다른 기갑차량에 탑승 같이 이동할 것이며, 보병부대가 하차할 때 SA-7의 초수들도 또한 하차하여 항상 보병부대의 바로 후방을 따르고 중대장과의 거리는 20~30m 이내를, 각각의 거리는 15~20m 이내의 간격을 유지할 것이다. SA-7의 최대유효사거리는 약 5~6km이다.

4개차량으로 구성된 ZSU-23-4의 소대는 SA-7 사격팀 후방의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될 것이다. 1개 ZSU-23-4의 Section은 약 400m의 거리를 유지하는 2개 선도자동소총중대의 각 중대를 따른다. 각개 ZSU-23-4는 항상 150~250m 떨어져 위치할 것이며 이는 저고도 목표물에 대한 적절한 사격의 자유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ZSU-23-4는 1쌍으로 작전할 수도 있다. 만약에 자체의 Gun-Dish 레이다와 같이 작전을 할 경우에는 ZSU-23-4의 최대유효사거리는 약 3km이며 광학 추적모드 시에는 최대유효사거리는 2.5km이다.

SA-9 Gaskin 소대는 ZSU-23-4 소대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ZSU-23-4와 같이 치상군 연대에 배속된다. 4개 차량으로 구성된 SA-9 소대의 작전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는 ZSU-23-4의 바로 후방에 전개 될 것이다.

SA-9는 연대의 제1 및 제2제대의 사이에 위치할 것이며, 이는 적지상군부대의 직접화력에 노출되지 않고 양개제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SA-9 발사대차량은 레이다를 장착하지 않는다. SA-9의 조작수들은 ZSU-23-4나 또는

사단의 방공연대로부터 예비목표물에 대한 첩보를 입수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SA-6 Gainful, 20개의 발사대나 또는 SA-8, 20개의 발사대로 무장한 부대로 SA-9 소대 후방에 위치할 것이다. SA-6 및 SA-8 체제의 유효거리에 따라 이들 무기 체제는 점방어(Point Defense) 무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방어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단규모의 모든 부대들은 SA-6/8의 교전유효범위(Engagement Envelopes) 내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같은 SAM들의 유효거리에 따라 이들 SAM들은 FABAS선의 수 킬로미터 훨씬 후방에 전개될 수 있다. 이와같은 위치에서는 SA-6이나 SA-8은 FABAS선 전방의 목표물과 효과적으로 교전할 수 있다. SA-6의 최대유효사거리는 약 30km이며 SA-8의 유효사거리는 약 10~15km이다.

전투시 공중공격기가 작전하게 될 모든 SAM 체제 중에서 SA-4 여단은 FABAS선에서 가장 후방에 위치할 것이다. SA-4 여단은 중, 고고도 화망(Coverage)을 제공하며 사단의 방공자산을 증가하여 준다.

최초 제대군을 위해서는 SA-4의 화망은 FABAS선 넘어 약 45km까지 확대 할 수 있으며, 인접군과 같이 배치되어 있는 SA-4부대의 화망과 Overlap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SA-4의 최대유효사거리는 70km 이상이다.

소련방공의 취약점

바르샤바조약군은 전술 SAM/AA체제 작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을 소련의 저

서에는 암시되어 있다. 이와같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은 일반적으로 교리 및 교리상의 실행, 장비, 통신 그리고 통제상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문제들이다.

미 방위정보기구에 따르면, 이와같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소련의 교리에 알맞게 정통하고 그 교리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각개 지휘관들의 실패의 결과인 것 같이 보인다.

하나의 주요한 문제는 소련방공체제를 방해할 수 있는 잠재력에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소오스, 즉,

(1) 전투를 제압하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에서 오는 전반적인 노력.

(2) 기동부대가 성취한 보조(Tempo)와 똑같은 보조로 방공자산을 투입하는데 실패한 소련의 지휘관들

(3) 방공사령부 및 통제지원시설에 대한 반복된 공격

(4) 지연된 신속한 이동공격작전 중 탄약과 예비품으로 방공부대를 지원하는데 존재하는 본래 고유의 곤란성 등에서 야기될 수도 있다.

1980년 후반에 있었던 이탄-이락전 중, 이락은 적어도 서류상으로 SA-6, SA-7, SA-9 및 ZSU-23-4는 물론 SA-2, SA-3의 막강한 전술방공체제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탄의 전투기들은 항상 이락의 영공상에서 무사히 작전을 하였으며, 이는 이락방공의 지속성이 일부 붕괴되었다는 징후이다.

영공관리문제는 소련의 방공지휘관들에게는 영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많은 전투상황하에서 방공지휘관들의 주요과제는 전반적으로 똑같은 전장지역에서 SAM/AA 부대와 아군전

투기간의 작전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하는 것이다.

소련교리문헌을 검토한 결과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해결책에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소오스에 의하면, 이 문제를 취급하기 위하여 소련은 방어하려는 영공에 대하여 지리적, 고도적, 시간적 분배 혼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타 여러 가지의 취약점도 각기 무기에 대한 조사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예로서 IR Homing SAM에 대한 소련의 지나친 의존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같은 SAM의 성능은 다소의 기상조건에서도 감소될 수 있다. 더우기 소련은 도하작전의 방공을 위해서는 ZSU-23-4에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ZSU-23-4가 수륙양용능력이 결핍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타 소련의 AA 및 SAM들은 또한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방공무기들은 1960년대에 생산된 무기들이며, 이에 상응하는 낮은 기술 수준을 갖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소련의 전술방공체제의 주요한 취약점은 미국/NATO의 Stand off 무

기에 대한 취약성이다. 미래를 관망해 보건대 소련의 전술가들은 순항미사일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 무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결 론

1960년대 후반 중 기동성이 있는 SAM과 대공포의 소개는 NATO/바르샤바조약군의 현대화 계획에 대한 행동-반응의 일련의 사진에 대한 주요한 예이다.

소련 교리전문가들은 NATO 항공세력의 효과를 오래동안 인식하여 왔으며 바르샤바조약군에 대한 주요 장애물로서 이들 부대를 간주하여 왔다.

따라서 소련은 완전한 계열의 기동성이 있는 SAM/AA 무기에 대한 필요성을 개발하였다. 이들 무기로 NATO의 항공세력의 효과를 약화시켜 서방의 공중우세를 상쇄시키도록 의도하였다.

따라서 소련의 전술방공은 알맞게 전개된다면 소련의 전신지휘관들이 전반적인 공격으로 맹렬히 공격케 할 수도 있는 능력있는 세력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

×

TORNADO F-2機

— 朴 鍾 彦 譯 —

1. 開發經過

○ Tornado ADV의 誕生배경

1980年 9월에 열린 "Farnborough" 에어쇼에서 가장 人氣를 모은 것은 Panavia Tornado ADV (Air Defence Version)였다. 大量生産에 들어가기 전에 제작한 3機中 1號機가 79年 10月 27일에 처녀비행(2號機는 80年 7月 13일에 시험비행)한 最新銳機로서는 처음 公開됐기 때문에 人氣를 모은 것도 당연했다.

처음 등장했다는 점에서는 美國의 F-18 호넷機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Tornado ADV는 攻撃型 IDS (Interdictor Strike)가, F-18은 Northrop YF-17이 原型機라는 점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만큼 신선키가 줄어드는 느낌도 있지만, 실제로 이들 機體가 어디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는 것은 확실히 흥미있는 일이다.

美國의 F-18과는 달리 토네도ADV는 英國의 榮光을 짊어져야 할 기대가 담겨 있다. 즉 오래만에 英國人의 손으로 제작된 英國型 항공기로서 國際協同開發型인 IDS와는 달리 이 防空

型 ADV는 英國空軍의 요구에 맞게 開發되어 特別한 裝備를 갖추고 있어 本來의 英國機라고 불러도 좋은 것이다.

同時에 그것은 英國防衛의 장래가 전적으로 이 航空機에 달려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미 Vulcan 및 Buccaneer 攻撃部隊는 Tornado IDS로 交替할 것이 결정돼서 지금 그 계획이 進行中에 있고 다음에는 Lightning 및 팬텀防空部隊를 Tornado ADV F-2로 機種을 바꿀 豫定으로 있다.

英國의 防空部隊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독특한 「뉴앙스」를 지닌다. NATO 共同防衛體制에 의해 西獨에 파견돼 있는 Buccaneer, Jaguar, 제리어戰術攻撃部隊(이것이 Tornado IDS로 交替)는 물론 重要한 第一線部隊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英國防衛의 一環으로 존재하는 점을 否定할 수 없지만 무엇보다 英國本土를 지키는 것은 防空部隊며 따라서 여기에 國民의 生命을 맡긴다는 것이 제 2차世界大戰 이후 確立된 英國의 基本戰略이다.

英國人이 防空用 航空機에 거는 기대는 現地에서 정직한 내면의 이야기들 들어보지 않으면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Tornado ADV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 英國人이 지닌

感情과 그 절대결명의 立場을 전제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英國에서는 1964年 勞動黨이 집권한 이래 독자적인 軍用機개발이 없었다. 財政的인 이유도 있었지만 「헤리어」機를 제외하고는 전부 國際協同開發에 의존해 왔고 그 점은 保守黨이 집권한 현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不安感이 도사리고 있었으므로 거기서 取한 妥協策이 協同開發中에도 必要한 主張을 최대한 살려 英國防衛用을 주로 하는 하나의 特別型을 만드는 것이었고 그리하여 나온 것이 ADV였다.

英國에도 차기 航空機開發계획은 있다. 지금 西獨, 프랑스 사이에 檢討되고 있는 미래 유럽戰術機가 ECA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3國각자의 사정으로 不確定한 要素가 많고 비록 合議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實現되는 것은 1990年代에 들어가서 부터다. 그리고 英國이 ECA계획에서 要求하고 있는 것은 Jaguar機를 교체할 戰術攻擊機 뿐이다.

그러므로 1980年代부터 90年代에 걸쳐 英國本土의 防空은 Tornado ADV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달리 選擇의 길이 없는 段階에 이르러 어떻게 해서든 그 實用化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 新防空戰術機에 對한 要求

Tornado 開發計劃이 英國, 西獨, 이탈리아, 네덜란드 4國共同下에 MRCA(Multi Role Combat Aircraft)이름으로 始作된 1968年 7월에 英國側의 生覺에는 이미 防空型이 포함돼 있었다. 이 시기에 單座型과 複座型의 論爭이

있어서 一時는 單座의 Panavia 100, 複座의 Panavia 200을 並行해서 開發하기로 妥協했고, 그 뒤에 開發費의 高騰 등으로 複座型으로 一元化 됐지만 이 사이에도 英國은 기본선으로 始終 複座型만을 추진해 왔다. 그 하나의 理由는 全天候요격기에는 複座型이 適合하다는 점이었다. 그 계획은 화란이 탈퇴하여 3국 공동개발로 변했고 財政事情 등으로 서독이 계획을 축소한 1973年에도 變함이 없었다. 英國은 始終 165機의 防空用 開發을 계획하고 있었다.

다만 實際 航空機開發은 당초부터 攻擊型 IDS(Interdictor Strike)만으로 범위를 좁혀 추진되어 왔다. 英國(BAe)社에서 4機, 西獨에서 3臺, 이탈리아에서 2臺 組立된 原型機는 전부 IDS였다. 이 사이 토네도 防空型을 開發해야 할지 美國으로부터 F-15 같은 航空機를 구입해야 할지에 대한 論爭이 있었다. 다만 논쟁이 계속되는 사이에도 基本線은 역시 토네도 ADV 開發이었다. 만일 이것이 中止되어 165機의 所要를 잃게 되면 3國共同의 MRCA計劃이 根柢로부터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 防空型의 本格的인 Full Scale 開發이 始作된 것은 1976年 3月부터였다. ASR 395라 불리는 空軍의 要求를 바탕으로 80年代 中期에 Lightning 및 팬텀戰術機와 交替할 계획 속에 長距離, 多用途요격戰術機로 出發했다.

英國空軍의 遊擊機에서 하나의 物徵이 되는 것은 담당해야 할 地理的 範圍가 대단히 넓은 점이다. 北으로는 아이슬랜드로부터 南으로는 英國海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담당한다. 海上「루트」 및 航空「루트」

에서 占하고 있는 英國의 위치는 北美와 유럽을 잇는 東西間의 輸送路로서 樞要 結集點에 해당된다. 英國 자신과 서유럽 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의 경계에 대해서도 이 Sea Line은 重要한 것이다.

따라서 遊擊機는 긴 航續距離와 戰鬪空中哨戒 任務上 이 海域의 船舶을 防護할 能力을 必要로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첫째 對象으로는 中型爆擊機와 長距離偵察機가 想定된다. 이 먼 바다에서는 敵의 엄호戰鬪機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空中戰鬪能力은 크게 必要치 않다. 基本的으로는 爆擊機에 對處할 수 있는 航空機면 족하다.

다만 英國本土防衛에 덧붙여 英國은 「본」協定에 따라 西獨에 航空機를 주둔시켜 平時에는 空中에서 警戒행동, 戰時에는 防空을 담당한다는 約束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전혀 성격이 달라져 그 距離面에서도 제일 먼저 制空戰鬪機로서 航續力보다도 對戰鬪機 戰鬪能力이 必要하다. 그러나 西獨에 주둔하고 있는 部隊는 英國 空軍戰鬪機中 約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85%는 앞에서 말한 防空用에 해당된다. 따라서 ASR 395도 이 85%를 주로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 要求라는 것은 다음 5가지로 要約된다.

① 防衛力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적의 大量攻擊에 對處하여 遊擊機는 될 수 있는 한 多數의 空對空미사일을 갖추고 화기관制장치도 迅速한 複數目標處理能力을 가질 것.

② 敵의 低空, 高速 및 中高度, 超音速侵入 기습攻擊에 對處하기 위해 遊擊機는 最新型의 航空遊擊(AI)레이더와 미사일을 갖추고 Snap

Up, Snap Down의 能力을 가질 것.

③ 敵의 攻擊이 高度의 ECM에 의해 援護될 것을 豫測하여 遊擊機의 Weapon System은 높은 제밍能力을 갖고, 敵의 제밍으로 妨害를 받을 수 있는 地上의 早期警戒, 管制시스템으로부터 最小의 支援으로도 戰鬪行動이 可能할 것.

④ 넓은 範圍에 걸쳐 任務을 수행할 수 있을 것. 특히 海洋任務는 英國空軍의 Commitment의 일부이기 때문에 良好한 航速力과 戰鬪哨戒能力을 가질 것.

⑤ 被害를 받은 비행장을 사용하더라도 戰鬪行動이 가능하도록 良好한 短距離 離着陸能力을 갖고 있을 것.

이상의 要求에 따라 토네오ADV(Air Defense Version)가 결정됐지만 그 결정까지에는 단 航空機의 채택여부에 대해서도 比較 檢討 되었다. 그 對象에 든 것은 프랑스의 ACF(Avion de Combat Futur), 美國의 구라만 F-14, 맥도날드 더글라스 F-15, 제너럴 다이 나믹스 F-16의 4機種이었다.

이중 ACF는 途中에서 계획이 취소되었고 뒤에 全天候能力이 약한 「미라지」 2,000으로 바꿨지만 檢討對象이 되지 는 않았다. F-16도 全天候能力을 重視하지 않은 機體로서 Dogfight 機能을 주로 하는 것으로 判斷되었고 空對空武裝 搭載量도 적기 때문에 對象이 되지 않았다. F-14는 遊擊戰鬪能力이 優秀하다는 것은 確實했지만 高價인 것이 難點이었다. 특히 裝備하고 있는 Phoenix 空對空미사일이 Skyflash의 3배나 高價인 것이 裝備對象이 되지 않은 主理由였다.

가장 토네도 ADV와 경쟁이 된 것은 F-15로서 英國空軍에서 一部 飛行評價까지 받았다. F-15는 空力特性和 戰鬪高度 및 空中機動能力에서 Tornado 보다 우수하다. 그 點에서는 有力했지만 英國空軍의 主要 要求인 全天候能力과 對 ECM能力面에서는 토네도보다 낮다고 判定되지 않았다. 惡天候와 高度의 재밍能力에서는 複座機편이 優秀하고 夜間을 포함한 長距離邀擊任務에서도 複座型이 有利하다는 것이 英國空軍의 判斷이었다.

이렇게 해서 토네도ADV의 채택이 正식으로 결정됐고 FSD(Full Scale Development) 3臺가 發注됐다. 그 第1號機는 BAe사「워튼」工場에서 79年 8月 9日에 生産됐고 10月 27日에 시험비행했다. 그리고 이 ADV는 英國空軍에서 Tornado FMK 2라 불리게 됐다.

2. IDS와 ADV의 차이점

○ 外形上的 차이

Tornado ADV는 攻擊型 IDS(英國空軍의 正 식명칭은 Tornado GRMKI)를 基礎로 한 開發型이어서 基本的인 機體의 構成은 같다. 可變 後退式의 主翼, 空氣吸入口, Flight Control 및 油壓, 電氣 等の 각 System도 原則적으로 같은 것을 使用해 80% 以上の 共通性을 갖는다.

이 航空機의 開發·設計가 始作된 것은 아직 他機種과의 比較檢討가 進行中이던 1973年의 일이지만 당시의 基本方針은 英國空軍의 要求에 맞춰 最小限度로 變更시키는 것이었는

데 그 變更은 武裝과 Avionic 및 레이더에 限해 고려되었다. 檢討初期에는 武裝으로 AIM-7 Sparrow 空對空미사일 4發을 생각했지만 그 후에 BAe 사에서 開發한 中距離用미사일 "Skyflash"로 變更됐다. 다만 Skyflash는 Sparrow의 改良型으로서 크기가 같아 어떤 점에서든 1대 1로 바꿀수 있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당초는 AAM을 主翼下面에 4發 搭載할 생각이었지만 抵抗增加가 크기 때문에 동체 下面에 半埋入式으로 搭載하는 것으로 變更됐다. 여기에 搭載하기 위해서는 前脚과 脚室門과의 關係 때문에 동체를 조금 延長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Cockpit 바로 뒤가 21¼인치 延長되었고 여기에 餘積이 可能해 燃料搭載量을 增加시키는데 使用된다. 더구나 AAM은 左右가 다르게 搭載되지만 이것은 翼幅과 主脚室과의 關係에서 Skyflash의 적당한 組合을 選擇한 것이다.

新型 AI레이더 搭載를 위해 風防 바로앞 동체 앞부분이 7½인치(19cm) 延長되었고 다시 Radom도 IDS에 비해 25인치(63cm) 延長되었다. 이 때문에 토네도 ADV의 全長은 IDS에 비해 4.4ft 긴 59ft 3인치(18.06m)로 됐다. 주로 동체 앞부분에서 延長되었으므로 IDS에 비해 機首가 길게 變換 形이 됐지만 航空力學的 面에서는 整形 된 셈이어서 速度性能과 加速性能이 대단히 向上됐다.

동체延長에 따라 동체 내의 前部燃料탱크가 大形化되어 約 900l의 容量이 增加됐다. 또 날개부분에도 容量 533l의 wing 燃料탱크가 붙어 토네도ADV의 機內 燃料容量은 左右主翼 內의 Integral 탱크를 합쳐 約 7,300l가 된다.

더구나 이 wing 燃料탱크는 英國空軍用 토네도GRI에도 裝備할 수가 있지만 西獨의 空·海軍用 IDS에는 裝備돼 있지 않다.

이밖에 機體外形에서 變換 점은 主翼固定翼 끝의 前緣後退角이 60°로부터 68°로 變更됐고 面積을 增加시킨 것과 水平安定板 前緣이 2重後退角 때문에 변해서 이것도 약간의 增積과 空力特性이 改善됐다. 主翼끝은 모양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이 部分에 있던 Kruger Flap도 제거되었다. 이러한 前緣의 延長은 面積의 增加와 함께 동체 앞부분의 延長에 따른 位置重心의 變化에 對해 揚力中心을 숨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武裝으로서는 機首側下面에 Mauser 27mm 機關砲가 右側에 1門(彈數 125發)만 裝備되고 左側에는 引入式의 空中給油用 受油 probe이 붙어 있다. 이밖에 主翼下面內側 pylon에는 안쪽에 AIM-9L Sidewinder 空對空미사일用 發射 Rail이 있어 左右各 1發의 短距離 Sidewinder 미사일의 搭載를 可能하게 한다.

토네도ADV에 있어 主翼內側下面 pylon은 1,500l 들어가는 補助燃料Tank 專用이지만 미사일 부착은 美國의 F-15처럼 pylon 사용과는 관계없이 可能하기 때문에 토네도 ADV는 補助Tank를 裝備한 狀態에서 Skyflash 4發과 Sidewinder 2發, 計 6發의 AAM裝備가 可能하다.

그리고 IDS에는 外側 Pylon을 使用하여 ECM器材 등을 싣고 다니지만 ADV에는 外側 Pylon을 使用하지 않을 豫定이다. 다만 主翼構造에는 전혀 差異가 없기 때문에 外側 Hard Point는 그대로 남아있어 장래에 다시 外部裝

備가 必要한 경우에 대비한 Provision으로 취급된다.

○ 레이더—FCS의 차이

Tornado ADV가 지금까지의 IDS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AI(Airborne Interception)레이더와 火力管制裝置에 있다. 이 레이더는 Marconi Elliott社에서 Hawk Finder의 이름으로 1974년부터 開發·試驗을 계속해온 것으로 最新마이크로波 技術과 디지털方式에 의한 레이더신호 및 資料處理를 使用해서 小型으로 큰 性能을 발휘하는 우수한 性能을 지니고 있다.

基本的으로는 I/J Band를 使用한 高 PRF(Pulse Repeat Frequency)의 Pulse Doppler Radar이지만 FMICW(Frequency Modulated Intermittent Continuous Wave)라 불리는 方式을 使用해서 目標追跡中 scan(走査)을 可能케 해서 多數目標의 同時處理가 可能한 特徵을 갖고 있다. 處理目標數는 公表되어 있지 않지만 12~20個目標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主目的은 空對空의 探索과 發見, 目標의 追跡과 照準으로 소련製 Backfire/Fencer級의 中型航空機目標에 對한 探知距離는 100NM 이상인 된다. 이것은 ADV가 裝備하고 있는 Skyflash AAM 射距離의 4배에 해당되어 미사일에 의한 攻擊을 위해선 充分한 距離라고 할 수 있다. 後方席의 航法士에 의해 選擇된 目標은 自動적으로 호명되고 그 軌道變化는 계속적으로 수정되면서 武器 System에 情報를 提供한다.

레이더안테나는 Elliott社가 開發한 Twist-Reflecting Cassegrain이라 불리는 고성능 Side

Lobe의 작은 新型으로 Ground Clutter 및 Sea Clutter의 抑制力이 커서 敵의 ECM에 의한 방해에도 강한 특성이 있다. 이 레이더에 의해서 Look-down 能力을 充分히 保證받고 同時에 Skyflash AAM에 對한 호밍誘導能力도 얻고 있다. Scan의 油壓 Drive와 高速 Servo에 의해 充分한 目標處理能力이 있음과 同時에 機體의 高 g 機動에도 安定된 目標保持를 可能하게 한다.

副次的으로는 空對地 距離測定 및 Ground Mapping 能力도 갖고 있어 狀況에 따라 多機能의 Mode를 갖고 있다. 英國空軍의 토네도 ADV는 遠距離 海上에서 船舶을 보호할 任務가 必須條件이어서 海上에서의 充分한 識別力도 갖고 있다. 또 Radar System 전반에 걸쳐 넓은 對電子방해(ECCM)能力도 갖고 있어 兇중한 ECM 環境下에서도 機能을 발휘할 수 있는 特性이 있다.

이 ECCM 能力은 地上의 警戒·管制組織과의 사이를 연결하는 Datering에도 미치고 있다. ADV와 地上과의 相互 充分한 情報交換이 이루어짐과 함께 空中에 있는 警戒管制機와도 연결해서 合同戰鬪를 可能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ADV 各機의 獨立運用도 充分히 保證하는 것이다.

레이더와는 별도로 Tornado ADV에는 視覺 認識 增強 System도 裝備되어 있다. 이것은 原理的으로는 低光量 Television 裝置로서 高性能의 Telephoto lens가 Head Up Display (HUD) 앞 綠板에 붙어 있다. 이 裝置에 의한 映像은 操縱士席의 電子式 Head Down Display 와 航法士席의 TV型 Display 양쪽에 表示되

어 中射程 AAM의 發射에 즈음해서 適正한 範圍에 있는 目標에 對해 目視에 의한 識別을 可能하게 한다.

ADV의 火力管制·電子 System中에는 Ground Mapping Radar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Hawk Finder 레이더 機能 속에 基本的으로 統合되어 있기 때문에 邀擊을 위한 連絡 情報 등은 後方席 航法士에 의해 把握되어 같은 데이터가 前方席의 電子式 Head Down Display에 表示된다. 그밖에 必要한 각 Data에 따라서도 같은 모양으로 表示되 操縱士는 飛行·操縱의 操作과 武裝選擇, 目標照準과 武器發射에 專念하는 것이 可能하다.

또 하나 ADV의 電子 System 中에 重要한 것은 Radar 警戒裝置로서 垂直安定板 上端과 兩主翼端에 警戒裝置의 안테나가 붙어 있는데 이 裝置는 補助 Sensor(電子感知器)로서 電子 System 속에 統合되어 適切한 指示를 乘務員에게 줌과 동시에 受動的 探知裝置로서의 能力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다.

Display System도 最新型으로 前方席의 電子式 Head Down Display와 後方席의 TV型 Display 외에 操縱士用의 視界를 擴大한 Head Up Display (HUD)가 裝備되어 있어서 必要한 飛行情報과 中射程 AAM의 照準·發射情報 그리고 기관포射擊에 必要한 照準情報의 전부를 表示하고 있다.

☆ Tornado ADV의 주요 Data

全幅: (後退角 25°)	13.68m
(後退角 68°)	8.59m
全長:	18.06m

全高; 5.73m
 Engine: RB 199-34R-04 Turbo Fan
 Engine×2
 正規推力; 4,080kg+
 最大推力; 7,260kg+
 最大速度; Mach 2.2/11,000m
 Mach 1.1/150m
 實用上昇限度; 15,240m
 機内燃料積載容量; 7,300l (5,69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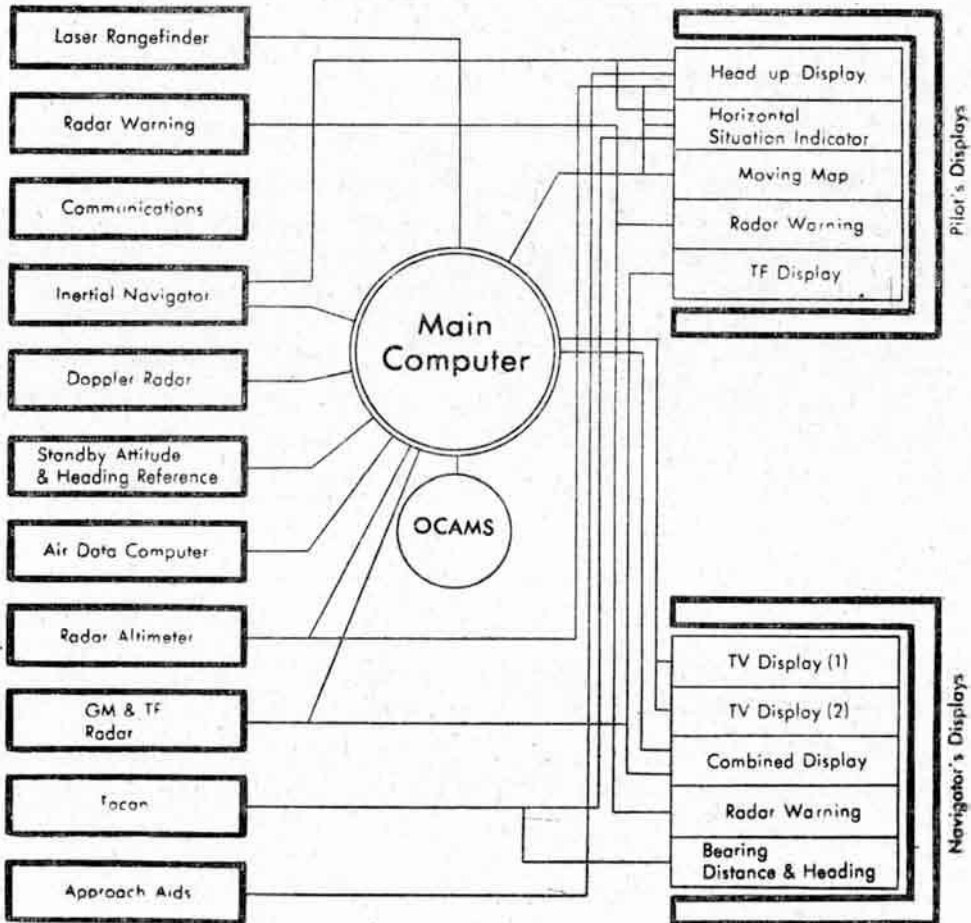
補助燃料 Tank; 1,500l×2 (1,170kg×2)
 翼面積(展開時); 30.0m²
 運用自重; 14,090kg
 總重量(最大); 27,270kg

3. System과 性能

○ 電子航法 System

Tornado ADV의 航法 System은 慣性航法裝
 置와 Main Computer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

Avionic System



다. Secondary 姿勢指示와 Compass System, 그것으로부터 Air Data Computer까지의 Data (Main Computer를 經由하여 부여된다)에 의해 慣性 Platform의 補正이 이루어진다.

慣性航法裝置自體도 만일 Main Computer에 의한 自動航法計算機能을 얻게될 수 없을 때 Way Point로부터 Way Point까지의 計算機能을 自藏하고 있다. 전체航法情報는 航法士席의 TV型 表示器에 표시되며 그 Key Board를 쓸 때 航法圖形 Format에도, 針路 및 所要時間 Data에도 表示할 수가 있다.

航法の 諸元은, 目的地 및 Way Point 등을, Key Board를 써서 投入한 手動操作에서도, 미리 記錄된 磁氣테이프·카세트를 써서도 Input 할 수 있다. ADV의 경우에는 事前에 計劃된 空中哨戒 버튼(Button)에 의해서 정확히 一定한 飛行樣式을 얻는 일이 많기 때문에 Input 方式은 대단히 便利한 것이다.

물론 IDS와 마찬가지로 Radar의 對地 Mapping에 의한 航法 및 ADF와 TACAN에 의한 方位, 距離情報를 써서 航法 Data補正도 可能하기 때문에 慣性航法裝置의 높은 精밀도를 보다 強化시키는 것이 된다.

航法士席의 Radar 表示器와 TV型表示器를 使用하여 實際로 실시되는, 보다 重要的 操作은 哨戒中の 目標探索과 目標評價다. 보통 目標探索은 FMICW Mode를 使用한다. 이 때 TV型表示器는 가로가 方位 Scale, 세로가 Velocity Scale이 되며 Radar 反射에 의한 目標는 表示器 위에 記號表示된다. 이 目標에 Hand Controller로 움직이는 Mark를 포개는 것으로 目標의 Positioning이 실시되고 그 뒤는 自動

追跡을 계속함과 함께 目標 Drogue, 自機 Drogue, 方位와 距離, 高度 등이 계속적으로 表示된다.

最終적으로는 航法士 또는 操縱士에 의해서 戰術評價表示의 選擇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捕捉돼 있는 모든 目標와 空中에 있는 다른 ADV의 位置 및 그 追跡하고 있는 目標를 表示하는 것으로 이 情報는 Dataling에 의해 入手된다. 그것은 地上의 警戒管制 Radar로부터도 空中의 警戒管制機로부터도 Dataling을 통해서 보내져 ADV의 搭승원에게 戰術狀況의 全體像을 보여주어서 戰術的 對應을 계획하는 것이 可能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航法士는 自機가 對應해야 할 目標를 確實히 捕捉해서 搭載하고 있는 Skyflash 中射距離 AAM 전부를 最大限 有效하게 쓸 수 있도록 複數目標에 對한 最適攻擊計劃을 세운다. 이것은 Main Computer를 쓸 때 瞬間에 解答을 얻도록 되어 있다. 이 複數目標處理 攻擊 System은 지금까지의 運用研究結果 총래의 單座機에 의한 單一目標追跡 레이다 System 보다도 1회 出擊當 邀擊擊墜效果가 1.5~2배나 높은 것으로 判定됐다.

空對空의 攻擊目標가 決定되면 그것은 操縱士席 HUD 위에도 表示된다. HUD Format는 그때까지의 飛行航法表示로부터 中射距離 미사일攻擊表示로 變해서 飛行 諸元外에 AAM의 前方 Scan 限界를 포함한 許容操向誤差(Allowable Steering Error; ASE)의 Circle과 目標位置를 나타내는 작은 원, 거기에 目標가 AAM으로 邀擊되는 位置를 나타내는 Dot가 表示된다; 이 Dot가 ASE Circle 속에 들어가

면 遊擊은 가능하며 그 뒤는 射程距離만의 問題다.

目標距離는 縱型 Scale에 表示되는데 단지 1g 目標에 對한 것만은 아니고 레이더가 Look on된 뒤는 目標의 機動 g를 計測하는 能力이 있어 Main Computer는 AAM 攻擊의 成功圈과 目標位置와를 繼續的으로 比較해서 攻擊指示를 내리는 能力을 갖는다. 發射機會가 오면 音響信號가 操縱士에게 주어져 HUD위 目標 Dot가 點滅하기 때문에 操縱士는 完全한 目標捕捉과 最適, 最大距離에서의 미사일發射가 可能하다.

攻擊 Format의 修正은 武裝選擇과 連動하여 항상 自動的으로 실시된다. 近接戰鬪기동을 위해서 操縱士는 Throttle Lever 위의 Override Switch를 쓴다. 이 스위치를 1회 누르면 近接戰鬪에서의 中射距離미사일 攻擊 Format로, 다시 누르면 Sidewinder 攻擊으로 變하고, 3회째에는 기관포射擊으로, 그리고 다시 中射距離미사일로 돌아온다.

HUD 表示 외에 攻擊 Format는 操縱士席의 Electric Head Down Display(EHDD)에도 表示되기 때문에 全天候狀態에서의 攻擊에는 이것을 쓸 수 있다. 여기에는 HUD에서는 不可能한 計劃情報가 表示되며 航法士席에도 같은 表示를 나타내 補助하는 일이 可能하다.

○ Engine

Tornado ADV는 機體構造와 基本的인 各 System, 엔진 등을 포함해서 原則的으로는 IDS와 마찬가지로다.

엔진은 2基의 Turbo union RB 199-34 R

Turbo fan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3軸方式의 After Burner가 붙은 強力엔진으로 低空飛行時 Dry 推力에서의 燃料消費가 적어 高空에서의 巡航과 마찬가지로 큰 航續能力을 얻고 Reheat System 使用時 最大推力이 커져서 短距離離陸을 可能케 한다. 그리고 戰鬪機用으로는 진기한 Thrust Reverser(역추진 장치)를 裝備해서 短距離着陸을 可能하게 하는 등의 特徵이 있다.

RB 199는 3軸構造로 되어 있기 때문에 可變式 Blade를 쓰지 않고서도 最適回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構造가 오히려 單純化되어 있다. 總壓縮比는 23을 넘고 Turbine 入口 溫度는 1,600°K(1,327°C), Reheat 溫度는 1,900°K(1,627°C) 以上으로 最大의 After Burner 效率과 最小의 Jet Pipe 길이를 얻기 위해 Dual Reheat System을 使用하고 있다.

이것에 의해 9,000 lb(40KN) 以上の Dry 推力과 16,000 lb(71KN) 以上の Reheat 推力을 얻어 推力 Weight 比가 8을 넘는 小型·輕量의 엔진을 만들어 냈다. 이 엔진의 Size와 重量은 토네도機體全體의 Size를 縮小하는데 重要な 役割을 하고 있다. 더구나 現在의 ADU 原型機에 裝備되어 있는 엔진은 IDS用과 한 가지인 Mk 101의 發達型이지만 量產機用에는 더욱 推力이 向上된 Mk 102가 提案되고 있다.

RB 199 3段 Fan은 Blade가 全熔接構造의 Disc Assembly로 保持되어 있고, Stator Ring(固定環)도 제각기 全熔接構造로 되어 있다. 普通 쓰여지고 있는 個個 Blade를 따로 따로 Casing에 붙이는 構造에 비해 이 方法은 輕量이지만 振動源이 될 可能性을 減少시킨다.

Blade에 損傷이 發生할 때는 切斷과 熔接에 의해 交換된다. Fan은 2段의 低壓 Turbine으로 驅動되고, 空氣流入量은 約 70kg/sec, Bypass 比는 1 : 1 以上이다.

3段 中壓 Compressor의 Rotor Drum도 또한 熔接構造로서 空冷段 1段 Turbine으로 驅動된다. 3軸設計(Three Shaft Design) 덕분에 可變 Stator가 必要없게 됐고 空氣流量은 Compressor의 Blow-On만으로 Trimming되어 있다. 高壓 Compressor의 驅動도 空冷段의 高壓 Turbine에 의한 6段 軸流壓縮器가 쓰이고 있다. 高壓段(H. P)Shaft는 그 後部에 있는 Shaft 內 Bearing을 通해 低壓段(I. P)Shaft로 支持되고 있다. 이 方法은 Rolls-Royce社의 Pegasus Engine으로 使用되고 있는 것과 同一한 것이다.

Reheat System은 Turbine으로부터의 高溫 噴流(Hot Efflux)를 위한 通常形式의 Gutter Flame Stabilizer와 Bypass流를 위한 別系統의 "Colander" Burner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他 Engine의 Plenum Chamber 燃燒의 經驗에서 나온 것이다. 內部斷熱材는 最大 After Burner 使用時 融點에 가까운 溫度로부터 Jet Pipe를 保護하고 있다.

部分 After Burning 設定時에 最良의 效率를 주기 위해 Nozzle은 完全可變式으로 되어 있다. 轉換 Shroud에 의해 조정된 3重合 Pedal로 구성되었으며 대단히 가볍고 빨리 作動하는 Nozzle이 있다.

엔진補機(Accessories)는 整備를 쉽게하기 위해 전부 下部에 모여 있다. 엔진 Gearbox는 엔진과 Reheat "Combustor"에 燃料를 供給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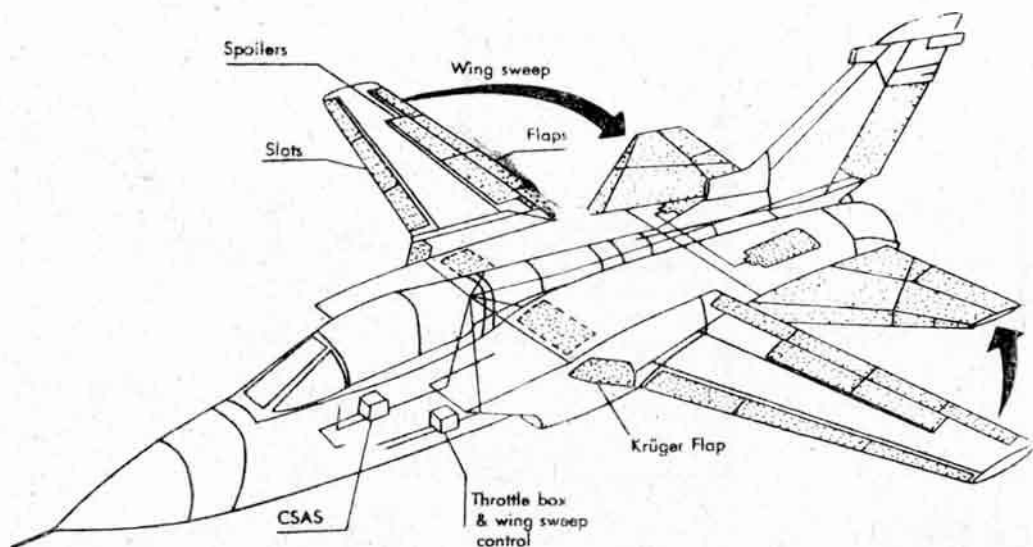
는 燃料 Pump를 驅動하고, 엔진은 航空機 · 補機 Gearbox를 驅動한다. 補助動力 System은 2臺의 엔진回轉速度가 크게 차이가 있을 때 自動적으로 連結된 連結軸에 結合되는데 2個의 엔진驅動 Gearbox로 構成돼 있다. 各 Gearbox에는 油壓 Pump(Hydraulic Pump), 定速 Drive 交流發電機, 潤滑油 Pump가 붙어 있다. 또한 右舷 Gearbox에는 엔진始動 및 機體 System을 稼動시키기 위한 補助動力 Unit가 달려 있다.

補助動力 System은 Tornado를 完全히 地上 支援裝備 없이도 運用하는 것을 可能하게 하는 것이다. 補助動力 Unit에 의해 엔진을 始動하는 것은 물론 整備員이 必要로 하는 各 System의 點檢과 Avionic 點檢을 위한 動力을 供給하여 Tornado가 分散된 飛行場에서도 充分한 運用이 可能하도록 配慮돼 있다.

○ 操縱系統(Flight Control System)

Tornado ADV 操縱 System은 完全한 Fly-By-Wire(FBW) 방식이 쓰이고 있다. 이것은 在來의 機械 · 油壓 System에 비해 ① 高 · 低 g狀態에서도 操縱士의 入力에 對해 良好한 安定성과 動追從性を 確保한다. ② 低高度의 激한 亂流에 對해서도 良好한 對突風特性과 Ride Characteristics가 개선된다. ③ 機體가 보다 安定된 武裝運搬 Platform이 된다. ④ 自動操縱裝置와 Terrain Following Commander가 보다 簡單한 System으로 統合된다. ⑤ 失速(Stall), Spin 및 Buffet 特性이 改善된다. ⑥ Configuration 變更을 위한 自動補償이 쉽고

Flying Controls



간단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採用된 것이다.

實際 航空機의 움직임은 항상 操縱士가 要求하는 움직임과 比較되며, 만일 이상이 있으면 安定增強制御 System (CSAS)의 컴퓨터가 機力制御裝置에 制御信號를 보낸다. 이렇게 해서 만일 機體가 突風に 의해 動搖되더라도 System은 自動적으로 修正할 수 있는 能力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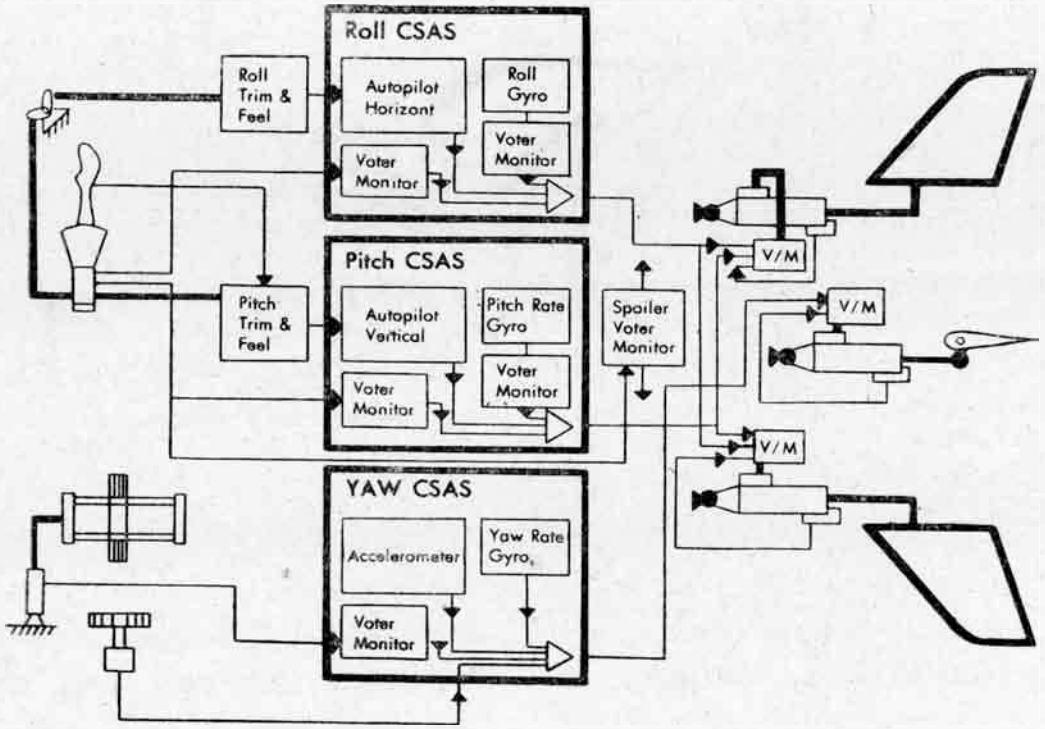
CSAS(Command Stability Augmentation System) 컴퓨터는 Air Data 컴퓨터로부터 速度·高度信號와 後退角制御 Unit, Air Brake, Spoiler들로부터 Input(信號)를 받는다. 이들은 航空機의 飛行領域內에서 항상 最適의 Control 應答이 얻어지도록 여러 가지 Gain Scheduler 속에 使用된다. 이 特性은 Hard Ware 回路 Board를 바꿈으로써 變更이 可能하게

되어 있다.

主運用 Mode에서 Fly-By-Wire의 縱安定과 橫安定 컴퓨터는, 全飛行領域을 通해서 航空機에 最適의 應答을 부여하도록 操作을 Control 한다. 또 이 System은 飛行經路를 어지럽히는 突風に 對한 補正을 實施해서 目標照準과 武裝發射時 安定을 더하고 그밖에 外部搭載裝備이하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操作性을 부여하는 機能도 갖고 있다.

基本 Control은 方向舵와 2枚의 큰 水平安定板, 그리고 兩主翼上의 各 2枚式의 Spoiler에 의해 실시된다. Lateral Control은 主로 方向舵에 의하지만 Pitch Control은 Taileron의 同時作動으로, Roll Control은 Taileron 각각의 動作으로 실시된다. 主翼의 後退角이 작을 때에는 Spoiler의 非對稱動作이 Roll Control을 補助한다.

Command and Stability Augmentation System(CSAS)



2次 Flight Control은, 主翼後退, Flap, Slat Spoiler와 동체後部上面의 Air Brake들을 作動시킨다. IDS에는 主翼 Glove 下面에 Kruger Flap이 붙어있지만 ADV에는 除去돼 있다.

主翼의 後退角變更는 操縱席의 Lever에 의해 制御되며 後退角 25°의 最前進位置로부터 68°의 最後進位置까지 連動的으로 變化된다. 兩翼은 各油壓 Motor와 別個의 油壓 System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Re-Circulating Ball Screw Actuator에 의해 後退된다. Actuator는 同期軸(Synchronising Shaft)에 의해 連結되며 한쪽 System 油壓系가 故障난 경우에는 回

轉을 다른 쪽으로 傳할 수 있다. Actuator의 左右作動이 5mm 以上の 不均衡(約 0.5°의 後退角 非對稱에 해당한다)을 이룰 경우 System은 固定된다. 이 경우 着陸距離가 다소 늘어나지만 날개가 完全後退位置에 固定돼 있어도 着陸과 復行(Recovery)操作에는 問題가 없다는 것이 實證되었다.

Double-Slotted Fowler Flap과 Slat는 한개 Lever로 制御되고 上, 中間, 下 3段設定이 可能하나. 이들은 飛行, 離陸, 着陸을 위한 Flap 및 Slatdeflection을 나타낸다. 機動戰鬪狀態에서 使用은 Throttle Lever 右側에 있는 Switch

로 制御된다. 矛盾된 展開를 避하기 위해 高揚力裝置와 後退角 Control System間에는 油壓-機械式 連結이 되어 있다.

Flap와 Slat 作動도 油壓方式으로 Gear에서 連結된 2組의 油壓 Motor로 Control 된다. 한 쪽 System의 油壓系가 故障을 일으킨 경우에는 다른 쪽의 Motor만으로 兩翼作動이 可能하다. Flap Drive는 Flap 作動不良의 경우에 System을 保護하는 2方向性 Noback 裝置를 結合시키면서 8個의 Screw Jack을 통해 4個의 Flap을 작동시킨다. Slat도 비슷한 展開를 하지만 片翼당 4個의 Re-Circulating Ball Jack을 쓰고 있다.

Airbrake는 胴體後上部에 있어서 Manoeuvre Flap 및 Slat 位置選擇과 동시에 Switch에 의해 制御된다. Switch는 十字形운동을 하기 때문에 操縱士는 Throttle, 高揚力 Manoeuvre 裝置와 Air brake를 한손으로 操作이 可能하다. Air brake는 50°까지 展開하고 非對稱 (Assymmetric Deployment) 展開를 막기 위해 油壓-機械式으로 連結된 複動式油壓잭 (Double-Acting Hydraulic Jack)에 의해 作動된다.

○ 기타 System

Tornado 油壓 System은 完全히 2重의 高壓 System이다. 2個의 Pump가 Engine Gearbox에 달려있어 Engine 始動을 할 때 油壓 Valve를 統合作用케 한다. Gearbox 사이에는 連結軸이 있어서 한쪽 Engine이 故障난 경우에도 양쪽 Pump가 驅動된다. Pump는 貯油탱크로부터 기름을 빨아올려 Filter와 Pump의 脈動을 막는 緩衝器(이것은 高壓 System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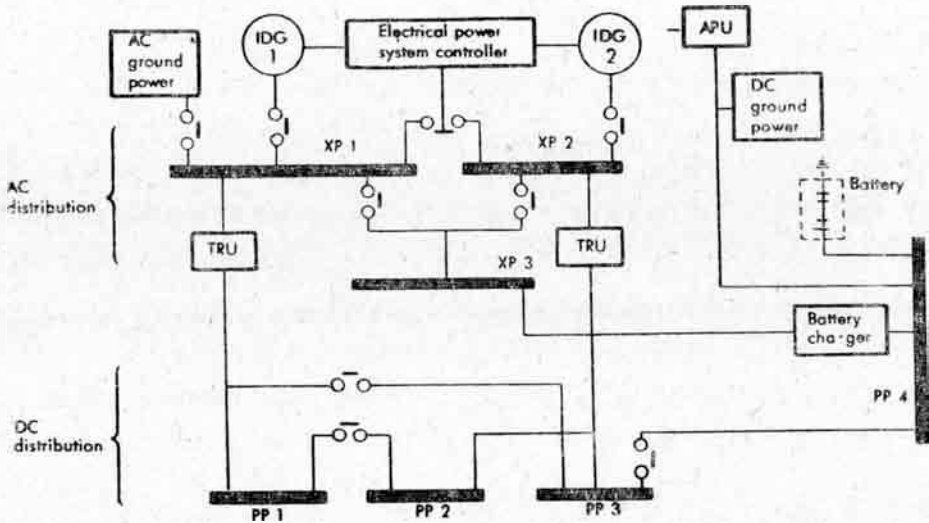
서 특히 重要하다)를 통해 내보낸다. 空氣入口, Taileron, 主翼後退, Flap과 Slat는 모두 이 兩 System에 의해 油壓을 供給받는다. 補機가 損傷을 입을 때는 閉止 Valve가 있어서 Primary Actuator를 優先作動시킨다. System上的 要求가 있는 경우 翼後退 Actuator에 油流量을 減少시키는 壓力調整 Valve도 있다. 이것은 翼後退를 위한 多量의 油量要求가 다른 System의 作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着陸脚은 第2 System의 油壓만으로 作動되지만 故障時에는 20,000kpa (204kg/cm²)의 긴급 Bottle에 의해 다리가 내리진다. Brake와 Canopy用 Accumulator에 充填하기 위해 手動 폼폭도 준비되어 있고, 必要한 경우에는 이것으로부터 Brake에 壓力을 供給하는 것도 가능하다.

電氣 System은 交流 115/220V, 3相400Hz 主 System과 直流 (D.C) 28V 副 System으로 이루어진다. 電力은 2個의 自動制御油冷却 Brushless 發電機가 고장난 경우에 나머지 發電機만으로 全 System에 無制限으로 供給할 수 있다.

發電機는 2個의 主 A.C Busbar와 1個의 交流基本 Busbar에 電力을 供給한다. 直流電源은 2個의 空冷式 (Fan Cooled) 變壓整流器 (Transformer Rectifier Unit)에서 제공된다. 이것들은 電力을 2個의 主直流 Busbar, 1個의 直流基本 Busbar와 Battery Busbar에 供給한다. 하나의 主電氣 System이 故障났을 때는 Battery가 Thyristor Switching 回路 (Circuit)를 써서 瞬間에 接續된다. Battery는 全 電力

Electrical System



이 故障난 경우에 基本電氣負荷(Load)만으로 電力을 供給한다.

空氣(Air) System은 高壓 Compressor로부터 高壓空氣를 抽氣(Tap)한다. 그것은 減壓 Valve와 Ram 空氣를 冷媒(Heat Sink)로 하는 熱交換器를 통해 지나가고 By-pass 回路는 出口溫度를 100°C로 制御한다. 이 空氣下流(Down Stream)는 Wing Seal을 위해 抽氣되고 그 나머지는 定常의인 制御流을 얻기 위해 Venturi를 통과한다. 그리고 空氣는 雨滴除去(Rain Dispersion), 對 g Suit, Canopy 防曇을 위해 抽出된다.

主流는 Bootstrap 冷空氣 Unit, 中間冷却器 水分除去器를 통과해서 Avionic 室 冷却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操縱席에 供給된다. 操縱席의 環境溫度는 冷空氣 Unit By-pass Valve에 의해 5°C에서 30°C까지 $\pm 2^\circ\text{C}$ 內에서 任意로 設定된다.

酸素 System은 射出座席에 붙어있는 Demand型 調壓器(Regulator)를 통해서 乘務員에게 酸素를 供給하는 液體酸素交換器(Liquid Oxygen Converter)를 쓰고 있다. 調壓器는 高度에 따라 空氣와 酸素의 混合氣(Mixture)를, 緊急時에는 純酸素만을 供給한다. 酸素 Container는 그대로 再充填(Replenish)할 수 있다. 各座席에는 主 System의 故障, 또는 脫出時에 使用할 緊急酸素 Bottle이 붙어 있다.

Martin Baker Mk 10 射出座席은 Zero 速度, Zero 高度에서 高高度 · 超音速時까지, 600kt 以上에서 使用될 수 있는 最初의 量産型 座席이다. Cockpit은 Rocket에 의해 射出되며, 다음에 航法士, 操縱士 順序로 座席이 射出된다. 操縱士의 射出 Handle은 항상 航法士를 우선으로 하는 Command 射出로서 航法士의 Handle은 負傷한 操縱士를 救하기 위해서 Command 射出을 選擇한 때 以外에는 通常 航

法士만을 射出한다.

Tornado의 燃料 System 特色은 大量의 機內燃料搭載에 있다. 모든 有效空間을 利用하기 위해서 Bag Tank와 Integral Tank가 쓰이며 Bag Tank에는 自動漏洩防止와 對裂材(Resistant Material)가 使用된다. 主翼 Integral Tank는 主 Tank Group에 燃料를 供給하는 片軸(Single Ended) AC Booster Pump를 각기 갖는다. 燃料는 Engine供給 Line에 燃料를 보내는 2個의 兩軸(Double Ended) AC Booster Pump를 모은 集합박스(Collector Box)에서 逆止(Non Return) Valve를 통해 重力落下로 供給된다.

主翼內側 Pylon에는 外部燃料 Tank를 裝備한다. Tank內 燃料殘量은 容量測定(Capacitance Gauging) System에서 測定되며 操縱席 Digital에 全殘量이 表示된다. 그리고 操縱士에 의해 各 Tank 殘量表示(Contents Readout)도 選擇될 수 있다. 燃料供給과 重心位置調整(Gravity Control)은 全自動으로 이루어지지만 단일 戰鬥에 의해 損傷되거나 故障 등으로 必要한 경우에는 自動 System을 無效로 하고 閉止 Valve와 Crossfeed Valve를 手動으로 操作하는 것도 可能하다.

給油는 동체 右側 給油 Panel과 그 옆의 1個 NATO 給油接續口에서 실시된다. 각 Tank에는 高油面停止밸브(High Level Cut Off Valve)가 있어서 모든 過程은 全自動이 可能하지만 이것도 必要한 경우에는 各 Tank의 內容量을 手動으로 制御할 수 있다. 操縱席附近 동체左上面에는 引入式(Retractable) 空中受油用 Probe가 있고 夜間空中給油用 Light도 있

다. 또 機體를 給油機로 쓸 수 있도록 동체中央 Pylon에 裝備된 Buddy/Buddy 給油 Pod도 準備돼 있다.

○ 性 能

可變後退式 主翼과 低燃料消費率 3軸 Turbofan Engine RB 199는 Tornado機에 뛰어난 航續性能과 戰鬥哨戒能力을 주는 結果가 됐다. 英國本土의 防空配置에는 海岸으로부터 300~400nm 떨어진 지점에서 2時間 이상의 空中哨戒가 要求되는데 Tornado는 基地로부터 350nm 떨어진 지점까지 最適高度로 進出해서 2時間의 哨戒飛行과 Reheat System을 켜서 10分間の 戰鬥가 充分히 可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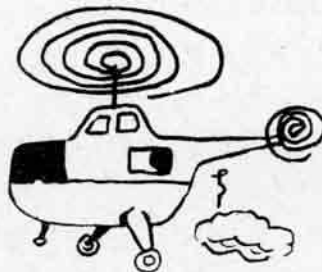
또 이 Turbofan 엔진은 低空에서도 充分히 적은 燃料消耗를 維持하기 때문에 低空에 있는 目標機와 交戰하기 위해서 低空으로 降下할 때도 燃料不足으로 困難을 겪을 염려는 없다. Tornado ADV는 IDS보다 잘 다듬어진 形으로 最大速度와 超音速 加速性能이 向上됐다. 高空에서 最大速度는 Mach 2.2 (IAS 802kt, TAS 1,260kt)를 넘는다. 실제로 ADV 量産前型 1號機에 있는 AOI은 80年 7월에 IAS 800kt를 넘는 速度를 記錄했다. ADV가 超低空을 飛行할 必要는 거의 없지만 海面高度에서 Mach 1.2로 飛行이 可能하다.

上昇性能에 對한 公表는 없지만 먼저 IDS가 地上에서의 Brake Off로부터 高度 30,000ft (9,150m)까지 2分 以內 上昇한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ADV에서는 당연히 Reheat System 使用時 上昇力은 IDS보다 커서 戰鬥上昇限度는 Skyflash AAM을 4發 裝備한 狀態에

서 60,000ft (18,300m)를 充分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強力한 Reheat System을 가진 Turbo Fan 엔진의 使用은 Tornado의 離陸滑走距離를 크게 줄이고 있다. 現在 RB 199-34R-04 MK102 엔진은 最大推力이 16,000 lb (7,260kg) 이 되지만 今後 開發機에서는 더욱 推力增加가 가능해서 離陸과 上昇 및 加速性能도 보다 改善될 것이다. 現段階에서 ADV의 離陸必要滑走距離는 약 2,500ft (760m)가 되고 있다. 着陸性能은 Kruger Flap이 제거된 만큼 IDS보다도 나빠졌지만 그것도 逆推力裝置를 써서 地上滑走距離는 1,200ft (366m)로 해내고 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充分히 短距離着陸이 可能하기 때문에 Kruger Flap을 裝備할 必要가 없었던 것 같다.

이 離着陸性能은 Tornado ADV가 3,000ft

(915m)級 滑走路에서 運用可能하기 때문에 前線의 急造飛行場과 民間飛行場을 써서 行動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Tornado ADV에는 機內에 엔진始動裝置와 테스터機能이 完備돼 있어 燃料과 武裝만 準備돼 있으면 어디서나 運用이 可能해서 固定基地가 被害를 입기 쉬운 오늘날에는 대단히 融通性이 큰 機體다. 빠른 速度와 우수한 旋回性能, 良好한 Hand Ling 特性을 갖고서, 超低空으로부터 高高度에 이르기까지 넓게 對處할 수 있는 이 機體는 그 Radar에 의한 신속한 探知·邀擊機能과 強力한 武裝 등을 갖추고 있어 1990년대까지 充分히 그 能力을 發揮할 수 있는 世界最新銳 邀擊戰鬥機임에 틀림없다. 그 實用機가 英國空軍에 配置되기 始作하는 것은 1983年으로 豫定돼 있다.



未來航空戰에 對備한 單·複座戰闘機의 比較

양 광 석 譯

人類가 새처럼 하늘을 날아보겠다는 오랜 念願은 美國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發明하고 나서 實現되었다.

그러나 제1, 2차 世界大戰을 통해서 航空力은 戰爭遂行에 있어 새로운 道具로 높게 評價되었으며 아울러 航空機의 發達도 가져오는 結果가 되었다.

그러나 월남전과 중등전을 통해 立證된 對空武器體系의 威脅은 操縱士의 生存性和 直結되는 問題로 오늘날 그 解決을 위한 많은 檢討가 進行되고 있다. 이런 意味에서 볼 때 戰闘操縱士의 役割을 再照明하고 未來航空戰을 診斷해 보는 것도 그 意味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美空軍의 評論誌인 Air University Review 5~6월호(81년)에 실린 William A. Flanagan 소령의 "The Fighter Force—How Many Seats?" 全文을 翻譯한 것이다.

美空軍의 한 戰闘飛行大隊의 브리핑실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별들의 전쟁(Star Wars)이라는 TV映畫는 기계를 가지고 후방석조종사의 役割을 代置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美空軍의 F-15, F-16, A-10 항공기의 物品明細書 속에 있는 案內文에는 단좌전투기의 長點을 明白히 表示하고 있다.

그러나 단좌전투기들이 과연 여기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同時代의 科學技術과 威脅要素에 비추어 과연 F-15 복좌전투기가 다른 단좌전투기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戰闘機 發達史

1차세계대전에 利用된 최초의 전투기는 복좌였는데 한 사람은 항공기를 操縱하고 또 한 사람은 기총사수였다.

이 時代의 항공기들은 엔진추력이 고작 80

~115마력 정도의 미약한 것으로 비록 항공기의 設計時 1,000파운드에 해당하는 기체의 무게를 減少시켰지만, 각종 장비의 무게를 보다 더 가볍게 하기위한 그 이상의 方法들이 摸索되었고 그 결과 후방석조종사와 그의 장비들을 제거하는 것이 강구되었다.

그리고 전기적인 同期裝置의 기관총은 전투기 발달상에 있어서 大變革을 일으켰으며 단좌전투기의 조종사는 標的上에 있는 모든 적기를 이 기관총으로 조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Sopwith Camel, Spad(佛), 그리고 Fokker Pr. I과 같은 보다 가볍고 기동성이 더 좋은 단좌전투기들이 出現했다.

"하늘의 騎士"로서의 단좌전투기 조종사의 印象은 塹壕戰의 殺戮으로 인해 참담해진 당시의 國民들에게 大衆報道나 政府發表에 의해 환영받는 慰安者로서 받아들여졌다.

1차대전 말기에 복좌전투기의 짧은 出現이 있었다. 200마력 추력의 새 경량급 엔진은 조종사 이외 후미사수를 탑재시키기도 단좌전투기와 같은 性能을 發揮했다.

1918년 가장 기대되었던 영국 전투기는 1차대전에 使用된 영국 전투기로서는 유일하게 1930년대까지 就役했던 복좌인 Bristol F-2B였다.

1920년대와 1930년대초 世界各國의 空軍에서는 단좌전투기의 開發에 集中했기 때문에 복좌전투기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폐기처분의 限界에 있는 듯 보였다. 항공기의 速度가 증가함에 따라 國力の 증가로 후방석 사수가 標的을 조준하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그 결과 밀폐된 총좌가 무게, 항력 및 복잡성의 문제점

을 안고 장착되어졌고 공중기동 중의 비행차각과 중력 또한 후방석사수의 효율성을 減少시켰다.

그리하여 미 육군항공단(美空軍의 前身)은 이런 문제점들에 관한 실험을 한 뒤 복좌인 P-30을 폐기시켰다.

영국 공군에서는 전기작동식의 4문의 총좌를 가진 Boulton-Paul Defiant를 만들었지만 기종의 不足으로 그 생명은 짧았고, 性能과 機動性の 不足으로 요격기로서의 가치도 떨어졌다.

독일공군은 복좌이며 쌍발엔진을 갖춘 Messerschmitt BF 110을 만들었다. 이 항공기는 장거리폭격기에 대한 兪호전투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보조연료를 탑재하기 위해서 큰 크기로 만들어졌고 또한 후방석사수를 태울 수 있었다.

그러나 영국전투에서 매우 기동성이 좋고 단좌이며 단발엔진인 Hawker Hurricane과 Supermarine Spitfire는 이 폭격兪호기 자체에 兪호가 필요하다는 事實을 立證시켰다.

1~2문의 기종으로 무장한 후방석사수는 상대적으로 8문의 기종을 가진 기민한 공격기에 대해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독일은 영국전투에서 주간작전에는 BF 110을 투입시키는 것을 中止했지만 야간작전에서는 이상적인 항공기로 評價를 받았다.

폭격기편대의 야간출격과 공중레이다의 開發은 쌍발엔진의 복좌전투기의 새로운 價値를 認識시켰다.

操縱士가 航空機를 操縱하는 동안 레이다조

작수는 공중레이다로 標的을 탐색하고 위치를 발견하면 조종사에게 육안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위치를 알려 주었다. 야간에는 空中戰이 不可能했기 때문에 大型 야간전투기의 기동성 부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戰爭末期까지는 대체적으로 그런 狀態였지만 大型 2,000마력짜리 왕복엔진은 P-61 같은 大型 야간전투기가 단좌인 Mustang이나 Hellcat과 같은 성능을 부여했다.

그러나 Messerschmitt Me 262 제트전투기의 출현은, 戰鬥機의 Jet化時代가 到來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일차대전초기의 왕복엔진 생산기술과 같이 1940년대말의 Jet 엔진 생산기술은 그 수준이 미약했기 때문에 초기 Jet 엔진의 설계시 성능상의 잇점을 極大化하기 위해 기체를 작게 했다.

전투기의 개발은 F-80이나 F-86 같은 기동성있는 주간전투기와 폭격기를 요격하는 레이더가 장착된 야간전투기의 2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고 한국전쟁 초기에 있어서 F-86은 最初의 주간전투기였고 왕복엔진의 F-82 Twin Mustang이 최초의 야간전투기였다.

엔진공업기술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1950년대초 소련의 Tu-20(Bear) 프로펠러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설계된 복좌의 F-89 Scorpion과 F-94 Starfire가 선을 보였는데, 이 요격기들은 現在까지 어느정도의 戰鬥能力을 保有하고 있다.

소련의 Jet 폭격기 개발이 시작된 이후 요격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져야 했는데, 또 다시 후방석을 제거하는

문제에 쫓점이 모여졌고 조종사로 하여금 레이더를 조작하고 비행기를 조종하며 요격에 관한 指示를 할 수 있는 전자계산기로 처리되는 사격통제체제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많은 개발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격통제체제를 갖춘 F-86D(Sabre)와 F-102(Delta-Dagger)가 뒤쫓았다.

核時代의 戰鬥機

1950년대 중반 이후, 미·소간에는 핵전쟁의 可能性이 存在하기 시작했으므로 전투기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戰鬥機는 폭격기에 對한 요격임무와 핵무기의 運搬體制로서 받아들여졌다. 또한 공대공 유도탄의 出現 역시 전투기의 역할에 관한 개념을 특색지었다.

고로 미 공군에서는 요격기로서 F-101, F-106 전투기로서는 F-100, F-105와 단좌 제공전투기인 F-104의 개발에 주력을 두었고, 미 해군에서는 장거리 전투조제가 가능하며, 공대공 유도탄을 사용하고, 공격항모 기동부대에 대한 위협을 분쇄하기 위해 제작된 F-4 Phantom을 개발했다. 1960년대의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핵전쟁이 아닌 제레식 국지전에서 Jet 전투기가 사용되었다. 전투기들은 제공권 확보를 위해 적기와 交戰했으나 미사일의 제한점이나 표적식별로 인해 종종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의 발사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조종사에 의해 발견됨으로써 종래의 기동성이 부여되는 공중전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적기가 너무 近接했거나 기동성이

좋은 미사일로 공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 관포는 다시금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고로, 핵전쟁과 같은 수준의 분쟁에서도 공중우세를 위한 전투기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制空權 確保를 위해서 미 공군에서는 F-4를 개량하여 공대공 유도탄 외 내부에 탑재된 기관포를 장착했는데 월남전에서 130대의 MiG를 격추함으로써 당시 최고의 훌륭한 항공기로 평가되었다.

1965년말 미 공군에서는 새 제공전투기에 대한 제작을 요청했는데 설계 시에는 동남아시아 상공에서의 전투경험이 많은 토대가 되었다.

새 전투기는 특별한 기동성, 고속, 그리고 Radar유도나 열추적의 공대공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청되었다.

1968년 9월에는 이미 그 능력이 입증된 F-4에서 탈피하여 항공전자공학 제정의 조작용 1인이 담당하도록 하는 주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요청과 변화에 의해 마침내 미 공군 최초의 제공전투기로 1990년대까지 운용될 F-15의 개발을 가져왔다.

1972년 미 공군은 당시의 항공공학기술을 평가할 目的으로 경량의 기동성있는 항공기모델에 관한 제작을 요청했으며 1976년 기동성과 적은 제작비용을 고려한 好天候 전투기로서의 이 모델은 전폭기로서의 주 임무와 제공권 확보의 보조 임무를 갖춘 "Swing Force" 전투기인 단좌의 F-16으로 제작되었다.

이런 現狀에 의해 미 공군은 거의 다수가 단좌전투기로 구성된 제공전투기군을 가지고

1980년대에 돌입하게 된다.

科學技術과 現代戰鬪機

종래에는 과학기술(특히, 엔진부문)이 단좌와 복좌의 선택을 좌우했다.

과학기술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설계자나 담당자의 선택에 영향은 끼쳤는가?

현대전투기와 2차세계대전 당시의 전투기를 비교할 때 크기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F-15는 전장 64ft 중량 40,000LBS인데 F-51 Mustang은 전장 32ft 중량 9,200LBS로서 크기에 있어서의 변화는 현대전투기의 성능이 증대되어져 요구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

F-15의 엔진은 최고속도 M2.5(=1,650마일/HR), 고도 70,000ft까지 상승할 수 있는 充分한 추력을 갖추었으나 F-51은 최고속도 437마일에 상승고도는 25,000ft이다.

공중전에서 항공기가 기동할 때 중력은 증가하며 항력은 더 많이 증가하므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추력의 증가는 필요하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엔진의 크기와 연료의 탑재량은 전투기의 크기를 결정짓는 주 요인이며 또한 저익항공기는 좋은 기동성을 부여한다.

이런 모든 요소가 結合되어 제작된 현대의 제트전투기는 2차대전 당시의 전투기보다 매우 크다.

무장 또한 전투기의 형(形)을 바꾸는데, F-51은 6문의 Caliber 50 기관총을 장착했으며 다른 대부분의 기종도 사정거리는 600ft 이내였는데 F-15는 기종보다 매우 큰 위력을 가진 기관포를 장착했지만 주 무장은 야드단위가

아닌 마일의 사정거리를 가진. 공대공 유도탄으로서 레이다유도 방식의 AIM-7 Sparrow 미사일은 全天候에서 10마일 이상의 사정거리를 갖추고 있으며 열추적 방식의 AIM-9 Side Winder는 흐린 날씨에는 성능이 저하되나 사정거리는 2~5마일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무장이 최고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조종사의 탐색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레이다가 필요하다.

F-4에서는 후방석조종사가 레이다를 작동했지만 F-15에서는 전자계산기가 이를 대신했는데 혼란한 레이다상의 표적은 전자계산기를 통해精選되어 조종사의 레이다에는 단지 표적만 나타난다. F-15 레이다의 모든 조종계통은 조종간이나 Throttle에 위치해 있어 조종사가 레이다를 조작하면서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다.

조종사가 공격을 위해 표적을 선정하고 Lock on시키면 전자계산기는 표적거리, 표적고도 등을 산출하고 요격을 위한 조종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사정거리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표적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기종조준경에는 신호가 나타난다.

F-15의 사격통제체계는 위에서 말한 조종사의 위치와 단일표적에 대한 공격에는 매우 적합하다.

과거 동남아시아의 제한된 공중전투에서 오늘날 그 부대가 중앙유럽지역으로 옮겨졌으며 이런 변화는 장차의 제공전투기 운용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F-15와 未來의 中央 유럽戰場

중앙유럽에서의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사이의 미래의 전쟁은 역사상 가장 격렬한 항공전이 펼쳐질 것이다.

어떤 자료들에 의하면 독일 上空에서는 일일 6,000~8,000소티가 예상되며 제공전투기는 가장 危重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F-15는 적의 통신교란에 의해 전투기의 통제에 있어서 그 효율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중전투에서 숫자상으로 우세한 적과 交戰해야 할 것이다. 그 지역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힘의 비교는 그 층들의 격렬함을 예고해 주는데, 소련과 동독의 15개 전투기연대(미 공군의 전투비행단 규모)가 동독에 전개되고 이와 반대로 NATO는 서독,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에 단지 7개 전투비행단을 배치하게 된다.

미국은 F-15의 생산량을 729대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의 평가에 의하면 소련은 1,500대 이상의 최신형 미그 21과 1,000대의 미그 23/27을 실전배치하고 있으며 소련의 군용항공기 생산량은 연간 1,150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연간 500대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실들은 F-15가 적의 수적 우세를 누리는 지역에서 작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미 공군당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전투기전술의 수정을 연구 검토 중에 있다.

어떤 간행물에 기고된 F-15 조종사의 글은

대규모 적 전투기群에 대한 새로운 작전개념을 反映한 것으로 그 內容은 조종사가 F-15의 레이더로 적 편대群을 監視하고, 가능한 한 최대의 기습을 감행하여 첫발을 발사하면 적 편대群에서 한, 두개의 표적이 갑자기 공격을 받을 것이고 이와 동시에 F-15는 적이 요격하기전 그 지역을 이탈한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볼 때,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졌던 종래의 공중전은 중앙유럽에서는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공중전(특히 선회비행面)에서 F-15는 적기를 쉽게 볼 수 있고 그 비행방향도 더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공격의 성공은 기습과 이탈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상되는 앞으로의 공중전투에 비추어 F-15 복좌기에 대한 客觀的 評價는 가장 신중해야 한다.

複座戰鬥機의 分析

2명의 승무원이 가지는 가장 뚜렷한 장점은 機內作業의 分擔이다.

1975년, 미국의 Hughes 항공기회사는 공중강타임무의 모의실험으로 단좌와 복좌를 비교 평가한 것으로 機體外部에 위협상황이 벌어짐과 동시에 레이더 경보장치는 그 위협을 알리면 승무원이 역습을 감행해야 했다는 의미에서 그 모의실험은 독특한 것이었다.

연속적으로 부여되는 위협상황이 어떤 경우는 역시 레이더 경보장치에 의해 알려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할 때 적으로부터

육안공격을 받는 실전과 비유될 수 있으므로, 모의실험에서의 승무원들은 공대공 전투와 유사한 상황에서 레이더 경보장치와 機體外部의 경계에 주의를 集中시켜야 했다.

레이더 경보장치에만 위협상황이 부여될 때는 단 · 복좌의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레이더 경보장치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發生時는 임무수행과 동시에 위협상황을 탐지하는 능력은 복좌가 월등히 우세한 것(40% : 95%)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후방석승무원이 機體內의 일을 分擔하고, 중요한 육안精査에 좀더 많은 시간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機體外部의 육안감시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의실험에서 입증된 복좌기의 경계능력은 제공전투기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항공전사를 通해 본 不變의 事實은 격추된 조종사들의 대부분이 적 공격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1944년 5월 29일 제 8 전투기사령부의 전술 교범에 포함된 다음의 글—“대부분의 조종사들이 적기의 기습에 의해 격추된다.”—은 비행 중의 경계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다. 한 예로 월남전에서는 모든 공대공전투의 손실 중 80%는 보이지 않는 적 미그의 기습에 의해 이루어졌다.

많은 작업부담이 부여된 상황에서 복좌전투기는 보다 나은 外部경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후방석승무원은 보이지 않는 적기의 공격에 대한 위협을 극소화시키고, 生存의 可能性을 극대화시킨다. 앞서 記述한 바와같이 중앙유럽 전장에 있어서 F-15는 숫자적으로 우세한

적과 싸워야 한다.

달일표적에 대해 Lock On 후 F-15의 사격통제체계가 공격지침을 제공했을 때 레이더 스크린상의 다른 표적들은 사라지고, 다른 적기에 대한 정보도 산출되지 않을 것이다. 항공기가 사정거리에 접근하기까지의 "Lock On"의 지연은 적반적인 상황에 대한 레이더의 추적을 가능하게 하나, 그 잇점과 아울러 機體內 레이더상을 추적하는 작업부담도 증대되고 한편 요격에 관한 자료를 두뇌로 계산해야 한다.

숙련된 후방석의 베이다담당 조종사는 대부분의 그의 주의력을 베이다에 집중시킬 수 있고, 조종사로 하여금 육안감시와 항공기조종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요격을 하는동안 매우 귀중한 助力을 提供할 것이다.

사격통제체계가 작동불능이거나, ECM에 의한 사격통제체계의 성능감퇴 시에는 인적 전문기술도 역시 유용하다.

베테랑 방공조종사의 대부분이 F-101에 탑승하는 베이다담당 후방석조종사가 F-101의 요격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F-15에 있어서 후방석의 베이다담당 조종사는 기동성 있는 전투기형의 수적우세 속의 적 표적들에 대한 공격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러나 복좌항공기에 대한 고려는 다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항공기의 크기는 어느정도나?

어느정도의 성능이 감소될 것인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단좌 제트전투기를 복좌로 개조한 이전의 F-86/F-86A, F-100F/F-100D, F-106B/F-106A 같은 항공기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우선 불리한 무게조건을 측정할 수 있다.

1,000~1,300파운드의 불리한 무게조건은 9,200파운드의 Mustang이나 18,000파운드의 F-86과는 달리 30,000파운드의 현대 제트전투기에서는 큰 문제점으로 간주되어지지 않고 있다. 복좌인 F-15B는 F-15A보다 800파운드 가 무거운데 비행교범에 나타난 성능은 두 항공기를 동일시 하고 있고, 복좌인 F-16B는 후방석을 장착함으로써 1,200파운드의 연료가 감소되지만 F-15B는 F-15A와 같은 연료량을 탑재하며 단지 항공기의 어느 곳이나 장착할 수 있는 전술전자전지원(TEWS) 장비의 内部 탑재가 불가능하다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대의 제트전투기는 초기의 전투기에 비해 무게의 불리한 조건과 상대적인 성능의 감소에 있어서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며 F-15 역시 성능상의 어떤 조그만 감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후방석조종사는 증대된 生存性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 / FAC 一般論

권 재 상

『도구란 어디까지나 도구일 따름이다. 도구는 사용하는 것이지 도구에 의해 사용당하는 것이 아니다. 도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도구의 구조나 성능을 잘 파악해서 가장 적합한 용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장소 어떤 용도를 불문하고 만능으로 사용되는 도구란 없다. 또한 도구의 사용법에 숙달되지 않으면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구의 외형만을 보고 그것을 업신여기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아무리 간단한 형태의 도구라 할지라도 익숙한 솜씨로 사용하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구의 특징이다.』

전쟁을 평면에서 입체적 공간으로 확산시킨 항공기의 출현도 일세기가 가까와 오고 이제는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전투수단이 되고 있다. 1914. 8. 30. 독일의 단엽복좌 정찰기가 소형폭탄 5개를 바스더유역 부근에 투하하여 부녀자를 포함한 3명의 파리시민을 살상한 것이 비행기에 의한 폭격의 시조라고 할 수 있으나 곧 이어 폭격기가 출현하였고 전투전 문기가 출현했는가하면 대지공격을 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격기가 발달되어 공중화력에 의한 대지지원은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

요한 전력요소가 되고 있다. 막강한 화력과 기습을 통한 충격효과를 주요 전술로 채택하고 있는 소련식 훈련을 받는 우리의 적은 그러한 전술로 침입해 올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지상에서는 막강한 기갑병력, 공중에서는 우수한 전투용 항공기를 동원 후방을 차단, 교란하고 아군의 전방진지를 유린코자 할 것이나 전차전력의 열세는 물론 대전차 병기 또한 충분치 못한 우리는 지형지세를 이용한 상당히 긴 전선에서 비교적 깊지 못한 중심으로 방어를 해야하는 불리한 처지이어서 공중 화력에 의한 적 전차 전력의 파괴는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기동장비가 우수하지 못한 아 지상군의 에로를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은 물론 모든 가능한 침투대상소에 대해 근접항공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항공 전력의 과다는 차치하고라도 부족한 대로의 공중전력이나마 가장 진요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적재 적소에 효과적으로 투입하고자 하면 공지 협조는 긴밀해야 하고 끊임없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공직작전 체제 내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바 적과의 관계에 의한 것과 우군 스스로에 의한 문제가 있다.

통상 공지작전에 있어서 우려되는 문제를 간추려 보면,

첫째, 근접항공지원(CAS)의 우선순위는 지상군 지휘관에 의해 요청되므로, 전투 상황에 따른 전선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이것은 즉, 공군의 전력을 육군의 요청에 따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지상군의 긴박한 전투 상황에 따라 공중 화력지원은 다급해 질 것이나 그 요청에서부터 공격기가 전장에 도착하여 목표물을 공격할 때까지 어찌 할 수 없는 지연이 따른다. 현 체제 내에서 보면 화력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위 전투부대에서 차 상급부대로 또 그 상급부대를 경유하여 군사령부까지, 또는 긴급 요청망에 의한 직접요청이라도 전장에 따른 육군 지휘관의 지원 우선순위 판단 또 목표물을 분석하고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여 무장의 선택, 비상출동지시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시간도 사정이 긴박한 전선 지휘관에게는 긴 시간이며 혹 도중에서의 방해나 누락 역시 염려스러운 요소이다. 이렇게 되면 지상군 전선 지휘관은 고 스스로가 즉각 운용 가능한 지원화력을 확보코자 할 것이며 이는 전투시열이나 공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육·공군의 공격용 헬기와 고정익 공격기의 선택을 두고 경쟁한 예가 좋은 본보기이다.)

셋째, 근접항공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보면 지상군 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지상군의 능력만으로는 제압키 어려운 목표물이 주종을 이룰 것이다. 예를 들면 지상군 화

포의 사거리 밖의 주요 목표물이거나 또는 지상군의 화기로는 제압키 곤란한 견고한 목표물 또는 지상군의 화력에 부족이 있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목표물들은 통상 견고하고 작거나 위장이 잘 되어 식별하기 어렵고 조용히 이동할 것이다. 그 결과 공격기에서는 보기가 어렵고 우군과 근접한 경우 오목의 우려도 있고 전력의 낭비가 예상된다.

넷째, 우군이 공격하여 꼭 파괴하고자 할 정도로 중요한 목표물이라면 적 또한 중요한 전력 요소일 것이 분명하므로 충분한 대공방어 수단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고 전자, 물리적 요소를 동원하여 방해, 저지코자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저고도에서의 고속이 필요하여 지고 많은 기동이 요구되어 지므로 목표물의 식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공격은 점점 더 곤란하여 질 것이다.

다섯째, 적은 평시 우군의 훈련을 각종 수단을 통해 관찰 분석함으로써 우군의 전투 수행 형태, 전술능력을 분석하고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지상군 지휘관의 요청에 따라 지상 전방 항공 통제관(G/FAC)이 ASOC에 공중공격 지원을 요청할 때부터 공격기가 공격할 때까지 적은 통신을 감청하고 방해 또는 개입함으로써 임무를 불능케 하거나 기만 오도하여 아군의 전투효율을 격감시킬 것이다.

이상은 예상할 수 있는 적과의 관계에 의한 근접항공지원의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아군 스스로의 장애요인 또한 심각하다.

첫째, 전선에서의 전투현황에 따른 G/FAC의 기동성의 제한에 의한 관측과 최종공격기

유도에 장애가 있고

둘째, 통신망의 혼선에 의한 임무의 지연 또한 클 것이며,

셋째, 적의 신속한 기동에 대응하여 아군이 신속히 이동, 감시 추적 저지 격파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많은 산악과 강에 의한 장애도 있으며 우군의 충분치 못한 장비 또한 애로의 누적요소가 될 것이다.

가장 긴밀한 협조하에서 수행되어야 할 공중 합동작전이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경우가 빈번히 있을 것이다. 이의 적절한 해답으로 제공되어져서 여러 해 동안 훈련하여왔고 실제로 전장에서 많이 활약한 것이 바로 공중 전방항공통제(A/FAC)에 의한 근접지원이다.

전쟁형태의 변화에 따라 공중화력지원을 위한 항공기 또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으나 대지공격에 가장 적합한 항공기는 타목적에 전용할 기회가 그리 흔하지 않으므로 경제사정이 넉넉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각 임무에 가장 알맞는 항공기를 각각 구비할 수는 없는 관계로 일반적인 전투용 항공기를 여러 가지 복합적 임무에 투입한다. 대지공격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면 목표를 발견 포착하여 정확하게 공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 전투용 항공기의 고속 높은고도 짧은 체공시간 충분치 못한 무장 때문에 CAS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A/FAC은 통상 작고 가벼운 기체에 간단한 무장을 하여 FEBA 근처를 천천히 비행하면서 좋은 시계와 충분한 체공 능력을 가지고

전장을 감시하면서 지상군과 협조하여 항공요청을 처리하기도 하고 여유있는 Radio Network을 이용 통신을 중계하기도 한다. 이는 그의 적당한 고도와 속도를 이용하여 고속공격기와 지상간의 Gap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적으로 A/FAC은 공격기 조종사의 눈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A/FAC is The Eye of Striker Pilot)

A/FAC은 또한 지형지세에 의해 제한되는 G/FAC의 통신능력을 보완하여 주고 기동능력을 크게 보충하여 주는 전선의 제주꾼이기도 하다.

A/FAC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격기를 유도 통제하여 지상군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CAS는 FEBA와 FSCL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대부분이 우군과 인접해있는 목표물이나 많은 육군 장병의 증인에 따르면 전투지역에 우군 항공기가 출현하는 것만으로도 사기는 올라가나 우군 항공기에 의한 우군진지의 목적은 상대 없는 분통만 터뜨리는 억울함만 쌓인다고 한다. 우군의 전력손실없이 적의 목표를 파괴하는 것이 최적이므로 A/FAC은 확실한 적의 식별, 분명한 목표물 지시가 그의 존재 의의라고도 할 수 있다.

A/FAC의 두번째 임무는 육안정찰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투상황과 복잡한 통신망에 의한 지연이 불가피한 전장에서 지상군 지휘관은 당장 그의 전면에 있을 적의 위협을 알고자 하나 이용 가능한 정보는 제한되므로 체공감시자에 의한 즉각적인 전황, 적 동태 보고는 그의 판단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적의

대공활동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공중 육안정찰은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으로 롬멜의 사막 전차전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세번째 호송업호는 저고도 기동 중인 Hel기에 대한 Air Cover를 제공함으로써 Hel기와의 탐색구조에 귀중한 조력자가 되며, 근 10km 이상을 유지하게 되는 지상군 사단의 이동 공간을 엄호해 주는 공중의 감시자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A/FAC은 그 항공기의 특성과 전장의 특성에 따라 Area Jamming을 실시하여 CAS 지역에서의 우군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PGM의 Terminal Control을 담당하기도 하며 비정규전에 대비한 COIN에 아주 유용한 전력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A/FAC은 왕복엔진을 장착한 소형의 경비행기로서 가볍게 다루어왔고 공격기를 업고서 적을 제압하는 간접적인 지원요소이기는 하지만 전장의 형태 즉 적의 전술 우군의 전술에 따라 경항공기, Hel기 등에 의한 Low Level, Low Speed FAC이 있을 수도 있고 일선 전투임무에서 퇴역한 비교적 낡은 전술기에 의한 또는 공격전대의 일부분을 전용하는 FAST FAC (SCAR 포함)도 운용될 것이고 더욱 발달하면 무인기 (RPV)에 의한 전장감시 및 유도통제도 가능해질 것이다.

L/L FAC의 작전 형태는 TOT 이전에 미리 목표지역에 진입하여 G/FAC과 교신하여 표적 정보를 받고 전신을 관찰하여 피아를 확인한 후 대공 위협요소를 파악하여 지상군 지휘관에게 이의 제압을 요구하고 우군의 포사격을

제한하여 공격기의 진입로를 연다. 여기에서 가장 큰 전제가 적의 대공활동이 없거나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적은 자기의 위치 노출을 꺼려 A/FAC에게 사격하기를 꺼릴 것이다. 하지만 전선이 뚜렷하고 적의 대공위협이 큰 경우에는 이 L/L FAC의 생존성은 극히 저하되고 임무의 성공 가능성은 극히 회박하여 진다.

적의 위협이 큰 지역에서는 비교적 대지속도가 크고 탑재량의 여유가 있는 FAST FAC이 투입된다. FAST FAC의 기체는 통상 한 세대가 지난 구세대의 전투용항공기를 사용한다. (Ex. OA-4, OA-37) FAST FAC은 L/L FAC에 비해 대지속도가 크므로 저고도 기동에 유리하여 대공화기의 추적으로부터 회피가 비교적 용이하며 여유있는 탑재력으로 대공화기의 제압, 충분한 표적지시로 공격기 조종사에게 표적 확인의 부담을 덜어 줄 수가 있고 목표지역으로의 진입이 빨라 기습효과 또한 노릴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FAST FAC은 체공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지속적인 전장감시는 곤란하고 한 번 이륙에 한 두번의 유도로 만족해야 하는 운용상의 묘가 크게 요구된다. 가장 발달된 형태로서의 FAC은 전자기술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RPV를 이용하는 것이다. 무인의 원격비행체에 TV Camera를 장착하여 적의 화기 사거리 밖 엄폐된 참호속에서 전장을 감시하면서 그 정보를 우군 공격기와 연결하여 표적을 공격케 하는 시도이지만 적의 ECM, 위장 등에 취약하여 아직은 실전 화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것에는 야시장비 (NOD : Night Obser-

vation Device)를 장착하거나 FLIR(Foward Looking Infra Red)를 장비하였을 경우는 전천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유통성이 큰 방법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헬기나 수송기의 이동 시에는 별도의 FAC 항공기가 제공치 않더라도 그 현대의 조종사가 FAC 역할을 수행하여 같은 효과를 노릴 수도 있음을 주지할 일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A/FAC의 필요성, 의의, 임무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모든 임무에 다 적합한 항공기는 있을 수 없고 다용도 항공기는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A/FAC에 대한 부분을 떼어서 생각할 때 그 임무에 필요한 요구와 추가적인 용도를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1. 유통성

A/FAC은 공직작전에 있어서 공군구성 부분의 최종 명령전달자이다. 하여 그는,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통신장비와 유용한 항법장비(TACAN, NDB, INS)는 그 필수요소이고 TGT를 식별하기 위한 보조장비로서 망원경을 기초로 하여 TISEO, CAS의 전천후화 요구에 따르고 적의 야간 활동 증가에 따른 야간 가시 장치(LLL TV, FLIR, STAR LF SCPE), 등의 전천후 성능 장비도 그 임무의 성공가능성을 증대 시킨다.

2. 활동성

전선의 긴박도에 따라 CAS는 증가될 것이

고 우군의 Air Density는 증가될 것이므로 긴급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속도와 CAS 임무기로서 불가피한 저고도 활동을 위한 적절한 저고도 기동성이 따라야 한다. 6·25의 기록에 T-6는 상승력의 부족과 항속력의 부족으로 Jet 항공기와의 작전에 애로가 있었고 L-19(O-1)은 저속으로써 적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FAC 임무를 맡기에는 부적합을 경험하였다. (UN 공군사 上 402page, UN 공군사 下 294page—공군본부)

이 문제는 현재 우리의 A/FAC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O-1/O-2등과 같은 전형적인 L/L FAC은 좋은 시제와 긴 체공시간을 이용하여 전선없는 전장인 비정규전에서 자기 노출을 꺼리는 적을 찾아 공격하는 월남전과 같은 곳에서는 아주 유용하였으나(월남 항공전 분석—정참부) 전선이 확정되고 자기들의 위치가 들어난 전장에서 적당한 대공화기가 있고 충분한 병력과 화기가 있을 때 자기들이 곧 공격받을 것이라는 예고와도 같은 A/FAC의 출현을 간과하지마는 않을 것이다. 공격기와 상대적인 적절한 속도, 기동력, 체공능력은 A/FAC기의 필수요건이다.

3. 생존성

김 일성은 6·25의 경험으로 공중공격의 위험을 잘 알고 있기에 많은 준비를 하여 각 단위 부대에 많은 대공화기를 배치하여 전선에 까지도 Radar로 유도되는 각종 대공화기에서 부터 병사의 개인화기까지 대공훈련을 하여 왔다. 이는 자구책 없이 최첨단에서 공격기를 유도하는 A/FAC에게는 심각한 문제이다. A/

FAC 스스로의 방호와 성공적인 임무수행과 전력 소모의 방지를 위해서 FAC 항공기에 ECM, ECCM, IRCM의 능력을 구비하면 CAS AREA에 투입되는 모든 전력의 생존성을 한층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용 통 성

서두에 이른대로 모두에 다 이룰 수 있는 연장은 없다. 하지만 제한된 전력자원(조종사, 항공기, 무장)으로 다각화 되어 있는 적이 위협을 생각할 때 많은 조종사와 많은 댓수의 항공기를 A/FAC 단일 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제한한다는 것은 지대한 전력낭비가 아닐 수 없다. 적은 정규, 비정규 혼합진술을 배합하여 침공해 올 것이다. AN-2에 의한 강습 진술기에 의한 공격 등 우리로서는 적절한 전력분배를 어떻게 할 정도의 혼전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중한 전력요소인 A/FAC 조종사를 단일목적의 금육적 위치를 지키게 함은 낭비임에 틀림이 없다. 보다 융통성이 있어 어느 정도의 무장으로 제한된 공격을 할 수 있어 이동하는 적을 지연체하고 표적 지시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2.75" WP FFAR는 Smoke가 부족하여 식별이 어렵고 백색으로 한정되어 계절에 따라 제한이 크다) - UN공군사 下 page 296 참조 -

추가하여 호송업호 임무나 SAR 임무 등과 차기의 COIN으로까지 발달할 수 있는 특징있는 기체가 우리 처지에는 절실히 요구된다.

5. 기 타

A/FAC은 전투지역을 지속적으로 넘나들

로 심리적인 부담이 크고 지상군 공격기, CRC, ASOC 등과 계속되는 Radio 교신 지점 파악 지도입기 공격자로 산출 등 복잡한 업무가 항공기 내에서 계속되므로 단좌보다는 복좌가 편리하고 전후방석 보다는 좌우로 앉는 형이 좋으나 전투소모가 높고 반대편 조종사쪽의 시계가 나빠지는 것이 흠이긴 하다. 또 조종사 편이시설로 Cabin Condition Control이 가능하고 잠음정도가 낮아야 피로도가 덜하며 대적 노출이 적어질 것이다.

오늘날의 전투는 개개인 전투기량의 우수함은 물론이거니와 종합적인 System의 우수성이 전투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할 수 있다 하여 무기체계의 우수성은 그 무기성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루는 운용자의 실력에 크게 좌우된다. A/FAC 조종사는 공격기를 통제해야 하므로 공격기의 능력을 잘 알아야 함은 물론 공군 명령권의 최후 집행자이므로 작전개념 진술, 무장성능 및 작전지역에 대한 일반적 상식까지도 능통해야 한다.

끝으로 전장에서 공군력의 현장 지휘관인 A/FAC는 적 대공화기의 발달과 우군 공격능력의 발달로 점점 그 형태를 달리해가서 L/L FAC 보다는 FAST FAC으로 변모하고 있고 가능한 한 전투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공격기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켜 공격기점 FAC으로서 Seek & Destroy 형태로 발달되어 간다. 우리 공군 역시 특정한 목적에 알맞도록 개발된 항공기에 진술을 맞추어 나갈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금육적인 태도를 벗어나 전쟁 형태에 따라 그 개념에 알맞는 항공기를 개발 획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항공작전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중전을 제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優秀戰鬪操縱士의 條件

朴 范 鎮 譯

전투기조종사라면 누구나 에이스를憧憬할 것이다. 특히 2차대전 중에는 전투비행부대의 활약이 연일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다. 당시 미군의 전투기조종사는 훈련시간 350~400시간 정도의 예비학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결코 우수한 조종사는 아니었고 동기생들과 비슷한 정도의 기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투기 과정을 종료하여 일년이 되고 조종시간도 600시간을 넘게 되자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도 생기고 실마남들에게 뒤지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거기에서 선배들의 이야기에 자극을 받았다.

“그라만(Graman)은 우리 하야부사(隼, 일본의 전투기명)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속도는 거의 비슷하지만 선회와 상승은 하야부사가 낫지 그리고 선회전투만 안 하면 하야테(疾風, 일본의 전투기명)로도 충분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생각은 산산히 깨져버렸다. 선배들의 충고는 F-4F를 두고 한 말이고 미군에서는 벌써 그라만 F-6F로機種轉換을 하고 있었다. 모양은 같지만 성능은 획기적으로 향상돼 있었다. 무장의 질과 양, 거기에 조종사도 경험을 쌓고 숙련도도 높아져서 모든 점에서 일본 전투기와는 커다란 차가 있었다.

전후 22년이 지난 후 서독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었다. 독일은 에이스의寶庫이다. 그 유명한 할트만은 당시 쾰른의空軍局에서 전력평가반의 중령으로 근무하며 당시失意에 빠져 있었다.

가란트는 콜롬사의 지배인이었고, 슈타인호프, 랄, 쿨펜스키, 발크호른 등등 쟁쟁한 대

에이스들은 공군의 수뇌부에서 가끔 얼굴을 맞볼 기회가 있었지만 공중전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 擊墜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은 항상 화제를 바꾸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없었다. 겸손하고 예의바른 것 같지만 大에이스로서의 영광을 일생 어깨에 지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었을 것이다. 전쟁 중의 영광으로부터 一轉하여 전후의 좌절감, 戰死한 부하들에 대한 애도의 감정, 그리고 배회의 출격이 100% 후회가 없는 임무 수행이었던지 어떨지 인간인 까닭에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것이다. 수년 전 일본을 방문한 슈타인호프를 만났다. 퇴역한 그는 솔직하게 전쟁 중의 이야기를 했다. 책임 있는 지위를 떠난 해방감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에이스가 되었을까? 항공역사가 시작한 이래 에이스라 하면 독일이 단연 기타 제국을 압도하고 있다. 제1차대전 시의 리히트호펜의 80대 격추로부터 제2차대전 시에는 할트만의 352대를 푼으로 하여 100대 이상을 격추한 에이스를 100명 이상 배출했다. 프랑스에서는 쾨르크의 75대, 미국에서는 리처드 봉크의 40대, 소련은 코세도프의 62대, 일본에서는 니시자와 히로요시(西澤廣義)의 70대가 최고이다.

초인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戰果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전법 자질 신념……

79년 봄 퇴역을 기회로 9년만에 독일을 방문하여 옛친구들과 재회했다. 거기서 슈타인호프에게 몇 개의 질문을 했다. 그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귀하는 어떠한 전법으로 싸우셨습니까?

전투기조종사에게 있어 최초의 10~20회의 공중전에서 살아 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운도 따릅니다. 나의 체험으로 보면 편대에서 뒤떨어져 있는 미숙련자이고 경계심이 부족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빨리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과감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2. 에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을 구비해야 합니까?

우선 첫째로 強靱한 정신력과 뛰어난 센스입니다. 대부분의 전투기조종사는 금방 신경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공중전에서 용맹과감하게 공격하는 자는 유리합니다. 주저하는 것은 적의 눈에 약하게 보입니다. 에이스는 스포츠로 잘 단련되어 있고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3. 귀하는 어떠한 신념과 방침으로 부대를 지휘하셨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완성한 공격정신과 격추의 도법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편대장만이 격추 찬스를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에서 부하조종사들과 교락을 함께 하여 우정으로 맺어진 굳은 단결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76대를 격추하고 戰史個人으로서도 拔群의 무공을 지녔을 뿐 아니라 9,500대를 넘는 독일 공군 제1위의 부대격추전과를 올린 제77전투비행단장으로서 그리고 전후에는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신독일공군을 육성한 그의 이야기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배출한 에이스의 수와 격추기 수 면에서 독일이 단연 다른 제국의 추종을 불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일사람만이 비행적성이 우수할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에이스들의 놓여진 환경의 차이가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숙명이다. 공군의 임무, 交戰공군의 상황, 戰局의 추이, 작전지역의 상황, 상대의 무장성능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진 결과이다. 여기서 이들을 생각나는 대로 조종사 개인의 조건으로부터 썰보기로 한다.

「숙련도가 요구되는 전반적인 상황 파악」

實戰에 참가한 시점에서 전투기조종사로서 어느 정도의 기량수준에 달해 있을 것, 즉 다시 말해서 평상시의 출격에서 얻은 체험을 소화하고 몸에 배게 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실전에 있어서도 기지에 귀환하고 나서 편대장은 공중전의 결과를 설명하고 요점에 관해서 부하를 지도한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공중전에서의 피아의 움직임과 그 意圖, 術策 등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初期에는 통상僚機이기 때문에 편대장의 행동을 좇아 하면서 전반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는 상당한 숙련도를 필요로 한다. 전투기 과정을 졸업하고 부대에 부임해도 이 정도의 숙련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한 사람의 완전한 전투기조종사로 취급해 주지 않는다. 이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부임 후 부대에서 적어도 1년간 충분히 단련될 필요가 있다.

전쟁 초기까지는 전투기조종사로서 인정받는 것은 훈련기로 조종훈련을 개시해서 3년, 조

종시간(비행시간이 아님) 500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쟁 중에는 그런 사치스런 생각을 할 수 없다. 전투기 과정 종료 후 그 부대의 기종으로 50시간(2~3개월)의 훈련을 종료하는 것이 최저한의 요구일 것이다.

우리들의 경우 약 250시간만에 전투기 과정을 종료하고 하야부사(雜. 일본의 전투기명) 부대의 대원들은 부대로 직행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각 기종으로 나누어져 3~4개월 약 60시간의 훈련을 거쳐 제1선에서 散華했다. 미군은 전투기과정을 종료한 후 소속부대의 기종으로 3개월 100시간의 훈련을 걸쳐 戰線에 진출해 왔다.

「전투조종사의 3世代」

제2차대전 중의 조종사는 대별하면 3개의 세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1세대는 전쟁발발시 벌써 훌륭한 조종사였던 사람들로 舊陸軍航空에서의 사관학교 53기생, 소년비행병 6기생까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초전부터 각 전선을 轉轉하여 마지막까지 싸워 전사해 버리고 극히 일부만 살아 남았다. 이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베테랑이었다. 가또우(加藤)소장·구로에(黒江)소령·남고우(南郷)소령·시노하라(篠原)준위·가나이(金井)중위 등이고 독일에서는 가란트·펠다스·탈·발크호른·슈타인호프, 소련의 코세도프 거기에 일본의 에이스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제2세대는 전쟁 중에 전투기조종사가 되어 실전의 체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로 사관학교 56기, 소년비행병 11기, 비행학생 91기 정도까지인데 57기와 특별조종견습사관 1기생의 일부 소년비행병 13기의 일부를 포함시켜도 좋을 것이다. 이 세대는 매우 폭이 넓고 전쟁발발시에는

비행훈련 중이었고 전쟁발발 후 2, 3개월부터 공중전에 참가하여 말기에는 戰隊長근무를 한 54기부터 아직 僚機였던 사람들과지 여러 가지이다. 그리고 戰況이 점점 어려움을 더해가는 전쟁중기 이후에 부대의 주전력이 되어 종전까지 시종 제1선에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이 세대에 해당된다. 당연히 에이스는 옛날일수록 더 많고 제3세대를 능가하는 에이스들이 彗星처럼 나타났다. 스미노(隅野)대위, 이케이(生井)소령, 나까무라(中村)중령, 사사키(佐々木)상사 등이고 독일에서는 할트만, 말세이유, 리펠트 등이다. 옛날의 조종수첩을 펼쳐보면 나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기본 조종 10개월 125시간

중등교육 82시간

고등교육 43시간

아카노(明野)비행학교 6개월 130시간

97형 전투기, 출업전 “하야부사” 未墜者 훈련 4개월 97형 전투기 “쇼우끼(일본비행기명)” 그리고 비행 340시간이 채 못되어 57기생의 교관이 되고 있다. 미군 조종사가 제1선에 나온 비행시간과 거의 동등하다.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지만 공중판단 능력이 아직 부족했다. 50시간 정도의 추가훈련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3세대의 조종사는 전쟁 말기에 전투기 과정을 졸업하고 급거 제1선에 보내진 사람들이다. 하루하루의 체험을 몸에 배게 하는 기초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중전에 참가해도 상황파악을 못한다. 他機와의 협력도 못하므로 쉽게 적에게 먹혀버린다. 결국 특공대원이라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憧憬의 전투기조종사가 된 이상은 마음껏 만족스러운 공중전을 하고 싶다. 初陣이 폭탄 유도장치의 代用品이란 것은 너무 불쌍한 이

야기다.

1943년 후반에는 기본조종이 60시간, 그것도 중등훈련은 폐지하여 처음부터 低翼單葉全金屬製인 99고등훈련용이 되었다. 전트기 과정도 5개월 약 6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정규교육과 비교하여 기간 비행시간 모두 1/2이 되어 버렸다.

우수한 적성을 가진 자는 그런 속에서도 희망하던 기량에 도달할 수 있었다. 사격 등에서는 훌륭한 명중률을 나타내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공중전에서는 훈련부족이 뚜렷이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공중감각과 판단력을 단기에 체득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구육군 전투기 부대에서는 내가 아는 한 200시간 이하의 조종사는 공중전에 참가시키지 않았다. 개죽음을 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조종사들의 방해 내지는 짐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대와 행동을 같이 했던 것은 특수조종 1기생 중 우수한 자들 뿐이었다.

독일 공군에서는 1944년이 되면 총 비행시간 70시간, 그 후에는 40시간의 조종사까지도 속속 제1선에 보내졌다. Me-109란 비행기는 랜딩기어의 轍間거리가 좁고 이면하중도 커서 이착륙도 그리 쉽지는 않다. 이 조종사들은 이착륙도 만족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2회의 출격을 견딜 수 있었던 자는 적었다 한다. 전사한 자는 왜 격추 당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 열로부족에 추가하여 전코트가 공습 당하여 훈련감소도 여유가 없었다. 훈련없이 실전에 참가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생각해보면 미친 것이라고 뿐만 할 수 없고 그 실체는 특공대와 다를 바가 없다. 승산이 있을 리가 없다.

미군에서는 제3세대 조종사는 물론 제1선에 안 나갔다. 필요한 소정의 훈련을 실시하

고 확실한 기초를 쌓은 후에 내보냈다. 이것 역시 미국의 저력이다.

「훈련내용이 戰場에서 나타난다」

300~400시간의 비행훈련이라 하더라도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갖고 어떠한 내용의 훈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다. 다만 성적으로 비행클럽과 같은 비행체험은 전투기조종사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마이너스 작용을 한다. 연습기를 타기 시작한 후 하루하루의 훈련은 본인의 기량의 극치를 다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한참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 힘을 빼고 휴식하는 것은 금물이다. 내가 전투지역에 도착해서 신고를 끝내자마자 1년 선배인 제1중대장 모리노(森野)중위가 이렇게 말했다.

“야! 아까노(明野)에서 교관을 하다가 온 자식은 1주일도 못 남아나, 학생 상대하고는 애기가 틀려, 정신 똑바로 차려!” 내심으로 반발을 느꼈지만 1시간도 안 돼서 긴급발진 요격을 나가면서 진박한 현실을 느낄 수 있었다.

동기생들보다 100시간이나 비행시간이 많았지만 그 내용은 학생을 상대로 한 기본적인 전투와 사격, 표적기의 역할, 페리(Ferry)이며 기량향상과는 별로 관계없는 비행시간이다.

쇼우끼(일본비행기명) 중대에서의 교관훈련은 주 2회 뿐이고, 그것도 중대장 요기로서 직접 판단 행동하는 경험은 없었다. 더우기 하야메(疾風)는 출발할 때까지 5~6회 탐승했을 뿐 전투지역까지의 항법이 관속훈련과 같은 것이었다. 부대에서 單機戰鬥로 가혹한 훈련을 받고 편대장으로서 戰火를 뚫고 나온 자들이 우러러 보였다.

매일 극도의 훈련을 강요하고 그리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관도 열심

히 해야 된다.

이런 시기에 기량 이하의 느긋한 훈련을 하고 있으면 기량의 발전이 중지되어 버린다. 반면에 비행기의 조종에는 익숙해지기 때문에 정말로 전투기다운 조종은 피하려하고 몇만 부리는 비행만을 익혀 버리게 된다. 돌진공격을 예로들면 상대를 격추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의 최고성능을 발휘하여 고속, 그리고 박력있는 돌진으로 충돌을 각오하고 육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뱃심이 두둑하고 자기 자신에게 얽하지 않으면 좀처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포락 기지에서 그라만의 대지공격을 받았다. 20도 정도의 급강하로 직진하여 들어 올렸을 때 지표 2~30미터까지 내린다. 박력 만점으로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느꼈다. 이와 같은 엄한 훈련을 통하여 이 시기에 전투기조종사로서의 기질이 양성되는 것이다. 능력극한의 훈련은 훈련 후의 만족감, 시원한 해방감, 그리고 여러 선배와의 인간적 접촉을 통하여 “전투기조종사”의 기질이 몸에 배어진다.

「숙련조종사의 결핍과 전환교육」

전쟁 말기에는 일본, 독일 모두 중대장급 이상의 숙련 전투기조종사의 보충에 고심하고 타병과의 조종사를 단기 전환교육을 하여 전투기로 轉科시켰다. 폭격 또는 정찰기로 이미 숙련조종사가 되어 있는 자들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수색전, 공중전, 사격에 있어서 본래의 전투기조종사로 변신하는 것은 일부 뛰어난 적성을 가진자들을 제외하고는 곤란했다.

할트만이 그 화려한 전투경력을 통해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겨우 1대의 요기 밖에 잃지 않았다는 것(이 한 대도 다치지 않

고 생환했으므로 1명의 요기도 전사시키지 않았다)인데 이 요기가 폭격기로부터 전과한 카피트 소령이다. 32세라는 그의 연령은 轉科에는 너무 늦었다. 그러나 계속 조종사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 유일한 길이었다.

카피트 자신은 진관교육이 그에게는 매우 어려웠다고 한 것은 그가 완전히 폭격기의 기질이 몸에 배어 있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가 할트만의 비행편대에 온 것은 전쟁 말기의 1945년이었다. 전쟁 전의 평화로운 시대에 교육을 받는 장교로서 계급은 같아도 당시 22살의 할트만보다 서열은 훨씬 위였다. 그는 꼭 할트만의 요기로서 출격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기회를 달라고 매일 건의했다.

할트만은 그의 부탁을 거부하고 폭격기조종사가 전투기를 조종하여 출격하면 반드시 곤란과 위협에 직면한다고 얘기했다. 전생은 곧 끝난다고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끈질기게 고집하는 카피트에게 끝내 져버렸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옆에 딱 붙어서 떨어져 있지 못할 것. 급선회시에는 특히 이탈되지 않도록 주의시켰다. 이는 공중전에서는 불가피한 기동이기 때문이다. 나는 공격해 오는 2대의 러시아 전투기가 그 사정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회피기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카피트를 불렀다. “바짝 달라붙어 떨어지지 마라!” 이는 미리 내가 지적 설명한 대로와 상황이였다.

적이 사격을 개시하려고 하는 순간 나는 기체를 적에게 향하게 하고 급격한 수평선회에 들어갔다. 카피트는 나의 기동에 따라 올 수가 없었다. 그의 선회는 둔하고 바깥으로 많이 부풀어져 버렸다. 폭격기조종사로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180도 선회하여 반대방향이 되

니까 카피트와 나는 마치 對進하는 태세가 되어 버렸다.

“반대방향으로 선회하라!”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이 두번째의 폭격기식 선회 중에 그의 기체는 피격 당했다. 全經過를 보고 있던 나는 그에게 명령했다. “급선회하여 탈출하고 낙하산 강하 하라!” 지시대로 기동할 수 없는 그에게 나는 화를 내고 있었다. 카피트는 이 전쟁에서 살아 남아 할트만과 마찬가지로 신독일공군에 근무했다. 이 피격의 추억을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후회가 막심했다. 나를 격추시킨 러시아 조종사는 할트만에게 격추 당하여 전사했다. 그는 대위로 25대를 격추하고 내가 26대째 였다. 명백히 그는 나와 같은 초심자는 아니었다. 나는 밤의 「탄생축하파티(전통에 따라서 죽음을 면한 조종사의 생환축하파티)」에서 겨우 기력을 되찾았다”

전투기로 전과한 조종사가 전투정신이 걸여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벌써 완성된 폭격대 또는 정찰대 등의 조종사가 기질이 전투기조종사의 기질을 거부하는 것이다. 맹렬한 彈幕 속을 폭격 코스에 들어간 폭격대는 오로지 直進할 뿐이다.

水平 等高 等速 直進 비행이기 때문에 대공화기의 질호의 목표이다. 輕爆隊는 적함의 글뚝민을 향해서 공격해 가는 것이다.

적 함대의 대공포화망은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로 떠들썩하다. 1회 출격시는 무사히 귀환했다라도 2회, 3회 출격하면 틀림없이 피격 당할 것이다. 폭격대는 戰力이 다할 때까지 몇 회이고 출격해간다. 이는 그 병과의 조종사 기질에 의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임무는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평상시의 훈련과 선행의 충고, 부대의

분위기를 통하여 몸에 배어 있는 것이다.

예외는 경폭기의 조종사이다. 경폭기란 오늘날의 전폭기로서 원래 전투기와는 형제법이므로 약간의 전환교육에 의하여 전투기조종사로 전과했다. 전쟁 말기의 일본 본토 방공전투기 부대의 지휘관급에는 경폭에서 전과한 조종사가 많았다.

제 244전대의 용맹성은 우리들 사이의 사람들에게는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다. 독일에서도 Ju-87급강하 폭격부대에서 에이스들이 나왔었고 Fw-190으로 기종전환하고 나서는 제공전투기 부대가 되어 활약했고 많은 에이스들을 배출했다.

적임자를 잘 선정하면 많은 에이스가 나올 수 있다. 비행기 뿐만 아니라 한참 클 수 있는 시기에 휴식하고 있어서는 결코 실력은 붙지 않는다. 매일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성(머리)의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一點集中型은 진보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 클럽활동에 휩쓸음을 발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옛날 사람들은 적절한 표현을 하고 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놀아라"

戰爭中の 일본에서도 예비학생을 1/4 또는 1/3을 줄여 우수한 적성을 구비한 사람들을 골라 충분히 깊이 있는 훈련을 실시했다면 강력한 전력이 되었을 것이고 많은 에이스들을 배출했을 것이다. 그리고 특공대 같은 셋길로는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戰況이 어려워지면 훈련기간을 어느 정도 단축시키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대개의 경우 훈련 비행시간은 거꾸로 증가한다.

양성조종사 수를 줄이면 연료는 절약할 수 있지 않았을까!

특별 조종 전습사관은 1943년 가을부터 조종

훈련을 개시했다. 다음 44년 말에는 미군 조종사 정도의 숙련도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리고 비행기 수보다도 무선의 질 향상에 보다 힘을 쏟았더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1944년 말은 필리핀 결전이 한창이었다. 미·일 예비학생 조종사의 대결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미숙한 조종사는 100이 모여도 숙련자 1개 편대에 대항할 수 없다. 혼란상태에 빠져 마지막에는 그들 뜻대로 요리되기가 일쑤이다.

공중전에서 인헤전술은 통용되지 않는다.

초전(初戰)으로부터 2~3개월간의 공중전에선 살아 남는다.

○ 여유 없었던 F-6F와의 첫 조우(遭遇)

이 2~3개월의 기간 중에 공중전에 있어서의 감(勘)이 양성되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배 조종사들의 지도이다.

어떠한 훌륭한 에이스라도 처음 조종사가 되었을 때는 젊은 미숙자였었고 첫 공중전에서는 누구나 공중전은 미경험이다.

선배란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성의있게 지도해 주는 법이다.

그러나, 작전 양상과 부대의 실정이 그런 세심한 지도까지 허용하게 해줄지는 의문이다.

이는 다만 그 사람의 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뛰어난 소질을 갖고 있으면서도 운이 없어 생명을 잃는 조종사들도 많이 있다.

전호(前號)에서 실명했던 전투기 조종사의 제2세대 말기에는 이와 같은 불운했던 조종사들이 특히 많았다.

초전(初戰)부터 특공대였던 조종사들은 바로 그런 예였다.

대동아 전쟁 초기까지는 비행시간 500시간이 초전(初戰)의 목측(目測)으로 되어 있었다. 부대장은 예상하는 항공작전의 양상을 신중히 고려하여 가장 조건이 유리한 찰스를 잡아 젊은 조종사들을 데뷔시켰다.

그리고 베테랑들이 젊은 조종사들의 주위를 지켜주고 안전을 확보해 주면서 점차 공중전에 관속시켰다.

「“젊은 전투조종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커다란 쇼크를 받지 않고 첫 격추를 해 내는 것이다”」

<웨나 겔다스>

내 경우는 그만한 여유가 없었다.

베테랑은 거의 전사해 버렸다.

첫 출격부터 편대장으로서 미지의 사태에 대처하여 판단, 결심,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처음 적과 조우하여 당황한 것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적의 의도하는 행동을 읽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공중감각이 미숙했던 것이다. 공중전이 개시되면 어느 정도의 훈련은 받았으므로 용감하게 싸울 수는 있지만 그 전단계(前段階)에서 태세(大勢)는 결정되어 진다.

이와 같은 감각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베테랑이고 또한, 편대 지도 경험을 필요로 한다. 중대 단위의 훈련은 몇 번이고 경험했지만 항상 요기(僚機)였었고 체험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한 기초기량은 충분치 못했다.

요(要)는 적의 배후에 돌아가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부가해서 가능하면 태양을 등에 질 것, 적에게 둘러싸이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이유는 간단하지만 적도 유리한 태세를 취하려고 행동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의 의도를 읽으려고 한다.

그리고 항상 상대방보다 한 발 앞서 기동하는 쪽이 유리한 태세를 취할 수 있다.

적은 그라만 F-6F의 4대 편대로 우전방(右前方), 고도차(高度差)는 1,500m 정도였다.

결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적 진로의 전방을 차단하여 공격하면 태양을 등에 지게 된다. 적도 기동을 개시하고 우상승 선회(右上昇 旋回)로 아군의 후방으로 돌아서 들어오려 한다.

그러므로 양자(兩者)가 원을 그리게 된다. 점점 고도차(高度差)가 줄어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이때로 선회를 계속하면 선회 성능이 좋은 그라만의 의도(意圖)대로 되어버림에 틀림없다.

어떻게 할까 생각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고도(高度)의 우위(優位)가 있는 동안에 공격을 개시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다.

F6-F는 도망쳐버리고, 이것이 적의 함정이었다. 어느 사이엔가 30대 이상의 적에게 둘러싸여 버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이 도망칠 차례였다. 이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8대가 가지각각으로 흩어져 큰 손해가 났다.

베테랑인 다무라(田村) 중위가 끈질기게 달라붙는 그라만을 충분히 끌어들이어 스스로를 전폐(全閉)하고 플랩을 내서 급감속을 하고 앞으로 기울어졌을 때 사격을 해서 격추한 것은 바로 이 때였다.

○ 계급 이전에 전과(戰果)가 우선(優先)이다.

이 부근의 사정을 슈타인호프는 「시시리섬

공중전기(傳記)」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어떻게 돼서 아군의 젊은 조종사는 고작 몇 회의 출격 횟수로 전사(戰死)해 버리는 것일까?

우리 같이 늙은 조종사도 옛날에는 젊은 조종사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현재처럼 힘든 환경에 점차적으로 관속해 왔다.

그러므로 환경의 갑작스런 변화에도 놀라지 않는다. 보충요원으로서 투입한 조종사는 자신에 넘쳐 활발히 행동하고 말도 많이 한다.

최초의 출격에서 경악(驚愕)이 그들의 사지(四肢)에 퍼져간다. 그리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말이 없어지게 된다. 대개의 경우 그들은 편대의 최후미(最後尾), 또는 바깥쪽의 포지션에서 비행한다. 그곳은 특히 위험한 포지션이다.

수많은 공중전을 거쳐 비로소 2대 또는 4대의 편대를 인솔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그들은 편대 속에서 주어진 포지션을 지키기에 급급하여 오랜동안 장님과 같은 상태인 것이다.

그들은 적을 만나 전투 개시를 할 경우 적아의 태세를 간단히 꿰뚫어 보지를 못한다. 공간에 대한 본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중에 그들의 대부분은 목숨을 잃어 버리게 마련이다. 적 전투기의 조종사는 그들의 공중전의 경험으로부터 이쪽의 비행하는 모습을 보고 벌써 초심자를 구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하산 탈출이라든가 불시착 등으로 그들이 만약 살아서 돌아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재출격시켜야 한다.

만약 천천히 시간을 주어버리면 그들은 이 쇼크를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

할트만이 신인 조종사로서 동부전선의 제52 전투비행단에 착임하여 단사령(團司令)인 라바크 소령에게 신고했을 때 그는 상대를 훑어보는 듯한 파란 눈으로 신입자(新任者)들을 쳐다보며 말했다.

「공중전에서 전과를 올리려면 근육보다도 머리를 써서 비행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지금까지 자네들이 받은 훈련은 전투 중의 기동을 마스터하는데 유효했었다. 러시아에서 살아 남고 전투기 조종사로서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네들은 머리를 써야만 돼. 공격돌진—이것이 아니면 전과를 올릴 수 없다. 그러나 공격정신은 냉정 신중하게 이성적(理性的)인 판단으로 정확하게 행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비행에 있어서는 우선 머리를 쓰는 것이 제1이고 그 다음이 근육이다.」

또한 제3비행군사령 원·보닌소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서는 전과(戰果)만이 통한다. 계급이란가 지위 등은 통용(通用)되지 않는다. 지상에서는 물론 군대의 규율을 유지하여 계급 지위에 따른다.

그러나 공중에서는 가장 커다란 전과를 올리고, 조종사로서의 능력이 뛰어난 자만이 부대를 지휘한다.

이 법칙은 전원에게 적용된다. —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만약 내가 나보다 격추대수가 많은 하사관과 함께 작전비행을 할 경우 편대장은 그 하사관이다.

그러므로 누가 전투 중의 지휘를 할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자네들은 거의 대개 하사관과 함께 비행하게 될 것이다. 하잘 것 없는 계급에 구애되어

공중에서 그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이와같은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들 하게」
 쥘·보닌은 스페인의 시민전쟁(市民戰爭) 중 「큰돌 의용비행대(義勇飛行隊)」에서 4대, 영국 본토 주변의 공중전에서는 제54전투항공단에 소속되어 9대, 그리고 동부전선에서는 40대 이상을 격추했었다. 당시 32살로서 노련하고 날카로운 센스를 갖고 있던 조종사였다.

○ 주도권(主導權)을 쥐는 베테랑 조종사

일본에서도 하사관이 편대장이고,

장교가 요기(僚機)인 예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쟁 말기의 특이한 현상이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편대장이 되는 것은 역전의 베테랑 하사관에 한정되고, 요기가 되는 장교는 신참조종사였다. 군대의 규율을 중시하여 장교는 장교의 요기(僚機)로 볼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무선이 통하지 않으므로 요기에 적절한 지시를 할 수가 없고, 요기는 편대장의 의도를 파악할 능력이 없으므로 베테랑의 임무 방해가 되는 일이 많다.

근란한 상황에 직면하면 편대 속에서 가장 신뢰를 얻고 있는 베테랑이 자연히 주도권을 쥐게 된다.

군대의 규율은 지켜야 하리라 생각하지만 독일 공군의 경우는 무선 기능이 좋았기 때문에 적절한 지휘가 가능했을 것이고, 개인의 전과(戰果)를 극도로 찬양하는 것을 사기 양양책의 최종점으로 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고 할트만의 편대장이 되었던 것이 로스만 상사이다. 팔의 부상 때문에 Dag Fighting을 단념한 그가 몸에 익힌 기습일격이탈(奇襲一擊離脫)의 전법이 할트만에게 준 영향은 결정적이었다. 로스만은 요기를 육성하는 면에

있어서도 드물게 보는 명편대장이었다. 신참 조종사를 친천히 시간을 두어 공중전에 익숙케 하도록 배려하는 편대장이 점점 적어지고 그들의 대부분이 아무렇지도 않은듯이 이렇게 떠들어댔다.

「나는 적을 격추한다. 요기가 어찌되든 내 알바 아니야」

로스만은 어떠한 혼전(混戰)에서도 요기를 무사히 귀환시켰다.

할트만이 로스만의 요기가 되었을 때 중대(中隊)의 장교들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저이는 최고의 남자다. 80대 이상을 격추한 명사수다. 틀림없이 무사히 요기를 인출하여 귀환한다. 너는 로스만과 편대를 짜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할트만의 시작은 매우 행운스러웠다. 말년에 그 자신이 요기를 육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로스만의 강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2세대 전투기조종사의 경우 초기의 조종사들은 많은 선배 베테랑에게 둘러 싸여 있었지만 말기가 되면 대부분의 베테랑은 전사해 버리고 초진(初陣)부터 힘든 환경 속에 투입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부대장은 가능한 한 배려를 하지만 그 한계가 있다. 이 조종사들은 전훈(戰訓)을 연구하고, 매번 스스로 전법(戰法)을 고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말로 머리를 쓸 줄 아는 자만이 살아남고 에이스가 될 수 있었다.

전선에 도착한 그날밤 동기생인 와꺼모리 중위로부터 실전에서의 마음가짐을 조용히 전달 받았다.

「일주일은 공중전을 회피해라, 비겁하다고 남들이 말해도 신경쓰지 마라. 우선 분위기에

익숙해져야 한다.

결국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다. 교육훈련
페와 같이 해서는 절대로 살아 남을 수 없어」

P-38에 대해서는 빠른 회피기동(回避機動)
을 개시해라. 1,000m 정도의 원거리로부터 사
격을 하기 때문에 훈련과 같은 타이밍으로는
틀림없이 당한다.

적의 기수를 이쪽으로 향할 때 뱅크에 넣어
기수가 향하면 조종간을 앞으로 힘껏 당긴다.
전투 중에는 엔진을 전개(全開)하고 350km 이
하로 떨어뜨리지 마라.

상승한 정상(頂上)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B-24에 대해서는 전방공격 이외에는 불가능
하다. 속도가 빠르므로 추방공격은 쫓아가는
형태가 되므로 적의 미부기관포(尾部機關砲)에
당하기 일쑤이다. 적과 접근할 때에는 2,000m
이내에 다가가지 마라」 등등이었다.

임무상 일주일씩 공중전을 피할 수는 없었
지만 현실의 어려움에 당면한 직후의 이 충고는
절실히 마음에 느껴졌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요기의 경우는 대개 조종시간이 짧고, 편대장
기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만도 힘에 겨워
전반적인 태세를 볼 여유가 없으므로 교훈(教
訓)대로 행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편대장 역
시 공중전의 양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교
훈을 그대로 살리는 조건에 놓여지는 일은 거
의 없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교훈(教訓)을
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응용능력이 뛰어나고 순간적인 판
단으로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같은 환경하에서도 이를 견디어 성장하는 조
종사와 그렇지 않은 조종사가 있다.

결국은 본인의 연구 노력과 센스에 달려 있
다 할 수 있다.

필승의 형(型)을 몸에 배게 할 것

○ 필승 전법을 갖는 에이스들

대 에이스가 된 조종사들에게 공통된 점은
필승의 형(型)을 갖고 있는 것이다. 유도와 같
은 격투기나 씨름 신수는 이 형태가 되면 절대
로 지지 않는 자기 독특한 자신있는 형을 갖
고 있다.

부대의 손실이 크고 조종사가 대량으로 전
사해 가는 속에서도 일부 베테랑들은 웬만해
서는 죽지 않는다.

오늘 전투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리 뛰어난
그라드 명운(命運)이 끝났을 것이다 라고 모
두가 단념하고 있을 때 연료가 다 떨어지기 직
전의 상태로 귀환해 온다. 피탄(被彈) 상황으
로 봐서 매우 불리한 전투였었던 것은 확실하
지만 신기하게도 치명상이 없다. 위기일발의
순간에 칼날 몇 cm 앞을 예상하여 회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아슬아슬한 기동에 의
하여 상대를 자기의 페이스로 몰고가 가장 적
절한 전법을 취한 여유를 만들어 내는 것
이다.

아름든 나도 베테랑들의 흉내를 내기로
했다.

편대는 이륙하기 전부터 캐노피를 닫고 이
륙하면 우선 바퀴를 올리고 초저공에서 가속
을 한다. 그리하여 언제 적과 마주쳐도 싸울
수 있는 상태의 속도가 붙으면 상승하기 시작
한다.

상승은 적이 날아오는 반대 방향이다.

그리고 결코 서둘러서 고도를 취하려고 하
지 않는다.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
다. 고도 7,000m 정도가 돼서부터 적 방향으

로 방향을 바꿔 가능한 한 태양을 등에 지고 적과 접근을 개시한다.

적의 4발중폭격기(4發重爆擊機)와 함재 폭격기군(艦載爆擊機群)은 몇 개의 편대로 분리되어 파상 공격(波狀 攻擊)을 걸어온다.

그 제일 후미의 편대를 노린다.

그러나 그 뒤의 후속편대(後續編隊)가 있을 경우는 공격을 중단하고 다시 태양쪽으로 퇴피(退避)한다.

적 엄호(掩護) 전투기의 연료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쯤 되돌아 서서 폭격기와 엄호 전투기의 마지막 편대가 귀환하는 것을 확인한 후 각기(各機)가 각각 목표를 정하여 全速으로 공격을 개시한다.

공격은 오로지 단 한번의 일제사격 뿐이다. 명중하든 안하든간에 일단 돌아서서 퇴피(退避)한다. 배테랑일수록 이 부근의 호흡이 정말 잘 맞는 것이다.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미숙련자가 하면 즉시 적전투기(敵戰鬥機)에 붙잡혀 버린다. 어딘가에서 타이밍이 맞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적아(敵我)의 전반적인 태세를 읽는 능력의 차이이다.

적 엄호전투기에게 쫓기는 상황하에서도 상대를 잘 보고 이 사격은 명중하지 않는다고 마음을 먹으면 도망치는 기동은 하지 않는다. 막바지에서는 적이 아무리 많거나 태세가 불리하더라도 연료가 남아 있는 限 버텨 나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다.

적은 장거리(長距離)를 비행해 왔기 때문에 장시간(長時間)의 전투는 불가능하다.

이리하여 매회(每回) 생환(生還)하여 오고, 때때로 격추(擊墜)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 부근의 숙련도가 배테랑의 숨은 능력인 것이다.

○ 할트만과 포크류스킨

할트만이 터득한 必勝의 戰法은, 기습과 최근거리(最近距離)로부터의 일격필추(一擊必墜)였다.

그는 이 戰法の 順序를 다음과 같이 定했다.

“敵機發見” — “行動決定” — “攻擊” — “離脫 또는 中斷待機”.

의 4段階이다. 적이 我軍을 발견만 하지 못하면 승부는 벌써 난 것이다.

最良의 態勢로 機動하는 것보다도 돌풍(突風)과 같은 기습공격(奇襲攻擊)을 가한다. 敵과 我軍이 모두 발전지에는 우선 적의 의도(意圖)를 읽는다.

敵我的 태세와 적의 기동으로부터 깨달리 그리고 정확히 상대방의 의도를 읽는 쪽이 주도권(主導權)을 쥐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격으로부터 퇴피귀환(退避歸還)까지의 계획을 즉시 세워 바로 유리한 태세로 기동을 시작한다.

적기동(敵機動)의 개시(開始)를 빨리 알아차려 적을 항상 진방(前方)에 두도록 한다. 배후(背後)로 돌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특히 數的으로 敵이 우세(優勢)할 경우는 협격태세(挾擊態勢)가 되기전에 공격(攻擊)을 完了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격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全般의 태세를 확인한다. 不利하다고(예를 들어 다른 敵機가 背後에 있을 경우) 판단하면 공격을 중단(中斷)하여, 一旦 이탈(離脫)하여 退避하고, 다음 찬스를 기다린다.

할트만이 대선배(大先輩) 케이스들을 꺾고 Top ACE의 좌(座)에 앉게 된 것은 이 新戰法을 開發하고, 마스터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반태세(全般態勢)의 판단, 기습 공격은 반드시 할트만의 전매특허(專賣特許)는 아니다.

이것은 공중전(空中戰)의 大原則으로 나도 학생시절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다.

Dog Fight는 결코 최선의 대책은 아니다. 열세한 병력으로 Dog Fight를 해서는 언젠가는 명운(命運)이 끊어질 날이 꼭 온다.

가능하면 누구나 할트만과 같이 깨끗한 기습공격을 하고 싶다. 이 大原則을 實證해 보인 기안(機眼)과 行動力, 여기에 할트만의 비범(非凡)함과 Top ACE가 된 이유가 있다.

59대를 격추한 포크류스킨은 62대 격추의 코세도브에 이어서 소련 공군 제2의 ACE이다. 그도 기습공격의 신봉자(信奉者)로 그 戰法은 할트만과 매우 흡사하다. 그도 4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空中戰 原則을 확립했다.

“高度,” “速度,” “機動能力,” “火力”이다.

그의 원칙은 전법(戰法)이라기보다는 전기(戰技)의 原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相當히 長期에 걸쳐 독일 공군 제52전투함공단과 싸웠기 때문에 이딘가에서 할트만과 交戰했으리라 생각되지만 확증은 없다.

만약 서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서로 헛집을 찾지 못하고, 그냥 끝났거나, 또는 서로 交戰을 했어도 승부가 나지 않고 끝났을 것이다.

○ 奇襲으로 인한 我軍끼리의 混戰

奇襲攻撃의 最大의 利點은 敵에게 주는 心理的인 쇼크가 매우 크다는 點이다. 이 쇼크는 때로는 파닉크까지 발전되어 收拾不能의 大混亂에 빠져 서로 判斷이 틀려 같은 편끼리의 空中戰을 벌이는 일도 있다. 著者도 위험하게 한 번 당할뻔 한 적이 있다.

공중전에서 편대가 뒤섞여 요기(僚機)와 그대로 귀환 중이었다. 右前方 1,000m 정도의 상공(上空)을 접근하여 오는 한 대의 소형기(小型機)를 발견했다.

단기(單機)로 기지 부근을 비행하는 것은 空中戰에서 귀환하는 友軍機임에 틀림 없다. 비행기의 모양으로 봐서 海軍의 시덴(柴電)으로 알고 그대로 귀환을 계속했다. 기지가 가까와 오며 따라 긴장이 풀리고 一種의 방심(放心) 상태에 있을 때였다. 갑자기 右翼端에 섬광탄 한 덩어리가 날아가고 기체 오른쪽을 검은 그림자가 급상승(急上昇)으로 빠져 나갔다. 경악(驚愕)이 번개와 같이 全身을 스쳐가고, 反射的으로 스스로를 전개함과 동시에 기체를 왼쪽으로 선회시켰다. “그라만이다” 문득 이렇게 생각해 버렸다.

오른쪽으로 선회하여 급상승하는 적을 보고 오른쪽으로 선회하여 그 뒤로 붙었다. 적은 나를 잃어버렸는지 날개를 좌우로 흔들며 찾고 있다.

결호의 추미태세(追尾態勢)이다.

급강하이탈(急降下離脫)하려는 적의 배후로 돌아서 발포하려고 하면서 놀랐다.

날개에 일장기가 그려져 있지 않은가!

시덴(柴電)이다.

시덴(柴電)이나, 그라만 모두 같은 정도의 크기로, 형태도 매우 비슷하다.

그대로 비행하던 우리를 그라만과 오인(誤認)했음이 틀림없다. 보니까 시덴(柴電)은 날개를 흔들고 있다. “미안!” “미안!”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날개를 흔들고 떠났다. 이것은 사사로운 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할트만과 같은 기습의 名人에게 걸렸을 때는 무서운 결과를 일으키게 된다.

“무스탕”群은 할트만 편대의 하방(下方) 약 1,000m, 소련 엄호전투기 편대의 上空 약 1,000m를 천천히 선회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할트만의 편대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태양을 등에 지고 有利한 高度를 차지하고 있던 그는 기습공격을 감행하는데 이상적인 위치였다.

소련기와 미군기는 자기의 배후를 경계하는 것을 잊고, 서로 상대방을 응시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라디오에 대고 소리쳤다.

「공격은 한 번 뿐이다. 급강하를 하여 우선 “무스탕”群 다음에 소련 엄호전투기群, 그리고 폭격기群을 뚫고 나간다!」

2대의 Me-109는 엔진을 全開하여 “무스탕”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최후미의 무스탕에 번개와 같이 접근하여 全砲火의 일제사격을 가했다. 그의 기체는 몸을 흔들리게 할 정도였다.

이 P-51은 잠시 가만 있다가 기수를 들고 이어서 뒤집어지면서 연기를 뿜으며 기체의 파편을 날리면서 추락해 갔다.

이 조종사는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는지 몰랐을 것이다. 알은 선회로 다음 목표에 접근한 그는 적의 기체 마크가 전면 캐노피 가득히 되었을 때 일제사격을 퍼부었다.

이 P-51은 엔진을 피격 당하여 물을 하면서 그의 옆으로 떨어져 갔다. 시커먼 연기를 뿜고 파편을 날리며……

엔진을 전개(全開)하여 소련 엄호전투기군을 뚫고 폭격기군을 공격한다. 발사 스위치를 누른다 명중!

그러나, 격추까지는 안 갔다. 계속 밑으로

내려가 수평비행으로 되돌린다. 요기는 그의 옆에 붙어 있다. 엘리먼트 편대(2대)가 미·소 편대군을 뚫고 따라왔다. 다시 4대편대를 짜고 전속력으로 전장(戰場)을 이탈했다. 기체의 위장무늬 덕분인지 적은 아직 독일機 편대를 발견 못했다. 뒤돌아보았을 때 그는 뜻하지 않던 광경을 보았다.

미·소 양 전투기군이 뒤섞여 공중전을 전개하고 있지 않은가! 평소의 불신감(不信感) 때문에 서로 상대편으로부터 공격당한 것으로 오해했던 것임에 틀림없다.

소련 폭격기대 조종사들 사이에 파닉이 일어났다.

그들은 탐채했던 폭탄을 긴급 투하하고 즉시 기수를 돌려 도피기동(逃避機動)을 시작했다.

미·소의 공중전은 손낼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해졌다. 수십대의 전투기가 혼전하는 속에서 3대의 “YAK”기가 붙어 붙어 추락해 간다.

한편 한 대의 무스탕이 연기를 뿜으며 남쪽으로 날아갔다.

그는 너무 놀라서 멍청해 있었다. 기지에 귀환하는 도중에 이런 뜻밖의 전과를 올려 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는 공중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대원칙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자만이 승자가 되는 것이다.

필승의 전법을 짜내고, 이를 실증해 보이는 곳에 대 에이스의 진가(眞價)가 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무장(武裝)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것과 전훈(戰訓)을 연구하여 적용하는 것 등등 광범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金日成 主體思想의 形成배경과 그 實態

洪 鍾 道

1. 序 論

우리는 南北이 分斷된지 36年 동안 줄곧 北韓 共產集團에 의한 武力侵攻 위협과 思想 및 心理戰을 통한 간접침투에 대한 방어에 진력해오면서도 그들의 實體 및 實態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知彼知己면 百戰不殆라고 하면서도, 당면한 敵에 대해서는 感情的인 側面에서만 “共產主義는 나쁘다”, “北韓 金日成集團은 民族의 正統성과 固有의 傳統을 말살시키고, 唯一思想에 의해 人民들을 盲信的 道具로 만들고 있다”. “金日成을 神格化하고 있다”고 비판과 비난은 하면서도 과연 그들이 共產主義 國家에서 “最高의 理念”이라고 主張하고 있는 “金日成의 主體思想”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알려주어 根本的으로 抑制하고, 反對할 수 있는 우리 장병들의 精神的 武裝과 能力培養에는 소홀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金日成 主體思想이 무엇이며, 어떤 形成過程을 가져왔는지 正確히 把握하여야 하겠다.

2. 本 論

가. 定 義

원래 主體라 함은 人間으로서의 決心을 決定할 수 있고, 自身의 變革을 追求할 수 있는 要素를 포함하여 認識하고, 理解를 展開하고, 自己의 意見을 發表하고, 論理的 決斷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主體란 個人的 基本的인 心性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共產主義 國家에 있어서는 人間 個人的 主體를 認定하지 아니하고 “黨의 主體”를 強調하여, 모든 것의 決定은 黨에서 하도록 하는데 北韓에서는 黨의 主體가 아니라 “金日成의 一人主體”를 強調하고 있다.

즉, 金日成大學 철학강좌에서 主體란 “金日成 思想”을 말하며, 主體思想이란 “人民大衆을 革命하고, 建設하는 것으로서 金日成에 依해 創始되고, 金日成에 依해 指導되는 것”으로서 思想에서의 主體,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 이 네 가지를 具體的으로 實現하기 위하여 “모든 人民은 自己가 思考하고, 생각하는 것은 金日成의 思

想과 意志대로 思考하고, 主體思想의 具現인 黨政策과 路線이 가르치는 대로 實踐하는 것”

1)이라고 規定하여 主體思想을 定義하고 있다.

나. 主體思想의 形成背景 및 過程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主體思想을 마르크스(Marx) 이래 아무도 解決하지 못한 어려운 理論의 問題를 解決한 것이라고 說明하면서도 마르크스·레닌 主義에서 이탈할 수 없는 現實狀況을 고려하여 “마르크스·레닌 主義를 北韓地域에 創造的으로 적용하고 있다” 2)고 강변하고 있다.

北韓에서 主體라는 말이 나타나게 된 것은 1950年代 중반부터이다.

즉, 韓國戰爭을 계기로 하여 蘇聯일변도였던 外勢가 中·蘇間에 均衡을 이루고, 中·蘇間對立이 나타났으며, 1953年 2월에 스탈린(Stalin)이 死亡했고, 金日成을 추친했던 베리아(Beria)가 숙청당했으며, 56年 6월에는 유고의 티토(Tito)가 自主路線을 천명했음에도 흐루시초프는 티토를 두둔했고, 56年 2월에 열린 제20차 共產黨大會에서는 스탈린을 格下시키는 狀況까지 일어나는 外勢變化에다가 內的으로는 金日成 勢力的 확대로 軍事委員會를 장악하기 始作했고 政治勢力的 安定 3)을 이루어 반대파 숙청에 돌입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對內外的 壓力에서 벗어나 자신의 權力基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名分을 創案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金日成은 1955年 12月 28日 黨宣傳煽動者大會에서 “思想에서의 主體”를 主張하게 되었으며, 이에 근거한 黨의 宣傳煽動事業 4)에서 主體를 確立하기 위한 運動을 展開하면서, 金日成의 “항일 투쟁사”,

“革命思想”을 教養시켜 金日成 體制에 대한 歷史的 正統性을 樹立하려 했다.

初期의 主體思想은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고, 자파세력을 증가하여 確固하게 政權을 장악하고, 蘇聯 위주의 各種 制度 및 體制에서 탈피하고, 中共式(Chinese Model)을 모방하여 土着化를 試圖하려 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점차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로 확대되면서, 1960年代 후반에 이르러서는 主體思想을 體系的으로 정리했고, 1970年代에는 宗教的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는 “唯一思想”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다. 思想에서의 主體

1955年 12月 28日 黨宣傳煽動者大會에서 主張했던 主體思想은 “社會主義 革命과 建設”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創造的 적용이라는 名分아래 蘇聯式이나 中共式이 아닌 朝鮮式을 主張함으로써 金日成 支配體制의 確立을 위한 初步的인 조치를 시도했다.

金日成은 “매개 나라들의 實情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나라의 黨이므로 그 나라의 革命과 建設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黨이 責任을 져야 하고, 다른 나라 黨의 支配나 간섭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自己의 獨自의 두뇌로 問題를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主體思想은 思想的으로 自由로와야 하며, 主體意識을 가져야 하고, “思想的인 面에서 事大主義, 教條主義, 大國主義를 反對하고, 民族的 自負心과 自主意識을 가지며, 自力更生の 革命精神으로 튼튼히 武裝하는 것”인데, 이것은 “金日成의 革命思想인 朝蘇勞動黨의 政策으로 武裝하고, 그것을 思想的으로 主體를 實現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主體를 세운다는 것은 自己 나라의 革命과 建設에 대하여 主人다운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革命鬭爭과 建設事業에서 나오는 모든 問題들을 自主的 立場과 創造的 立場에서 自體의 힘으로 自己나라 實情에 맞게 풀어나가는 自立性과 創造를 말한다”5)

結局 思想에서 主體를 세우기 위해서는

- ① 事大主義를 뿌리뽑고
- ② 黨의 思想과 政策으로 人民을 武裝시키고
- ③ 이의 관철을 위해 힘있는 鬭爭을 展開하고
- ④ 實踐活動을 통하여 黨政策의 正當性을 確信시키고
- ⑤ 勝利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며
- ⑥ 黨에서 指示하는 路線에 따라 黨政策을 實現하기 위한 모든 힘을 다해야 하며
- ⑦ 黨의 路線과 위반되는 온갖 思想과 경향을 배격한다고 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고 金日成 一人獨裁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名分上으로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創造的으로 적용하여 主體性을 갖고 黨이 主體가 되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경향도 主體思想의 정립기에 들어가서는 黨의 主體에서 金日成 主體로 變化되었다.

즉, “自己의 머리로 思考하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金日成同志의 思想과 意志대로 思考하고, 主體思想의 具現인 黨政策과 路線이 가르치는 대로 꾸려 나가는 것”6)이라고 함으로써, 모든 것은 오로지 金日成에 의해서만 생각되어지고 創始되어지고 領導되는 것이기 때문에 一般人民大衆은 오로지 金日成 指示에 따르기만 하면 되고 모든 力量을 다해서 맹종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主體 속에서의 獨裁論을 合法的으로 展開하고, 全人民들의 위에 군림하는 偶像적 존재로 金日成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라. 政治에서의 自主

政治에서의 自主는 大國主義의 내정간섭에서 벗어나 內治 特히 黨政策에서 自主性을 發揮하자는 것으로서, 主體思想을 政治分野에 具現한 것이 바로 黨의 自主路線이다.

이것은 1956年 8月, 金日成의 귀국사업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소집된 전원 회의에서 연안파와 소련파 2세들에 의한 金日成 축출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이 事件을 계기로 하여 金日成은 政治的 自主性을 내걸어 本格的으로 반대파 숙청을 단행했으나 소련과 中共의 저항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金日成은 1966年 8月 勞動新聞을 통하여 “큰 黨과 작은 黨은 있으나, 높은 黨과 낮은 黨, 指導하는 黨과 指導받는 黨은 있을 수 없다. 누구는 그 어떤 中央의 地位에서 指示하고, 統率하며, 누구는 그 밑에서 복종하고 떠받드는 관계란 許容될 수는 없다.

그들은 다 같이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同等한 成員들이다”.

“世界의 모든 共產黨들의 相互關係에서는 完全한 平等, 自主, 상호존중, 내정불간섭, 同志的 協助의 規範을 준수해야 한다”고 政治的 自主性을 強調하면서 이의 合理化를 위해 “원래 共產主義者들은 온갖 예측을 없애고, 自主獨立을 實現하기 위하여 鬭爭하는 것을 自己의 初步的인 義務로 삼고 있다.

政治的 自主性을 否認하고, 事大主義를 說教하는 것은 共產主義者가 아니다. 그러므로 共產主義者들은 온갖 예측과 支配, 아부와 굴종을 배격하고, 마르크스·레닌主義에 대한 自身의 確固한 信念에 基礎하여 政治에서 自主性을 철저히 行事하는 것이다. 共產主義者

들이 政治的 自主性을 잃을 때 革命과 建設에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빚고 革命的 背信者로 되어 버릴 수 있다"고 說明하고 있다.

政治에서의 自主한 國家와 民族이 政治的 및 民族的 自決權을 갖고 自己의 信念과 主見에 基礎하여 革命路線과 政策을 獨自의 作成하고 관찰해 나가며, 對外關係에서 支配와 예속을 反對하고 完全한 平等權을 行事하는 것을 意味하는데 당시 北韓의 狀況으로서:

① 蘇聯 共產黨 제20차 黨大會의 決議事項의 거부

② 1956년의 對內的 정치위기의 수습

③ 저항 민족주의적 특성(소련의 경제원조 중단과 제1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소련의 비난 등 내정간섭에 대한 弱者로서의 강자에게 가지는 저항본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金日成 主體思想에 있어서 政治에서의 自主性도 곧 蘇聯과 中共에 대해 階級的 압박에서 벗어나고, 民族的 壓力과 예속에서 벗어나서 내정간섭의 불명 등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정권유지의 完全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金日成 支配體制에 反對하는 연안파와 소련파를 숙청하는 데에도 그 目的이 있었던 것이다.

마. 經濟에서의 自立

金日成의 主體思想이 經濟問題에 적용된 것이 바로 經濟에서의 自立이며, 이는 社會主義의 愛國主義에 立脚한 勞動倫理를 創造하여 動員化와 近代化의 手段으로 使用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產業과 農業이 國有化되고 集團化되는 과정에서 經濟的, 社會文化的 變革의 手段과 勞動力 確保를 위한 大衆動員의 手段으로 使用하고 있는데 經濟에서의 主體性

제기는 1956年 12月 黨中央委員會 全원회의에서 金日成이 행한 연설에서부터 具體化되기 始作했다. 自立의이며, "自主의인 經濟를 建設한다는 것은 우리가 自體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自給自足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하였으며, 自立的 經濟를 建設하고 發展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自力更生의 革命精神으로 自己의 技術, 自己의 資源, 自己의 民族간부, 自己人民의 勞動에 依해 스스로 自立的 民族經濟를 創設하고 強化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經濟的 自立은 政治的 獨立의 物質的 基礎다. 經濟的으로 外勢에 依存하는 나라는 政治的으로도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되며, 經濟的으로 예속된 民族은 政治的으로도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北韓은 經濟에서의 自立을 위하여 社會主義 經濟制度로의 全面的인 改편과 建設을 위하여 5個年 計劃과 7個年 計劃에 이르기까지 技術革命도 아울러 強調했는데, 社會主義 制度를 內外的 階級的 敵으로부터 高수하고 發展시키기 위하여 勤勞者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思想的 잔재를 뿌리 뽑아 그들을 共產主義의 人間으로 改造하고, 革命思想으로 武裝시켜 그 토대를 구축하고 높은 文化水準에서 이룩될 수 있는 技術革命을 위하여 文化革命도 同時에 이루어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다.

金日成은 主體思想을 經濟問題에 實現시킨 것은 바로 經濟的 自立이 政治的 獨立의 物質的 基礎가 되며, 經濟的 自立이 없이는 政治的 自主權을 行使할 수 없으며, 新生 獨立國家나,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에서는 더욱 절실한 것이고, 과거 思想에 젖어서 있는 낡은 思想的 革命을 빨리 推進하여 黨을 支配하는 最高 獨裁者의 革命的 이데올로기가 社會主義

經濟建設에 精神的 推進力이 되도록 要求하는 데 있다.

金日成이 經濟의 自立을 主張하게 된 背景을 보면, 北韓은 그들의 政權形成期(1945~1950)와 전후복구기(1954~1956) 및 제1차 5個年計劃 推進期間에 있어서 中·蘇의 經濟援助로 因한 內政上的 간섭과 이로 말미암아 對內的 挑戰을 겪었으며, 特히 第1次 5個年計劃期間中에는 전후복구 계획기와 같은 經濟援助를 받을 수 없었고, 同計劃에 대한 소련의 批判과 內部的 도전 8)을 받게 되어 計劃目標 達成에 차질을 초래한 경험 등에 입각하여 經濟建設에서의 自立을 표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1957年 全원회의에서는 최대의 증산과 절약을 口號로 채택하고, 1961年 9月부터,

- ① 重工業의 우선적 發展
- ② 輕공업과 산업의 同時發展
- ③ 技術革命과 文化革命에 의한 人民生活의 向上 등 基本目標를 내걸고, 自力更生과 千里馬運動 等の 뒷받침으로 人民經濟 7個年計劃을 推進하였다.

- ① 資本 및 技術의 不足
- ② 勞動力 不足과 생산의욕 저하
- ③ 計劃管理의 미숙
- ④ 경제 각 部門間의 불균형 등 9) 主要인 과 경제자원 부족으로 실패하고, 그 失敗原因을 外部勢力에게 돌렸다.

바. 國防에서의 自衛

金日成의 主體思想이 軍事問題에 적용된 것이 바로 國防에서의 自衛라 할 수 있다.

金日成은 1963年 10月 5日 金日成 軍事大學 第7期 卒業式辭를 통하여 軍事力을 強化하기 위한 우리 黨의 方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自衛의 方針입니다. 自己가 自己를 保護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保護하여 줄 것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援助를 준다면 받는다. 그러나 안 줄 때도 問題없다. 이런 原則입니다.……經濟에서와 마찬가지로 軍事面에서도 完全한 自衛, 즉 自己 힘으로 自己를 保護할 수 있도록 思想的으로나 軍事的으로 튼튼히 準備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自主路綫을 宣言하였다.

그는 외래 侵略者들과의 戰爭에서 外部의 支援도 重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補助的 役割에 지나지 않으며, 가장 重要的 것은 自나라의 主體의 力量이 準備되어 있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는데, 國防에서의 自衛는 自體의 政治, 經濟의 力量과 함께 自體의 軍事的 力量으로서 祖國과 人民의 安全을 믿음직하게 保衛하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또한 經濟建設을 推進시키는 同時에 國防力을 계속 強化하는 것은 社會主義 國家의 基本機能의 하나이며,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戰爭의 위험은 사라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條件에서 오직 防衛力을 強化하고 언제나 준비된 태세에 있어야만 제국주의의 侵略으로부터 人民들의 安全을 保衛할 수 있다”고 하면서 強力한 防衛力은 自主獨立 國家의 基本的 標本이 되고 政治的 經濟的 예측을 물리칠 수 있으며, 國際的 團結과 援助는 補助的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自主的 力量에 의한 방어태세를 갖출 것을 要求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敎示에 의거하여 1966年 10月 第2차 黨代表者會議에서는 人民經濟의 發展속도를 좀 조절하더라도 社會主義 經濟를 계속 추진시키면서 이와 병행하여 國防建設을 더욱 強力하게 進行시켜야 하겠으니,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병진 정책을 推進하라고 指示하여

군수산업에 보다 力點을 둔 산업구조로 경제 구조가 전환되었고, 아울러 四大軍事路線이 創出되었고, 1966年 8月을 基準으로 하여 蘇聯式 武器體制와 戰略戰術 개념에서 中共式 人民戰線戰術 개념을 導入하여 北韓의 軍事戰略 개념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國防에서의 自衛路線이 나오게 된 背景을 살펴보면, 金日成은 1962年 10月 쿠바 위기와 中共과 인도間의 국경분쟁을 경험하고 나서 蘇聯의 모든 조치가 그들의 國家利益과 關聯되었을 때에는 아무리 같은 理念과 體制를 가진 同盟國이라 할지라도 소련은 그의 同盟國을 포기할 수 있다는데 대한 위협을 느끼고, 結局 理念보다는 國家利益이 우선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 因하여 軍事的인 面的 自衛能力 必要性을 強調하게 되었다.

또한 韓國에서는 5·16軍事革命으로 反共意識이 高조되었고, 社會의 점진적 安定이 追求되자 일단 軍事的 侵略機會를 상실한 것으로 判斷하고 새로운 機會를 포착하기 위한 準備를 強化시키기 위한 必要性이 절실했기 때문에 軍事力의 증강을 위한 自衛力 確保는 더욱 強調되었던 것이다.

3. 結 論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思想→主體, 政治→自立, 經濟→自立, 軍事→自衛로 요약되는데, “金日成의 主體思想은 1953年 스탈린의 死亡과 韓國休戰을 계기로 조정된 國內파, 연안파, 소련파와의 切연한 黨內 權力鬭爭에서 自己의 黨指導權을 擁護하는 이데올로기상의 武器로서 出現했다”는 梁好民 教授의 見解와 “國際의 맥락에서

불 때, 스탈린 死後 蘇聯內에 대두되기 始作한 現代 修正主義의 위협과 對內的으로 불 때 권력 상부구조 내에 존존하는 異質의 派別정리의 現實的 必要性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안병영 敎수의 견해를 綜合한다면 北韓의 主體思想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레닌, 스탈린주의의 변형으로 哲學的인 立場에서가 아니라 政治的 機能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北韓에서 主體思想이 대두된 動機는 당시 北韓이 갖고 있었던 10월 解決하기 위한 것인데 그 內容으로서는;

- ① 黨內 權力鬭爭의 심화로 인한 적대 계층의 형성
- ②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民族 正統性과의 갈등
- ③ 급격한 경제체계의 變革과 經濟計劃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적 모순
- ④ 體制와 意識間의 갈등
- ⑤ 住民의 계급교양 수준 저하
- ⑥ 戰爭期間을 통해 民主主義體制와 共產主義體制의 交流로 인한 反共性向 증대
- ⑦ 敗戰으로 因한 住民의 사기 저하
- ⑧ 소련의 統制力 弱화와 人民民主主義 理論의 이데올로기적 허구성으로 因하여 公산블럭 內에서 自生的으로 發生하게 된 불럭 內에서의 多元化 性向 등의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綜合的 이데올로기로서 主體思想은 必要的인 것이었다.

主體思想의 理論的 基를 11)은;

- ① 마르크스·레닌 주의—스탈린주의
- ② 人民獨裁
- ③ 韓일 빨치산 革命傳統을 基초로 한 것이었으며, 여기에서 마르크스主義만 제외시킨다면 多분히 實踐的 要素로 구성되어 있다. (참

교:스칼라피노 교수는, 주체는 순수이론(이데올로기)으로, 기타는 실천적 이데올로기로 구분)

이의推進에 있어서는 精神的인 側面에서는 主體量, 物質的인 側面에서는 自力更生을 要求하게 되었는데, 自力更生은 1935年 12月 23日 모택동이 主張한 것을 모방했고, 千里馬運動은 대약진 운동을 모방한 것이었다.

1955年 후반에 始作된 主體思想은 1960年代 후반에 와서는 나름대로 하나의 정립된 理論으로 展開하고 있는데, 이것은

- ① 金日成 偶像化와 국가 신앙적 기능과
- ② 經濟的, 社會文化的 變革의 수단과
- ③ 大衆動員의 수단과
- ④ 對外政策의 正當化 수단으로 그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實質的, 內面的인 問題에 있어서 主體思想이 北韓住民들에게 적용되는데 있어서는:

- ① 金日成 一人支配體制를 強化시키고
- ② 金日成 개인에 대한 숭배 사상을 確立시켜 偶像化 정책을 추진하는데 使用되고 있으며
- ③ 人民을 政治 思想的 자극방안에 의한 대량동원을 극대화시켜 經濟發展 속도를 가속화시키는데 動員되고
- ④ 對外的으로는 중·소 이념분쟁에서의 피해를 극소화시켜 實利追求에 기여하고 있으며
- ⑤ 제3세계에 대한 접근과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도약으로 發展시키고
- ⑥ 對南 革命 達成을 위한 戰略目標達成을 위해 使用되고 있다.

初期의 主體思想은 國內外的 여건에 적응하고, 權力獨占을 위한 수단으로 使用되었던 것이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政權的 安定을 찾

은 다음 唯一思想으로 승격시켜 全人民을 教化시키고, 共產主義的 人間完成 12)의 美名 아래 金日成 맹종분자 양성에 급급함과 同時에 金日成을 전대미문의 唯一神으로 한 偶像化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즉, 主體思想을 唯一思想으로 하여,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레닌을 神聖化시킨 것처럼 金日成은 主體思想을 통하여 이들과 同等한 地位를 確保하고자 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金日成 主體思想을 최소한 모택동 사상이나 스탈린주의와 同級以上の 개념으로 認識될 수 있도록 이데올로기의 기능적 요체가 김일성에 대한 個人과 家系的 偶像화로 集中되어 있으며, 이의 實踐을 위하여 절대성의 원칙과 무조건성의 원칙을 強調하고, 黨의 唯一思想 體系 確立을 위한 10大原則 13)을 다음과 같이 내걸고 있다.

- ① 金日成 革命思想으로 온 社會의 一色化
- ② 金日成에 忠誠
- ③ 金日成 권위의 절대화
- ④ 革命思想의 信念化 敎示의 信條化
- ⑤ 敎示 執行의 無條件性
- ⑥ 全黨의 思想意志의 統一革命的 團結
- ⑦ 共產主義的 風土, 革命的 事業方法, 人民의 事業作風所有
- ⑧ 政治的 信任과 배려에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서 忠誠 報告
- ⑨ 唯一의 領導下에 全黨 全軍의 조직 규율 確立
- ⑩ 革命課業을 代를 이어 계승 완성할 것을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해 人民의 가장 큰 權利와 義務는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 14)라는 集團主義 原則을 憲法化하고 있

는데 앞에서 말한 하나는 人民을 말하는 것이며, 全體란 黨을 말하고, 뒤의 하나는 金日成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모든 人民은 黨을 위하고, 黨은 金日成을 위하는 것이니 모든 것이 金日成만을 위해서 존재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北韓에 있어서 金日成 일인 독재와 우상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마르크스는 “宗教는 아편과 같다”고 하여 宗教를 거부했었지만, 北韓을 비롯한 대부분의 共產國家들이 “신앙의 자유와 反宗教 宣傳

의 自由” 15)를 향유하여 實質的으로 宗教를 탄압하고 있는데 유독 극성스럽게 金日成을 神格化하고 있는 것은 개인 우상화를 했던 스탈린과 모택동이 死後 格下되는 것을 보아 온 金日成의 不安으로 因해 그들과 같은 結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우상화 노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더욱 強化될 것으로 보이며, 이의 지속적인 추진과 永久化를 지키기 위해 金正日에게로 政權을 세습시키려는 것은 최소한 金日成에게는 당연한 것일는지도 모른다.

<註 解>

- (1) 양형섭, 1972. 4. 15. 사회과학자 토론회, 평양.
- (2) 조선노동당 규약, 1970. 11. 5. 제5차 당 대회에서 개정, 북한헌법 제4조, 1972. 12. 27. 개정헌법
- (3) 1955년 당시 정치위원회에서 金日성과 구성비율은 40%를 점했음
- (4) 당의 선전선동사업은 문학, 예술, 신문, 방송, 교육사업을 말한다.
- (5) 이영덕, 주체사상, 1967. 평양.
- (6) 주1과 동일
- (7) 이규홍, 논문; 북한의 주체사상에 관한

- 연구, p. 71, 1976.
- (8) ① 소련과, 연안과의 정치적 도전
 ② 산업구조의 불균형과 내자 동원부진
 ③ 자원의 부족
 ④ 주민의 사기 저하
- (9) 북한 총람, p. 323.
- (10) 이규홍, 논문, pp. 26~27.
- (11) 이규홍, 논문, p. 29.
- (12) 북한헌법 제39조
- (13) 이규홍, 논문, p. 31.
- (14) 북한헌법 제49조
- (15) 북한헌법 제54조

× × ×

共産主義者들이 주장하고 있는 人民民主主義 革命論은 그것이 어떤 社會正義와 民主主義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革命이 아니라 共産主義者들이 주도하는 社會主義革命前夜의 첫단계 革命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理論, 方法論이다.

人民民主主義 革命論 批判

編 輯 室

1. 머리말

지금 北傀는 이른 바 南朝鮮 革命을 가리켜 「反帝, 反封建 人民民主主義 革命」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金日成이가 새롭게 독창적으로 들고 나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쨌든 北傀가 人民民主主義 革命論을 부르짖으며 對南工作을 집요하게 벌여오고 있는 이상 우리가 북괴 金日成의 對南 革命戰略과 戰術을 알질러 粉碎하자면 人民民主主義 革命論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統一戰線 戰術은 人民民主主義 革命의 1단계 戰術」이라느니, 「人民民主主義 理論은 共産主義者들의 統一戰線」이라느니 하고 있는데, 이것은 共産主義者들의 統一戰線 戰術과 人民民主主義 革命論을 混沌하는데서 나오는 그릇된 判斷이다.

人民民主主義 革命論이란 엄밀하게 말해서 現代 共産主義者들이 高唱하고 있는 世界革命 段階論에서 새로운 革命類型의 하나이며 그것은 植民地 半植民地 나라의 노동과 농민을 비

롯한 광범한 대중을 「프롤레타리아革命」으로 유도하기 위한 사상이론 방법의 체계이다.

2. 人民民主主義 革命論이 나오게 된 歷史的 由來

「마르크스」는 1948년 共産黨 宣言을 宣布하면서 共産主義으로 이행하는 世界革命의 類型을 「프롤레타리아 革命」 하나로 規定짓고 그 唯一한 遂行方途로 暴力革命論을 부르짖으면서 서구라파의 발전된 여러 資本主義 나라들에서 노동계급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 資本主義의 牙城을 때려부셔야 共産主義의 世界史的 勝利가 이룩될 수 있다고 斷定했다.

그 후 독점자본이 형성된 계국주의 단계에 이르러 「마르크스」의 이 理論은 「레닌」에 의하여 수정, 補充되었다.

「레닌」은 資本主義 經濟體制下에서 부단한 자유경쟁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資本主義 경제발전의 불균등성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에 기초하여 「발전된 資本主義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프롤레타리아革命을 일으켜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一國 社會主義革命 승리의 가능성에 관한 理論을 내놓고 그것을 러시아에서 실현하였다.

그러나 「레닌」 역시 近代産業이 발달한 資本主義 國家의 노동계급이 連續적으로 「프롤레타리아革命」을 일으켜 한 나라, 한 나라씩 共產化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世界革命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中國이나 印度와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革命」이 수행될 때 帝國主義의 포위를 社會主義의 포위로 바꾸어 帝國主義의 멸망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고 定式化했다.

그리고 植民地 宗主國(후진국)들은 그 宗主國이 共產化됨에 따라 自動적으로 共產主義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따라서 「레닌」은 近代産業이 발달하지 못한 植民地나라 즉 후진국 노동계급은 그 宗主國 노동계급이 수행하는 「프롤레타리아 革命」의 후비군으로 밖에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 사태는 「마르크스」나 「레닌」이 예언했던 것처럼 서구나라의 발전된 資本主義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 革命」이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들에서의 共產主義運動, 노동운동은 오히려 剋제의 일로를 걷게 되었으며 蘇聯에서의 社會主義, 10月革命의 영향은 발전된 資本主義 나라보다도 植民地, 半植民地 나라들에도 더욱 급속히 파급되었다.

역사적 경험은 「러시아」에서도 짜아르 전체 제도를 전복하는 「부르조아」민주주의 革命을 거쳐서 社會主義으로 이행했듯이 共產主義者들이 주도하는 「프롤레타리아革命」은 발전된 資本主義 나라들보다도 오히려 뒤떨어진 후진국인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 후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국제 「파시즘」이 擡頭되면서 世界 도처에서는 「파시즘」을 반대하는 民族解放運動이 벌어졌고 이 불길은 구라파와 아시아 대륙을 휩쓸어 결국 2차 世界大戰으로 擴大되었다.

共產主義者들은 「파시즘」을 반대하는 민족해방운동을 共產主義 運動과 결부시키면서 정상적인 資本主義 발전단계를 거치지 않은 이 나라들이 社會主義으로 넘어가는 또다른 지름길을 摸索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은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단계를 거치지 못한 관계로 사회, 정치, 경제구조상 封建的인 요소를 다분히 內包하고 있었고 또한 共產黨의 力量도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조건하에서 당장 社會主義 革命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이로부터 共產主義者들은 社會主義革命 이전에 外來 帝國主義 剋락세력과 自國內의 封建 통치계급을 반대하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革命이라는 革命的 새 유형을 고안해 내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人民民主主義 革命論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다.

3. 人民民主主義 革命論의 本質

反帝, 反封建 人民民主主義 革命(일명 민족해방 人民民主主義 革命)의 本質은 문자 그대로 外來 帝國主義 剋락자들과 자국 내의 봉건 통치계급을 반대하는 民主主義革命으로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植民地 半封建的 社會制度를 철폐하고 人民民主主義 制度를 수립함으로

써 금후 社會主義 革命 수행의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革命이라는데 그 本質이 있다.

어떤 혁명에서든지 一般的으로 「革命의 性格과 任務, 動力과 對象 그리고 戰略과 戰術, 그 遂行方途」 등 共產主義者들의 이론과 혁명 사상과 이론은 아무 때나 생각나는대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이론바 革命理論과 戰略 戰術의 作戰原理는 우선 해당 社會의 性格과 社會經濟 구조를 먼저 규정하고 그 社會에 내제된 모순이 무엇이고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共產主義者의 입장에서 분석한데 기초하여 革命의 性格, 路線과 方針 그리고 그에 따르는 戰略과 戰術을 作成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이 植民地, 半植民地 나라들에서 수행해야 할 革命의 새 類型을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 革命이라고 이름 짓게 된 그 근거도 바로 여기에 理論的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은 正常的인 資本主義 발전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後進國, 특히 植民地, 半植民地 나라의 社會性格을 규정함에 있어서 植民地 半封建社會로 정의하고 있으며, 당면한 투쟁과업은 外來 帝國主義 침략세력과 자국 내의 봉건통치배들을 타도하는데 있다고 규정지음으로써 그 革命의 性格도 反帝·反封建民主主義 革命으로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외래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자국 내의 봉건통치계급을 반대하는 反帝·反封建 民主主義 革命에는 共產主義者들 뿐만 아니라 民族主義者들도 참가하며 노동자, 농민, 소상인, 민족자본가 그리고 종교인 할 것 없이 社會의 광범한 계급계층이 다 참가하게 되는데,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 革命에서는 매개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革命의 주도

권을 共產黨이 틀어질 수도 있고, 共產黨의 세력이 미약할 때에는 民族資本家들의 利益을 代表하는 우익정당이 그 영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바로 이런 사정으로부터 共產主義者들은 똑같은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 革命에서도 그 영도권을 누가 틀어잡는가 하는데 따라 革命의 구체적인 성격도 두 가지로 規定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 할지라도 민족자본가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우익정당이 革命의 영도권을 틀어쥐게 될 경우에는 그 性格이 「브르조아」 민주주의 革命으로 되고 그와 반대로 共產黨이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성격이 人民民主主義 革命으로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資本主義의 생산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民族資本家들은 그의 계급적 본성으로부터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여 투쟁할 수 없고 봉건세력과 이해관계가 여타 갈래로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植民地, 半封建의 경제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원치 않으며 反帝·反封建의 社會經濟개혁이 革命의 方法으로가 아니라 改良의 方法으로 수행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민족자본가들은 反帝·反封建 民主主義 革命이 계급적 착취관계가 그대로 보존되는 「브르조아」 民主主義 革命으로 끝날 것을 바라면서 자기 세력이 강할 때에는 革命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성격이 人民民主主義 革命으로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資本主義의 생산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民族資本家들은 그의 계급적 본성으로부터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여 투쟁할 수 없고 봉건세력과 이해관계가

여러 갈래로 절락되어 있기 때문에 植民地 半封建的 경제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원치 않으며 反帝, 反封建的 社會經濟개혁이 革命의 方法으로가 아니라 改良의 方法으로 수행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민족자본가들은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 革命이 제국적 착취관계가 그대로 보존되는 「브르조아」 民主主義 革命으로 끝날 것을 바라면서 자기 세력이 강할 때에는 革命의 주도권을 틀어쥐려고 관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共產主義者들은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 革命에서 민족자본가들과 비록 統一戰線은 맺을지라도 革命의 주도권은 필사적으로 고수해야 하며, 만약 共產黨이 우익정당에게 영도권을 빼앗겨서 그 革命이 「브르조아」민주주의 革命으로 수행된다면 資本主義가 더 부활되기 전에 共產黨의 영도하에 이번에는 민족자본가들을 때려부시는 人民民主主義 革命을 계속 일으켜 社會主義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 전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人民民主主義 革命論이란?

正常的인 資本主義 발전단계를 미치지 못한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共產主義者들이 당장 社會主義 革命을 수행할 수 없는 주, 객관적 여건하에서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가면을 쓰고 우선 현제제를 전복함으로써 정권을 共產黨의 수중에 장악하기 위한 이른바 革命을 한단계 꺾어서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북괴 金日成이가 이른바 南朝鮮 革命의 性格을 反帝, 反封建 人民民主主義 革命으로 규정하고 남조선에서 기필코 人民民主主義 革命을 수행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떠들어대는 그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4. 人民民主主義 독재와 그 政權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 革命」에서 共產主義者들은 統一戰線에 기초한 「인립정부」형태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것은 광범한 각계, 각종 군중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감언이설이다.

革命을 통해서 일단 자기수중에 권력을 틀어 쥔 다음 그들이 수립하는 정권은 철저히 人民民主主義 독재에 의지하는 人民民主主義 독재정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 革命단계에서 共產主義者들이 人民民主主義 독재정권을 필수적 요구로 하는 것은 그들의 전략적 목적과 관련된다.

이 革命단계에서 共產主義者들이 추구하고 있는 戰略的 목적은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다음 人民民主主義 독재를 무기로 하여 資本主義的 또는 植民地 半封建的 社會經濟制度를 청산하고 人民民主主義制度를 수립하자는데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제도를 철폐하고 이른바 <민주개혁>을 단행하는 행정에는 불가피하게 자본가들의 필사적인 반항에 부딪치게 되며 그들의 반항을 진압하는 첨예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되는 것만큼 共產主義者들에게는 人民民主主義 독재가 필수적인 요구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면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人民民主主義 독재란 어떤 것인가?

金日成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영토권을 다투는 두 개의 계급이 있다. 그 하나는 부르조아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계급이다. ……여기에서 정권은 지주, 자본가의 이익을 옹호하는 부르조아 독재와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의 노동독재라고 하는 것도 노동계급이 영도하는 부르조아 독재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결국 독재는 둘 밖에 없다. 「통일전선독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김일성 저작선집> 2권 135페이지)

金日成이가 말한 바와 같이 「부르조아」 독재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아닌 통일전선독재 즉 「제3의 독재」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저들이 주장하는 人民民主主義 독재란 과연 어떤 것이겠는가?

필경 「부르조아」 독재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 독재이겠는가? 하는 것은 이미 불을 보듯 명백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共產主義者들이 주장하는 人民民主主義 독재란?

한 마디로 말해서 노동자, 농민, 소시민, 근로인텔리 등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광범한 계급계층에게는 民主主義를 실시하고 지주, 자본가, <반동관료배> 등 여타의 착취 계급에게는 독재를 실시한다는 뜻으로서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人民民主主義 독재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의 차이는 그 양자가 적용되는 시기와 표현적 術語가 다르고 독재의 수법과 그 횡포성에 있어서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바 없는 共產黨의 一黨獨裁이며 首領 일개인의 독재이다.

人民民主主義 독재에서나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서나 독재자는 역시 共產黨의 수령이며, 그 독재의 대상은 유산계급 이데올로기 지주, 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이며 또한 共產主義를 마음 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共產黨의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는 모든 계급 계층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共產主義者들이 말하는 <인민>이라는 개념 속에 포괄되는 계급계층 즉 노동자, 농민이라 할지라도 共產黨의 독재에 순종하지 않는 일체의 <비 프롤레타리아적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共產主義者들이 이른바 首領 일개인의 독재를 그 무슨 人民民主主義 독재요 뭐요 하면서 人民民主主義를 표방하는 것은 광범한 근로자 대중을 현혹시켜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감언이설이며, 一人독재체제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다.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共產黨이 지배하고 있는 共產獨裁下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노동계급과 인민은 독재를 행사하는 지배계급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共產黨의 지배를 받는 독재의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이 人民民主主義 독재를 실시하는 그 時期는 反帝, 反封建民主主義 革命을 통해서 정권을 자기 수중에 틀어잡는 그 순간부터 人民民主主義제도가 수립되는 時期, 즉 다시 말해서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 革命段階에서 共產主義者들이 내세운 戰略的 과업이 완수되는 그 時期까지이다.

人民民主主義 독재를 무기로 하여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社會, 經濟개혁이 단행되고 人民民主主義 제도가 수립된 다음 社會主義 革命으로 돌입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共產主義者들은 人民民主主義 독재를 「프

롤레타리아」 독재로 바꾼다.

이렇듯 人民民主主義 독재는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의 萌芽이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人民民主主義 독재의 보다 공공연한 延長인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共產主義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人民民主主義 革命論은 그것이 어떤 社會正義와 民主主義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革命이 아니라 共產主義자들이 주도하는 社會主義 革命前夜의 첫 단계 革命을 목적으로 하는 사상, 理論, 方法論이다.

北傀 金日成이가 특히 1970년대에 와서 더욱 요란하게 南朝鮮 革命을 추구하면서 人民民主主義 革命論을 부르짖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南韓國民들의 反共思想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強化되었고 따라서 共產主義 口號를 가지고서는 南韓 국민들을 더 이상 眩惑시킬 수 없게 된 사정과 관련된다.

특히 국제무대에서 일어난 중·소간의 이념 분쟁과 그로 인한 분파의 형성, 월남·라오스·캄보디아 사태, 그리고 1·21사태와 울진·삼척 등지의 무장공비 만행사건 등은 남한 국민들로 하여금 共產主義 특히 괴수 金日成에 대하여 치를 떨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심각한 교훈을 찾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북괴 金日成의 對南革命 戰略은 피할 수 없는 암초에 부딪치게 되었고 사면초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심각한 위기로부터 出路를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金日成이 마침내 그 궁여지책으로 人民民主主義 革命論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金日成이가 그 어떤 색다른 구호를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털끝만한 기대를 걸어서도 안 되며 그 어떤 환상을 가지고 대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다.

<名將 名言>

◎ 指揮官은 자기 스스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戰爭에 반드시 나가 있어야 한다. 앉아서 접수한 보고란 남아 빠진 것이며 지휘관의 결심에 필요한 諜報로서는 거의 價値가 없는 것 뿐이다.

— 룬 멜 —

民風振作과 金宗直의 孝觀

1. 出生과 孝觀

金宗直의 字는 季溫이고, 그의 號는 估畢齊이며 善山사람으로 李朝 宣祖 때에 儒學의 正統을 세워놓은 江湖 金淑滋의 아들로 1431년에 태어났다.

그는 일찌기 治隱, 吉再의 門下에서 글을 배웠는데 그 단정함과 공경함이 지극하여 집

에 있을 때는 닭이 울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나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곤 하였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병이 들어 몸이 몹시 쇠약하여졌다.

그는 부친의 병을 염려하고 마음이 아파서 하느님께 호소를 하기 위하여 글을 짓기도 하였다.

官職에 있으면서도 항상 어머니에 대한 孝心 때문에 세 번이나 정부에서 물러나와 어머니를 봉양하기도 하였다.

그의 兄이 등창이 나서 몹시 앓고 있을 때는 의원의 말이 「지렁이의즙」이 좋다고 하여 그는 지렁이를 잡아 즙을 만들어 먼저 맛을 본 다음에 兄에게 주었더니 과연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兄이 불행히도 歿사하여 그는 兄의 유해를 고향에 모셔다가 조용히 장사지내어 애도하는 정을 다하였다.

또한 兄의 子弟인 어린 조카들을 자기 자식 이상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교육을 시켜 올바르게 길러 놓으니 그의 효도와 우애가 이와 같이 지극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孝心과 人間性이 좋아서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었음은 물론이요, 그가 벼슬에 있을 때나 平民으로 있을 때나 조용히 경건한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거니와 그는 孝誠이 지극하여 이내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 들어가 善山教授로서 오로지 후진의 교육에 힘썼다.

점필제는 효심이 강하여 昏定晨省을 정성껏 하였음은 물론이요, 일체의 侍奉을 철저히 하여 효성을 다 하였으며, 부모의 饗을 당하여 서도 한 모금의 물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

하였고 2월에 지은 여막에서 3년이 다 가도록 한결같이 生前에 부모를 모시듯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孝子였고, 한편으로는 후진을 교육함에 있어서 言行으로 斯道를 권장하여 마침내는 近世朝鮮의 교육을 개척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安陰縣新創鄉校記를 보면,

「학문을 위하는 정신의 根本은 孝悌로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신은 언제나 어느 때이고 지녀야 할 것이다.

집에서는 부모가 계시고 학교에는 스승이 계시니 그 복음고 살피는 것은 입에 혀같이 하여 정성으로 섬기면 비로소 그 공정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요, 집에는 형제가 있고 학교에는 벗이 있으니 우애하고 공손하여 서로서로 깨우쳐 나아가고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야 비로소 信義의 道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을 한다면 곧 배움이 학교를 떠나지 아니하고 德과 재주가 한 가지로 이루어져 이것이 다른 날에 향상을 떨치게 하고 조정에 나아가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德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막힘이 없이 될 것이다」고 한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孝思想을 통한 그의 인간교육과 그의 교육정신을 살펴 볼 수 있다.

2. 鄉校 學生들에게 준 글

그가 孝教育을 중시해서 밀양의 鄉校學生들에게 준 글을 보면,

「鄉閭의 풍속이 야박하고 조정의 政化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人心이 나날이 지칠어 가므로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매 그 病的要因이 대개 학교에 있으니 이는 밝게 교육을 하지 못한데 그 原因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참으로 교육을 옳게 실시하였더라도 곧 孝悌를 사람마다 익히서 그 教化의 風은 閭巷에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五倫은 각각 차례를 얻을 것이요, 주위에 백성들은 각각 그 業에 편할 것이요, 따라서 美風佳俗도 자연히 이루어 질 것이다.」

고 한 것은 孝教育을 중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孝로써 民風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교육으로 人材를 育成하였을 뿐 아니라 地方의 民風을 크게 일으키는 데도 힘을 썼다.

<國朝寶鑑>에 보면,

「김종직이 成宗에게 아뢰기를,

鄉謝禮와 鄉飲禮는 지방의 教育上 그 효과가 큰 바 있습니다.

臣이 守令으로 있을 때에 「향사례」와 「향음례」를 매년 실시하여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를 위로하고 才藝있는 자를 다음 순서로 하고, 불공하고 불손한 사람을 이 행사에 참석시키지 아니하였더니 이로부터 한 고을이 다 깨치게 되어 鄉風助長에 매우 효과를 보았습니다」고 하니 王이 이 말을 듣고 즉시 교서를 내려 이를 行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鄉飲禮」와 「鄉謝禮」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3. 「鄉飲禮」와 「鄉謝禮」

가. 鄉 飲 禮

해마다 10월 상달이 되면 지역사회에서 나

가 많고 德行이 있는 사람을 주빈으로 삼고 사람을 초칭하여 揖讓과 奏樂을 올리면서 술잔을 돌리는데 단순한 오락이 아니기 때문에 禮儀와 秩序를 엄숙히 하고 상제하는 誓詞를 읽는 儀式을 鄉飲禮라고 한다.

그런데 이 향음례도 地方의 鄉校에서 行하게 되는데 그 지역사회의 많은 선비들과 學生들이 모이게 되고 또 구경꾼도 오게 된다.

그 절차를 잠깐 소개하면, 매년 10월에 州와 縣에서 좋은 날을 택하여 主人이 손님을 戒告한다.

당일에는 손님을 學堂門 밖에서 맞이하는데 처음에는 지도자가 提議를 하고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 學堂에 들어온다.

이 때에 손님이 먼저 절을 두번 하면 主人이 이에 答을 하고, 이 禮가 끝나면 큰 소리로 낭독한다.

「우러러 생각하건대, 국가가 옛날부터 法을 지켜 禮敎를 숭상하니 이제 鄉飲을 오늘 거행하는 것은 단지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보다는 무릇 어른과 어린이는 각각 서로 근면하여 국가에 충성을 하고 부모에게 孝道를 하여 안으로는 집안에서도 화목하고 우애를 지키며 밖으로는 서로 향당에 親하며 서로 일러주고 깨우치며 서로 가르쳐주며 도와감은 물론이거니와 혹시라도 잘못됨이 있어서 一生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할지어다」라고 告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司正이 告하게 되면,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처음 들어올 때와 같은 절차로 두번씩 절을 하고 나오면 모든 손님(客)이 따라서 나오며 主人이 따라나와서 문밖까지 나와 헤어지는 人事를 한다.

이와 같이 「향음례」는 단순하게 음식을 나누어 먹게 함으로써 친목을 도모하는 目的外

에 上下백성이 근면 성실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兄弟끼리 우애를 지키며 이웃을 돕고 살아가는 生活態度를 기르게 한다.

나. 鄉 謝 禮

이 「鄉謝禮」는 民風振作운동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그 由來는 <文獻備考>에 보면, 成宗 8년에 王이 太學에서 大事를 行하고 副邑에서 鄉謝禮를 行하라고 命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成均館에서 실시하였던 大謝禮와 향교에서 실시한 鄉謝禮는 다 같은 禮讓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며 民風振作을 위한 教育行事라고 볼 수 있다.

이 行事는 每年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부모에게 孝道하고(孝), 兄弟끼리 우애를 지키며(悌), 국가에 충성하고(忠), 친우간에는 믿음(信)을 갖고 禮儀를 존경하는 義理있는 사람을 주빈으로 하여 揖讓과 酒盃, 弓射(활쏘기), 民樂(노래 부르기) 등을 통하여 主人과 客이 모두 어울려 하루를 즐겼던 行事인데 가장 강조된 점이 바로 禮儀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行事에서도 「향음례」와 마찬가지로 德行이 있는 사람을 표창하고 본보기가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옷사람을 공경하고 아름다운 鄉風을 造成하여 모범적인 인간이 되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孝·悌·忠·信하는 生活態度를 기르게 하여 밝은 社會를 만들고 국민을 敎化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었던 것이다.

4. 國民敎化에 노력

金宗直은 이와 같은 行事로서 民風을 振作

시켜 아름다운 풍속을 기르고 德行을 기르도록 하여 國民教化에 힘을 썼더니 당시 成宗은 매우 기뻐하고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王은 몹시 그를 사랑하여 左副承旨에 발탁하고, 또 다시 都承旨를 특별히 제수하였다.

그러나 그는 너무 겸손하여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사양을 하였다.

王은 말하기를,

「경의 文章과 政事が 足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 사양하지 마시오」

하였다.

그는 곧 吏曹參判同知經筵으로 옮겼다가 호남의 觀察使가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의 言行이 分明하고 人格이 뛰어났기 때문에 모두 그를 존경하였다.

그는 또 漢城府尹과 工曹參判, 刑曹參判을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많아지자 병이 들어 사퇴하고 밀양의 田廩에 누워 있으니 비로소 官職에서 사직됨이 허락되었다.

그가 높은 관직에 있었으나 그 가정이 아주 가난하여 生活苦에 놓여 있음을 볼 때 얼마나 청빈한 官吏였던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王은 그에게 本道에 명하여 쌀 70섬을 하사하고, 內醫를 보내어 補藥을 하사하기에 이르렀다.

壬子年(1492年 成宗 23年) 8月 19일에 죽으니 그의 나이 62歲였다.

그의 죽음이 王에게 전하여 지자, 이를 동안이나 임금의 조회를 정지하고 그에 대한 애도의 情을 表하였으며 그의 시호를 文簡公이라고 하였다.

<名將 名言>

◎ 가장 중요한 것은 混亂이 계속된 戰鬪狀況하에서 狀況을 判斷하는 일이다. 즉 많은 情報 중에서 확실한 情報를 착오 없이 判別하며 신속히 결심하고 주저함이 없이 勇敢히 실행하는데 있다.

— 大 물트케 —

金欽春將軍 三代와 花郎精神

1. 時代的 背景

三國時代라고 하면 대체로 고구려가 성립된 다음에 백제 그리고 신라까지 성립된 1세기 전후로부터 삼국이 서로 힘을 겨루던 끝에 7세기 후반에 신라의 三國統一이 이루어지기 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원래 이들 세 나라는 모두 주위의 세력들을

정복하면서 발전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구려는 북쪽에서 다른 두 나라보다 훨씬 앞서 중국세력과의 투쟁과정에서 성립하여 이미 1세기 초부터는 사방으로 出路를 개척하기 시작하였다.

백제와 신라는 이에 반하여 훨씬 늦은 3~4세기에 고대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지만 4세기로 무렵부터는 삼국간에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고국원왕 때에 중국의 전연이란 나라와의 싸움에서 크게 패배한데 이어 백제의 근초고왕과의 평양전투에서 왕이 전사하는 비운을 당하기도 하였다.

고구려는 이러한 위난을 계기로 다음 소수림왕 때에 불교의 수용과 태학의 설립, 그리고 율령의 반포 등으로 국가체제의 정비를 이룩하였다. 이렇게 안으로 정비함으로써 고구려는 前代의 실패를 극복하고 밖으로의 발전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였으니 광개토왕의 영토확장은 바로 그러한 정복국가에로의 실력축적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광개토왕의 위업은 다음대의 장수왕으로 계승되어 5세기 초에 고구려의 전성시대를 이루었다. 이어 왕은 427년에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고 중국과는 남북조와 모두 외교관계를 터 국제적인 지위의 향상을 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南下政策의 압력으로 백제는 개로왕이 전사하고 도읍을 웅진으로 옮겨야 했고, 비록 백제와 같이 국토가 축소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 신라도 고구려의 남하에 위협을 느끼지는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백제와 신라는 政守同盟을 맺어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6세기 후반에

이르면 정세는 다시 크게 달라진다. 고구려에서 빼앗겼던 한강유역을 되찾고자 신라와 함께 북벌을 단행했던 백제는 신라의 맹약파기로 회복했던 영토를 신라에게 빼앗겼을 뿐 아니라 성왕이 전사하기까지 하였다.

이렇게 신라는 한강유역을 차지함으로써 반도의 중앙지대로 진출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세력을 격리시켰을 뿐 아니라 이제는 과거와 달리 남양만에서 직접 중국과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고구려와 백제는 이제 신라를 공동의 적으로 돌리게 되었고 따라서 신라는 반도 안에서 고립되는 형세였던 것이다.

2. 中國大陸의 動向

한편 중국대륙에서도 이무렵 새로운 상황의 변화가 있었으니 수나라(581~617)가 대륙 내의 오랜 대립, 분열을 통일하고 중원을 지배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중국대륙에 있어서의 이러한 통일대제국의 등장은 국경을 서로 접한 고구려와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에 고구려는 중국 북방 초원지대의 들끼와 연결하여 수에 대항하려 하였으며 급기야는 요서지방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하게 되었다.

여기에 수나라의 文帝는 30만군으로 고구려에 침입하였으나 충도에서 실패하고 말았고 다음 陽帝는 즉위 후 온 힘을 기울여 준비한 끝에 100만이 넘는 대군으로 전례없는 일대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고구려는 을지문덕과 왕의 동생인 건무가 각각 육군과 수군을 지휘하여 적을 깊숙이 유인해 놓은 다음 먼저 건무는 대동강에서 적의 수군을 궤멸시켰으며

을지문덕은 살수대첩으로 적의 육군을 격멸한 데 이어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전멸시킨 戰史上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대승리를 쟁취하였다.

수나라는 이와 같이 거듭되는 무리한 戰爭의 참담한 패배로 나라 안에서부터 동요된 끝에 이연, 이세민 父子의 반란으로 멸망하고 말았으며, 이로부터 이들 父子가 세운 당나라가 중국대륙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대륙의 새로운 세력인 당(618~907년)이 일어날 즈음에 고구려에서는 건무, 즉 영류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거듭되는 전쟁으로 말미암은 국력의 피해를 감안하였음인지 당과의 화친을 도모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무신들의 주장을 당의 화친제의를 받아들여 사신을 교환하고 당의 요청에 따라 수와의 전쟁에서의 포로를 서로 교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은 세계제국을 건설할 야심을 가지고 제도를 정비하고 국력을 축적함과 아울러 주위의 몽고, 서장지방을 아우르면서 점차 고구려에 대하여 교압적인 태도를 보이니 고구려에서도 유화책을 버리고 천리장성을 쌓는 등, 대비책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런데 천리장성의 공역이 끝나기도 전에 연개소문을 중심한 소장 무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과 대신들을 죽이고 보장왕을 새로 세웠으며 연개소문 자신은 대막리지가 되어 무단적인 독재정치를 시작하였다.

그는 대외적으로도 영류왕 때와는 달리 당나라에 대하여 강경한 정책을 썼다. 따라서 당의 입장에서 연개소문의 집권은 반갑지 않은 사태의 진전이였다.

이 무렵의 반도 안의 상황은 앞서 살핀 6세기 후반 이래 신라가 고립되어 백제와 고구려

의 공격을 받는 형세였다.

그러므로 신라는 고립에서 벗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당과의 연결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들테면 고구려와 백제 및 倭로 연결된 세력과 당과 신라의 연결세력이 서로 맞서 각축을 벌이게 된 셈이었다. 당시 세계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수, 당의 동양제패 기도에 대한 방파제의 역할을 한 고구려의 승리는 민족의 영광된 긍지를 되새기게 하는 사실이었으나 끝내는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다.

실책한 당이 그 뒤로는 작은 규모로 자주 침공하여 고구려를 괴롭히려 하는 한편 고구려 배후의 신라와는 더욱 밀착하여 먼저 백제를 쳐 없애으로써 고구려를 고립시켜 놓으려고 도모하였으며, 신라는 태종무열왕, 김유신같은 지도자 밑에 거국일치의 태세였던 반면에 백제는 지배층의 부패로 계백 한 사람이 버틸 수 없었고 고구려는 독재자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권력의 후계문제로 내부 분열을 일으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다.

3. 花郎 盤屈의 犧牲精神

신라의 三國統一의 기쁨은 한 세기를 수련해 온 화랑도의 승리인데, 三代를 두고 화랑으로서 국가에 봉사한 一門이 있다.

즉 金欽春, 盤屈, 令胤의 三代이다.

金欽春은 진평왕 때 화랑이 되었으나 김유신과 같은 때 사람으로 자세한 활동은 알 수 없으나 단편적인 기록이 「三國史記」에 나타나 있다.

金欽春은 金庾信의 아우이니 舒玄의 둘째

아들이요, 김수로왕의 12代孫이다.

金欽春은 대장군 김유신, 黃品一 등과 같이 정병 5만명을 이끌고 무열왕 7년(660년) 7월 9일에 黃山벌에 이르러 미리 진을 치고 신라군을 기다리는 백제 계백의 5,000결사대와 4번을 싸웠으나 싸움마다 불리해 군사들의 기력이 다했다. 이 전투가 三國統一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었기에 신라군은 그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이 때 김흠춘 장군은 그의 아들 반굴을 불러 간곡히 말했다.

「남의 신하된 사람은 충성을 다 해야 하고, 남의 아들이 되어서는 효도를 다 해야 하며 위급한 일을 당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 충성과 효도를 다하는 일이다」

아버지 金欽春의 말을 들은 盤屈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창을 쥔아잡고 곧장 백제군의 진영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어린 화랑 盤屈 혼자로서는 백제군의 5,000결사대를 어찌할 수가 없었다. 수십명의 적을 창으로 찌르면서 용감히 분전하였으나 백제군사들의 창칼 앞에 무참히 죽음을 당하였다.

이를 보고 있던 品一장군이 이번에는 자기 아들 官昌을 불러 용감히 싸우다가 죽을 것을 명령하였다.

관창은 말을 몰아 적진 깊숙이 쳐들어 갔다.

이 때에 계백장군은 어린 관창을 한 번은 용서하였으나 두번째는 그 이상 용서할 수 없어 관창의 목을 베어 말 안장에 매어 보내니 그의 아버지 品一장군은 官昌의 머리를 들고 호르는 피를 씻으며,

「내 아들의 얼굴 모습은 산 것과 같구나, 국가의 일을 위하여 싸우다가 죽었으니 후회할 것이 없다.」

고 눈빛하나 변하지 않고 장엄하게 말하였다. 이것을 본 신라의 군사는 반굴과 관창의 죽음에 자극제가 되어 사기 백배하여 죽기를 맹세하고 용감히 싸우니 백제군은 중과부적으로 결국 패하고 말았다.

신라군은 다섯 번 싸움에서야 겨우 승리를 하여 백제의 계백을 패하게 하였다.

4. 花郎 令胤의 臨戰無退 精神

이 승전의 밑거름이 된 반굴이야말로 三國統一의 대업을 완수하게 된 첫 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값진 것이었다.

뒷날 문무왕은 김유신, 김인문과 함께 신라의 三寶로서 김흠춘을 꼽았다.

반굴의 아들이요, 김흠춘의 손자인 영운은 그의 家門이 그렇듯이 어려서부터 명예와 절개를 지니고 있었다.

神文王 때 고구려 잔적 悉伏(실복)이 報德城에서 잠복해 반란을 일으키므로 王은 이의 토벌을 명하고 화랑 김영운을 黃衿誓幢步騎監으로 삼았다. 김영운은 이명을 받고 출정함에 앞서,

「내가 이번에 출정하면 조상들과 친구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싸우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리고 출정하여 반란군과 부딪치니 누군가가 말하기를 반란군은,

「장막 위에 깃을 친 제비와 같고 숲 앞에서 노니는 물고기와 같아 반드시 죽을 목숨이면서도 하루의 삶을 다투는 것이다」

고 하며, 급히 쫓지 않아도 제대로 쫓아갈 것이니 서둘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운은,

「싸움에 임하면 용기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미 『禮經』에 있다. 군사는 오직 진격할 뿐 후퇴를 모른다는 것이다」

고 하며, 적진으로 뛰어들어 맹렬히 싸우다 전사하였다.

신문왕은 화랑 김영운의 이러한 전사 보고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할아버지에 아버지에 그 아들이 없었을 것이다」

고 하면서 벼슬을 추증하였다. 이처럼 金欽春 三代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아끼지 않았으니 어찌 고귀한 정신이 아니겠는가.



라란빛 라리에

俞 金 浩

죽음에서 느껴지는 일종의 친밀감과 유혹 같은 것. 전혀 공포가 느껴지지 않는 죽음의 빛깔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쩌면 불행한 일인지도 모른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어 온 죽음에 평소의 무관심과 객관성이 지워지며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그 죽음이 지닌 그늘의 습기찬 호흡과 끈적거림이 이미 우리의 내부에서 동화(同化)되어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내가 죽음에 대해 그 친밀스러운 동화의 감정을 받아들인 건 성희(聖姬)의 죽음이 있고난 후였는지 모른다.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나는 꽤 많은 죽음을 보아 왔었지만, 언제나 그것은 먼 객관성 위에 있었고, 대개는 공포와 치절을 늘 동반하고 있었다는 것이 옳은 얘기일 것 같다. 그러나 성희의 죽음은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들의 할머니와 그 할머니네 시어머니의 죽음에서 느꼈던 소란스러움, 수다와 삼베 두건, 외로 끈 새끼의 굵은 허리띠, 대막대기, 꽃상여, 선산, 지관(地官)이 가지고 다니던 그 넓은 나뭇판, 명당, 며칠이고 화롯불을 밝혀 놓은 마당 한쪽에서 끓이던 비릿하던 국 냄새와 떡을 손에 들고 뛰어다니던 동네 아이들의 기억에

서 풍겨오는 장례(葬禮)에서 느꼈던 죽음과는 너무도 다른 것이었다.

참으로 우리들의 할머니가 오래도록 병석에 누워 있게 되어, 늘 집안 어른들이 몇 번인가 그 마지막 임종에 참석치 못하는 불효를 범치 않기 위해 다른 일을 못하던 그런 죽음의 느낌과도 또 다른 죽음, 역시 우린 너무 많이 보아 왔었다. 하기가 장난감이라곤 칼빈총과 M1 소총의 탄피들로만 이루어졌던 우리의 전쟁놀음들에서 어른들의 죽음은 그 꽃상여가 갖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죽음을 우리의 가슴들 속에 형상화 시켰었다.

우린 개울 둑 길을 꽤 오래 걸어서 국민학교엘 다녔다. 그 개울은 꼬불꼬불하게 저수지를 출발해서 논둑길을 훑고 그 국민학교가 있는 바닷가로 언해 있었고, 우린 책보를 조금 느슨하게 어깨에다 메고는 그 개울 길들을 매일 매일 걸어다니며, 부엌계 구름같은 먼지를 항상 물고 다니던 군용트럭을 향해 손을 흔들며 대곤 했었다. 그 군용트럭에 타고 있는 군인들의 모자와 등에는 나무가지들이 꽂혀 있기 일췌여서, 우리는 그 먼지를 신나게 내며 달려가는 나무가 지들을 멀끔히 바라볼 때도 있었다. 그 움푹하고 있는 사람들과 혹은 하룻

밤 사이에 신작로 가의 내가 뱀새집을 알아놓은 계곡에 덩굴고 있는 시체와는 전혀 관계지어 생각할 수가 없었다.

때로 시체들은 밤새 천둥 소리처럼 요란스러운 총 소리와 더불어 우리가 늘 우리들의 호주머니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신나게 탄피를 주울 수 있다는 초조로움 속에서 우리가 지우개와 몽당 연필이 달랑거리며 소리내는 책보를 끼고 매일매일 지나는 개울둑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그 시체들이 전혀 우리를 국민학생보다도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그 시체에서 풍기는 지독한 냄새만은 질색이어서 우리는 늘 코를 쥐고 그 시체들 곁에서 탄피 수집에만 열중했었다. 때로 탄피에는 핏방울이 엉켜 묻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풀 위에다 문질러 닦고는 퇴퇴하고 침을 뱉었다.

그 무렵의 우리는 그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고 우리 곁에 있을 것이어서 우리는 자라지 않고 늘 탄피놀음이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로운 생각에 젖어 있었던 것 같다. 늘 총 소리는 들렸고, 사람들은 가끔 죽어갔다.

그러나 그런 수 많은 죽음들에서도 우리는 우리들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부산스러운 소란함과 그 소란함 속에서 괜히 들뜨고 신이 났던 일과의 연관성을 찾지는 못했다. 아마 우리는 모든 것을 연결시켜 생각할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 때, 성희와 같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였다고 생각된다. 성희는 계집애였기 때문에 나보다 겁이 많았고 사실 울보였다. 그녀는 나보다 두학년 아래였는데 학교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서방각시」 「서방각시」하고 놀리기라도 하면 금방 눈물이 글썽해지곤 했으니깐, 그래서 나는 성희가 울음을 터뜨리지

않도록 학교 후문으로 나 혼자 들어가고 성희를 정문으로 들어가도록 해 주곤 했었다.

그리고 성희는 참 착한 아이였다. 전쟁이 나기 전 그 개울 가에서 탄피를 주워모으는 놀이같은 걸 우리가 몰랐을 때는 우리들은 늘 개울에서 봉어새끼나 미꾸라지를 잡곤 했는데, 그 때는 언제나 내 뒷도리를 들고 나를 기다렸다. 그 때 그녀는 나의 심한 장난과 싸움질 때문에 옷에 붙은 흙이나 풀들을 하나씩 하나씩 깔끔히 닦고 뜯어내 주곤 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기껏 내가 고무신짝으로 잡아낸 봉어새끼나 미꾸라지 새끼들을 집까지 가져가기 위해 그녀의 신발을 빌리기가 일쑤였다.

개울은 신작로를 뚫고 저수지에 연이어 있어서 우리는 개울 둑에서 신작로를 올라서면 따끔거리는 신작로 길을 봉어 새끼 때문에 맨발로 걸어 올라가야 했다.

그러나 성희는 한 번도 신발을 빌리자는 내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점점 고무신을 벗어서 내가 잡아 온 봉어새끼들을 옮겨 담아 우리집까지 들고 가는 것이었다.

한 번은 한 발이 맨발인 그녀의 작은 발이 돌부리에 채여 넘어졌기 때문에 봉어들이 길 바닥에 쏟아져서 나는 그녀를 마구 욕한 적이 있었다.

성희는 내 지독한 욕설에 소리도 못내고 훌쩍여 울면서 다시 개울까지 가서 고무신에 풀을 채워 들고 왔었다. 그 때 나는 성희의 무릎이 깨뜨려져 피가 줄줄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심히 욕을 했나보다고 조금 후회했지만 전혀 입 밖에 그런 말을 내진 않았다. 성희는 우리집 앞까지 와서 고무신을 내밀었다. 내가 그 고무신의 봉어를 우물에 가서 다른 곳에 옮겨 담을 때까지 성희는 맨

별이 쬐는 문 밖에서 내가 신발을 가져다 주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성희는 울보였지만 언제고 크게 소리내어 우는 일은 드물었다.

우리가 시체 곁에서 탄피를 줍는 일들을 하고 있던 그날은 성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울기 시작했다. 그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내가 들은 것으로는 제일 큰 소리를 내면서 울어댔다. 내가 마구 욕을 퍼부어대자 성희는 내가 때리더라도 할까봐 물러서곤 하던 다른 때와는 다르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나를 올려다보며 「삼촌이야, 삼촌이 죽었어」하면서 더 커다랗게 울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끼치면서 무서워졌고 그녀가 말한 그 삼촌의 시체를 겨우 내려다보았다. 한 번도 그 시체들에서 그런 두려움을 느껴보지 못했던 내게 순간으로 휩싸여 들던 그 공포의 정체는 그 무엇이었을까? 우리들 완고하던 재판의 엄청난 흔들림, 나는 가끔 지금에야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 시체는 고개를 옆으로 한 채 죽에 걸쳐져 있었는데, 등에는 붉은 글씨로 「인민의 적」 「반동」이라고 써어 있었다. 그런 글들을 여러 번 우린 시체에서 보아 왔지만, 옆으로 한 얼굴 위와 배에서 비어져 나온 창자 위에 수없이 내려 앉은 푸른 빛나는 작고 날쌔 파리떼들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너무 많은 파리떼들 때문에 그 시체에서 빠져나온 창자는 햇빛에 눈이 부신 느낌이었다. 「삼촌이야, 삼촌」 성희는 계속 울었다. 그렇게 「삼촌이야, 삼촌」하고 성희가 자꾸만 응얼대자, 내겐 문득 「죽인자」와 「죽은 자」의 관계가 생각되었고 조금 전의 공포가 더욱 무겁게 가슴을 옥조여오기 시작했다.

「어제 잡혀 갔어. 다락에 숨었다가.」 「다락에?」 그러다가 문득 나도 아버지가 멀리 친

척 집에 갔다는 어머니의 얘기가 참말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났다. 가끔 한밤중 나는 꿈결에서 아버지의 음성과 아버지에게서 풍기던 그 독특한 몸 냄새를 맡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것이 늘 내 꿈이었거니 생각해 왔는데, 점점 나는 무서움에 견딜 수 없어졌고, 새파랗게 질려 간신히 성희의 손을 끌고 신작로까지 뛰어 왔다. 만약에 내 아버지가 저런 꼴로 「반동」이라고 써붙여진 채 시체가 되어 있다면, 하는 상상이 성희를 이해하게 했고 성희가 불쌍해졌다.

내가 성희의 손을 잡고 걸어가진 아마 그것이 처음이었을 것이다. 또한 죽음이 그런 식의 공포로 나를 엄습해 온 것도 처음인 셈이었다.

죽음은 늘 소란스럽거나 분주한 속에서 펜스래 신이 나서 돌아다니는 그런 분위기거나 우리 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죽음」이었던 것이, 형체 잡히지 않는 공포로써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위협해 온 것이었다.

나는 시체가 있는 곳에서 탄피를 줍는 일은 그만 두리라고 생각했다. 사실 우리 포래의 아이들 중에는 제집애 같이 겁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서 시체 곁에서 옮겨붙은 낫방울들이 검붉게 묻어 있는 탄피를 풀섭에다 뒹는 일 따위는 엄두도 못 낼 아이들이 더러 있었다. 우린 그들을 「겁쟁이」라고 놀려주었는데, 그들은 그 놀림이 싫어서 조금씩 용기를 배워가는 애들도 있었지만, 야에 우리를 보기만 해도 뺨이나 지령이를 본 듯이 비실비실 피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대개 깨끗이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들이었다. 「엄마가 그런때는 절대로 가지 말랬어」라고 그들은 그들의 겁이 많은 것을 변명했다.

성희 삼촌의 시체를 본 날은 하루종일 기분

이 언짢아서 나는 오후 내내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다. 한되짜리 빈 소주병에 억지로 밀어넣어 두었던 봉어들(뽕)이 훨씬 커다랗게 되어 병꼭대기로 밀어올라와 죽어 있었다. 봉어는 병속에 밀어넣어 두면 대개는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버렸다.

나는 그것들을 꺼내서 우물가에 팽개쳐 버리거나, 때로 닭에게 주곤 했는데, 나는 그날 오후 아마 닭이 마침 발견하지 못해서 그대로 땃밭에 말라버린 봉어새끼들 위에 달라붙은 파리떼들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들은 성희 삼촌의 터져나온 검붉은 창자위에 물려 있던 것들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퇴퇴 침을 뱉으며 그 자리를 물러 나왔으나, 사뭇 오래도록 욕지기를 느꼈다. 그토록 우리에게 무관한 것으로 스쳐갔던 죽음이,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공포감, 그것은 파리떼가 주는, 그 날썬 움직임과 빛남 때문에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듯 싶었다.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푸른빛을 내고 있는 그 운동감과 완전한 정지의 차이, 더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혈연에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두려움 속에서 나는 오래도록 욕지기를 느끼다가 황혼 무렵에야 두려움이 가시면서 급격스럽게 밀려드는 무위로움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어디까지나 외부적인 힘에 의해 이루어질 거라는 나의 어린 상식을 반복시킨 또 다른 형태의 죽음을 그 무렵 내가 겪어야 되었던 것에 있다.

그것은 그네들 붉은 군대의 철수가 시작될 무렵, 그들이 떠날 거라는 소문들을 지나는 얘기로 알게 되었을 때였다. 앞에서 말했지만 나는 꿈과 현실의 몽롱한 상황의 깊은 밤에 낮게 웅얼거리는 아버지의 음성과 어머니의 목소리(를 아버지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독특한

몸 냄새와 함께 가끔 맡고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최면 같은 것이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늘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어머니는 뒷문전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 그런 똑같은 상황 지점에서 나는 아버지를 느끼고 그것은 아울러 그 붉은 군대가 곧 떠날 거라는 선입관을 주었다.

나는 이미 시체 곁에서 탄피를 चु는 일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들 멀리서 온 「나쁜사람」들이 빨리 떠나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친척 집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길 바랐고, 학교가 빨리 시작되어서 우리 예쁜 여선생님을 보게 되고 성희에게 윗도리를 맡기고 봉어를 잡게 되길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그런 바램 속에서 엉뚱한 사건이 내겐 색다른 또 하나의 죽음을 가르쳐주었다.

황혼이었다.

서넛 하늘이 온통 빨갱게 물들어서 그 붉은 빛으로 하여 골목과 또 마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우리집의 담벼락들까지 그 색깔에 휩싸이는 느낌을 주는 때였다. 성희가 우리집 대문앞에서 나를 불러내지도 못하고 빠끔하게 문틈으로 집안을 들여다 보는 걸 알아내고, 나는 살금살금 담벽 안을 돌아 성희의 눈에 띄지 않도록 대문가로 걸어가서 정면만을 열심히 살피고 있는 왼쪽편 문틈에다가 가만히 성희쪽에다가 오줌을 내 갈졌다.

성희는 열심히 내가 나오길 기다리던 참이어서 내가 자기 바로 가까운 판자 하나 사이에서 그 틈 사이로 자기 치마폭에다 오줌을 싸는 걸 한참이나 모르고 있다가 「아이그메!」 질겁을 하며 젖은 치마폭을 울삼이 되어 거머쥐고는 한 걸음 물러섰다.

나는 대문을 박차고 나서며 「오줌싸개…, 오 오줌싸개야…, 키스고 소금 얻으러 왔니? 키스고 소금 얻으러…」하고 놀려댔다. 성희의 얼굴은 그 황혼으로 해서 더욱 빨갛게 되어 어쩔줄을 모르고 훌쩍여 울기 시작했다. 「오 오줌싸개…, 오오줌싸개야아…」 나는 계속해서 놀려댔고, 성희는 더욱 큰 소리로 훌쩍거렸다. 「학교 가아서 소문낸다야…, 오오줌싸개…」 「나는 모처럼 기분이 좋아서 손벽까지 치면서 웃어대었는데, 그 때 어느 사이엔가 종을 맨 붉은 완장을 두른 사람 두 명이 불쑥 우리 집 대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나의 웃음도, 성희 울음도 동시에 그쳐 버렸다. 그리고 우린 어느 새 언젠가처럼 손을 꼬옥 마주 쥐고 있었다. 성희의 얼굴은 해쓱하게 변해갔고, 좁고 가녀린 어깨가 파들파들 떨리는 듯 보였다. 성희가 떨고 있다고 느껴져 내 몸도 갑자기 땀땀이 굳어갔다. 「도망가, 안 가면 죽일지도 몰라,」 성희가 간신히 소근거렸다.

그 무렵 집 안에서 굉장히 커다란 소리의 육지거리와 문짝을 발로 차는 소리에 어머니의 울음 소리가 섞여 들려 왔다. 집에는 어머니 뿐이었다. 그 어머니의 비명과 더불어 내 눈 앞에는 무수하게 그 파란빛이 영롱하던 파리떼들이, 그리고 터져나온 성희 삼촌의 창자에서 쥐었던 코를 놓았을 때 덩벼들던 지독한 냄새가 울컥 밀려들었다. 수십마리, 수백마리의 그 파란빛나던 파리떼들이 부산스럽게 빨간 저녁놀 전체를 휘젓으면서 내 눈앞으로 몰려들었을 때, 성희는 다시 한 번 「도망가」했다. 그러나 웬 일인지 심한 육지거리가 느껴지며 나는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나는 성희가 손을 끄는대로 비틀거리며 움

직였다. 어머니의 비명이 높아졌고, 그 남자들의 외치는 소리와 온 몸을 서늘하게 식혀오는 웃음소리들이 뒤범벅이 되어, 나는 이상스럽게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점점 움직일 수가 없어졌다. 우린 겨우 담벼락을 돌아 집 뒤편 언덕 밑에 쭈그리고 앉았다. 성희의 얼굴도 파랗게 질려서 이마에는 땀이 송송 배어 있었으나 눈만은 말끔히 눈물이 걸린 채 푸른빛을 날카롭게 띄우고 있었다. 「네 입마를 죽일 거야,」 성희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바다쪽에서 비행기 한 대가 재주를 부리듯 지나며 커다란 불기둥이 일었다. 계속해서 엄청나게 큰 콧소리가 들리면서 어머니의 외침을 빨아들여 버렸다. 그 소리는 연이어 계속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반의 개구장이 하나가 언덕 밑에서 주워 온 수류탄을 돌로 두드리다가 그것이 폭발해서 그 아이를 조각 조각 찢어버렸을 때보다 더욱 크게 들렸다. 나는 그애하고 탄환 껍질 때문에 싸운 적이 있어서 그애의 조각난 몸뚱이들을 선생님 때문에 자세히는 못봤지만, 그 조각들에서는 파리떼들을 보거나 느끼진 않았다. 이상한 것이 발견되면 손을 대지 말고 선생님께 알려야 한 다던 선생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죽은 그 녀석은 나보다 탄환 껍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고 얼굴에 주근깨와 손톱자국이 많은 녀석이었다. 잠시 그 불기둥과 비행기, 수류탄 폭발로 죽은 반 아이, 계속해서 들려온 기관총 소리로, 우리는 귀를 막고 엎디어 있으면서 잠시 집안 일들을 잊고 있었다.

어둠이 점점 빨간 저녁놀을 밀어내고 덮여 오기 시작했다. 나는 어두워지면서 으스스 추워졌고, 성희와 맞닿아 있는 옆구리 부분이 따뜻하다고 느끼면서 다시 그 파리떼들을 생

각했다. 베가? 고파왔다. 「네 집에서 총소리는 안 났어 빠르게 우리 집을 뛰쳐나간 그 불은 완장을 찬 나쁜 어른들의 그림자가 멀어졌을 때 성희는 가만히 내게 말했다. 「미국 비행기였어 아까」 사실 전에 안 느낀 생각이었는데 그날은 성희가 나보다 두 반이나 아래인데도 나보다 훨씬 어른인 것같은 생각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문 앞으로 가서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마당 안을 대문 틈 사이로 들여다 보았다. 집 안은 너무 조용했다.

우린 조심해서 대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얼마큼 망설이다가야 어두컴컴하게 불을 아직 안 켜 방문을 열었다. 순간 방 안에서는 피 냄새 속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얼굴과 더불어 또다시 그 수 많은 파리베들의 웅웅거리는 소음을 들었고, 나는 엉겁결에 방문을 광 달아버렸다.

어머니는 아래옷을 뽕뽕 벗기운 채 다리 사이에 깔이 깔혀, 피 냄새 속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마루를 뛰어내려 대문 쪽으로 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콧속하고 따뜻한 손에 안겨들어, 꿈인지 잠결인지 모르는 속에서, 늘 없게 달았던 다정한 몸냄새를 맡으며, 그가 부득거리며 이를 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밤 새 무서운 꿈에 쫓기면서 땀을 흘렸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참으로 오래간만에 아버지의 품 속에 안겨 있는 걸 알았고, 공산군이 둘러갔다는 아버지의 얘기와 어머니의 신음을 역시 옛날의 방들에서처럼 멀리 들었다.

이튿날 마을에는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그 숨어버렸던 태극기가 펄럭였다. 그리고 아버지가 잠든 사이 매들보에 목을 매어 숨져버린 어머니의 시체를 앞에 두고 몇 사람 친척들이

침울하게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내기 알기로는 처음으로 소리를 내며 울었다. 나는 흰 보자기가 덮여진 어머니의 시체 곁에 가지 않고 아버지의 등 뒤에서만 있었다.

방문을 열었을 때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광경이 나오시는 알 수 없는 열등감과 불쾌감을 물고 와서 나는 어머니의 시체가 싫었다. 더구나 한 마리도 날아들진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 파란 빛을 띤 파리들이 어머니의 피부성이 된 다리 사이에 물러들어 있을 것같은 착각이 나를 깜짝거리며 놀라게 했다.

자살이라는 말과 그 자살이라는 말이 갖는 전혀 다른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왜 어머니가, 아주 잠깐 사이 아버지의 잠든 순간을 틈타 억지로 몸을 일으켜 나를 얻고 다니던 흰 띠를 매들보에 매어서 목에 걸었나를 알게 된 것은 훨씬 나이 든 후였다.

그리고 어떤 의미 하나의 탈출구로서의 자살이 지닌 당위성을 인정할 만큼 나도 성장되어 갔다. 그러나 나의 뇌리에서는 우리들 주변에서, 배로 미화되고 감상성을 띤 채 자주 화제의 대상이 되는 그 자살이라는 어휘가 그날 밤 방문을 열었을 때 보았던 끔찍한 광경을 연상시켜서, 때로는 분노와 증오를 느끼게 했다.

적어도 죽음은 역시 고전적인 우리들 할머니의 죽음 같은 것이어야 한다는 향수가 내겐 늘 있었다. 빨강고 흰 꽃송이들이 클레클레 달리고 상복을 입고 그 꽃상여 뒤를 따르는 자손들, 구슬픈 요령소리, 「어허이 어허이」 꿈결 같은 상투꾼들의 음성이 뒤범벅되어 호상이지, 압 호상이고 말고, 죽음은 그런 식으로 자연의 질서 속에 있어야 했다.

우리는 다시 나이 들면서 점차 우리들 주변에서 불쑥불쑥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죽음들

에서 그 죽음이 결코 먼 곳의 이야기거나, 더구나 어떤 질서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노와 허무를 우리의 사색 속에 심어갔다.

더구나 저 1960년의 우리들 대학생들 때의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들 갔을 때, 우리의 분노는 너무 엄청난 것이었다. 우리를 지켜주고,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정규 경찰들 손에서 우리들이 알아온 정의 때문에 친구들이 숨져 갔을 때, 우린 너무 당황했다. 그 젊음의 울분과 걱정이 가시고 났을 때, 우리들은 몇 개의 병원에 입원된 우리의 동료와 그리고 이미 죽어버린 친구들에게 돌려진 역사의 영광 속에서 커다란 허탈을 보았다.

깊숙한 심연으로 가라앉아드는 그 슬픔은 외부의 찬사 속에서 고독한 회의에 젖었다. 찬사는 인간을 고독하게 만든다. 더구나 비극과 희생 위에 쏟아져 내리는 영광은, 현란하면 할수록 그 진격한 내면으로는 동떨어진 고독의 미궁으로 그 찬사의 주인공을 끌어들이는 또 다른 속성을 지니버린다.

우린 변화된 역사 속에서 이미 눈을 감아버렸거나 영원히 불구가 되어 버린 각 개인을 생각했다. 집단으로 일어난 행동과 그 집단의 죽음이 가지는 객관적 장렬감과는 전혀 별개로 개인 개인이 갖는 죽음의 의미, 죽음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개인에게는 어떤 형태의 것으로도 보상이 불가능한 단애였다. 하나의 끝, 모든 것의 무관심과 거부.

철이 들며 지켜본 동료들의 죽음에서 저 어린 시절부터의 수 많은 죽음이 또 다른 어두운 색채로 덮이면서 무겁고 어지럽게 밀려들었다. 그러면서도 나를 떠나지 않는 그 파란

빛나는 파리떼들의 웅성거림은 모든 죽음에 연상작용을 일으키며 내 눈앞을 어른거리대었다.

나는 그동안 사실 오래도록 옛날의 성회를 잊고 있었던 셈이었다. 어머니의 자살이 준 상처로 인해 아버지는 그 이듬해 나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버렸고, 나는 결국 그 시골의 독길과 하얀 신작로들을 꿈 속에서 본 것처럼 기억 속에 두고 서을나기가 되었다.

때때로 나는 외부가 떨정한 내과질환을 앓듯 향수를 앓으면서, 그「흙식」속에서 성회를 동화처럼 그려보곤 했지만, 10년이 넘는 동안 나는 꼭 한 번 세일러 교복을 입은 시골 여학생이 된 그녀를 만났을 뿐이었다. 나는 너무도 반가웠지만 이상스럽게도 세월과 나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리감 속에서 그 고향의 신작로에서 서먹스럽게 헤어지고 말았다.

시골에 남은 농토를 정리하러 내려갔던 아버지 곁에서 나는 늘 생각나던 그 신작로 위의 땀병과 고무신을 벗어서 붓어 새끼를 담아 들고 발이 따끔거리 질름거리는 것처럼 보이던, 가까웠던 성희와는 전혀 다른 한 여자 고등학생을 만난 것만 같았다. 우린 서먹스럽게 어색한 미소에 안부를 겨우 서로 물었을 뿐, 나쁜 것이나 한 것처럼 서로 황황히 헤어졌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칩추를 다친 친구의 문병을 마치고 나오던 병원의 입구에서, 나는 국화꽃을 들고 들어서는 어른이 되어 버린 성희를 만난 것이었다.

그녀는 늦봄의 햇빛 속에서 참으로 엄청난 경이로움으로 불쑥 내 앞에 마주섰다. 불우물맨 처음 내 시선을 붙잡은 것은 그녀의 어렸을 때부터 늘 있던 왼쪽 불의 불우물이었다. 그 불우물로부터 천천히 커다랗게 확대되어

버린 그 눈빛 속에 빨려들면서 나는 온 몸을 지나 전 발끝과 손끝으로 짜릿하게 퍼져드는 전율에 떨며 나는 겨우 「저 성희…… 성희야냐?」했다. 그녀를 싸고 있던 긴장이 흔들여 떨어지면서 우린 거의 동시 손을 마주잡았다. 그녀는 입술을 씹복였다. 세일러 교복으로 하여 판 사람처럼 느껴지던 성희는 성인이 되면서 다시 옛 어린 시절의 그 얼굴과 눈빛으로 되돌아 간 듯했다. 그것은 꼭 집어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였다. 우리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고 어색스럽게 손을 놓았다.

언어라는 것이 그토록 무기력하고 불안전하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한참만에야 우리는 시선으로 머뭇머뭇하던 작은 찻집을 향했다. 그녀의 손에 들렸던 몇 송이 국화꽃이 손을 마주 잡으며 거기 병원 입구의 잔디 위에 버려진 채 4월의 나른스런 햇볕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누구 문병?」 찻집에 마주 앉으며 내가 물었으나 그녀는 「무사했군요.」 그렇게 말하고는 핑그르르 눈물이 돌아버렸다. 「여전히 울보군」 내가 담배를 꺼내 물자 그녀는 고개를 몇 번이고 흔들며 나를 빤히 올려다 보았다.

성희는 내가 메모대열 속에서 죽었거나 부상을 당했을 것 같은 예감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했다.

「여교 졸업하곤 곧장 서울에 왔지만, 주소도 학교도 알 수가 있어야죠」 「벌써 4년」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깊숙이 담배를 빨아들었다. 「4년 전에는, 그렇게 반가왔으면서 두…….」 갑자기 나는 웃음이 터져서 키들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색 원피스를 보자, 어렸을 때 대문틈으로 치마에 오줌을 싸 주었던 생각이 머리 속을 짹째 지났고,

그녀도 나의 웃음의 연상을 알았는지, 콧부리가 빨갱게 되면서 쿡쿡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의 연상은 슬프고 불행스러운 더 많은 기억들로 해서 우울해졌다. 그녀의 출현이 준 환희로운 기쁨과 많은 죽음들, 수 많은 색깔의 죽음들이 가슴을 지긋이 눌러주는 중압감은 너무 이질적이면서도 결국 같은 동심원 속의 세계였다.

「기억나세요?」 그녀는 핸드백을 열더니 오래된 MI탄피 한 개를 꺼냈다. 「있었을 거예요. 학교가서 애들이 놀려서 내가 담 곁에서 훔쩍거리니까, 이걸 주었어요. 다른 애들이 안 볼 때 얼른 제 손에 쥐어주곤 횡하니 운동장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그 때, 아마 꽤 아팠던 거였을 텐데……, 내게 탄환 껍질을 준 건 그렇게 꼭 한 번이었어요.」 「아, 아!」 나는 갑자기 신음했다. 그 개울둑으로 연결된 학교 뒷길과 운동장 밖으로의 염전, 나는 탄피를 받아 들면서 10년도 훨씬 넘는 시간의 여백들을 짱그리 잊은 채 눈을 감아버렸다.

그 무렵 그토록 많이 모았던 탄피들을 지금의 난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성희는 그것을 핸드백 속에까지 집어 넣고 다니는 것이었다. 「처음 몇 년은 그냥 서랍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희는 내 손 안에서 다시 그 탄피를 가져다가 꿈꾸듯 시선을 모았다.

우리가 급격스럽게 가까워져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세일러 교복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긴장으로 혹은 잠시 현실들로 해서 떨어 있던 두엿부터의 그 공동의식을 되찾은 것에 불과했다. 다만 우리들은 자라 있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고무신에 봉어새끼를 담아 들고 다니거나, 들 한쪽에가 소꿉놀이를 하지 않는 것 뿐이었다.

확실히 성장이란 신비했다. 이성을 의식하

지 않은 채 가까왔던 감정이 조금 자라며 경계로 바뀌고, 더 자라면서 더욱 깊은 흡인력 속에 길이를 알 수 없는 늪으로 끌어들이는 신비로운 마력을 시간은 가지고 있었다.

성희는 무역회사의 사원이었다. 「상업학교였어요」하고 그녀는 옛날 만났을 때의 그녀를 설명해 주었다. 「때로 때는 무서워서 혼났어요. 개구장이었으니까 옛날도」 「이번에도 뭘 앞에 뛰어들었는데, 괜찮았어. 탄환이 나를 비껴서 간 모양이지?」 「하긴 우린 너무 많이 죽음을 보아 왔어요」 「이번에도 많았어 친하던 애들이 쓰러져갈 뻔 마구 악이 바치더군」 우린 때로, 친구들의 죽음을 얘기했고 부상당해 입원해 있는 사람들, 또 그녀 친구의 오빠, 그날 꽃을 들고 찾아가려다 나를 만나버린, 그런 많은 죽음에 관련된 얘기들을 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내가 무사한 걸 신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린, 내가 때론 틈 사이로 그녀의 치마에 오줌을 내갈린 일을 얘기하면서도 그 이후의 어머니의 자살과 그 자살이 빚어진 그 전의 끔찍스런 불행의 회상은 피했다.

그러나 나는 순간순간으로 그녀와 같이 있으면서도 그 무수히 날고 있던 시신 위의 파란빛으로 반짝거리던 수백마리의 파리떼를 연상하고 몸을 떨었다.

그것은 언제나 죽음의 이미지에 연결된 끔찍스러운 연상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 시골 노인들의 죽음이 주던 들뜨고 수선스럽던 분위기와 참으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성희 그녀 자신의 죽음 외엔, 언제나 죽음에서는 그 파란빛 파리떼를 머리 속에 떠올렸다.

「우린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녀가 가끔 강조하듯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혁명으로 인해 가까운 동료들의 죽음으로 가깝게 인식되었던

죽음은 다시 우리와 직접 연관이 없는 먼 곳의 이야기로 조금씩 멀어져 갔고, 죽음이 차지하던 뇌리의 부분엔 그녀에게서 점차 개안이 시작된 이성으로 바뀌어 갔다. 그것은 즐겁고 의욕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자라오면서 줄곧 우중충히 나를 휩싸온 그 죽음이 주던 각종의 그림자 속에서 해방되기 시작하고, 나는 서서히 가슴을 떨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그 평범스러워 보던 사실이 이처럼 엄청난게도 찬란한 가능성이었나에 놀라며 들떠갔다.

그러던 5월의 아침, 성희는 불쑥 바보처럼 죽고 말았다.

도무지 의미를 붙일 수도 없이 그녀는 단 10시간 사이에 잠든 것처럼 하얗게 식어서 내 찬란하던 꿈빛을 퇴색시킬 여유도 없이 숨이 저 버렸다.

「아이구 학생, 병원에 좀 가서 가봐요.」

「병원에틀요?」 「아 글썄, 가스가 세었지 뭐유? 밀짚하던 빵이었는데..., 아이구,」 나는 갑자기 멍청해져 버렸다. 너무 급격한 그녀의 위급 소식은 놀라움을 일으킬 만한 여유가 없었다. 「아침에 시골로 전보를 했는데..., 아이구..., 만약 불행이라두 당하면 이 일을...,」 주인 아주머니는 발을 동동 굴러대고 있었지만 그것은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아 피에로의 표정처럼 우습게만 보였다.

5월의 햇빛은 너무 맑았다. 모든 것은 생기에 넘쳐 있었고, 나는 환희로운 기억 속에서 아직 깨어날 것 같지도 않았다.

그러나 성희의 죽음은 너무도 싱거웠다. 그것은 분노도 공포도 가질 수 없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무의미였다. 연탄가스, 그것도 내가 그녀의 방에서 그녀에게 내 모든 것을 주어버린 바로 그 밤 사이 나는 하얗게 식어

있는 전혀 죽음이 느껴지지 않는 그녀의 시체를 보면서, 지난밤 통금이 다 되어 그녀의 방을 빠져나온 나를 후회하고 있었다. 「제 요리 솜씨 한 번 보실래요?」 그녀가 그녀 혼자 살고 있는 방에 나를 초대했을 때 우린 이미 옛날의 어린애들로가 아닌 어른들로, 더욱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거라는 예감에 한참만에야 고개를 끄덕이었다. 우린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셨고 많은 얘길 했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는 희에서만 맴돌았을 뿐, 우린 취한 것처럼 보다 가까운 확인에의 열망 속에 멀고 있었다.

「늘 숙명 같은 걸 느꼈어요. 사람에게 태어나는 것, 이성을 사랑하는 것, 죽는 것, 그 모두가 일종의 숙명이라는 것을…」 그녀는 서투르게 안고 있는 내 가슴 속에서 오물거리며 멀면서 말했다.

우린 참으로 서로가 너무 서물렀다. 우린 사실 아직 들뜬 감정의 비울만큼 서로가 육체를 사랑할 만큼 성장되지 못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나는 나의 동정과 함께 그녀의 시트를 물들여 버린 빨간 핏자국에서 가슴 속에 차오르는 수 많은 긍정을 보았다. 나도 「사랑해」하고 말했었다. 부끄러움과 희열 속에 꽃잎처럼 빨개진 성희의 육체 속에서 나는 몇 번이고 삶이 자랑스러웠고, 합일이 주는 불안, 짓든 소유의 희생이 주는 찬란한 감정의 무너를 느꼈다. 순간으로 하여 모든 것이 정지되어 버리길 바랄만큼,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강렬한 인식이었다. 「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것은 숙명감이었으니까요.」 단 한번의 확인을 위한 숙명이었을까? 나는 시체실로 옮겨 가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못들은 채 그녀의 시신 곁에 서 있었다.

두려움도 환상도 그렇다고 저 옛날의 전쟁

속에 쓰러져간 죽음들에 느끼던 객관성의 느낌도 없는, 그녀의 죽음 속에 내가 끼어들 수 없었던 현실감에, 어색한 채 창문을 통해 흘러드는 5월의 햇살을 느끼고 있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것은 처음으로 몸을 섞은 남녀는 아침까지 같이 있어야 하는 상식 속에서 그 새벽을 비워두고, 아버지를 염려해서 그 죽음을 빠져나간 내가 우스웠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 죽음이 동시에 있는 나는 혼란과 현기 속에 그녀의 침대 모서리를 붙든채 무릎을 꿇었다. 언제고 죽음이면 연상되던 그 날새고 작은 파리매들이 날아들지 않는 공포나 거리감이 가진 채 창백하게 표백되어 서서히 살아있는 생명 위로 전혀 이질감 없이 덮여오는 또 하나의 죽음보다 강한 환희와 생명의 확인을 동반하고 성희의 죽음이 내 곁에 있었다. 극단의 이질적 상황은 결국 깊은 의미 같은 것일까?

나는 눈부시게 쏟아져드는 햇빛 속에서 그녀를 덮고 있는 흰 시트를 가만히 다시 내리며 끝없는 환각 속을 달려가고 있었다. 고무신짝엔 예쁜 금붕어가 담기고, 우린 바다로 연해 있는 독길에 서 있었다. 우린 마구 기뻐 소리치며 웃고 있었고, 그 위로 한 때의 비둘기들이 무리지어 맴도는 사이로, 상두판들의 노래 소리가 꿈결처럼 행복하게 끝없이 퍼져 들었다.

5월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쟁기 속에 발랄하게 꿈틀거리고, 나는 성희와 손을 잡은 채 그 5월 속에 같이 서 있었다.

— 독자에게 알립니다 —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부지불식간에 적의 전략 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은 책자의 취급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1982년 3월 15일 인 쇄

1982년 3월 20일 발 행

발 행 : 공 군 본 부

편 집 : 정 훈 감 실

인 쇄 : 공 군 교 계 창

<연락처> 전화 : 827-2691, 호-5241

軍人의 길

나는 榮光스런 大韓民國 軍人이다.

하나 : 나의 길은 忠誠에 있다.

 祖國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 나의 길은 勝利에 있다.

 不屈의 鬪志와 戰技를 닦는다.

하나 : 나의 길은 統一에 있다.

 기필코 共產敵을 쳐부순다.

하나 : 나의 길은 軍律에 있다.

 嚴肅히 禮節과 責任을 다한다.

하나 : 나의 길은 團結에 있다.

 指揮官을 核心으로 生死를 같이 한다.



공군의 결의

우리는 자랑스러운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